

경기 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

2006. 2.

경기문화재단

연구진

책임연구원

박상언(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장, 중앙대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공동연구원

이승하(중앙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인)
송은옥(전국문화원연합회 연구원)
민진경(일본 북해도교육대학 예술과정 예술문화코스 아트
매니지먼트연구실 전임강사)

연구보조원

이윤설(시인, 희곡작가)
김현정(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자문위원

정우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 시인)
이광섭(한국문학관협회 사무국장)

차 례

제 1장 연구 개요 (6)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목적 (8)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1. 연구의 내용 (9)
2. 연구의 방법 (10)

제 2장 지역과 지역문학관 (13)

제 1절 이론적 고찰 (13)

1. 지역과 지역문화 (13)
2. 문학관의 역사와 개념 (18)

제 2절 우리나라 지역문학관의 운영 실태 (24)

1. 지역문학관 현황 (24)
2. 프로그램 운영 사례 (32)
3. 대표 사례 분석 :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9)

제 3절 외국의 문학관 운영 실태 (60)

1. 조사 대상 (60)
2. 운영 실태 (61)
3. 국가별 문학관 운영상의 특성과 시사점 (76)

제 4절 일본 문학관 운영의 대표 사례 분석 (80)

1. 사례 분석 :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80)
2. 시사점 (93)

제 3장 경기지역 문학관 정책 검토 (96)

제 1절 경기지역 문화자원 및 문학인 (96)

1. 경기도의 일반 현황 및 문화적 현황 (96)

	2. 경기도의 문화자원 분석 (100)
	3. 경기도의 문학인 현황 (112)
	4. 경기도의 문화부문 종합 역량 (119)
제 2절	경기지역 문학 및 문학관 지원 실태 (122)
	1. 문학 지원 현황 (122)
	2. 문학관 지원 현황 (123)
	3.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정책 검토 (124)
제 3절	경기지역 문학관 운영 실태 (131)
	1. 조병화문학관 (131)
	2. 만해기념관 (141)
제 4절	지역문학관의 위상 및 역할 (146)
	1. 지역문학관의 위상 (146)
	2. 지역문학관의 역할 (151)
	3. 지역문학관의 활용 (160)
제 4장	경기지역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관 정책 (177)
제 1절	문학관 신규 건립 전략 (177)
	1. 문학관 건립 확대의 필요 (177)
	2. 문학관 건립 원칙과 방향 (182)
	3. 문학관 건립 유형의 구분 (188)
제 2절	문학관 건립과 운영의 기본 조건 (192)
	1.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조건 (192)
	2. 문학관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 (193)
제 3절	문학관을 기반으로 한 문학 진흥 방안 (199)
	1. 새로운 문학 정책으로서의 문학관 정책 (199)
	2. 경기지역 문학진흥 프로그램 : 문학관을 기반으로 (203)
제 4절	문학관 운영 매뉴얼 : 초록 (204)
	1. 공간과 조직의 운영·관리 (204)
	2. 지역문화의 거점화 (210)
	3. 지속가능 발전 전략 (214)

제 5장 정책 제언 (218)

제 1절 문학계의 지역문학관 건립 운동 (219)

제 2절 국가의 지역문학관 정책 과제 (219)

1. 문학관 신규 건립 지원 확대 (219)
2. 문학관 관련 법규 구비 또는 개정 (208)
3. 문학관 전문 인력 양성 제도 도입 (221)

제 2절 경기도의 지역문학관 정책 과제 (222)

1. 문학관 관련 조례 제정 (222)
2. 문학관 재정 지원 대폭 확대 (223)

<부록 1> 전국 지역문학관 세부 현황 (224)

<부록 2> 지역문학관(10개) 건립 및 운영 현황 조사표 (258)

<부록 3> 일본 세타가야문학관 조례 (290)

표 차례

- <표 1> 문학관의 지역별 현황 (24)
- <표 2> 개관 연도별 문학관 현황 (26)
- <표 3> 지역문학관 개요 : 운영 중 (27)
- <표 4> 지역문학관 개요 : 건립 중 (30)
- <표 5> 사이버 문학관 현황 (32)
- <표 6>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프로그램 (33)
- <표 7-1>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프로그램 (35)
- <표 7-2>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활용 프로그램 (37)
- <표 8> 경기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97)
- <표 9> 문화공연·전시시설 현황 (97)
- <표 10> 문화복지시설 현황 (98)
- <표 11> 16개 시·도 문화지수 (100)
- <표 12>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102)
- <표 13> 각 문화기반시설당 지역별 주민 수 (103)
- <표 14> 경기도 각 시·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104)
- <표 15> 경기도 시·군별 문화 공연·전시시설 현황 (107)
- <표 16> 경기도 시·군별 문화복지시설 현황 (108)
- <표 17> 경기문화재단의 문학지원 예산 현황 (122)
- <표 18> 2005년 경기지역 문학관의 예산 현황 (123)
- <표 19>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의 문학관 건립 지원 현황 (126)
- <표 20> 문학관 콘텐츠의 분류와 내용 (215)

그림 차례

- <그림 1> 문학관의 지역별 분포도 (25)
- <그림 2> 문학관의 소유주체별 현황 (30)
- <그림 3> 문학관의 운영주체별 현황 (30)
- <그림 4> 황순원문학관의 개념도 (145)

- <그림 5> 문학관이 지역에 가지는 영향 (151)
- <그림 6> 문학관과 연계 활동 대상 (156)
- <그림 7> 문학관의 기능 배분 개념도 (185)
- <그림 8> 문학관의 지역별 모형 (187)
- <그림 9>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한 모형 (200)

제 1장 연구 개요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문학의 위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처음 언명(言明)된 것은 20년 전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훨씬 이전이나 이후라도 좋다. 위기의 원인을 대개는, 물질·기계 문명의 발달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이야기를 표현하고 이것을 소통·소비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첫째로 들고 있다. 문학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속성, 즉 삶과 정신의 아름다운 서사(敍事)를 대신할 수 있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 양식들이 출현함에 따라 전통적 의미의 문학의 지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문학의 위기로 일컫는 것이다.
- 또한 인문학 등 기초학문의 경시 풍조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회 환경 때문에 문학이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문학인들 말고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자, 과연 어디 있는가. 보라, 대중들은 문학이 위기라는 진단에 거의 관심이 없다. 어쩌면 문학의 서사성을 차용하거나 아예 대체해 온 만화·게임·애니메이션·영화와 같은 장르, 오랫동안 제도권 문학이 외면해 왔던 이른 바 무협소설·판타지 소설, 그리고 인터넷소설과 같은 하위장르들이 언젠가부터 엄연한 보편성과 대중성(통속성이라 해도 좋다)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 문학이 그렇게 고개를 숙인다 해도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사장르의 지위는 아직 잃지 않았다는 믿음은 남아 있다. 문학 정책은 먼저 문학의 전통적 권위와 존엄을 회복함과 함께 문학인의 자긍심을 되살려냄을 첫째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문학의 성찰의 대상인 세계와 인간이 변했다. 세계가 인간을, 또 인간이 세계를 변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창작자인 문학인, 매개자인

문예지사와 문학 출판사와 도서관, 그리고 향수자인 국민(독자) 등 기본적인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해 온 그간의 문학 정책도 변해야 한다.

- 우리 한국인의 책 외면 현상은 '책의 사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전국의 대학생들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단 1권의 책(전공서적과 잡지 제외)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65%는 1년에 10권 이하, 즉 한 달에 1권도 채 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서의 질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난해 충청대의 경우 무협 판타지 소설 2편이 각각 최다 대출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권 가운데 무협 판타지 소설이 7권이나 됐다. (문화일보 2006. 4. 22)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독서 실태도 이보다 나을 것이 없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다. 이는 영화 TV관람, 인터넷 게임 등에 하루 평균 5시간 22분을 쏟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의 10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23.7%가 한해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으며, 1인당 한해 독서량은 11권으로 월 평균 1권을 넘지 못했다. 소설가 최일남은 '편리한 컴퓨터 검색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정보'라며, '금방 꺼질 거품 같은 정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뼈를 키우고 살을 붙이는 지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06. 4. 22)

- 국민(독자)들의 책 읽는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훌륭한 문학과 문학 책을 많이 나오게 하고, 또 이를 읽게 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문학 정책의 최일선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세상은 이미 크게 변해 있고 또 계속 변해갈 것이기에, 우리는 문학 정책이 책을 매개로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위의 독서 관련 통계들은 그 작은 한 반증일 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자들은, 1992년 이후 민간에 의해 여러 곳에 세워진 문학관들과 이에 발맞출세라 199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문학관 건립 지원 정책에 주목하고, 문학관의 의의와 문학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한 작은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 1970년대 이후의 지방문화원, 1980~1990년대 이후의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문화의 집 건립 지원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정책에 이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관 건립 지원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부(문화관광부)는 1997년, 1998년, 2000년, 2001년에 각 1곳씩의 문학관 건립을 지원하더니, 2002년 4곳, 2003년 3곳, 2004년 3곳¹⁾, 2005년 6곳, 2006년 6곳의 문학관 건립을 지원하는 등²⁾ 문학관 확충 정책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문학관 건립 정책이 꾸준히 펼쳐지고 있는 속에서도 문학관에 대한 관점의 혼선과 철학의 부족은 여실히 드러나고 만다. 문학관 관련 법 제도의 미비가 그것이다. 먼저 이를 지적함과 아울러 문학 정책의 새로운 한 틀거리를 제안하고자 함이 이 연구의 첫째 목적이다.
- 이러한 문학관 관련 법 제도의 미비는 문학관의 의미화(意味化)에 결정적인 장애가 됨으로써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여러 현실적인 한계와 난관에 부딪게 된다.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어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문화기반시설로서, 문학 정책 전개를 위한 한 수단이자 공간으로서, 그리고 문학 자체에도 크게 기여하는 살아 있는 문학 저수지(貯水池)로서의 문학관의 의의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문학관 지원 정책 당국자와 문학관 운영자·종사자들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함께 일깨우고자 하는, 즉 문학관의 의미화가 이 연구의 둘째 목적이다.
- 문학관의 의미화 작업은 일단 관련 법 제도의 구비로 일차적인 매듭을 짓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문학관의 의의와 문학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인 합의와 인식이 형성될 것이다. 굳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지 않고 경기지역 문학관 정책을 다루고자 하는 이 연구의 범

1) 재해복구비(23,000천 원)만 지원된 이효석문학관은 제외하였다.

2) 이 가운데 2002년, 2006년 각 1곳씩(채동선기념관, 박동진기념관)은 음악관 건립 지원이며, 2005년 1곳(김남주문학관)은 사업이 취소되었다.

위에서만 살펴보더라도, 경기도의 경우 2004. 12. 31 현재 박물관 55개, 미술관 13개, 문예회관 19개, 문화의 집 17개가 세워져 운영 중에 있는데 비해 문학관은 단 2곳(조병화문학관, 만해기념관)만이 있을 뿐이다. 문학 장르의 거의 유일한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문학관을 짓는 일이 문화계, 또는 문학계의 문화운동 중 하나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예로부터 특히 많은 문학적 자산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 경기지역 문학인들과 문인단체들이 그 맨 앞 한 가운데에 섰으면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셋째 목적이다.

- 그러나 이들 연구의 목적 세 가지는 목표와 수단의 연쇄(means-ends chains) 또는 계층(mean-ends hierarchy)의 관점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중간 단계의 수단적 목표(Instrumental Goal)일 뿐이다. 따라서 그 상위의 궁극적인 목적(Ultimate Goal)은 따로 있으며, 그것은 바로 문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즉 이 연구는 디지털 혁명, 주 5일 근무제 등 여러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국민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경험할 기회를 크게 확대하기 위하여 문학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문학의 진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수렴해 가자는 것을 마지막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 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 이 연구는 경기지역 문학관 정책 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 소재한 문학관은 2곳뿐이라서 먼저 다른 지역의 문학관 운영 실태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주요 문학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통계와 자료를 통해 경기지역의 문화 역량을 분석·확인함과 아울러 경기지역의 문학 지원 현황, 중앙정부의 문학관 정책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과 확인과 조사를 통하여 문학관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영향, 문학관의 현실

적인 위상과 역할, 그리고 사회 교육의 장, 문학 향수의 공간,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 장소마케팅의 대상 등 문학관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룰 것이다.

- 또한 지금까지 변화해 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갈 여러 환경들은 경기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문학관의 신규 건립을 크게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문학관 건립 확대의 원칙·방향·유형, 기본 조건들과 초록 형식의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미 운영되고 있는 문학관은 물론 새로이 세워질 문학관은 그 기능과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여 전문화·특성화해야 함과, 경기지역에 세울 필요가 있는 새로운 문학관들은 ‘이런 것’이어야 함을 아주 거칠게나마 제안하게 된다.
- 문학관은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한 모형이며, 단순한 문화·관광시설이 아니라 문학 창조와 향수와 매개가 함께 어울리고 뒤섞이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 제안 형식으로, 국가는 지역문학관의 신규 건립 지원 계획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법규를 구비하며,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밝힌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의 지역문학관 건립 운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문학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 문학 활성화의 기반을 다짐과 함께 다른 지역의 문학관 정책 전개에 도화선이 될 것 등을 주장한다.

2. 연구의 방법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학관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하므로, 이 연구는 처음부터 선행 논문 등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다만 전상국(소설가, 김유정문학촌 총장), 김성중(소설가, 추리문학관 관장) 등 문학관 운영 관계자들의 고백적인 글들과, 구인환(「문예운동 제1과 제1장(문학관의 건립과 창작 지원을 위하여)」, 계간 『문예운동』 1999. 봄), 하우백(「한국의 문학관, 그 현황과 실태」, 월간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1. 8월), 고명철(「지역

의 문화적 진지로 구축되어야 할 문학기념관, 평론집 『칼날 위에 서다』, 실천문학사, 2005) 등 애정 어린 몇 편의 짧은 글들은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 큰 위안이 됨과 함께 연구 의지를 굳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지역문학을 다룬 여러 연구서들의 경우 문학관 자체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지만, 지역문학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현장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주요 문학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조사(2005. 11월)된 여러 문학관들의 최근 실태는 특히 소중한 참고가 되었다. 또한 외국의 주요 문학관의 실태는 외국 문학 전공자들의 도움을 받아 개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나, 주로 단순한 자료와 데이터에 치중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확인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다만 윤학로·김점석의 「아라공 문학관의 운영 사례 연구」(『프랑스학연구』 제30권, 2004년 가을 별쇄본, 프랑스학회, 2004)는 이번 연구 중 많은 것들을 채워주었다. 일본 문학관의 경우 일본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공동연구자 중 한 사람이 직접 5곳을 방문 및 인터뷰하여 현장의 분위기는 물론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일본 문학관의 운영 실태를 통하여 중요한 것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 무엇보다 “국내의 문학관 설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문학관의 운영에 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³⁾며, 프랑스의 문학관에 관한 일련의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 윤학로·김점석의 관련 논문 4편, 즉 「아라공 문학관의 운영 사례 연구」(『프랑스학연구』 제30권 별쇄본, 2004), 「문학관 설립을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연구」(『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2집, 2004), 「프랑스 문학관의 설립 배경과 발전 과정」(『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4집, 2005),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 현황과 전망」(『한국프랑스학논집』 제51집 별쇄본, 2005)은 이번 연

3) 윤학로·김점석, 「프랑스 문학관의 설립 배경과 발전 과정」(『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4집, 2005; 165쪽(이하 ‘윤학로·김점석, 앞의 논문, 2005b’라 표기))

구의 공시적(共時的)·통시적(通時的) 통찰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논문 4편의 내용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이 연구의 곳곳에 소중하게 자리잡고 있다. 윤학로·김점석은 현재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본 문학관 운영모델 개발과 에코뮤제로의 발전 가능성 연구 - 김유정 문학촌과 이효석 문학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 한편 꼭 문학관이 아니더라도 여타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에 관한 기왕의 여러 연구보고서들은 지역문학관의 의미화(意味化)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문학관과 그 정책을 소재와 제재로 하는 연구이기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에서 수립한 여러 계획들과 연구서들을 참고하였지만, 워낙 문학관에 관한 도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전무한 상태라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경기도, 2004) 등 관련 계획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사고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 이 연구는 몇 가지 방법적인 한계와 숙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는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마저 생략되었다는 점인데, 이는 문학관의 경우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과 달리 처음부터 그 콘텐츠의 내용이 완전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경기지역 문학관의 수가 2곳밖에 없는 데다 문학관 자체에 대한 법 제도가 워낙 미비하다 보니, 현 문학관의 운영 활성화보다는 문학관의 의미화라는 기본적인 작업과 함께 부지런히 더 세워 나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승(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마지막으로 문학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발맞추어, 문학관을 세우고 문학을 살리고 국민들의 문학적 경험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짜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고 말았다.

제 2장 지역과 지역문화관

제 1절 이론적 고찰

1. 지역과 지역문화

가. 지역의 개념

- 지역 혹은 지방은 중앙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중앙을 키우고 지방을 누르는 정책을 펴왔다. 평안도 지방의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면 그 쪽 지방 출신을 관리로 등용하지 않는 식이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엄혹한 귀양지라는 발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중앙을 키우고 지방을 누르는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재임 기간 중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 7월 4일이었다. 지방자치에 관한 이 법은 5·16군사혁명 후 사문화되어 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고, 제6공화국 시절인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다시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수도 서울에 정치·경제·문화·예술 등이 집중되었다. 서울은 중앙, 지방은 변방이라는 개념은 중앙 집중 방식으로 통치하기에 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지방 살리기의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자 1988년 4월에 전문 10장 162조 및 부칙 11조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12월에 개정되었다.
- 이렇게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였다. 그리고 1995년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에 의해 단체장들이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즈음부터 '지역'이라는 용어가 예전보다 더욱 많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지역개

밭, 지역구, 지역단체, 지역문화, 지역문학, 지역대표제, 지역사회 등 지역이 들어가는 용어도 무척 많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이란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나 '땅의 경계', '일정한 특징을 가진 공간 영역'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즉 지역을 일정한 지리적 영역(area)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역사·문화·경제·사회적 동질성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광범위한 영역'⁴⁾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인 지방(region)으로 다뤄졌다.

- 동서의 개념을 합치면 '개개인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공동체적 체험이 녹아 있는 공간'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은 개인과 집단의 오랜 경험과 동시대적인 욕구가 '지금'이라는 시간과 접목되는 지점이며, 동시에 개인의 욕구와 국가의 지향이 만나는 하나의 '지점'이기도 하다. 오늘날 '지방'은 정치적인 범주를 말하는 용어로, '지역'은 지리적인 영역을 말하는 용어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용어가 '지방자치'이며, 후자는 대표하는 용어가 '지역문화'이다.

나. 지역문화의 의미

- 우리 민족은 5천 년 역사를 간직해오면서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문화민족이다. <한국미술 5천년 전>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바 있으며, 사물놀이나 난타공연 같은 것을 할 때 엄청난 관객이 오고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에서도 이 점은 확인이 가능하다. 백남준 같은 미술가, 윤이상 등 현대음악 작곡가, 임권택이나 이창동 같은 영화감독, 정명훈 같은 지휘자, 조수미와 신영옥 같은 세계적인 성악가 외에 연주자의 이름까지 나열하자면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도 모자란다. 그만큼 예술 방면에 인재가 많이 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4) 김용웅 외, 『지역발전론』, 도서출판 한울, 2003; 19~20쪽.

5) 최수용, 「지역문화 운영 실태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4권 제1호, 2005; 32~33쪽.

- 그러나 88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제전을 개최하면서도 다른 나라처럼 문화올림픽, 문화월드컵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그래서 21세기인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문화 콘텐츠의 개발, 문화 인프라의 구축, 문화재의 정리와 홍보 등이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지하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로서는 문화유산의 보존만큼이나 콘텐츠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아주 큰 걸림돌이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이다. 제6공화국 때까지 지역개발이란 지방의 어느 지역을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로 개발하는 것이었고, 문화는 서울이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이렇게 서울만 커온 기형적인 문화 형태는 지역성(locality)이 강조되는 21세기의 특징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 지역문화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각종 문화행사는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중앙, 곧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화 하면 충무로, 연극 하면 대학로, 화방 하면 인사동인 식이라 지역문화는 기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월드컵경기장 공사가 한창일 때인 2000년, 지역주민의 불멘소리를 접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여 지역문화 살리기에 나서기도 하였다.
- 그러나 지역문화의 해에 거둔 가시적인 수확물은 별로 없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앙정부 및 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지역적 특색이 고루 배려된 정책 추진이 어려웠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지역문화에 대한 접근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시설의 절대수 부족과 지역별 격차가 심했고, 지역민의 수용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 문화공간 운용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배려가 약했고, 지역문화 특성화와 다양화 추구에 기반이 되는 지역 문화자원 개발 및 관련정보 공유체계 정립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에의 정책적 배려가 약했고, 지역간 전문 인력 수급상의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다섯째, 재원의 확충과 분배에 관한 문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⁶⁾

- 한마디로 말해 자금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고, 사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식으로는 지역문화 살리기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문화 살리기 운동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 어쨌거나 지역문화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던 셈이다.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의 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바야흐로 지역문화 활성화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각종 문화시설이 증가하였고, 문화 향수권이 증대되었으며, 지역축제로 대표되는 지역문화의 산업화도 촉진되었다. 그러나 전문성 결여와 예산 부족, 제도적인 역할의 미부여 등으로 ‘시설은 있으나 프로그램이 없는’ 전시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의 낮은 가동률에서 입증된다. 또한 지역마다 시행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경우도 그 수효와 종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례적인 행사로 마감되면서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 오늘날에는 지역의 발전은 곧 지방문화의 발전이고, 지방문화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문화발전과 경제발전을 별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접근해야 한다.⁶⁾ 지방문화를 육성·발전시키면 고스란히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지역의 특산물 개발이나 관광자원 개발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발 벗고 나선 지 오래인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하고 있다.

6)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 예술의 힘』 (요약본), 문화관광부, 2004; 86~87쪽.

7) 정광렬, 「지역문화 정책과 국가 문화발전과의 관계」, 『지역의 비전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225쪽.

다. 지역문학관의 일차적 의미

-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이 가장 심한 것은 사실상 문학이다. 문예지의 80%가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다. 『2005년 문예연감』을 보면 2004년에 서울에서 발행된 문학잡지의 수가 154권인데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전체 지방에서는 50권이 발행되었다. 즉 서울에서 76%가 발행된 것이다. 특히 시상식을 포함한 각종 문학행사는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행되고 있다.
- 정보통신의 시대가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문학의 대중적 확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단 구조, 문인 조직, 문학인 단체, 출판사 등을 따져볼 때 지방분권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지역에 세워져 있거나 세워질 예정인 지역문학관의 의미는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 ‘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의 문학이라고 하여 소외지대나 변방으로 치부할 수 없다. 지방 어느 대도시 할 것 없이 문학 계간지가 한두 종씩은 나오고 있고, 문인협회나 작가회의 지부의 기관지와 동인지의 수는 실로 엄청나다. 재정적으로는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지역마다 문학 향유층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문학 애호가들과 문학가 지망생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문학관의 의미는 더욱 새로울 수밖에 없다.
- 문학관과 문학기념관은 그 개념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문학관’이 작가와 시인 및 문학 전반에 걸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문학기념관’은 특수한 지역에서 어느 한 작가·시인의 생애와 그 작품의 가치를 기리며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좁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문학관이 갖는 본래의 기능 면에서 본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⁸⁾ 그럼, 문학관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8) 전상국, 「문학관 운영의 실태와 과제」, 《2004년 한국문학관협회 실무자 워크숍》 자료

2. 문학관의 역사와 개념

가. 문학관의 역사

-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관은 1992년 부산에서 문을 연 추리문학관이다. 일본의 문학관 역사는 그보다 30년 앞선 1962년에 일본근대문학관이 설립됨으로써 시작되며, 프랑스의 경우 빅토르위고박물관이 세워진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에서 문학관의 개념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윤학로·김점석은 도미니크 페티 Dominique Péty 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고 있다.⁹⁾ 즉 1) 18세기 중반부터 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사실과, 2)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히 예술가들의 사생활을 통해 작품세계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음과, 3) 작가의 삶과 작품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읽어내고자 한 생트뵈브와 텐느의 영향을 든다. 이렇게 프랑스의 경우를 통해 문학관 역사를 더듬어보면 다음과 같다.
- 20세기에 들어와서 문학관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일 먼저 문제시되었던 것은 ‘문학관’ 자체라기보다는 ‘문학을 전시한다’는 문제였다. 전시라는 행위는 박물관과 함께 19세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확장된 형태로서의 <만국박람회>는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 각지로 널리 퍼져 나가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만국박람회는 모든 인간 활동의 산물을 전시해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문학은 이 축제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었다. 몇 년 후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총책임자였던 알프레드 피카르가 만국박람회의 결산 보고서에서 ‘문학은 만국박람회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될 수도 없다고 단언하기에 이른다.’¹⁰⁾

9) 윤학로·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67~168쪽에서 재인용.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논문을 참조하라.

10) 윤학로·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68~169쪽

- 그럼에도, 1900년 만국박람회 이후 문학계 내부에서 문학과 전시예술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성과는 1920년대에 열린 몇 차례의 초기 문학 전시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최초의 의미 있는 문학 전시회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은 1920년 그르노블의 스탕달 전시회이다. 이 전시회의 목표는 1) 작가에 대한 연구를 돕기 위해 작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 보인 다, 2) 작가를 둘러싼 환경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는 상당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문학관과 문학 전시회가 지향할 방향을 보여주게 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유명 작가들에 대한 문학 전시회가 곳곳에서 열리게 된다.¹¹⁾

- 문학과 전시예술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틀이 제시된 것은 1937년의 파리 만국박람회에 이르러서였다. 1936년에 수립된 인민전선의 좌파정부는 문화의 대중화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프랑스 문화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는 문화 민주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데, 문학을 전시예술과 결합한 1937년의 만국박람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문학박물관 Musée de la littérature’이라는 이름의 문학 전시회가 최초로 박람회의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다.¹²⁾

- ‘문학박물관’은 1937년 만국박람회가 거둔 가장 놀라운 성과로 평가받았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도 만만치 않았다. 논쟁의 핵심은 ‘문학이라는 예술을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것이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문학박물관이 ‘대중에게 문학을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든지, ‘여가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대중들을 위한 것’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반화된 문화의 위험성’을 들고 나와 맞섰다.¹³⁾

- 이 논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문학박물관’의 첫 번째 성과는 문

11)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69쪽

12)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70쪽

13)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70쪽

학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며, 그 방식은 보다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서 '독자'가 아니라 '대중'의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성과는 '문학 창작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독자, 혹은 대중들은 문학 창작의 최종 단계인 책을 통해서만 문학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반면, '문학박물관'은 독자들이 문학 창작이라는 내밀한 작업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⁴⁾

- 이후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프랑스 문학관은 1937년 박람회를 밑받침했던 중심사상인 '문학 창작 과정'에 접근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학관은 이름 그대로 문학 분야에 국한된 활동을 수행했다. 국가나 지방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미미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학관은 지역민간단체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학관의 숫자는 시대에 따라 큰 기복 없이 꾸준히 늘어났다.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각각 4군데, 3군데, 3군데 문을 열었던 문학관의 수는 50년대 7군데, 60년대 10군데, 70년대 8군데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 시기 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도 사실상 19세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대한 작가의 집을 찾아 그에 대한 '경배'를 표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다시 느껴보는 정도였다. 이 시기의 문학관들은, 몇 가지 소장품을 유리 상자 속에 넣어두는 고전적인 전시 형식에 머물러 있었으리라는 점은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¹⁵⁾

- 프랑스에서 문학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이 모색되었던 것은 사회당이 집권했던 1981년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는 문학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이 모색되던 시기였다. 인민전선 정부 이후 오랜만에 다시 권력을 장악한 프랑스 좌파는 대중들을 위한 문화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사회당 정부의 정책은 대형 문화시설의 대규모 보수 및 설

14)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70~171쪽

15)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71~172쪽

립 사업을 골자로 하는 ‘대역사 Grands Travaux’ 정책과 문화행정 분야의 지방분권화 Décentralisation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¹⁶⁾

- ‘대역사 계획’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문화사업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박물관과 전시 예술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러한 박물관 분야의 전반적인 성장과 박물관 관람객의 급격한 증가는 문학관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20세기 초부터 1980년까지 개관한 문학관의 수는 40개인 데 반해, 1980년 이후 1992년까지 12년 동안 개관한 문학관의 수가 24개 이른다. 또 기존의 문학관들도 이 시기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벌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샤토브리앙 Chateaubriand 문학관, 발자크 Balzac 박물관 등이 이 시기에 새롭게 단장한 대표적인 경우이다.¹⁷⁾
- 1981년 사회당의 집권과 더불어 제정된 지방분권화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인력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지방정부들은 문학관이 가지는 두 가지 장점에 주목하게 된다. 첫 번째는 유명작가와 그 작품이 지역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이며, 두 번째는 지역관광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문학관의 가능성이다.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 거주했던 작가들의 집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일이었다. 오랜 중앙집권 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롭게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문학관은 지역 정체성 확립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의 언어로 그 지역의 사람들과 풍경에 대해 이야기 한 문학작품이야말로 지역 정체성의 가장 좋은 뼈대였기 때문이다.¹⁸⁾
-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문학관에 대한 관심을 정부 차원에서 관

16)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73쪽

17)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73~174쪽

18)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74쪽

리하고 지원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1990년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 Jack Lang 은 예술가, 작가, 유명인사의 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게 하여 문학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와 유명인사들의 고택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이어 1996년에 의뢰한 또 다른 보고서는 문학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에서는 1996년의 보고서가 보다 발전된 면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문학관들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두 번째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협회 조직 건립'은 1998년 <프랑스문학관협회>의 결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협회는 현재 프랑스 문학관을 연결하는 중심점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문학관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¹⁹⁾

나. 문학관의 개념

-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뜻은 '작가(=문학가)의 삶과 창작의 기억과 자취들을 간직하는 곳'이다. 한 작가가 태어났거나 오래도록 또는 일정 기간 살았던 곳에, 그의 작품 활동 중의 유·무형 흔적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문화시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은 작가의 흔적이 전혀 다른 곳에 존재했을지라도 이를 보존하고 간직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된 별도의 종합적인 시설(예를 들면, 한국현대문학관, 일본근대문학관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문학 창작 집필실(예를 들면, 백담사만해마을, 토지문화관)도 문학관 범주에 넣고 있다.²⁰⁾
- 우리나라에서 흔히 '문학관'이라 부르는 시설을 프랑스에서는 '작가의 집 Maison d'écrivain'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미셸 므로 Michel Melot 는 1996년에 문화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작가의 집은 역사적

19) 윤학로·김점석, 앞의 논문, 2005a; 177~178쪽

20) 이러한 점은 작가들에게 창작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발전의 하나로 계획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알퐁스 도데 Alphonse Daudet 문학관이 한 예이다. (윤학로·김점석,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 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2005b; 427~428 참조)

건물이나 박물관일 수도 있고 도서관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일 수도 있고 그 중 아무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만큼 문학관이라는 문화시설을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어렵다²¹⁾는 것이다. 프랑스문학관협회가 <작가의 집과 문학유산 협회 Fédération Nationale des Maisons d'écrivains et des littéraires>라는 명칭을 선택한 것은 '집'에 포함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문학유산'이라는 개념에 포함²²⁾시키고 있다.²³⁾

- 이제 점점 많은 수의 문학관들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나 순수 문학 활동보다는 문화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프랑스 아라공문학관 관장인 베르나르 바쇠르는 최근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서 문학관을 '문학과 독서, 책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촉의 욕구를 출현시키고 신장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대중들에게 열린 모든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 또한 쥘 베른 Jules Verne 문학관장 장 폴 드키스는 '보다 발전된 문화 공간'으로서의 '제2세대 문학관'을 주장하며,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정의하고 구분 짓던 시기는 지나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규정해야 한다²⁵⁾고 말한다.
- 문학관은 전시·관람을 기본적인 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관람객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철저한 보안장치 속에 갇힌 낡은 유물의 감상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박물관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문학박물관은 그 소장품의 성격상 애초부터 대중의 참여를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럼

21) 윤학로·김점석,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 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2005; 415쪽(이하 '윤학로·김점석, 앞의 논문 2005b'라 표기)

22) 윤학로·김점석, 앞의 논문, 2005b; 416쪽

23) 윤학로·김점석은 앞의 논문, 2005b; 418쪽에서, 실제 프랑스문학관협회 홈페이지에는 2004년 6월 현재 288군데 문학관이 올라 있는데, 288군데 모두 엄밀한 의미의 문학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24) 윤학로·김점석, 앞의 논문, 2005b; 426쪽

25) 윤학로·김점석, 앞의 논문, 2005b; 427쪽

점에서 문학관은 단순히 문화와의 ‘접촉’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참여’를 태생 조건으로 하는 문화기관이다.²⁶⁾ 또한 문학관을 박물관으로 볼 것인가, 도서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유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다.²⁷⁾

제 2절 우리나라 지역문학관의 운영 실태

1. 지역문학관 현황

가. 운영 중

- 1992년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문학관은 2006년 5월 1일 현재, <표 1> 및 <그림 1>과 같이 서울에 5개, 부산에 2개, 경기도에 2개, 강원도에 5개, 충청도에 4개, 전라도에 8개, 경상도에 7개 등 총 33개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적으로는 고루 분포해 있는 편이지만 인구가 과밀한 경기도 지역에 2개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²⁸⁾

<표 1> 문학관의 지역별 현황 (2006. 5. 1 현재)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33	5	2	-	-	-	-	-	2	5	4	8	7	-

26)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5b; 430쪽

27) 윤학로 · 김점석, 「아라공 문학관의 운영 사례 연구」, 『프랑스학연구』, 2004; 566쪽(이하 ‘윤학로 · 김점석, 앞의 논문 2004a’라 표기)

28) 도서관 등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문학관으로서의 단독 활동이 없는 박두진문학관(경기도, 안성도서관), 신봉승문학관(강원도, 강릉시립중앙도서관), 향토문학관(대구, 서부도서관), 오월문학관(광주, 향토문화관) 등은 통계에 넣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여성문학관(서울, 숙명여대도서관), 박화성기념문학관(전라도, 목포문화원)의 경우, 한국문학관협회의 회원관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점을 감안하여 통계에 넣었다.

○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역문학관의 연도별 개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개관 연도별 문학관 현황

(2006. 5. 1 현재)

연 도	문 학 관 명	개 소
1992	추리문학관	1
1993	조병화문학관 / 한무숙문학관	2
1994	-	0
1995	박화성문학기념관	1
1996	-	0
1997	한국현대문학관	1
1998	만해기념관	1
1999	토지문화관	1
2000	세계여성문학관 / 청마문학관 / 한국가사문학관	3
2001	경남문학관 / 미당시문학관 / 영인문학관 /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 채만식문학관 / 한국문인인장박물관	6
2002	구상문학관 / 김유정문학촌 / 이주홍문학관 / 이효석문학관	4
2003	난고김삿갓문학관 / 백담사만해마을 / 아리랑문학관 / 원서문학관 / 조태일시문학기념관	5
2004	이육사문학관 / 혼불문학관	2
2005	김달진문학관 / 농민문학기념관 / 마산문학관 / 정지용문학관	4
2006	동리·목월문학관 / 최명희문학관	2
	1992 ~ 2006년도	33

○ 한편 각 지역문학관의 대표와 관장, 소유와 운영 주체 등 개별적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문학관 개요 : 운영 중

(2006. 5. 1 현재)

[서울] (5)

지역	문학관명	개관	대표/관장	소유/운영	비고
중구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 서울 www.imhs.co.kr	2001	김후란 /-	사단법인 /(사)문학의집서울	
용산구	세계여성문학관 wowlic.sookmyung.ac.kr	2000	- /이춘실	학교법인 /숙명여자대학교	
종로구	영인문학관 * 박물관협회 회원 www.youngin.org	2001	강인숙 /강인숙	개인 /개인	
중구	한국현대문학관 * 박물관협회 회원 www.kmlm.or.kr	1997	전숙희 /-	재단법인 /(재)한국현대문학관	
종로구	한무숙문학관	1993	구명숙 /김호기	재단법인 /(재)한무숙재단	

[부산] (2)

지역	문학관명	개관	대표/관장	소유/운영	비고
해운대구	추리문학관 * 전문도서관 www.007spyhouse.com	1992	김성중 / -	개인 /개인	
동래구	이주홍문학관	2002	강남주 /남송우	사단법인/ (재)이주홍문학재단	

[경기도] (2)

지역	문학관명	개관	대표/관장	소유/운영	비고
광주	만해기념관 * 박물관협회 회원 www.manhae.or.kr	1998	- /전보삼	개인 /개인	

안성	조병화문학관 www.poetcho.com	1993	조진형 /김용정	개인 /개인	
----	---------------------------	------	-------------	-----------	--

[강원도] (5)

지역	문학관명	개관	대표/관장	소유/운영	비고
춘천	김유정문학촌 www.kimyoujeong.org	2002	- /전상국	춘천시 /예맥(소셜동인)	
인제	백담사만해마을 www.manhae.net	2003	조오현 / -	재단법인 / (재)만해선양회	
영월	난고김삿갓문학관 www.ywtour.com/kor	2003	영월군수 / -	영월군 /영월군	
평창	이효석문학관 www.hyoseok.org	2002	평창군수 / -	평창군 /평창군	
원주	토지문화관 www.tojicul.or.kr	1999	박경리 /김영주	재단법인 / (재)토지문화재단	

[충청도] (4)

지역	문학관명	개관	대표/관장	소유/운영	비고
영동	농민문학기념관	2005	- /이동희	개인 /개인	
제천	원서문학관	2003	- /오택번	개인 /개인	
옥천	정치용문학관 www.oc.go.kr	2005	옥천군수 /이재하	옥천군 /옥천군	
예산	한국문인인장박물관 www.writerstamp.pe.kr	2001	이재인 / -	개인 /개인	

[전라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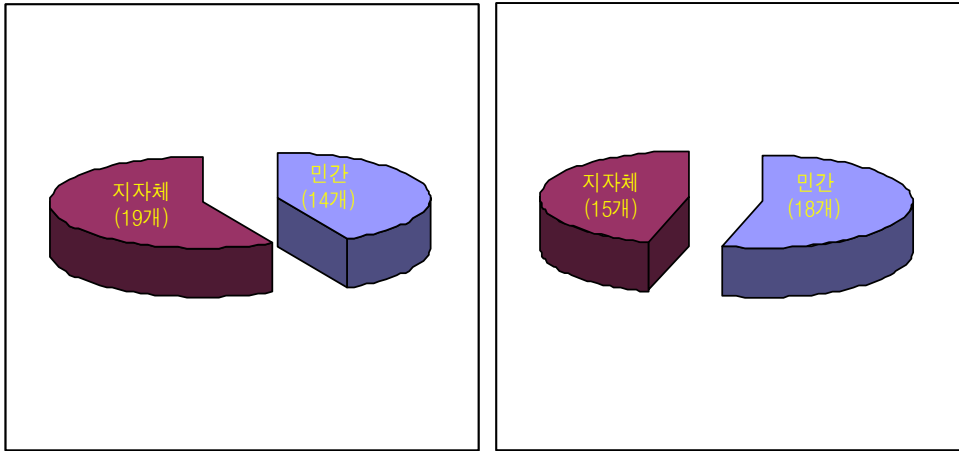
지역	문학관명	개관	대표/관장	소유/운영	비고
고창	미당시문학관 www.seojungju.com	2001	고창군수 /정원환	고창군 /(재)미당시문학관	
목포	박화성문학기념관 www.mokpo.go.kr	1995	목포시장 /김평규	목포시 /목포시	
김제	아리랑문학관 www.rice.egimje.net	2003	김제시장 / -	김제시 /김제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 www.gokseong.go.kr	2003	곡성군수 / -	곡성군 /곡성군	
군산	채만식문학관 www.chaemansik.gunsan.go.kr	2001	군산시장 / -	군산시 /군산시	
전주	최명희문학관	2006	혼불기념 사업회장 /장성수	전주시 /혼불기념사업회	
담양	한국가사문학관 www.damyang.go.kr	2000	담양군수 /정태수	담양군 /담양군	
남원	혼불문학관 www.honbul.go.kr	2004	남원시장 / -	남원시 /남원시	

[경상도] (7)

지역	문학관명	개관	대표/관장	소유/운영	비고
진해	경남문학관 www.gnmunhak.com	2001	- /정목일	진해시 /경남문인협회	
칠곡	구상문학관	2002	칠곡군수 / -	칠곡군 /칠곡군	
경주	동리·목월문학관	2006	경주시장 / -	경주시 /경주시	
마산	마산문학관	2005	마산시장 / -	마산시 /마산시	
안동	이육사문학관 www.264.or.kr	2004	안동시장 / -	안동시 /안동시	
통영	청마문학관 www.gnty.net/literature	2000	통영시장 / -	통영시 /통영시	
진해	김달진문학관	2005	진해시장 /이성모	진해시 /진해시	

○ 또한 33개의 문학관 중 19개(57.6%)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42.4%)는 민간이 건립 및 소유하고 있다. 민간 소유의 문학관 14개와 지자체 소유의 문학관 4개 등 모두 18개의 문학관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탁 등의 형식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문학관은 김유정문학촌(소설동인 예맥), 미당시문학관(재단법인 미당시문학관), 최명희문학관(혼불기념사업회), 경남문학관(경남문인협회) 등 4곳이다.



<그림 2> 문학관의 소유주체별 현황 <그림 3> 문학관의 운영주체별 현황

나. 건립 중

<표 4> 지역문학관 개요 : 건립 중

(2006. 5. 1 현재)

[부산] (1)

지역	문학관명	완공 예정	일반 현황	비고
금정구	김정한문학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9.14 국고교부(05.12 착공) 사업기간 : '05~'06 	국고:2.5억원

[인천] (1)

지역	문학관명	완공 예정	일반 현황	비고
강화	강화문학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희(수필)를 중심으로 지역 문인 대상의 문학관 설립 예정 	국고:1억원

[경기도] (1)

지역	문학관명	완공 예정	일반 현황	비고
양평	황순원문학관 <소나기마을>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 추진 중 	

[강원도] (2)

지역	문학관명	완공 예정	일반 현황	비고
강릉	김동명문학관	2006	○ 2005.11.25 국고교부 ○ 사업기간 : '05~'06	국고:1.5억원
인제	박인환문학관	2006	○ 2005.11.17 국고교부 ○ 사업기간 : '05~'06	국고:2억원
화천	월하리태극문학관		○ 건립 준비 중	

[충청도] (3)

지역	문학관명	완공 예정	일반 현황	비고
홍성	만해문학체험관	2007	○ 2005.3.9 국고교부 ○ 사업기간 : '05~'06	국고:4.5억원
부여	신동엽문학관	2006	○ 부지 640평, 연면적 100평 ○ 전시실, 문학교실, 관리실 등	국고:3.7억원
보은	오장환문학관	2006	○ 부지 203평, 연면적 32평 ○ 영상관, 전시실, 세미나실 등	국고:2.5억원
충주	충주문학관	2006	○ 2005.3.28 국고교부 ○ 사업기간 : '05~'06	국고:1.5억원

[전라도] (4)

지역	문학관명	완공 예정	일반 현황	비고
무주	늘인문학관	2006	○ 2005.10.12 국고교부 ○ 사업기간 : '05~'06	국고:5억원
부안	석정문학관	2006	○ 부안군 선운리 560번지	국고:4억원
순천	정채봉문학관		○ 건립 추진 중	국고:1.9억원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2006	○ 건립 추진 중	

[경상도] (2)

지역	문학관명	완공 예정	일반 현황	비고
----	------	----------	-------	----

사천	박재삼문학관	2007	○ 건립 추진 중	국고:1.8억원
영양	지훈문학관		○ 건립 추진 중	

다. 사이버 문학관 현황

○ 인터넷 웹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학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사이버 문학관 현황

(2006. 5. 1 현재)

문학관명	홈페이지 주소	비 고
황순원 사이버문학관	○ 홈페이지 http://www.soonone.com ○ E-mail soonone@soonone.com	○ 주소 : (130-701)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 내 청운관 (종합강의동) 206호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건립추진위원회
동인지 문학관	○ 홈페이지 http://donginji.kcaf.or.kr ○ E-mail donginji@arko.or.kr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전당 내 예술정보관(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문화예술정보서비스 ○ 전화 : 02)760-4685

2. 프로그램 운영 사례

가. 주요 프로그램 현황

○ 문학관은 지역 출신 문학과 지역과 연관된 문학작품을 매개로 설립, 문학예술의 학습과 감상 공간으로 시민과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문화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문인들의 생가나 소설의 무대 등 지역과 관련이 있는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문학관은 자체적으로 창작교실을 운영

하기도 하고, 이런 창작교실을 통해 문학교육을 확대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 문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 그 동안 우리나라 문학관은 주로 상설 소장자료 전시, 각종 기획 전시, 문학강좌, 창작교실, 백일장, 작품 낭송회, 학술세미나, 추모제, 문학상 시상, 문학축제 등을 해 왔으나, 앞으로 문학관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2곳 밖에 안 되지만 문인들에게 창작집필실도 더 많이 제공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 2005~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프로그램

분 류	단체명	대 표	지원대상사업
문 학 제	김유정문학촌	전상국	제3회 김유정문학제
	한국문인인장박물관	이재인	예산문학축제
	박화성문학기념관	김평규	소영 박화성 추모 문학제
	구상문학관	배상도	구상 예술제
	미당시문학관	박우영	국화향 문학제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 서울	김후란	자연 사랑 문학제
낭 송	영인문학관	강인숙	제7회 문인낭독회
	한국현대문학관	전숙희	외국독자와 한국문학의 만남
	한국현대문학관	전숙희	청년문학인 10인의 우리 시대 시와 소설
	이주홍문학관	강남주	문학작품 낭송회
	조병화문학관	조진형	제3회 꿈의 시 낭송회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 서울	김후란	시와 노래의 어울림 마당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 서울	김후란	제5회 시민 시낭송 경연대회
	원서문학관	오탁번	원서문학과 시 축제
강좌 · 강연 · 교육	백담사만해마을	조오현	토요문학아카데미
	추리문학관	김성중	추리창작교실
	김유정문학촌	전상국	제4회 향토작가 알리기 군부대별 순회 문학 강연
	영인문학관	강인숙	제2회 문학강연
	이주홍문학관	강남주	동시, 동화 창작교실
	추리문학관	김성중	추리소설과 추리영화
	만해기념관	전보삼	만해학교(만해캠프)
	경남문학관	정목일	문학교육프로그램
	이효석문학관	신교선	제3회 이효석문학교실
전시	한국현대문학관	전숙희	김춘수의 문학과 삶의 공간 전시회
	조병화문학관	조진형	조병화 시 생애 사진전
	이효석문학관	신교선	제1회 기획전시 - '문학과 삶의 공간' 전
경연	한국가사문학관	정태수	제6회 가사, 시조, 시 창작 대회
	만해기념관	전보삼	나라사랑 만해 문학 청소년 백일장
체험	경남문학관	정목일	문학체험프로그램 운영
	김유정문학촌	전상국	김유정 소설 속 1930년대 체험하기
	이효석문학관	신교선	흙으로 빛는 소설 속 인물
	조병화문학관	조진형	오산평택지역 외국인 조병화 문학관 투어

집필실	백담사만해마을	조오현	문인 창작집필실 운영 사업
	토지문화관	박금이	전업문인 창작집필실 운영지원사업 - 문학의 산실
기타	한국문학관협회	김후란	한국문학관협회 활성화사업
계	18개 문학관(* 협회 제외)		34개 프로그램(* 협회 제외)

<표 7-1>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프로그램

분 류	단체명	대 표	지원대상사업
문학제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 서울	김후란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 그림습니다
	미당시문학관	정원환	제2회 미당문학제
	박화성문학기념관	김평규	2006 소영문학제
	조태일시문학기념관	고현석	동리산여름창작학교 및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
	김달진문학관	이성모	아이들과 함께여는 문학동네
	한국문인인장박물관	이재인	문인과 전작가의 만남. 예산문학축제
낭송	원서문학관	오탁번	시와 야생화 한마당
	원서문학관	오탁번	시의 축제 / 우리말의 맛과 멋
	조병화문학관	조진형	제4회 꿈의 시낭송회 - 찾아가는 문학관
	조태일시문학기념관	고현석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시, 노래 발표회
강좌 · 강연 · 교육	토지문화관	박금이	토요문학강좌 - 문학의 향기
	아리랑문학관	임기천	소설아리랑특별전 <아리랑, 역사를 부른다>
	이주홍문학관	남송우	아동문학활성화 및 문학 저변화
	백담사만해마을	조오현	우리시대 대표작가와의 만남 (토요문학아카데미)

	경남문학관	정목일	화요의 문학이야기 운영
	백담사만해마을	조오현	푸른나무 통일문학학교
	이효석문학관	신교선	제4회 이효석 창작교실
	추리문학관	김성종	추리창작교실
전시	세계여성문학관	이춘실	여성문인의 빛 전시회
	영인문학관	강인숙	문인 시각전 2006
	이효석문학관	신교선	2006 기획전시 "작고문인 육필전"
	조병화문학관	조진형	그때 그곳 - 조병화의 세계 여행 소묘전
	경남문학관	정목일	문학관 기획전시 프로그램 운영
경연	만해기념관	전보삼	나라사랑 만해 문학 청소년 백일장
	한국가사문학관	정태수	제6회 전국 가사, 시조 시창작공모전
	혼불문학관	서정섭	전래풍습구슬대회
체험	김유정문학촌	전상국	김유정 소설을 테마로 하는 1930년대 삶의 체험
	농민문학관	박희선	농민문학 체험 및 보존
정보화	한국현대문학관	진숙희	한국현대문학관 영상자료 제작
집필실	백담사만해마을	조오현	문인 창작집필실 운영 사업
	토지문화관	박금이	전업문인 창작집필실 운영지원사업 - 문학의 산실
기타	한국문학관협회	김후란	한국문학관협회 활성화사업
계	24개 문학관(* 협회 제외)		31개 프로그램(* 협회 제외)

<표 7-2>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문학관 활용 프로그램

분 류	단체명	대 표	지원대상사업
문학제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채희윤	2006오월문학제 (오월문학관)
	두레시동인	권옥희	1318푸른독립문학기행 (만해기념관)
	오장환문학제추진위원회	도종환	오장환문학관 개관기념행사 및 일장환문학제 (오장환문학관 일원)
	한국문학평화포럼	임헌영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체험	내린천예술인회	손흥기	내린천, 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백담사만해마을 일원)
	민족문학작가회의전북지회	임명진	소설 '혼불'의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문학캠프 (혼불문학관)
	비타민詩	유종화	'아리랑과 질마재를 찾아서' (아리랑문학관, 미당문학관)
교육 공연	민족문학작가회의충북지회	권희돈	"문화의 강물에 역사가 숨쉰다" (정지용문학관 외)
	문협춘천지부	길건영	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5월의 산골짜기' (김유정문학촌)
	부산문화연구회&도서출판해성	김성배	문학아 놀자-문학 콘서트, 문학아 하자-문인극 (이주홍문학관, 추리문학관)
경연	한국시인협회	오세영	제 6회 전국고교생문예백일장 (문학의집 · 서울)
계	11개 단체		11개 프로그램

○ 이런 식으로 각 문학관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학관이 단순한 박물관이나 기념관의 역할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학관, 그 작가의 문학적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는 문학관, 자라나는 2세를 위해 교육의 장이 되는 문학관이 될 수 있게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문학관(19개)의 경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시설의 관리는 지자체가 맡아서 하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의 문학단체 등이 맡아서 주관해야 할 것이다.

- 설립 주체가 지자체인 김유정문학촌의 경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소설 동인 '예맥'과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독자적 프로그램을 개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 위탁업체들과의 형평성의 원칙 등으로 인해 인건비나 운영관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 그 외 경남문학관은 경남문인협회가, 미당시문학관은 (재)미당시문학관이, 최명희문학관은 혼불기념사업회가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의 각 문학관은 각기 설립 목적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문학 자료나 문학행사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한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화사업을 벌임으로써 차별화된 문학관 운영을 지향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학관은 정보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학 콘텐츠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문학관 간의 네트워크 연결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문학관의 운영 형태일 것이다.
- 이번 연구자들은 33개의 문학관 가운데서 김유정 문학촌, 경남문학관, 추리문학관, 토지문화관, 조병화문학관, 만해기념관 등을 방문하였고, 현황과 전망, 애로점과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면접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²⁹⁾ 한편, 이 연구의 맥락상 경기도에 소재하는 조병화문학관과 만해기념관은 제3장 제3절에서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29) 이 내용 중 예산(재정) 관련은 바로 뒤이어 붙이는 문화관광부 조사 자료(2005. 11월)와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3. 대표 사례 분석 :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가. 김유정문학촌

○ 운영 실태 인터뷰 조사 결과 (2005년 10월 22일)

2005년 문학(기념)관 현장방문 조사

【 김유정문학촌 】 인터뷰 내용 요약

■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05년 10월 22일
- 장 소 : 김유정문학촌
- 조사자 : 박상언(책임연구), 이승하·송은옥(공동연구), 이운설(연구보조)

■ 인터뷰 대상자 정보 요약

- 성 명 : 전상국
- 나 이 : 65
- 소 속 : 김유정문학촌
- 경 력 : 강원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및 김유정문학촌장
- 연락처 : 전화 / 033-263-8970, 메일/ hongun262@hanmail.net

■ 인터뷰 요약 및 특이사항

- 지자체가 설립, 민간단체(소설동인 '예맥')가 운영하고 있음.
- 관리는 공무원이 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문제.
- 반드시 김유정과 관련 있어야 하며, 우리 식 이벤트 필요성 검토.
- 운영위원회(약 30명)는 언론사, 교수, 마을의 이장 등으로 구성.

김유정문학촌 분석표

관 명	김유정문학촌		면담자(직위)		촌장	
설립년도	2002.8.6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시설구성						
1. 운영형태	① 공공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영				
		<input type="checkbox"/> 공공재단 등에서 위탁운영				
	② 민간 운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사단 <input type="checkbox"/> 재단)				
2. 문학관 성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지역 출신 작가를 위한 문학관					
	② 그 지역 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학관					
	③ 테마별 문학관					
	④ 기타					
3. 운영특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문성 중시					
	② 대중성 중시					
4. 행정현황	年 예산: (107,700,000원)					
	직원 수: (3 명)			전문직(명) / 일반직(3명) 정규직(명) / 임시직(명)		
5. 재정수입 현황 (05년도)	외부	① 중앙정부 : (원)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45,000,000원)		42%		
		③ 지방자치단체 : (62,700,000원)		58%		
		④ 후원(기업/개인) : (원)		0%		
	자체	⑤ 자체운영수입 : (원)		0%		
6. 사업목표 (목적)	① 지역 문학의 중심 역할				40%	
	② 지역민의 문학체험 및 문학교육의 장 제공				40%	
	③ 작가 유물·유품 보존 및 전시				20%	
	④ 기타				%	
7. 주요사업 (프로그램)	① 상설전시		10%		② 기획전시 10%	
	③ 문학체험		40%		④ 문학교육 40%	
	⑤ 창작 집필실 운영		0%		⑥ 기타 0%	
8. 방문객 실태	① 입장료		② 성 별		③ 방문객	
	유료() 무료(○)		남(45%) 여(55%)		지역(30%) 외래(70%)	
	④ 방문객유형		⑤ 방문객 층		⑥ 방문객 수	
	개인(75%) 단체(25%)		학생(45%) 일반(55%)		연간: 약 70,000 명	

자 유 기 재	
9. 희망하는 활성화 방안	<p>※ 국고 및 지방비의 재정적 지원이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선별적이고 집중적일 때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그 성과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현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제도는 지역의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p>
	① 문학관 인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긍지 갖기(문학관 인근 주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② 전국문학관협회의 활성화로 데이터 베이스망의 확충으로 효율적 운영
	③ 테마별 연계 관광코스 개발(그 지역의 유적지나 문화 예술 관련 명소를 연결하는 문화관광코스 개발)
	④ 모든 사업은 작가의 생애 및 작품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며,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타 문학관과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⑤ 전문가 및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사단법인화 추진
	⑥ 지역 문화 예술의 창조공간이며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지향
10. 운영상 애로사항	① 지자체의 운영비 증액(인건비 등 재정적 지원의 현실화)
	② 세미나 실 등 기념관 부속시설 부족(수장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확장이 시급함)
	③ 문학제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책
	④ 설립주체인 지자체의 문화예술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부서 이동으로 인한 일관된 문화 정책 부재

○ 문화관광부 주관 조사 결과 (2005. 11월)

1. 시설 개요

- 명 칭 : 김유정문학촌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3리 868-1
- 개관일 : 2002년 8월 6일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춘천시청
 - 운영 대표자 : 전상국(017-370-5522)
- 법적 위상 : 비영리 법인
- 설립 재원 : 2,558백만원
 - 국고 450백만 원, 도비 1,000백만 원, 시비 1,108백만 원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김유정
 - 인물 소개 : -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33-261-4650	033-261-4657	www.kimyoujeong.org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사업비 64,675,550원, 인건비 33,800,000원,
경상비 28,900,000원
- 재원구분 : 지방비 63,100,000원, 문예진흥기금 45,000,000원,
기타예산 15,675,550원

○ 인원

총인원(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수당) 지급 여부
상근(3)	1. 사무국장	018-242-8080	지급
	2. 간 사	011-9636-0489	지급
	3. 관 리	019-549-7816	지급

3. 시설 현황

- 시설명 : 김유정문학촌
- 위치 : 춘천시 신동면 증3리 868-1
- 대지면적 : 4,528㎡(1,372평)
- 주요시설
 - 건축 : 374.47㎡(113.5평)
 - 생가 : 목조 초가 1동 153.36㎡
 - 전시관 : 철근콘크리트조 151.20㎡
 - 부속시설 : 디딤방아간, 외양간, 휴게정, 정문, 목교, 토석, 담장, 연못, 우물, 동상, 안내판

4. 소장품 현황 : -

5. 운영 현황(예시)

- 문학관 개관일 / 개관시간
 - 개관시간 : 동절기 09:30-17:00, 하절기 09:00-18:00
 - 휴관 :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 다음날(명절날은 당일)
 - 홈페이지 : <http://www.kimyoujeong.org>
 - 전화번호 : 033)261-4650 FAX : 033)261-4657
- 관람객수

월 일	관람 인원					비고
	합계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단체	
2002년 집계	35,652	7,360	5,850	12,435	10,007	(201팀)
2003년 집계	71,375	16,390	10,920	26,006	18,059	(251팀)
2004년 집계	68,834	18,140	7,750	25,270	17,674	(341팀)
2005년 10월 현재	63,522	17,525	6,400	22,860	16,737	(307팀)
누계	239,383	59,415	30,920	86,571	62,477	(1,100팀)

6. 사업현황(예시) : -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광지

- 보물 : 당간지주, 칠층석탑, 청평사 회전문
- 중요민속자료 : 청풍부원군 상여(김유정 9대 조부) 외 국립춘천박물관
- 문화유적지 : 혈거유지, 천전리지석묘군, 삼악산, 적석총, 청풍부원군 묘역, 신장절공묘역, 봉의산성, 백로·왜가리 번식지, 증리고분군, 신매리 석실고분, 청평사지, 의암유인석 묘역
- 문화재 : 소양정, 청평사삼층석탑, 월송리삼층석탑, 삼악산성지, 채재근전통 가옥, 민성기전통가옥, 김정은전통가옥, 방동리고구려고분, 한백록 묘역 및 정문
- 기타 : 춘천호, 소양호, 의암호, 국립춘천박물관, 남이섬, 증도, 고슴도치섬, 삼악산, 구곡폭포의 3폭포, 도립화목원, 집다리골, 휴양림 등
- o 지역축제
 - 춘천국제마임축제, 김유정문학제, 춘천인형극제, 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 국제연극제, 춘천막국수축제, 소양강문화제, 춘천국제태권도대회
- o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김유정문학제→ 유인순교수와 함께 떠나는 문학탐방→ 김유정소설을 테마로 하는 1930년대 삶의 체험→ 민속체험 행사 등

8. 현안 및 건의 사항

- o 현안 사항
 - 상근 직원 복지후생 대책 취약(최저임금에 미달) / 4대 보험혜택 전무
 - 세미나실 등 기념관 부속시설 부족
(수장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확장이 시급함)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임에도 행사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 있고 지속 가능한 사업의 재정적 지원 대책
 - 설립주체인 지자체의 문화예술 담당자의 전문성부족 및 부서이동으로 인한 일관된 문화 정책 부재
- o 건의 사항
 - 상근직원 후생복지 대책 방안 협조(최소 국민 4대보험 혜택)
 -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행사에 대한 고정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됨(행사기획 단계부터 예산확보의 불안정으로 행사기획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 상존)
 - 동일 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예술위원회(문예진흥원)→ 도문화재단→ 춘천시청으로 계획서 제출하는 사례 발생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문화예술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행사 유치 성공
- 지역문화예술인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사로 정착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모델 제시
- 매년 반복되는 행사→ 매년 업그레이드되면서 관람객·이용객 대폭 증가→ 김유정 문학세계 알림 성공

○ 문제점 및 대책

- 김유정문학촌 설립 초기에 비하여 관람객 및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함과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주말 이용객 대처방안이 요구됨 (자원봉사제/인턴사원제 도입, 전문해설가 확충)
- 내용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학관 운영을 위한 연수 및 전국문학관 탐방 및 국제 연수 확대 등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68-1번지에 있는 김유정문학촌(촌장 전상국)에서는 2003년 11월에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에 <지역문학관 운영 실태 조사표(운영중)>를 제출하였다. 사업명은 '김유정 작품 속 30년대 삶의 모습 체험'으로서, 총 규모 1억 8,280만원이었다. 이 사업은 30년대 우리나라 농촌의 삶을 재현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수권을 제공하고 관람만 하는 문학관이 아닌 느끼고 체험하는 문학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투계, 빗잔치, 떡메치기, 나뭇집지기, 농요 부르기 대회, 들병이가 있는 주막 체험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를 월별로 함으로써 김유정 생시의 농촌 살림을 재현해보자는 데 있었다. 문학관이 주도하는 행사는 대개의 경우 외지인이 와서 한바탕 행사를 하고 가는 데 비해 이 행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겼기에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지역문학관의 행사라고 하여 지역주민만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전상국 촌장에 증언에 의하면 “지역의 문학관은 그 지역의 유적지나 다른 문화·예술 관련의 명소를 한데 묶어 문화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춘천의 경우 아래의 여러 가지 코스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여 외지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춘천의 경우 아래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문화관광 코스이다.

- (㉠) 김유정문학촌→ 유인석 묘역 혹은 신승겸 묘역→ 애니메이션 박물관→ 인형극장 혹은 유진규의 마임 공연
- (㉡) 김유정문학촌→ 금병산 등산(문학현장 포함)
- (㉢) 김유정문학촌→ 소양강댐 및 청평사 혹은 오봉산 등산
이외에도 강원도의 문학 관련 명소를 연계하는 코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고 했다.
- (㉠) 토지문화관(원주)→ 김유정문학촌(춘천)→ 평화의 댐(양구)→ 박수근미술관
- (㉡) 김유정문학촌→ 만해마을(인제)→ 박인환시비(원통)→ 속초 주변의 동해안 명소
- (㉢) 김유정문학촌→ 이효석문학관(평창)→ 강릉의 경포대문학비와 허균·허난설헌 생가

전상국 관장의 말에 따르면 문학관은 유적지처럼 한번 돌아보면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처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 다음은 각 문학관 관계자들이 수시로 피력하고 있는 문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다.

사재를 털어 건립한 사립 문학관의 경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비나 국고를 사업 지원금으로 받아 집행할 경우, 교부 조건이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 값싼 인건비 등으로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 문학관 운영 및 문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일정부분 정액 국비보조가 바람직하다. 지역문화 및 향유 계층의 질적 양적 확산을 위해 성과가 좋은 문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지원 및 확대가 필요하다. 주로 사업운영에 따른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문학관 자체로 해결할 문제도 없지 않다. 문학관 나름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람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등이다.

나. 경남문학관

○ 운영 실태 인터뷰 조사 결과 (2005년 10월 29일)

2005년 문학(기념)관 현장방문 조사

【 경남문학관 】 인터뷰 내용 요약

■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05년 10월 29일
- 장 소 : 경남문학관
- 조사자 : 박상언(책임연구), 송은옥(공동연구)

■ 인터뷰 대상자 정보 요약

- 성 명 : 정목일
- 나 이 : 60세
- 소 속 : 경남문학관 관장
- 경 력 : 경남문인협회장 역임, 경남신문사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 연락처 : 전화 / 055) 263-1628, 011-866-1628,
 메일 / knmunhak@hanmail.net

■ 인터뷰 요약 및 특이사항

- 지자체가 설립, 경남문인회가 운영하고 있으나 공립화 또는 법인화의 필요성
- 문학관의 법률적 근거가 모호해 기능 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아마추어 교육, 어머님 문화교육 등을 운영 등단까지 시키고 있음.
- 회의실 대여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위치는 아주 좋은 편임
- 전문 인력이 필요함.
- 관광자원과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음.

경남문학관 분석표

관 명	경 남 문 학 관	면담자(직위)	관장			
설립년도	2001년도	소재지	경남 진해시 태백동 산98			
시설구성	1층(100평) 전시실, 2층(70명) 자료실·세미나실					
1. 운영형태	① 공공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영				
		<input type="checkbox"/> 공공재단 등에서 위탁운영				
	② 민간 운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사단 <input type="checkbox"/> 재단)				
2. 문학관 성격	① 그 지역 출신 작가를 위한 문학관		■			
	② 그 지역 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학관					
	③ 테마별 문학관					
	④ 기타					
3. 운영특성	① 전문성 중시					
	② 대중성 중시		■			
4. 행정현황	年 예산: (1억 3백만 원)					
	직원 수: (5 명)	전문직(5명) / 일반직(5명) 정규직(3명) / 임시직(2명)				
5. 재정수입 현황 (05년도)	외부	① 중앙정부 : (원)	0%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3,500만 원)	34.0%			
		③ 지방자치단체 : (4,000만 원)	38.8%			
		④ 후원(기업/개인) : (1,600만 원)	15.5%			
	자체	⑤ 자체운영수입 : (1,200만 원)	11.7%			
6. 사업목표 (목적)	① 지역 문학의 중심 역할		30%			
	② 지역민의 문학체험 및 문학교육의 장 제공		35%			
	③ 작가 유물·유품 보존 및 전시		30%			
	④ 기타		5%			
7. 주요사업 (프로그램)	① 상설전시	30%	② 기획전시	25%		
	③ 문학체험	20%	④ 문학교육	25%		
	⑤ 창작 집필실 운영	0%	⑥ 기타	0%		
8. 방문객 실태	① 입장료		② 성 별		③ 방문객	
	유료()	무료(✓)	남(40%)	여(60%)	지역(70%)	외래(30%)
	④ 방문객유형		⑤ 방문객 층		⑥ 방문객 수	
	개인(60%)	단체(40%)	학생(40%)	일반(60)	연간: 약 1,500,000명	

자 유 기 재	
9. 희망하는 활성화 방안	① 道단위의 문학자료를 집대성하는 기관에 걸맞는 전시, 교육 공간, 수장고 등 시설확충으로 관람객에게 만족을 주는 문학관.
	② 문학 연구자가 경남문학(사)에 대한 서적과 그의 여타 자료를 이용해서 활발한 지역문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
	③ 정보검색실과 문학교육을 위한 입체적 관람시스템 구축 및 비주얼자료비치. 도서열람과 문인집필실 겸용 도서실 설립.
	④ 유일한 道 단위의 문학관으로서 자료수집, 연구, 보존 및 문학적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의 집중 지원.
	경남문학관의 비전과 목표는 「경남문단」 전체를 포괄하는 자료수집 및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함과 동시에 경남문학의 포스트 역할을 맡는 것과 청소년, 시민들에게 문학, 문화교육과 향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맡는 것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경남문인들의 뜻이 집결되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道 단위의 문학관을 세우게 된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을 옹기 담당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학(사)적으로 매우 주요한 의미가 있는 문학관인 만큼 입체적인 관람시스템구축과 환경개선, 시설보강 등이 뒷받침될 때 모범적인 문학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10. 운영상 애로사항	① 지원 예산액에 의해 기획, 전시행사 규모가 결정되므로 매년 행사 기획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음.
	② 현재 2 만여 권에 이르는 소장도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비치 관리하는데 공간이 부족함.
	③ 시청각시설의 전무로 청소년들이 자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 있음.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는 영상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④ 문화, 문학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용 세미나실 없어서 강연회 및 문학행사 운영에 애로점이 많음.
	경남에는 최근 시립으로 운영되는 문학관 건립이 붐처럼 일고 있습니다. 통영 청마문학관, 마산문학관, 진해 김달진문학관이 연이어 문을 열어 문학관 활성화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 문학관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립으로 운영되는 위 문학관은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없겠으나, 경남문학관은 경남문인들의 뜻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운영 예산에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문학관과 경남문학관을 수평적으로 비교해보면 예산 면에서 취약하기 이를 데 없고 따라서 전시, 기획행사가 평면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성 있는 전시, 행사를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부 주관 조사 결과 (2005년 11월)

1. 시설 개요

- 명 칭 : 경남문학관
- 주 소 : 경남 진해시 태백동 산 98-1
- 개관일 : 2001년 3월 22일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진해시
 - 운영 대표자 : 정목일(핸드폰: 011-866-1628)
- 법적 위상 : 임의 단체
- 설립 재원
 - 국고 없음, 지방비 5억 원, 민간 및 기타 1억 원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경남도 출신 문인
 - 인물 소개 : 경남 출신 문인 저서와 자료 전시, 보존, 연구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55-547-8277	055-547-8278	www.gnmunhak.com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 규모 : 사업비 4,500천원, 인건비 1,800천원, 경상비 4,000천원
 - 재원 구분 : 국고 없음, 지방비 4,000천원, 문예진흥기금 3,500천원, 자부담 2,800천원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관장 정목일	011-866-1628	지급
	2. 사무국장 김현우	011-589-2147	지급
	3. 직원 최미선	017-550-3091	지급
	4. 임시직, 자원봉사 등	2명(공공근로,인턴)	진해시/협회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

- 대 지 : 204,9 m²(621평)
- 연면적 : 562,65m²(170.5평), 지상 2 층
- 시설현황

- 야외주차장 660m²(승용차 30대)
- 지상1층 : 전시실 330m², 세미나실 231m²,

- 전시현황 : 희귀도서(1920년대부터), 문인육필원고, 경남출신 문인 저서, 동인지, 각종 문예지 등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자필원고, 작고문인 신변물품 50점
- 도서 :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 총 2만여 권
- 기타물품 : 대형TV 등

5. 운영 현황

- 개관일수 : 연간 290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등)
- 관람객수
 - 2004년도 : 1만 5천여 명
 - 2005. 10월말 : 2만 1천여 명
 - 최대 관람객 방문 월 : 4월(진해군향제 기간)
- 시설대관(2004년 또는 2005년도 기준)
 - 대관시설 : 세미나실(70평)
 - 대관용도 : 출판기념회, 청소년을 위한 특강, 구연동화대회 등
 - 임대수입 : 없음

6. 사업 현황

- 주요사업 : 상설전시, 특별전시, 문학강연, 교육 및 문학체험 행사
-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기획 전시(연중 3회) - 화요일의 문학이야기(문학강연회)

- 일시/장소 : 매월 둘째 화요일, 경남문화관 세미나실(2층)
- 사업내용 : 국내 유명 문인을 초청 문학강연회 개최
- 참가계층 및 인원 : 일반 시민, 문인 등 80여 명
- 소요예산 : 매월 100여만 원
- 부대행사 - 시낭송회, 작고문인 문학심포지엄 등
- 일시/장소 : 기획전시 기간 중 1일, 세미나실(2층)
- 사업내용 : 독자, 도내문인 초청 시낭송회, 작고문인심포지엄
- 참가계층 및 인원 : 일반 시민, 문인 등 80여 명
- 소요예산 : 각 행사 100여만 원
- 문학강연(화요일의 문학이야기· 문예대학특강)
- 일시/장소 : 매월 둘째 화요일/상·하반기, 세미나실(2층)
- 사업내용 : 국내 유명 문인을 초청 문학강연회 개최
- 참가계층 및 인원 : 일반 시민, 문인 등 80여 명
- 소요예산 : 매월 100여만 원 (상하반기 매회 100여 만 원)
- 문예창작·문학교실(문예대학, 어머니문학교실)
- 일시/장소: 매주 월, 화/ 매주 수, 목 문화관 세미나실(2층)
- 사업내용 : 문학지망생, 주부들을 위한 문학교실
- 참가계층 및 인원 : 일반 시민, 직장인, 주부 등 각 20여 명
- 소요예산 : 매월 강사료 100여만 원
- 환경백일장
- 일시/장소 : 매년 환경의 날 전후 일요일 문화관 야외마당
- 사업내용 : 환경의 중요성을 문예활동으로 일깨워주는 백일장
- 참가계층 및 인원 : 초·중·고·대학 일반 시민 등 1천여 명
- 소요예산 : 300여만 원
- 문학체험행사- 문학기행
- 일시/장소 : 문학기행-전국문화관 및 명승지
- 사업내용 : 국내 유명 문인을 초청 문학강연회 개최
- 참가계층 및 인원 : 일반 시민, 문인 등 80여 명
- 소요예산 : 매월 100여만 원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 광 지 : 놀이시설 - 진해파크랜드
- 지역축제 : 군항제 등
-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매년 군항제 기간과 가을 단풍철에 개최하는 기획전시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 정보검색실 신설, 청소년 문학교육을 위한 시청각 시설 확충, 전시실 확장 등의 환경 개선
- 건의사항 : 도 단위 문학관인 만큼 그 위상과 기능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재정 지원을 바랍.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 된 점
 - ① 문인육필원고자료전, 아동문학 원화 전시회 등 연중 개최하는 기획전시가 시의적절하고 뜻있는 행사였으며, 경남작가문인 심포지엄 등 지역문인 조명도 유의미한 작업이라는 평을 받음.
 - ② 문학강연, 문학교육, 문학체험 행사에는 청소년,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문학을 공부하고, 느끼고, 알아가는 기회라는 평을 받음.
- 문제점 및 대책
 - ① 정보검색실, 시설보강의 문제: 시설보강을 통해 시민,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문학연구자들의 심층적인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보강
 - ② 경남문학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에 규모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경남문단을 포괄하고, 경남문학(사)의 충실한 연구기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다. 추리문학관

○ 운영 실태 인터뷰 조사 결과 (2005년 10월 29일)

2005년 문학(기념)관 현장방문 조사

【 추리문학관 】 인터뷰 내용 요약

■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05년 10월 29일
- 장 소 : 부산 추리문학관
- 조사자 : 박상언(책임연구), 송은옥(공동연구)

■ 인터뷰 대상자 정보 요약

- 성 명 : 김성중
- 나 이 : 65
- 소 속 : 추리문학관
- 경 력 : 소설가
- 연락처 : 전화 / 051-742-2346, 메일/ spy1984@yahoo.co.kr

■ 인터뷰 요약 및 특이사항

-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관
- 전문도서관 1호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문학관
- 3년 전(2003)부터 정부 지원을 받음
- 전 5층 건물 : 1층 / 휴게실 형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2~3층 / 도서열람실, 4층 / 열람실 및 사무실, 5층 / 개인 공간
- 도서 4만여 권

추리문학관 분석표

관 명	추리문학관	면담자(직위)	관장
설립년도	1992년	소재지	부산해운대구중2동1483-6
시설구성	대지 180평, 연건평 500평, 도서 및 자료열람실, 좌석 322석		

1. 운영형태	① 공공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영 <input type="checkbox"/> 공공재단 등에서 위탁운영				
	② 민간 운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사단 <input type="checkbox"/> 재단)				
2. 문학관 성격	① 그 지역 출신 작가를 위한 문학관					
	② 그 지역 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학관					
	③ 테마별 문학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기타					
3. 운영특성	① 전문성 중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대중성 중시					
4. 행정현황	年 예산: (1억 9천5백만 원)					
	직원 수: (4 명)	전문직(명) / 일반직(명) 정규직(1명) / 임시직(3명)				
5. 재정수입 현황 (05년도)	외부	① 중앙정부 : (2천만 원)	21%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 (1천 4백만 원)	15%			
		③ 지방자치단체 : (4천만 원)	43%			
		④ 후원(기업/개인) : (- 원)	0%			
	자체	⑤ 자체운영수입 : (2천만 원)	21%			
6. 사업목표 (목적)	① 지역 문학의 중심 역할		40%			
	② 지역민의 문학체험 및 문학교육의 장 제공		50%			
	③ 작가 유물·유품 보존 및 전시		10%			
	④ 기타		0%			
7. 주요사업 (프로그램)	① 상설전시	40%	② 기획전시	20%		
	③ 문학체험	0%	④ 문학교육	20%		
	⑤ 창작 집필실 운영	20%	⑥ 기타	0%		
	① 입장료		② 성 별		③ 방문객	
	유료(○) 무료()	남(60%)	여(40%)	지역(70%)	외래(30%)	
④ 방문객유형		⑤ 방문객 층		⑥ 방문객 수		
개인(80%)	단체(20%)	학생(50%)	일반(50%)	연간: 약 5만 명		

자유기재	
9. 희망하는 활성화 방안	① 국제적인 행사 유치
	② 관광코스화하는 방안
	③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개발
10. 운영상 애로사항	① 법정 급료지급 및 주5일 근무제 등을 시행치 못하고 있음
	② 큰 행사를 치르고 싶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불가능
	③ 설립 13년이 되어 모든 시설 및 비품들이 노후되어 교체 및 개보수가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손을 못 대고 있음

라. 토지문화관

○ 운영 실태 인터뷰 조사 결과 (2005년 11월 27일)

2005년 문학(기념)관 현장방문 조사

【 토지문화관 】 인터뷰 내용 요약

■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05년 11월 27일
- 장 소 : 토지문화관
- 조사자 : 박상언(책임연구)

■ 인터뷰 대상자 정보 요약

- 성 명 : 채웅
- 나 이 : 33
- 소 속 : 토지문화관 사무국장
- 경 력 : 국문과 졸업
- 연락처 : 전화 / 033-766-5544
 메일/ tojicul@chol.com

■ 인터뷰 요약 및 특이사항

- 문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창작 집필실
- 문인 및 인접 예술 장르의 전문가에게도 문호 개방
- 문학 강연 때 전문 행정 인력 등 부족

토지문화관 분석표

관 명	토지문화관		면담자(직위)	토지문화관 사무국장		
설립년도	1999(문화관 설립)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시설구성	회의시설(대회의실, 세미나실), 숙소시설(창작실),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야외무대)					
1. 운영형태	① 공공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영 <input type="checkbox"/> 공공재단 등에서 위탁운영				
	② 민간 운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사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단)				
2. 문학관 성격	① 그 지역 출신 작가를 위한 문학관					
	② 그 지역 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학관					
	③ 테마별 문학관					
	④ 기타		○			
3. 운영특성	① 전문성 중시		○			
	② 대중성 중시					
4. 행정현황	年 예산: (삼억 팔천 구백만 원)					
	직원 수: (7 명)		전문직(1 명) / 일반직(2 명) 정규직(2 명) / 임시직(2 명)			
5. 재정수입 현황 (05년도)	외부	① 중앙정부 : (원)	0%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8천 8백만 원)	59.5%			
		③ 지방자치단체 : (6천만 원)	40.5%			
		④ 후원(기업/개인) : (원)	0%			
	자체	⑤ 자체운영수입 : (원)	0%			
6. 사업목표 (목적)	① 지역 문학의 중심 역할		0%			
	② 지역민의 문학체험 및 문학교육의 장 제공		30%			
	③ 작가 유물·유품 보존 및 전시		0%			
	④ 기타 / 학자 예술가의 연구 창작지원 등		70%			
7. 주요사업 (프로그램)	① 상설전시		0 %	② 기획전시		0%
	③ 문학체험		30 %	④ 문학교육		0%
	⑤ 창작 집필실 운영		50 %	⑥ 기타(학술대회)		20%
8. 방문객 실태	① 입장료		② 성 별		③ 방문객	
	유료()	무료(○)	남(40%)	여(60%)	지역(65%)	외래(35%)
	④ 방문객유형		⑤ 방문객 층		⑥ 방문객 수 (문학강연만 산정)	
	개인(80%)	단체(20%)	학생(15%)	일반(85%)	연간: 약 <u> 600 </u> 명	

자 유 기 재	
9. 희망하는 활성화 방안	① 학자 예술가를 위한 연구 창작 지원 활성화
	② 외국 문인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 문화 교류
	③ 환경·생태 국제 학술대회를 위한 담론의 장
	<p>토지문화관의 창작집필실은 문화예술의 기본 토양이 되는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문인과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문화 예술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토지문화관의 창작집필실 지원사업은 해를 거듭하며 많은 문인, 예술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만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 <p>국제문화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문인 초청은 단순히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환기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특히 창작집필실 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문화예술인과의 자연스런 교류를 만들어낼 것이다.</p> <p>지금 전 세계 공통 화두 중 하나는 환경과 생태 문제다. 현재의 상황이 19세기와 20세기, 환경과 생태를 배반하고 한 방향으로만 달려온 결과라면, 이제는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기다. 토지문화재단은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과 생태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하고 꾸준한 사업을 통해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다.</p>
10. 운영상 애로사항	① 문학강연 - 전문 인력과 홍보비용 부족
	② 창작집필실 운영 - 신축공사, 겨울철 비용 증가(난방비)
	③ 외국문인 초청 - 작품 창작만을 위한 초청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불가
	④ 기타 운영상의 문제 - 직원복지 등

① 문학강연은 대중문화사업으로 문학에 관심있는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을 위한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의 문화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향유되고 있다. 문학강연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창작집필실은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의 공간(18실)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위해 토지문화관은 토지문화재단의 기금만으로 새로운 창작실을 신축하고 있다. 창작실 신축은 공사비용과 초기 비품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이후의 운영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겨울철 난방비는 여름철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문화관의 자체적인 노력 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현재 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 프로그램의 참가를 위한 외국 문인초청만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토지문화관이 중국 시인(탕타오샤)을 초청한 결과 국제학술대회 참가, 작품 창작, 국내 문예지 작품발표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외국 문인과의 교류 지원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겠지만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학관을 제외하면 전국의 문학관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뜻과 의지만으로는 장기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 문학관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에게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제 3절 외국의 문학관 운영 실태

1. 조사 대상

- 여러 문헌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외국의 주요 문학관은 다음과 같다.

국 가	문 학 관 명
미 국	○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 윌트 휘트먼 생가와 통역센터
영 국	○ 셰익스피어 센터 ○ 찰스 디킨즈 탄생 기념관
중 국	○ 중국현대문학관
러시아	○ 도스토예프스키 기념관 ○ 고리키 기념관 ○ 솔로호프 문학박물관과 기념관
독 일	○ 붓덴부르크 하우스(하인리히 만과 토마스 만 기념관) ○ 괴테 생가(박물관)와 문서보관소 ○ 로버트 무질 문학 박물관 ○ 헤르만 헤세 문학관 ○ 브레히트 하우스
오스트리아	○ 트라클 문학관
일 본	○ 세타가야문학관 ○ 미야자와케지문학관 ○ 시바료타로문학관 ○ 하이쿠문학관 ○ 일본근대문학관
계	총 19개 문학관

* 프랑스의 경우, 윤학로·김점석의 「아라공 문학관의 운영 사례 연구」(『프랑스학연구』, 프랑스학회, 2004)를 참고하라.

2. 운영 실태

[미국]

①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

- 위치 : 339 N. Oak Park Avenue, Oak Park IL
- 전화 : 708-848-2222
- 이메일 : ehfop@sbcglobal.net.
- 홈페이지 : <http://www.ehfop.org>
- 개요 : 헤밍웨이의 탄생지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 세워진 생가 기념관에는 헤밍웨이 박물관·서점·기록물 보관소가 있다. 소장품으로 800장의 사진과 작가가 소장하고 있던 책 외에 입었던 옷·액세서리·가구·미술품 등이 있다. 헤밍웨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프로그램과 졸업연감 복사본 및 결혼식 초대장 등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기록물 보관소에는 2300권의 책 외에 신문기사·사진, 팸플릿·영화 포스트 등이 있다.
- 운영 실태 : 생가 기념관에서는 문학강연 프로그램과 헤밍웨이 작품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헤밍웨이 작품 콜로키움, 공공 강연, 탄생지 관광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헤밍웨이 단편소설 독후감 공모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18명의 지역대표들과 8명의 헤밍웨이 가족들과 학자들, 지역구성원들, 그리고 주요 기부자들과 사업가 등의 고문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각자 4시간 이상을 봉사한다. 헤밍웨이 재단(Ernest Hemingway Foundation)에서 운영 중.

② 월트 휘트먼 생가와 통역센터

- 위치 : 246 Old Walt Whitman Road, West Hills, NY 11746-4148
- 전화 : 631-427-5240
- 홈페이지 : <http://www.charityadvantage.com/waltwhitman/Index.asp>
- 개요 : 월트 휘트먼 탄생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월트 휘트먼의 원

고·책표지 등과 옛날 가구들이 전시되고 있는 생가는 시인의 아버지가 1819년에 세운 농장 집으로, 뉴욕주의 역사적 건물로 보존되고 있다. 통역센터에는 휘트먼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편지·원고·공예품·목소리 녹음물이 있다. 통역센터에서는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오디오·비디오 쇼를 하며, 도서관·박물관·가게·서점이 있고 소풍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 운영 실태 : 마을 언덕을 하이킹하는 하이킹 투어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 시 낭송·강연·콘서트 등 이벤트성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의 역사와 휘트먼 생가의 건축 및 지역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통역센터 내에 있는 서점에서는 휘트먼의 시가 담긴 오디오와 비디오물, 시집과 팸플릿 등을 판매하며 협회 회원들에게는 10퍼센트 할인 혜택을 준다.

[영국]

① 셰익스피어 센터

- 위치 : LHenley Street, Stratford-upon-Avon, Warwickshire, CV37 0NP
 - 전화 : 01789-201813
 - 이메일 : library@shakespeare.org.uk
 - 홈페이지 : <http://www.shakespeare.org.uk>
 - 개요 : 출생지 트러스트에 있는 셰익스피어 센터에서는 다양한 학문적 프로그램이 행해진다. 회의, 결혼식 등의 행사도 이뤄진다. 박물관에는 당대 물건 등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 운영 실태 : 셰익스피어 센터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주최하고, 강좌와 강연을 개최한다. 가족의 날에서 셰익스피어 연구의 날까지, 가든 투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강연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별행사가 있을 시에는 따로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보자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셰익스피어의 날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왕립셰익스피어

어극단에 의해서 공연되는 연극제의 성격이다. 희곡에 대한 강연이나 문화적 맥락, 무대 역사 등에 대한 강연과 배우들과 다른 극장 수련생들과의 토론으로 끝난다. 2005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Shakespeare & Biography / The Shakespearian Boy Player / Twelfth Night / Shakespeare and Jonson / Henry Irving / Gunpowder Plot / Shakespeare and Dickens

겨울학교 행사는 왕립셰익스피어극단이 상연하는 연극에 기초, 셰익스피어 탄생지 트러스트와 버밍햄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서 진행된다. 셰익스피어와 연극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가가 가능하다. 올해는 초서가 셰익스피어에게 준 영향과 셰익스피어가 디킨즈에게 준 영향 등이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은 초서의 『캔터베리이야기』와 디킨즈의 『막대한 유산』 연극을 보고 토론하였다.

Living Shakespeare(살아있는 셰익스피어) 프로그램은 3일 반 동안, 저녁 식사와 매일 저녁 극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강연과 함께 연극배우들과의 질문과 대답 등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즐거움과 셰익스피어 연극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이해를 위한 사교 모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연 외에 배우들, 학자들, 왕립셰익스피어극단 단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연극 부분과 문학 부분의 이해와 감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점심시간 강연과 저녁 강연도 행해지고 있다. 점심시간 강연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수요일 1시에 셰익스피어 센터 킨 엘리자베스홀에서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Shakespeare and Marlowe, Jumping the Life to Come: Macbeth in criticism and performance, Twelfth Night, Shakespeare in China, Elizabethan Games and Pastimes, Shakespeare's Children

저녁 강연은 셰익스피어 센터에서 연중 행해진다. 주제들은 지역의 역사에서 셰익스피어의 영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셰익스피어 센터에서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Times have been Troublesome : Stratford in the Civil War / The Combe Family in 17th Century Stratford: Public Figures, Private Friendships / 'The nobility think scorn to go in leather aprons': contrasting lifestyles in Elizabethan society / Shakespeare's Stratford: Catholic, Protestant or both?

② 찰스 디킨즈 탄생 기념관

- 위치 : 393 Old Commercial Road, Portsmouth, Hampshire, England, PO1 4QL
- 이메일 : info@charlesdickensbirthplace.co.uk
- 홈페이지 : <http://www.charlesdickensbirthplace.co.uk>
- 개요 : 찰스 디킨즈는 영국 포츠마우스에서 1812년에 태어났다. 생가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1809년 디킨즈의 부모가 지었다. 이곳에는 3개의 방이 있으며, 전시실에서는 디킨즈의 작품을 그린 인쇄물과 그가 임종을 맞았던 의자 등이 있는데 전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10개의 언어로 안내되어 있다. 박물관 상점에서는 다양한 기념품과 선물용품, 도자기, 디킨즈의 작품, 전기 등을 판매한다. 탄생기념관에는 작가 관련 전시관과 기념품 가게 등이 있으며, 찰스 디킨스 관련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나 책자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운영 실태 : 다양한 종류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는 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 영어 :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있다, 디킨즈의 소설에서 추출한, 이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이해한다. 이야기의 내용, 구조, 어휘, 레이아웃과 목적 등을 나타내는 활동을 한다.
 - 지리 : 지도를 보고 장소와 비율을 탐사하라. 지리적 질문에 초점을 맞춰라. 어디에 있으며, 무엇과 닮았는지를 맞춰라. 어떻게 왜 변했는지를 말해보라.
 - 수학 : 집을 보면서 그 지역성과 2차원, 3차원을 구별하라. 반사대칭과 모자이크의 속성을 이해하라. 데이터를 해석하고 제시하라.
 - 미술 : 예술가와 공예가들이 사용한 다른 재료와 방법을 구별하라. 각각이 만들어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미술품, 공예품, 디자인 안에 구현된 기법들을 구별하라. 정확한 어휘와 견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라.
 - 역사 : 어떤 시대의 중산층 집인가? 빅토리아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 종류의 집에 살았을 것 같은가 등등

[중국]

① 중국현대문학관

- 위치 : 중국 베이징 조양구(朝陽區) 문학관로(文學館路) 45호
- 개요 : 1981년 2월 14일, 중국현대문학의 거두인 바진(巴金)이 처음으로 중국현대문학관 건립을 제안하였다. 4월 20일, 중국작가협회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여 현대문학관 건립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사업 착수를 건의하였다. 이로부터 4년 뒤인 1985년 3월 26일에 개관식을 가졌다. 베이징 만수사(萬壽寺) 서로(西路)의 중국현대문학관 구관에 보존되어 있던 문물이 옮겨와 2000년 5월에 정식 개관하였다. 중국현대문학관은 중국작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작가들의 저작·초고·번역본·서신·일기·녹음·녹화·사진 등 자료와 이와 연관된 저작평론·문학간행물·신문 등을 수집하거나 보관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문학연구의 본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학관은 자료실·징집실(徵集室)·편연부(編研部)·전람부·사무실·모우둔생기념관(茅盾故居紀念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편제는 76명인데 현재 인원은 56명이다. 중국현대문학관은 중국현대문학의 자료연구센터로서 국가급 박물관, 즉 문학박물관·문학도서관·문학자료연구 센터·문인교류 센터·출판사 등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 운영 실태
 - 보존 기능 : 작가의 초고·서신·일기·창작필기(創作筆記) 등에 대한 보존을 그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문학관에는 전문적인 작가사진실, 작가녹음테이프실과 작가비디오테이프실이 있다.
 - 출판 활동 : 출판사의 역할을 담당, 사전과 전집 출판을 하고 있다. 문학관에서 만든 『중국현대작가대사전』은 1992년 1월에 신세계출판사를 통해 출판하여 1994년에는 영문으로 번역되었다. 『당대타이완작가대표작대계』를 공동으로 편집, 1993년에 장강문예출판사에서 출판하였고, 1997년에 편집하기 시작한 『중국현대문학백가총서』는 108명의 현대작가들의 선집으로서 화하출판사에서 출판하기로 되어 있다. 요즘은 『작가서신집총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문학관은 중국현대문학연구회와 함께 계간으로 『중국현대문학연

구충간』을 펴내고 있다. 이 정기간행물은 매호마다 글자수가 대략 25만 자 분량으로, 지금까지 20호를 펴냈다.

- 전람과 좌담 활동 : ‘바진(巴金) 창작생애 60년 전람’, ‘빙신 창작생애 70년 전람’, ‘라오서(老舍) 창작생애 전람’, ‘예서영토(葉聖陶) 창작생평 전람’, ‘마오둔(茅盾) 백년기념 전람’ 등의 행사를 하였다. 이외에도 샹뎡(沙汀), 아이푸우(艾蕪), 양한성(陽翰笙), 장커지아(藏克家), 시오치엔(蕭乾) 등 17명의 작가와 작품 및 그들의 생애에 대한 전시회를 했다. 이외에 현대문학연구혁신 좌담회, 왕풍자우(王統熙) 백년탄신 좌담회, 차오징화(曹靖) 백년탄신 좌담회 등을 하였다.
- 전시 기능 : 1층은 ‘20세기 대사풍채’ 전시실로 주로 중국의 유명 문학가 루쉰(魯迅)·귀모뤄(郭沫若)·마오둔(茅盾)·바진(巴金)·차오위(曹偶)·빙신(冰心) 등의 생활 모습과 창작 정경들을 모방하여 전시해 놓았다. 2층은 ‘중국현대당대문학’ 전시실로 20세기 중국문학 발전 개황 및 그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3층은 ‘작가문고’ 전시실로 55명의 작가들이 기증한 장서 및 문물들을 진열하고 있다. 지하 1층은 ‘문학관 장서표원작’ 전시실로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52명의 화가들이 중국현대문학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그린 장서표(藏書票)를 전시하고 있다.
- 기증도서 특별실 운영 : 유명 문학가가 자신의 장서들과 자신이 사용하였던 창작공구들, 생활용품 등을 문학관에 기증하였을 때, 문학관에서는 이러한 기증품을 모아서 개인 ‘문고’를 만든다. 그리고 그 작가의 이름을 따서 개인박물관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작가와 문학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일반인을 위한 활동 : 문학관 내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다기능 대청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문학좌담회라든가 연구토론회 및 강연회 등 모임을 가진다. 이외에도 커피숍과 음식점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문학교류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잘 조성된 숲 속에 자리잡은 중국현대문학관에는 국내외의 유명한 미술가·조각가·공예가들이 신관 건립을 기념하여 창작한 벽화, 작가조각상, 작가의 서명이 찍힌 도자기 등 많은 예술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중국현대문학관은 중국 20세기문학의 집대성하여 베이징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

① 도스토예프스키 기념관

- 위치 : 페테르부르크 쿠즈네츠니가 5번지
- 개요 : 탄생 150주년인 1971년에 도스토예프스키 기념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작가는 총 5층 건물인 이 건물의 2층 10호실에서 살았다. 문패와 초인종도 그대로 달려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어린이방·부인방·응접실·서재가 있다. 부인 안나의 방에는 출판계약서·영수증·수지계산서 등이 보관되어 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완성한 서재에는 책상과 소파, 책꽂이, 푸슈킨 시선집, 홍차 한 잔이 있고, 유리관 안에는 펜과 돋보기안경 등이 보관되어 있다. 기념관측에서는 홍차를 좋아한 작가를 기려 매일 홍차를 새것으로 갈아놓고 있다.
- 운영 실태 : 작가의 관련 유물을 보관·전시하는 기념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모스크바 변두리의 마리아 빈민병원에서 태어났는데 16세 때까지 병원 옆 관사에서 살았다. 이 관사건물도 도스토예프스키 기념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② 고리키 기념관

- 위치 : 모스크바 카찰로프가 6번지
- 개요 : 1900년에 예술애호가인 한 부호가 지은 2층집. 혁명 이후 국유화되어 국립출판사와 해외문화교류협회 사무실로 쓰이다가 1931년에 스탈린이 고리키에게 주어 고리키의 집이 되었다. 1층에는 식당과 서재, 침실 등이 자리잡고 있고, 2층에는 작가가 쓴 편지와 관련 미술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어머니』 등 그의 대표작들도 전시되고 있다.
- 운영 실태 : 도스토예프스키 기념관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관련 유물을 보관·전시하는 기념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 솔로호프 문학박물관과 기념관

- 위치: 표센스카야

- 개요 : 196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고요한 돈강』을 쓴 솔로호프를 기리는 문학박물관은 1985년에, 생가를 재정비한 솔로호프 기념관은 1994년에 개관하였다. 모두 그의 고향 보센스카야에 있다. 문학박물관은 솔로호프가 잠시 적을 두었던 중학교가 박물관이 되었으며, 작가가 만년까지 살았던 생가는 부인이 잘 보존하여 살다가 부인의 사후에 기념관으로 전용되었다. 기념관 뜰에 부부의 묘가 있으며, 묘비명에는 작가의 유언에 따라 ‘솔로호바’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 운영 실태 : 기념관 전시실 한편 ‘고요한 돈강 코너’에서는 작가가 육성 녹음을 통해 『고요한 돈강』의 마지막 장(章)을 들려줄 뿐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여느 기념관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작가가 보관하고 있던 구식 축음기로 간혹 작가가 좋아했던 카자흐 민요를 들을 수 있다.

솔로호프의 생일 5월 24일에는 해마다 이 마을에서 ‘솔로호프 베스나’(솔로호프의 봄)라는 이름으로 카자흐식 마을축제가 열린다. 인구 1만 명밖에 안 되는 소읍인 이 도시에는 솔로호프의 흉상과 소설 주인공 그레고리의 모델인 하를렘피 예르마코바의 동상, 조각가 마자이 예프가 솔로호프를 상징해 만든 ‘젊은 독수리상’ 정도가 있을 뿐이지만 소설 한 편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해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다.

[독일]

① 붓텐부르크 하우스(하인리히 만과 토마스 만 기념관)

- 위치 : 멩 슈트라쎬 4, 뤼벡(Mengstrasse 4, 23552 Luebeck)
- 개요 : 형제 작가 하인리히와 토마스 만의 탄생지인 독일 북부 도시 뤼벡시는 이 작가들의 생가인 붓텐부르크 하우스를 이 두 작가를 기념하는 기념관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곳에는 두 작가와 이들의 작품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작가의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또한 이곳에는 하인리히 만 협회와 토마스 만 협회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 하인리히 만 학회(Heinrich Mann Gesellschaft) : 사단법인 하인리히 만 협회는 1996년 3월 27일, 하인리히 만의 125번째 생일날 붓덴부르크 하우스 내에 설립되었다. 하인리히 만 연구가들은 이미 하인리히 만의 탄생 100주년인 1971년부터 《하인리히 만 연구 모임 Arbeitskreis H. Mann》이란 정기간행물을 내고 있었으며, 이 모임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바로 하인리히 만 협회이다.
- 토마스 만 학회(Thomas Mann Gesellschaft) : 1965년 토마스 만 연구자들과 뤼벡 시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면, 현재 토마스 만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전역의 토마스 만 연구가 약 800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수많은 전시회와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토마스 만 연구에 공적이 큰 학자들에게, 특히 젊은 연구자에게 토마스 만 메달을 수여하기도 한다.

② 괴테 생가(박물관)와 문서보관소

- 위치: 그로쎌 히르쉬그라벤, 프랑크푸르트 23-25(Großer Hirschgraben 23-25, 60311 Frankfurt am Main)
- 이메일 : info@goethehaus-frankfurt.de
- 개요 : 이 집에서 괴테는 1749년 8월 28일, 정오의 교회종이 칠 때 태어났으며, 이곳에서 그는 20대 중반까지, 그가 바이마르로 갈 때까지 살았다. 도서관은 대략 12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1740년부터 1840년 사이의 책들이다. 당연히 괴테의 책들이 가장 중심에 서 있으며, 그 외에 그의 주변 인물들과 낭만파 작가들의 책들도 수집되어 있다. 이곳에는 4만 점에 달하는 많은 작가들의 친필원고가 수집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에 오는 작가는 당연히 괴테이고, 그 외에 노발리스·브렌타노·아르님·아이헨도르프, 그리고 호프만스탈의 친필원고가 보관되어 있다. 또한 괴테와 그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낭만주의 작가들의 그림과 초상화도 수집되어 있다. 괴테와 실러가 활동했던 바이마르에는 이 두 작가에 관한 여러 가지 기념물과 문서보관소(Archiv)가 있다. 이 모든 기관들을 관리하는 기관은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Stiftung Weimarer Klassik)이다.
 - 위치 : 한스 발 슈트라쎬 4, 바이마르(Hans Wahl Strasse 4, Weimar)
 - 개요 : 괴테의 마지막 손자인 발터 볼프강 폰 괴테 유언에 의해서

1885년 괴테의 모든 유물은 대공녀 소피에게 넘어갔으며, 같은 해에 그녀에 의해서 괴테 문서보관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889년 이곳에 실러의 유물들이 기증되면서 괴테-실러 문서보관소란 이름으로 개명된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문서 보관소'(Literaturarchiv)로서 괴테와 실러의 유물은 물론 헤르더·빌란트·뮌케·헵펠과 같은 작가들의 중요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위 '괴테 바이마르 전집', 혹은 '괴테 소피 전집'이라고 불리는 143권으로 이루어진 괴테 전집을 1887년부터 1919년 사이에 출판했다.

- 괴테 하우스 : 프라우엔플란 1, 바이마르(Frauenplan 1, Weimar)
- 실러 하우스 : 실러 슈트라쎬 12, 바이마르(Schillerstrasse 12, Weimar)

③ 로버트 무질 문학 박물관(Robert Musil Literatur Museum)

- 위치 : 반호프 슈트라쎬 50, 클라겐푸르트, 오스트리아
- 이메일 : klagenfurt@musilmuseum.at
- 개요 : 오스트리아의 클라겐푸르트 시에 있는 무질의 생가가 '로버트 무질 문학 박물관'이다. 1867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현재 시의 소유이며, 1996~1997년 사이에 개축되어 무질 문학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으며, 클라겐푸르트 대학 소속의 '로버트 무질 연구소'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1994년에 설립되었는데 무질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 박물관에는 이곳 클라겐푸르트에서 출생한 여류작가 잉게보르크 바하만(1926~1973)의 다양한 유물도 전시되고 있다.

④ 헤르만 헤세 문학관

- 위치 : 마르크트 플라츠 30, 칼프(Marktplatz 30, 75365 Calw)
- 이메일 : Hermann-Hesse-Museum@calw.de
- 홈페이지 : www.calw.de
- 개요 : 1990년 작가의 생가가 보이는 유서 깊은 건물인 '하우스 슈츠'(Haus Schuez)에 헤르만 헤세의 문학관이 개장되었다. 1946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헤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인데, 이 작가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10개의 넓

은 전시관에는 작가가 남긴 친필 원고부터 귀중한 작품들의 초판본들, 그리고 작가의 사진, 그리고 작가가 그린 스케치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⑤ 브레히트 하우스(Brecht Haus)

- 위치 : 베를린 쇼쎄슈트라쎄 125(Chausseestraße 125)
- 개요 : 브레히트 하우스는 베를린 중심가인 쇼쎄 슈트라쎄에 있는데, 그 근처에는 수많은 철학자·작가·음악가·조각가들이 잠들어 있고, 브레히트 자신도 묻혀 있는 도로테엔 시립 공동묘지가 있다. 브레히트는 이 건물에서 1953년 10월부터 56년 8월까지 살았다. 연극 공연장인 '베를리너 앙상블', 예술원, 그리고 유서 깊은 공동묘지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생전에 브레히트는 이곳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으며, 또한 공간의 여유가 많아서 그의 제자들도 이곳에서 머물 수 있었다. 3층 건물인 브레히트 하우스에는 브레히트에 관한 학술모임을 열 수 있는 장소들과 브레히트 유물관이 있다. 이곳에는 브레히트가 남긴 각종 자료들, 예컨대 초기 원고, 구상을 메모한 것들, 수정한 원고들, 일기, 수많은 작가나 연구소, 출판사들과 주고받은 편지 등이 수집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브레히트 작품의 발전과 변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브레히트 연구가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브레히트의 독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약 4천 권의 책들과 그의 작품들의 초판본 등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책들은 일반 방문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현재 이곳을 운영하는 주체는 시의 지원을 받는 사단법인이다. 이러한 문학모임의 기원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7년 4월부터 1978년 2월까지 이 건물을 수리한 당시의 동독정권은 이곳을 '동독의 브레히트 센터'(Brecht Zentrum der DDR)라고 명명하였다. 하지만 통일 후에 '베를린의 브레히트 센터'(Brecht-Zentrum-Berlin)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스트리아]

① 트라클 문학관

- 위치 : 박플라츠 1a, 잘츠부르크(Waagplatz 1a, Salzburg)
- 이메일 : kulturvereinigung@salzburg.co.at
- 개요 : 잘츠부르크의 예술연맹(Kulturvereinigung)에 의해서 1973년 트라클의 생가 1층에 트라클 문학관이 설립되었다. 잘츠부르크 시가 모아두었던 시인의 유물과 트라클 누이의 유언에 의해서 전해진,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트라클의 유물이 이곳에 전시되게 되었다. 문학관 담당자들은 그 후에도 꾸준히 트라클의 유고를 수집한다. 이런 것 외에도 시인의 학생시절의 성적표나 사진들, 시인이 썼던 책상, 자화상 등과 같은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 시인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에는 그를 기념하는 국제 학술행사(Trakl Forum)가 열리고, 트라클 연구논문을 모은 잡지(《Trakl Studien》)를 발행하기도 한다.

[일본] 30)

① 시바료타로문학관

- 위치 : 577-0803 大阪府東大阪市下小阪3丁目11番18号
- 홈페이지 : <http://www.shibaxaidan.or.jp/>
- 개요 : 1996년 11월 시바 료타로의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문화청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이 발족했다. 재단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과 마스크 11개사, 오사카부, 동오사카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바 료타로의 유산의 일부를 사용해 운영되고 있다. 재단의 사업은 시바료타로문학관 운영, 시바료타로상과 젊은 세대의 지적탐구심을 장려하는 펠로우십, 시바 료타로의 기일(2월 2일)에 동경, 오사카에서 격년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 시설 : 시바료타로문학관은 기념관적 성격이 강하다. 이 문학관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꾸어 나가려는 관점에서 개관되었다. 방문자는 사마 료타로의 작품과 이 기념관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갈 수 있기

30) 일본 문학관의 경우, 다음 제 4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를 바라는 의도로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네트워크를 넓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시바료타로문학관은 생전에 작가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학관으로서 기획전시실, 대형서가, 강당, 카페, 서재,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나리타에 분관이 있다.

② 미야자와켄지기념관(澤賢治記念館)

- 위치 : 花卷市矢澤 1 - 1 - 3 6
- 이메일 : e-mail : hanamaki@city.hanamaki.iwate.jp
- 홈페이지 : http://www.city.hanamaki.iwate.jp/kenji/contents_1/kenji_kinenkan/kenji_kinenkan.php?menu_id=menu_6
- 개요 : 미야자와켄지기념관은 시나 동화, 교육, 농업, 과학과 같은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 켄지의 세계를 친숙하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로 1982년 9월 21일(켄지 기일)에 개관했다. 현재 켄지를 애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간 20만 명 넘게 방문하고 있다. 미야자와켄지기념관에서는 켄지의 애용품, 원고 등 켄지와 관계되는 물건 이외에 비디오나 슬라이드, 도서자료 등이 갖추어져 있다.
- 역할 : 미야자와 켄지의 작품을 항구적 보존·관리, 작품을 통한 교육의 장, 하나마키시 출신 문학가의 소개 등 관광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 운영 실태 :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설된 동화마을은 관광과가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명도가 올라가 전국으로부터 방문자가 많아졌다. 기념관은 하나마키시가 직영, 지정 관리자 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유지 및 관리는 교육위원회가 하고 있다. 기념관은 상설전시를 통해 켄지 작품을 정밀하게 복원전시, 기획전을 통해 매년 그림을 이용한 동화를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 기념관이 대중적인 교육장이라면 미야자와켄지이하토브관은 학회의 거점으로서 전문교육장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약간 방문자가 줄고 있으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수업의 커리큘럼과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③ 세타가야문학관

- 위치 : 〒157-0062 世田谷區 南烏山1-10-10
- 이메일 : webmaster@setabun.net
- 홈페이지 : www.setabun.or.jp
- 개요 : 세타가야문학관은 관장이 예술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로 세타가야 출신 100명 이상의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 관련 기관이 건설되게 되었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 문학관을 만드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1995년 7월에 문학관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문학관을 운영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구(지자체)에 운영을 부탁하게 되었다. 현재 운영은 세타가야문화재단이 하고 있다.
- 운영 실태 : 보존 기능의 하나로 작가의 귀중품(자료) 보관 및 원고가 잘 정리되어 있다. 문학의 생활화를 위해서 눈으로 보는 전시뿐만 아니라 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문학관 시설로는 기획전시실, 문학사롱, 도서관, 찻집, 미술관 쉼, 상설전시실, 강의실 등이 있다. 기획전시로서 그동안 이케타미 쇼타로 세계전, 사노요코의 그림책전, 시인화가 다케히사 유메지의 탄생 120주년, 영화자료전 등과 이벤트로는 문학 사롱(문학회, 낭독회, 토크&콘서트), 문학 산책, 세타가야 문학 주간, 세타가야필름페스티벌, 문학대학, 젊은 독자를 위한 문학 강좌, 여름방학 어린이 문학관 등이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밖의 출판 기능으로 세타가야와 관련된 각종 서적 출판과 문학자 탐방, 문학에 관한 특집이나 정보, 세타가야문학상 상위입상작품을 게재하는 문예세타가야를 25회 출판하고 있다.

④ 하이쿠문학관(俳句文學館)

- 위치 : 東京都新宿區百人町3-28-10
- 홈페이지 : <http://www2.famille.ne.jp/~haiku/>
- 개요 : 하이쿠문학관은 사단법인 하이진협회(하이쿠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가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일본에서 유일한 하이쿠문예전문 도서관이다. 수장도서는 2006년 1월말 현재, 하이쿠문집(句集/49,313권, 하이쿠잡지/ 291,643권)을 소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하이진협회는 회원 14,500의

공익법인이며, 하이쿠문학의 창조적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이쿠문학관 사무국 안에 하이진협회·하이쿠문학관 업무를 겸하고 있다.

- 기능과 역할 : 하이쿠문학의 창조적 발전과 보급, 일본문화 향상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매년 전국하이쿠대회, 각종 하이쿠 강좌, 기관지 발행, 우수 하이진의 포상, 해외와의 교류 등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운영 실태 : 메이지 이후 하이쿠 문헌에 관한 자료 열람, 하이쿠 관련 단체와의 교류, 그리고 국제부가 마련되어 있어 외국에서 출판된 하이쿠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자료는 모두 기증 받고 있어 도서구입비는 없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공적 지원은 전혀 없다. 방문객이 하루 20명 정도인 전문도서관으로서 대부분 하이쿠에 관한 연구자들이 방문한다. 자료공개 형식은 폐가식(閉架式)으로 선택한 자료만 대출하고 있다. 현재 문학관 측은 젊은 층의 관심 유도와 IT시대에 대응하여 컴퓨터로 도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⑤ 일본근대문학관

- 위치 : 東京都目黒區駒場 4 - 3 - 5 5 (駒場公園内)
- 홈페이지 : <http://www.bungakukan.or.jp>
- 자매문학관 : 가나가와현립문학관
- 개요: 재단법인 일본근대문학관은, 1962년 5월, 유실의 우려가 심각한 근대문학관계의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해서 문단·학계·매스컴 관계의 유력자 113명에 의해 발기되었다. 각계에 문학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발기자들의 헌신과 각계로부터의 절대적 원조에 의해, 1967년 4월 준공·개관하게 되었다. 최근, 문학관의 설립에 참가한 사람은 약 15,000명에 이르고 있다. 개관 후에도 계속해서 문단·학계 관계자의 봉사, 출판사·신문사, 기타 각 방면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유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근대문학관의 대표자는 초대 다카미(高見順)로부터 지금 6대째의 이사장이 되는 나카무라 미노루(시인·변호사), 부이사장은 쿠로이 센지(작가), 전무이사는 소가와 신스케(학습원대학 교수)가 맡고 있다.
- 기능 및 역할 : 도서관 업무가 주체(도서·잡지)이다. 일본근대문학관

이 생기기 전에는 전국의 문학관을 연결하는 조직이 없었다. 이후 일본 근대문학관 안에 전국문학관협의회(임의단체)가 생기게 되었고 일본 전역의 문학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국문학관협의회는 친목조직으로서 연 1회 6월에 총회를 열고 있다.

* 전국문학관협의회 <http://www.bungakukan.or.jp>

- 사업 내용 : 자료의 수집 및 전시, 보존 및 공개가 주요 사업이며, 메이지 이후 일본의 근·현대문학 관계 자료와 그 관련 분야가 주요 수집 대상이다. 자료는 도서, 잡지, 신문, 그 밖의 특별자료로 불리는 원고, 서간, 필묵, 일기, 노트, 귀중품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현재 그 수는 100만 점이 넘으며, 대부분은 저자 또는 그 유족, 출판사 등으로부터 기증(일부 기탁)에 의한 것이다.

3. 국가별 문학관 운영상의 특성과 시사점

- 문학적 전통이 깊은 거의 모든 나라가 문학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같은 동양권이지만 중국과 일본이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같은 언어권인 미국과 영국이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아라공문학관에 관한, 윤학로·김점석의 뛰어난 사례 연구³¹⁾가 있어 이 연구에서는 생략하였다. 국가별 문학관 운영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과 월트 휘트먼 생가 및 통역센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 헤밍웨이 생가 기념관의 특징은 지역대표 18명과 가족과 학자 연합체 8명이 중심이 되고, 주요 기부자와 사업가 등의 고문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또한 2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한 달에 각자 4시간 이상을 봉사하여 기념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학관 참여도를 높였다. 매년 헤밍웨이 단편소설 독후감을 고등학생에게 공모하여 시상하는 제도도 우

31) 윤학로·김점석, 「아라공 문학관의 운영 사례 연구」, 『프랑스학연구』 프랑스학회, 2004a

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독자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한무숙·이주홍·박화성을 기려 건립된 문학관이 있는데, 이들 작가의 문학적 의의를 되살리려면 대학생과 청소년 대상 독후감을 공모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윌트 휘트먼 생가와 통역센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통역센터에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이드가 안내를 하며, 서점에서는 휘트먼의 시가 담긴 오디오와 비디오물, 시집과 팸플릿 등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이다. 휘트먼의 생가가 있는 마을을 하이킹하는 하이킹 투어 지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작품의 무대가 된 몇 곳을 답사할 수 있는 김유정문학촌이나 이효석문학관과 일부 흡사하다.
- 영국의 경우 영국을 대표하는 두 문호 셰익스피어와 찰스 디킨즈의 생가 터에 세워진 기념관을 조사해 보았다. 셰익스피어는 인도를 잃어도 셰익스피어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영국인이 아끼는 작가이다. 그런 작가의 탄생과 그의 작품을 기려 세워진 것인 만큼 다양한 학문적 프로그램이 행해지는 특징이 있었다. 셰익스피어 센터에서는 일종의 연극제가 해마다 열리는데, 셰익스피어 희곡에 대한 연구자들의 강연은 물론이거니와 연극에 출연한 배우들과 다른 극장 수련생과의 토론은 참석자들의 흥미를 북돋우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 찰스 디킨즈 탄생 기념관은 작품 원작과 작가의 전기 등이 박물관 상점에서 팔리는 것은 윌트 휘트먼 통역센터와 다를 바 없지만 특별히 교육관련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요소다. 작가의 탄생기념관이 골동품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살아 있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은 본받을 만한 것이다.
- 중국은 개방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대다수 기업들이 민간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정치체제는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이다. 그래서인지 문학관도 민간인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고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지역의 문학애호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지역의 유지와 유가족이 힘을 합쳐 문학관이 설립되는 다

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문학관이 설립·운영되고 있기에 엄청난 규모이다. 베이징 조양구에 있는 중국현대문학관은 문학박물관·문학도서관·문학자요 연구 센터·문인교류 센터·출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도서관과 국립도서관을 합친 규모보다도 크다. 지하 1층 전시실에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 52명이 문학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그린 장서표가 전시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문학관이 공산주의 체제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 중국현대문학관이 20세기의 자국의 문학을 집대성했다는 점에서는 모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학인의 생가 보존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제고, 문학의 일반인 향수 등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문학관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모만 클 뿐 지역주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중국현대문학관이기에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지도 모른다.
- 러시아는 중국과는 많이 다르다. 러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고리키·솔로호프를 기념하는 문학관이 출생지에 세워져 있지만 하나같이 소규모이고, 유품을 보관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과 연계된 사업은 하지 않는다. 문학관이 작가의 유품을 전시하는 것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죽은 문학관이 된다. 다만, 보센스카야의 마을축제만큼은 주목할 만하다.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을 읽고 감동한 전세계의 많은 독자가 작가의 고향인 보센스카야를 찾고 있다는데, 작가의 생일에 맞춰 카자흐식 마을축제가 열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수 있겠다.
-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문인협회 안성지부에서 2005년 제5회를 연 해산문학제가 배울 만하다. 2005년 10월 18일에 해산 박두진의 문학적 위상과 업적을 기리는 시화전과 사진전이 안성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백일장 시상식과 문학강연회, 가곡 및 시낭송 등은 서울에 있는 문학의 집·서울에서 행해졌다.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아쉬운 부분이다.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가 안성이 낳은 조병화·박두진 두 시인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안성도서관 한 켠에 박두진문학관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이는 본격

문학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매우 안타깝다.

- 독일의 문학관은 박물관의 역할과 아울러 그 작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후원 기관 역할을 겸하고 있다. 문학관을 중심으로 그 작가를 연구하는 단체가 활동하고, 정기간행물이 나오고, 학술대회가 열린다. 따라서 독일의 문학관은 그 작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 오스트리아의 트라클 문학관에 시인 게오르그 트라클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이한 것은 시인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에 그를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리고 시인을 연구하는 논문을 모은 잡지가 발행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문학관이 박물관 역할에 멈추지 않고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제 4절 일본 문학관 운영의 대표적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가. 시바료타로문학관(司馬遼太郎文學官) (2005. 10. 31 방문)

- 개요 : 1996년 12월에 공익법인으로 발족하여 5년 후에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현재 시바료타로기념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건축상 (2002년 : 제22회 오사카시가지상·오사카부지사상수상, 2003년 : 제44회 건축업협회(BCS)상 수상)
- 운영 형태 : 공익법인
- 역할 : 시바 료타로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작품을 알리는 일
- 사업
 - 시바 료타로가 생전 초등학생 5~6년생을 위해 쓴 소설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올해부터 하나마키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채택했다. 초등학교 5학년과 어머니, 아버지의 독서회가 년 일회 있다. 100명 정원으로 무료이다.
 - 관장의 얘기로는 독서모임 후 시바 료타로의 문장과 생각이 잘 전해지고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아울러 작품이나 작가의 사고방식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고 싶다.
- 운영 상황
 - 연간 예산 : 지출 1억 55천만 엔
 - 조직 구조 : 재단직원 총 7명 (이사장 1명, 전무이사(관장 겸직) 1명, 부관장 1명, 상근 스태프 4명) * 전문직 학예원 3명, 사무직 1~2명
 - 비상근 4명(접수,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 240명(1일 20명/ 오전 10명, 오후 10명)
 - 사업을 할 때에 임원을 비롯해 시바 료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

서 도와 줌. (예 : 강연회의 접수, 안내 등 70명)

- 간사회 (2개월 1 회 개최) : 상담을 겸하고 있다, 시바료타로상의 후보작을 고른다, 선고 위원 사람(5명)에게 읽게 한다
- 연 1회 (홈페이지)
- 재정수입
 - 외부 70% : 문화청 없음, 지자체 없음, 후원 멤버 3000명(10%), 그 외 주요 수입원은 인세 (60%)
 - 내부 30% : 내부수입, 입장료와 상품(30%)

○ 주요 사업(프로그램)

- 상설 전시 없음
- 기획전 연 2회
- 2월 12일 동경, 오사카에서 심포지엄(9회째의 시바료타로상 시상식이 열리며, 25세까지 연구원(fellowship) 30만 엔, 신문사 및 출판사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다.
- 시바 료타로와 친했던 당시 각 신문사·출판사 편집자에게 부탁하고 있다.
- 연 6회 강연회(성황)
- 연 2회 콘서트(동요, 소설, 다른 사람의 음악도 소개하고 있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것을 접할 수 있게 한다. 153석, 2500엔)
- 강연 콘서트(lecture concert) : 일본은 메이지부터 서양문화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를 더듬어 가는 것은 일본문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 시바 료타로는 유라시아의 몽골어 전공.
 - 기념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주었으면 한다.
 - 처음 계기는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희망에서 시작했으며, 지적인 재미를 포함하고 있는 음악을 대상으로 삼게 된 셈이다.
 - 국제화의 사업도 하고 있다.

○ 이용자 실태

- 유료·무료 : 연간 3만 명이 방문
- 성별 : 남자(50%)、여자(50%)
- 단체는 그다지 장려하지 않으며, 진정 좋아하는 사람이 오길 원한다.

- 처음엔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개인 방문객들로부터 불만이 쇄도했다
- 버스 주차장은 없다.

○ 희망하는 것

- 독자층으로 젊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를 위해 오기 쉽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싶다.(즉 팬 층의 확대)
- 기념관이므로 손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 커머셜한 것은 하지 않는다. (시바 료타로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고,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다가가고 싶다)
- 사후 10년을 맞이하면서 팔리는 상품이 줄고 있다.
- 시바 료타로의 생각을 알게 하고 싶다, 시바 료타로를 알게 하고 싶다.

○ 지역과의 관계

- 시바 료타로는 최후까지 동경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이 지역에서 살았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 시민들이 매우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 시바 료타로는 생전, 유채꽃을 아주 좋아했다. 지역의 협력으로 2월 12일에 유채꽃을 피우게 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며, 더욱이 역에서부터 기념관까지 유채꽃 길이 조성되는 시민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 이는 시바 료타로가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에 의해 경제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는 꽃으로 마을을 꾸미는 의식이 퍼져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 마지막 한마디

- 자원봉사자는 이 고장 사람이 많다.
- 운영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달에 한 번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토·일은 학생도 있다. (최연소자 20세, 최연장자 82세)

나. 미야자와켄지기념관(澤賢治記念館) (2005. 11. 5 방문)

- 개요 : 1982년 9월 21일 설립되었으며, 건물 소유주는 하나마키(花巻)시 교육위원회(임대료는 행정재산으로 연 1회 지불)이며, 매점 판매, 접수 등은 재단법인의 위탁업무다. 외부 위탁은 청소업무, 판매업무 등

이다. 이 문학기념관의 건립은 민간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서였으며, 이를 시 당국이 받아들인 형식이다. 건설비는 대부분 모금 활동으로 조달했지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충당하였다.

○ 운영 형태 : 하나마키시 직영 (* 동화마을은 관광과가 담당)

○ 임무(mission)

- 미야자와 켄지의 작품을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미야자와 켄지의 작품을 방문자에게 알린다.

○ 역할

- 하나마키시 출신의 문학가를 소개한다. 관광적인 면도 있어 방문자의 대부분은 관광객이다. 즉 미야자와켄지기념관은 관광 장소이면서 교육장이다.

* 1996년 :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설되었다.(관광과의 주도로 동화마을을 건설), 이로 인해 더욱 지명도가 올라갔으며, 이에 전국으로부터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 기념관은 대중의 교육장이며, 미야자와켄지이하토브관(http://www.city.hanamaki.jp/kenji/contents_1/kenji_ihatovekan/kenji_ihatovekan.php?menu_id=menu_8)은 전문 교육장이다. 미야자와켄지이하토브관은 학회의 거점이 되는 것이 목표다.

* 지정 관리자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유지관리 등 교육위원회의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산으로서 시가 관리하고 있다.

○ 입장료

구분	개인	20명 이상의 단체
초등학생, 중학생	150엔	1인당 100엔
고등학생, 대학생	250엔	1인당 200엔
일반	350엔	1인당 300엔

- 공통입장권 : 미야자와켄지기념관, 하나마키니토베기념관, 미야자와 켄지동화마을 「켄지학교」, 하나마키시박물관

- 주요 사업(프로그램)
 - 상설전시 : 정밀하게 복원하고 있다.
 - 기획전(매년) : 예 - 그림을 이용하여 동화를 알기 쉽게 하거나, 자필로 쓴 것을 공개하기도 한다.

- 이용자 실태
 - 유료
 - 무료 : ① 지역의 초·중·고교생 - 지역의 어린이들이 동반자와 함께 입장할 경우 ② 장애인 수첩 소지자(본인, 동반자), ③ 고향 신분증 소지자

- 희망하는 활성화 대책
 - 교통 불편(주차장 공간이 적음) 해소 : 버스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길 원한다. 5월 연휴, 백중 기간은 셔틀 버스를 임시운행한다.

- 문제점
 -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필요하다.(i현재는 조금씩 보수하고 있는 정도)

- 마지막 한마디
 - 약간 입장객이 줄고 있기에 현 상태의 서비스를 하면서 학교 등에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수업의 커리큘럼에 몰두해 보거나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해지도록 노력한다.
 -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미야자와의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지나친 커머셜(commercial)은 삼가고 있다.

다. 세타가야문학관(世田谷文學官) (2005. 11. 11 방문)

- 설립 경위·배경
 - 관장이 예술에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로 세타가야 출신(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 관련 기관이 건설되게 되었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 문학관을 만드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서 이를 바탕으로 문학관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

- 그러나 문학관을 운영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구(지자체)에 운영을 부탁하게 되었다. 실제 운영은 세타가야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 세타가야 문화재단 (<http://www.setagaya-ac.or.jp/zaidan/top.html>)

- 2003년 3월 설립된 세타가야문화재단은 폭넓은 시민 참가를 기본으로 시민의 시점에서 '평화롭고 풍부한 생활문화도시의 실현'을 기본구상으로 하고 있다. 미술관, 문학관, 문화생활정보센터, 남녀공동참여센터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체적인 문화활동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
-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에 있어 구민은 미술, 문학, 연극의 간극을 넘어 더욱 폭 넓고 질 높은 예술과 문화를 향수하고 싶어 한다. 이와 동시에 스스로가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다. 세타가야라는 지역이 배양해 온 풍부한 문화적 환경을 지키면서 구민의 손에 의해 새로운 문화 창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이 같은 인식 아래 민간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구와 밀접한 연대를 보유하면서 전문성 높은 문화예술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구민의 주체적인 지역문화 창조 활동과 국제교류,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지역문화 창조와 체험,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재단법인 세타가야는 그 설립 목적이 있다.

○ 기본 방침

-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을 즐기게 하는 것.
- 비전 : 문학을 이용한 종합 문학관 (문학작품·시나리오·영화, 시·노래)
*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무한하다.

○ 직원 체제

- 관장, 부관장, 사업부(총무과, 학예과)

○ 문학관의 기능·역할

- 보급의 역할 : 문학의 생활화로 눈으로 보는 전시뿐만 아니라 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보존의 역할 : 귀중품(자료) 보관 .원고 정리
- 도서관과 문학관의 차이 : 도서관 / 문학을 접하기 쉽게 장소를 제공, 문학관 / 본래는 자료 보관, 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곳

○ 2005년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개최일	이용요금	실적 (입장 수)	장소
기획전	사진전/크마노츠상과 마법의 숲으로 출품 수/ 약 60점	4.1~11 (1.10~4.11)	100~300엔	1,094명 (5,245)	세타가야 문학관 전시실
	池波正太郎(이케나미 쇼타로) 출품 수/ 약300점	4.24~6.13	200~500엔	7,270명	
	佐野洋子(사노요코) 그림책의 세계전 출품 수/ 약150점	7.17~9.20	100~300엔	6,545명	
	탄생 120주년 시인화가 竹久夢二(다케히사 유메지)전 출품점수/약200점	10.9~11.28	200~500엔	5,003명	
	탄생 100주년 영화감독 成瀬巳善男 출품 수/약350점	1.29~3.31 (1.29~4.10)	100~300엔	3,090명 (3,892명)	
조사 연구	세타가야와 관련 있는 작가에 관한 기초조사(거주지 및 기간 등)나 작품, 소장한 서간의 翻刻 등의 조사 및 연구, 구(옛) 자료목록 및 CD-ROM 발행, 세타가야를 그린 문학 18 작품의 조사 결과 <문학세타가야> 24호 발표			세타가야 문학관	
홍보 활동	문학관에서 개최한 전람회나 개최물, 소장자료 등을 주지 하기 위한 각종 홍보 활동	-	-	-	-
	<문학관 뉴스> 발행 제 24~26호	4,8,12월	-	각 12,000부	세타가야 문학관 외
	연간 카렌다 발행	4월	-	30,000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상시	-	방문자 수 55,224건	

	홍보간판	상시	-	-	
	그 밖에 전람회 개최물의 포스터나 팸플렛 배포	-	-	-	

- 라이브러리 : 영화, 낭독, 문학을 모은 콘서트, 세타가야와 관련 있는 문학인의 도서 및 잡지, 비디오 CD, AV자료
- 뮤지엄 숍 : 관에서 간행한 전람회 도록 등의 도서나 기획전 관련 도서, 관의 오리지널 전화카드, 안내서, 열쇠고리, 그림엽서 등 판매
- 찻집 운영

○ 관리 운영비

- 수입의 구성(2005년 : 174,334천 엔) : 사업수입(114,830), 보조금 등의 수입(58,154), 기부금(300), 잡수입(300), 조세수입금(750)

○ 친목회

- 지금은 취미모임이지만, 이후는 찬조회원이 되게 하고 싶다.
- 자원봉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 운영상의 문제점

-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수익을 얻기 어렵다.
- 문학관이 구(지자체)의 것으로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다
 - * 문학은 문화유산으로서 보관은 공공비용으로 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이후 활성화를 위한 대책·희망

- 자료 유실이나 분실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같은 IT시대에서 문학관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새로운 유명작가는 컴퓨터로 작성하기 때문에 전 시하기가 어렵다.
- 즐거웠다고 기억에 남도록 부가가치를 높이고 싶다.
 - 예) 문학 속에서 나오는 것을 선물로 파는 것 등

- 지역과의 관계
 - 타 지역에 가서 출장 사업을 연다.
 - 학교를 방문해서 전시(그림책 전시 등)
 - 강습회 (지역 주민을 위한)
 - *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점

라. 하이쿠문학관(俳句文學館) (2005. 11. 11 방문)

- 개요 : 하이쿠문학관은 사단법인 하이진협회가 운영하는 도서관 성격의 문학관이다. 유일한 하이쿠 문예 전문 도서관으로 수장도서는 2005년 11월 현재, 하이쿠 시집 49,313권, 하이쿠 잡지 291,643권이다.
- 기본 방침
 - 하이쿠 문예의 창조적 발전과 보급, 일본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전국하이쿠대회, 각종 하이쿠 강좌, 기관지 발행, 해외와의 교류 등을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 하이진협회가 하이쿠문학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이쿠문학관 사무국 안에 하이진협회·하이쿠문학관 업무를 겸하고 있다.
- 직원 체제
 - 임원 : 상근 3명
 - 사무국(1층) : 상근 4명, 비상근(시간제) 14명
 - * 건물 안에 3개의 회의실이 있으며, 회원들에게 대여해 주고 있다.
 - 사무국장 1명, 서무·경리·출판·회보 편집
- 문학관 기능·역할
 - 메이지 이후, 즉 근대 이후 하이쿠 문헌에 관한 자료의 열람
 - 국제부가 마련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출판된 하이쿠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그 밖에 하이쿠 관련 단체는 국제하이쿠교류협회(지원), 사단법인 일본전통하이쿠협회, 현대하이쿠협회가 있다.

* 국제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국제하이쿠교류협회는 하이쿠협회, 현대하이쿠협회, 일본전통하이쿠협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국제교류의 장임과 동시에 세 협회 회원 간 교류의 장이다. 현재는 세 단체가 찬조회비를 가장 많이 내고 있다.

○ 사업 내용

- 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보관·공개
- 하이쿠대회, 출판물 간행, 우수한 하이진의 포상(하이진협회상, 신인상, 평론상 시상 : 협회 (매년))
- 논문집 발간(격년), 간행물 출판, 하이진협회상 등 수여
- 교육활동 : ① 칸사이의 류타니대학(龍谷大學)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대 하이쿠 수업을 하고 있다. ② 하마마츠대학원에서 오픈 강좌를 하고 있다.(연간 4일, 봄·가을에 현대하이쿠에 관한 강좌가 열림) ③ 동경, 칸사이, 이와테 모리오카(岩手盛岡), 나고야 중학교에서 강좌를 연다. ④ 동경에서 여름방학 때 가족교실이 열린다.(7월에 토·일요일 이틀간)

○ 전시 내용

- 도서관(많지 않은 소장품이기 때문에 상설공개하지 않지만, 요청이 있을 경우 보여주고 있다.)

○ 관리 운영

- 수입 구조 : 대부분은 회비의 일부(하이진협회 회원)
- * 도서 구입비는 없음. 그 이유는 모두 기증 받고 있기 때문이다.
- * 외부로부터(예를 들면 공적지원)의 보조금과 차입금은 없다.

○ 방문객의 현황

- 1일 20명 정도 입장하며, 대부분은 도서관 열람이 목적이다.(하이쿠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 하이쿠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른바 전문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입장료는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100엔이다.
- 자료 공개 형식은 폐가식으로서 대출 가능하다.

- 친목회
 - 14,700명(하이진협회 회원)

-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 특별히 없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이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희망
 - 회원 층이 젊어졌으면 한다.
 - 회원은 추천서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하이진협회 회원과 인맥이 없으면 입회가 어렵다.
 -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도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해외의 하이쿠 관련 서적의 검색은 컴퓨터로 가능하다.)

- 지역과의 연계 방법
 - 특별히 하지 않는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무국은 동경에 있다

마. 일본근대문학관(日本近代文學官) (2005. 11. 16 방문)

- 설립 경위·배경
 - 일본 문학관의 출발이기도 한 재단법인 일본근대문학관은, 1962년 5월, 유실의 우려가 심각한 근대문학관계의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해서 문단·학계·매스컴 관계의 유력자 113명에 의해 발기되었다. 1964년 11월 국회도관지부 우에노도서관의 일부를 빌려서 일본근대문학관 문고를 개설하고 도서관 업무를 개시했다. 또한 각계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1965년 건설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다음해에 준공, 각계에 문학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발기자들의 헌신과 각계로부터의 절대적인 원조로 1967년 4월 개관하게 되었다. 최근 근대문학관의 설립에 참가한 사람은 약 15,000명에 이르고 있다.
 - 개관 후에도 계속해서 문단·학계 관계자의 봉사, 출판사·신문사, 기타 각 분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유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당관의 대표자는 초대 다카미(高見順)로부터 지금 6대째의 이사장이

되는 나카무라 미노루(시인·변호사), 부이사장은 쿠로이 센지(작가), 전무이사는 소가와 신스케(학습원대학 교수)가 맡고 있다.

- 처음부터 재단법인으로 발족, 근대문학을 애호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해서 설립 자금을 모았다.

○ 문학관의 기능·역할

- 기능 : 도서관 업무가 주체(도서·잡지)
- 일본·전국의 문학관을 연결하는 역할
- 일본근대문학관 설립 전까지는 각 문학관 간 연락 조직이 없었다.
- 일본근대문학관 안에 전국문학관협의회가 있으며, 친목 조직으로 연 1회 6월에 총회를 연다.
- 전국문학관협의회(<http://www.bungakukan.or.jp>)

○ 기본 방침

- 일본의 근대문학의 보존·수집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자료를 충실하게 모아가는 것이다.(근대문학 관련 자료를 모두 모으자)

○ 직원 체제

- 사무국장 1명, 사무국장 보좌 1명, 11명(아르바이트)
- 총무부 3명 (경리·서무, 명부 관리)
- 도서 자료부 8명 (도서자료 수집 보존, 이용·공개)
- 수집·정리·보존 담당 5명
- 이용·공개실 (전시도 포함) 3명

○ 사업 내용

- 자료의 수집 및 전시, 보존 및 공개
 - 수집 : 메이지 이후 일본의 근·현대문학 관계 자료와 그 관련 분야가 주요 수집 대상이다. 자료는 도서, 잡지, 신문, 그 밖의 특별자료로 불리는 원고, 서간, 필묵, 일기, 노트, 귀중품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현재 그 수는 100만 점이 넘으며, 대부분은 저자 또는 그 유족, 출판사 등으로부터 기증(일부 기탁)에 의한 것이다.
 - 정리 : 문학 전문 자료관으로서 성격상 정리는 독자의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 또 자료의 보존을 우선하며,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공개 : 소장 자료는 미정리 또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상시 전람실에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복사, 사진서비스도 이루어진다.
- 각종 문학행사 개최
 - 전람회 : 1963년 창립 기념 <근대문학사전>, 66년 준공 기념 <톨스토이전>, 67년 개관 기념 <근대문학명작전>, 77년 창립 15주년 기념 <현대작가 300인전>, 창립 20주년 기념 <근대문학전>, 창립 25주년 기념 <夏目漱石展(나쓰메 소세키)>, 창립 30주년 기념 <川端康成展(가와바타 야스나리)>, <井上靖展(이노우에 야스시)>, 98년 창립 35주년 기념 <시간을 넘어서 - 나쓰메, 아쿠타가와, 가와바타전>을 시작으로 수많은 문학전을 개최하였고, 이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 강좌·강연 : 매년 여름 문학교실, 문학가의 자작 낭독회(목소리 라이브러리/연 4회), 강좌(육필로 읽음/연 10회),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문학관 강습, 수시강좌,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간행물 발행 : 수집하기 어려운 잡지나 명작의 초판본, 자료총서의 편집, 학교, 도서관, 연구자 대상의 연구 자료를 간행하고 있다.
- 시설의 공개 : 관람실 외의 문학관 홀, 연구실 이용, 전국문학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각지의 문학관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 관리 운영비 : 보조금·지원금은 없음

○ 방문자 상황

- 근대문학에 흥미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 연구자가 많다.
-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각 학교의 도서관이 충실해지고 있기 때문)

○ 후원회

- 유지회(단체 포함) 매년 회비 형태로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 유지회 회비는 연간 (4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 개인 : 1만 엔, 법인 및 단체 : 6만 엔
- 후원회는 연구자·작가가 많다.
 - 회비는 연간 5천 엔 (단, 10월 이후 입회자는 2천 5백 엔)

-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
 - 출판사와 제휴해서 메이지 이후 문학의 초판본을 세트로 팔고 있다. 상품이 좋아서 매우 잘 팔려 그에 따른 이익으로 운영해 왔으나, 점점 이자가 낮아짐에 따라 기본 재산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후 활성화에 있어서 대책 및 희망
 - 직원의 연령이 높다
 - 방문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주로 방문)
 - 초창기부터 중심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했으며, 현재 나카무라 신이치로, 미노루씨³²⁾에 의해 1994년부터 미래구상위원회가 있다.

- 지역과의 관계
 -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도서관 이용자는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이 많다.
 - 특히 여름방학에 많이 방문한다.

- 마지막 한마디
 - 발족 당시부터 문학과 연구자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그들과의 연계를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업을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들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2. 시사점

- 일본의 문학관은 공립·사립문학관, 문학가의 기념관 등으로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현재 도서관 내의 개인별 문고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400여 개가 넘는다. 수적으로 보면 한국의 10배가 훨씬 넘는다. 동경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세타가야문학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문학관과는 다르게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미

32) 『문학관의 감상 기행』, 나카무라 미노루, 신조사

술, 연극 공연 등을 보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문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문학관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문학관을 건립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 또 하나, 오사카에 있는 시바료타로문학관은 기념관에 가깝다. 한국의 김유정문학촌과 흡사한 형태이다. 시바 료타로가 생전에 좋아했던 유채꽃과 그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원과 서재로 꾸며져 있다. 현재는 이 지역의 중요한 문화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역에서부터 기념관까지 매년 4월이면 유채꽃 물결을 이룬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역민이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부분의 이벤트는 자원활동가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즉 지역민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하는 문학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 일본근대문학관은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관이다. 1962년 5월, 유실의 우려가 심각한 근대문학 관계 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해 문단·학계를 비롯해 매스컴에 종사하는 유력인사들이 발기하고 그 필요성을 사회에 호소하면서 1967년 설립되었다. 처음부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도 근·현대 자료 대부분은 저자 또는 그 유족, 출판사 등으로부터 기증이나 기탁을 받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현재 15,000명에 이르고 있다.
- 미야자와기념관은 다른 문학(기념)관들과 달리 3개의 기념관을 가지고 있다. 각각이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미야자와 문학을 즐기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 직영 문학관이라는 점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이쿠문학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로만 운영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만큼 회원이 많고, 달리 말하면 하이쿠를 즐기는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하이쿠문학관은 하이쿠라는 문학 장르를 특화시킨 전문 문학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며, 우리나라의 한국가사문학관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현재 일본의 문학관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 지역 문학관의 상호협력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1994년 일본근대문학관 내에 전국문학관협의회가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83개의 문학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지금은 각 지역의 문학관과의 활발한 교류는 물론 수장 자료의 데이터 상호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들에게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람회 및 강연회 등도 상호 협력하여 개최하고 있다. 전국문학관협의회에서는 3~4개월에 한 번 회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학관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함과 동시에 책자로도 발행하고 있다.

- 한편 전국문학관협의회를 통해 계몽 및 보급 활동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문학관의 다양한 문제를 상호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 예로 문학 자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문학관 학예원의 인재양성 및 확보와 문학관의 운영·유지·관리에 있어서 지혜와 경험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문학관협회가 2004년 4월에 설립되었는데, 2006년 5월 현재 29개 문학관이 회원³³⁾으로 가입되어 있다. 전국문학관협의회를 참고하여 각 지역 문학관의 발전과 문학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한국문학관협회가 보다 더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33) 설립 당시 회원 문학관은 14개였다.

제 3장 경기지역 문화관 정책 검토

제 1절 경기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인

1. 경기도의 일반 현황 및 문화적 현황 ³⁴⁾

가. 인적·지리적 현황

○ 인적 현황 분석

- 경기도의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 서울인구보다 많으므로 자체 문화 활동 및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인 20세~60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경기도 전체 인구 중 61.7%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에 대한 투자 원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서울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인구의 문화적 수요를 근거리인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50만 명 이상이 되는 시가 무려 7곳이나 되고, 이러한 시들의 여러 문화시설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지리적 현황 분석

-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경기도 북쪽은 북한과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동쪽에는 수려한 산악자원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 외국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청도와 인접하여 그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3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경기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의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일부 통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2006)에 의거하여 최근 것으로 수정하였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자유롭다.

- 서울의 관문으로서 타 지역과의 연결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장점을 알리는 데 유리하다.
- 광활한 영역을 통한 풍부한 지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 특히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 문화인프라 자원 현황

○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공연·전시시설·문화시설

- 문화기반시설 : 경기도는 40개의 문예시설(문예회관, 시·군민회관, 문화의집)과 7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20개의 미술관과 48개의 박물관이 존재한다.

<표 8> 경기도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개) (2004년 12월)

문예시설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합계
40	70	20	48	169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2006), 경기통계연보

- 경기도의 문화공연·전시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 경기도의 문화공연·전시시설로 분류되는 공연시설로는 공공공연장 45개, 민간공연장 21개, 영화상영관 265개가 있으며, 전시실(미술관과 화랑)은 총 32개가 있다.

<표 9> 문화공연·전시시설 현황 (단위:개) (2004년 12월)

공연시설			전시실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	화랑
45	21	265	20	12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2006), 경기통계연보

- 그리고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과 같은 지역문화복지시설과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같은 기타 시설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문화복지시설 현황 (단위:개) (2004년 12월)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23	97	18	31	1	10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2006), 경기통계연보

○ **전통 지정문화재**

- 경기도는 256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505건의 지방지정문화재 등 총 761건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재 등과 같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장점과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어 문화재를 매개로 한 관광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출판, 인쇄 및 기록 매체업**

- 경기 K-클러스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파주와 고양 일대를 중심으로 출판 클러스터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업들이 경기도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 문화인력 자원 형태

○ **예술단**

- 경기도의 예술단 분류에 의하면, 경기도 예술단은 교향악단 414명, 국악단 194명, 무용단 74명, 합창단 753명, 소년·소녀 합창단 620명, 연극단 33명, 관현악단 65명이 있다. (*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 (2006), 경기통계연보)

○ 예술단체

- 경기도 (사)한국예총 경기도 연합회
 - 1966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 경기도에 9개의 도지회와 161개 단체로 구성된 25개의 예총 시·군지부를 두고 있다.
 - 지역 간 예술문화 교류 및 창달사업과 지역예술 발굴소개 및 보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 경기도 (사)민족예술인총연합회
 - 민족예술을 지향하는 예술인의 상호연대와 공동 실천의 취지 아래 2000년 6월에 설립하였고, 경기도에 총 12개 지부를 두고 있다.
- 경기도 문화원
 - 경기도는 총 회원수 9,055명에 달하는 31개 시·군에 하나씩의 문화원을 보유하고 있다.

○ 문화예술 관련 학과

- 경기도에 위치한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고등학교는 총 3개 학교에 13개 과로 각 학교에 3개 학과에서 6개 학과까지 있고, 대학교는 전문대학에 43개 학과와 일반대학에 120개의 학과로 총 176개의 학과가 있다.

라. 문화 프로그램 현황

○ 경기도 축제

-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160개 이상의 축제를 하고 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들로는 이천, 광주, 여주에서 열리는 도자기축제와 세계도자기비엔날레, 부천시의 국제 판타스틱영화제, 복사골예술제, 수원시의 화성문화제 및 세계효문화축제, 안성시의 남사당바우덕이축제, 양평군의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의정부시의 회룡문화제, 파주시의 헤이리페스티벌 등이 있다.

2. 경기도의 문화자원 분석 ³⁵⁾

가. 문화지수

- 문화지수란 지역의 문화여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실태를 종합하여 단일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문화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국의 광역 지자체 16개(대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대상으로 2002년에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문화지수 자료조사를 한 적이 있다.
- ①문화유산, ②문학·예술, ③대중문화, ④사회문화·여가활동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문화지수가 문화유산 부문 6위, 문학·예술 부문 11위, 대중문화 부문 8위, 사회문화·여가활동 부문 4위로 나타났다.

<표 11> 16개 시·도 문화지수

(2002년)

지역	문화유산지수 (순위)	문학/예술지수 (순위)	대중문화지수 (순위)	사회문화적활동 /여가활동지수(순위)
서울	0.5177 (1)	0.3390 (2)	0.3611 (2)	0.3541 (3)
부산	0.1634 (13)	0.1769 (7)	0.3483 (4)	0.3213 (9)
대구	0.1759 (10)	0.1956 (6)	0.3327 (9)	0.3167 (11)
인천	0.1050 (15)	0.1472 (10)	0.3409 (6)	0.3434 (5)
광주	0.1824 (9)	0.3858 (1)	0.3961 (1)	0.3651 (2)
대전	0.1497 (14)	0.3070 (3)	0.3577 (3)	0.3332 (6)
울산	0.1010 (16)	0.1751 (8)	0.3458 (5)	0.3659 (1)

35) 이 내용 역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경기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의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일부 통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2006), 문화관광부 홈페이지(2006) 등에 의거하여 최근 것으로 수정하였다.

경기	0.3487 (6)	0.1443 (11)	0.3367 (8)	0.3484 (4)
강원	0.1671 (12)	0.2305 (4)	0.3004 (12)	0.3263 (7)
충북	0.2305 (8)	0.1553 (9)	0.3064 (10)	0.3201 (10)
충남	0.3479 (7)	0.1325 (15)	0.2688 (15)	0.3080 (14)
전북	0.4335 (3)	0.1340 (13)	0.3051 (11)	0.3146 (13)
전남	0.3713 (5)	0.1326 (14)	0.2519 (16)	0.2889 (16)
경북	0.4678 (2)	0.1233 (16)	0.2741 (14)	0.3026 (15)
경남	0.3883 (4)	0.1402 (12)	0.2915 (13)	0.3234 (8)
제주	0.1754 (11)	0.2024 (5)	0.3388 (7)	0.3155 (12)
대도시 평균	0.1993	0.2467	0.3547	0.3428
도 평균	0.3256	0.1550	0.2971	0.3164
전체 평균	0.2703	0.1951	0.3223	0.3280

자료 : 『국민문화지수개발연구』, 문화관광부·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 2006년 현재도 이 결과는 의미 있을 만큼의 변동은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경기도의 문화지수는 사회문화·여가활동 부문이 대도시 수준과 큰 차이 없지만 문학·예술 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문화 인프라 자원

-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의 지역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전국의 광역시와 도를 비교했을 때 문화기반시설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다른 시와 도 중에서 경기도의 문화기반시설이 많아 보인다.

<표 12>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2004년 12월)

시·도	합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박물관				미술관					
							소계	공공	사립	대학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계	1170	487	250	223	14	397	328	102	132	94	69	15	52	2	132	154
서울	185	44	16	22	6	104	84	16	44	24	20	1	19	0	7	30
부산	43	24	10	12	2	12	9	2	0	7	3	1	1	1	4	3
대구	27	13	0	12	1	6	6	1	2	3	0	0	0	0	7	1
인천	23	11	3	8	0	6	3	1	1	1	3	0	3	0	5	1
광주	30	12	7	5	0	11	7	3	0	4	4	1	2	1	4	3
대전	35	15	13	2	0	15	13	4	3	6	2	1	1	0	2	3
울산	13	5	1	4	0	1	1	0	0	1	0	0	0	0	2	5
경기	174	70	59	8	3	68	55	15	31	9	13	1	12	0	19	17
강원	79	39	17	22	0	19	17	8	4	5	2	1	1	0	12	9
충북	57	25	10	15	0	18	15	5	4	6	3	1	2	0	7	7
충남	81	38	19	19	0	27	23	7	11	5	4	0	4	0	9	7
전북	81	36	18	17	1	19	16	6	4	6	3	2	1	0	12	14
전남	84	44	25	19	0	16	11	5	4	2	5	2	3	0	14	10
경북	109	51	22	28	0	33	31	14	6	11	2	0	2	0	14	11
경남	101	42	18	24	0	27	25	12	10	3	2	2	0	0	13	19
제주	48	18	11	6	1	15	12	3	8	1	3	2	1	0	1	14

자료 : 『200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관광부(2006)

- 그러나 각각의 문화기반시설 당 인구수를 보면 경기도의 문화기반시설은 부산, 인천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구 대비의 각각의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그리고 문화의 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

<표 13> 각 문화기반시설당 지역별 주민 수 * (단위:명) (2004년 12월)

지역 \ 종류		문화의 집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경 기		609,508	220,460	518,082	575,647	161,901
대 도 시	서 울	442,359	172,445	535,488	1,695,711	216,474
	부 산	1,230,482	283,957	1,230,482	922,861	153,810
	대 구	2,529,544	168,636	-	632,386	194,580
	인 천	2,570,194	856,731	856,731	514,039	233,654
	광 주	465,254	279,152	348,941	279,152	107,366
	대 전	477,432	119,358	477,432	716,148	110,177
	울 산	214,573	-	-	536,434	268,217
	평 균	1,132,834	313,380	689,815	756,676	183,468
도 지 역	강 원	152,703	89,826	763,517	127,253	40,185
	충 북	212,805	106,403	744,818	212,805	62,068
	충 남	273,258	79,700	318,801	239,100	47,820
	전 북	150,341	162,869	1,954,430	122,152	51,432
	전 남	252,216	1,008,865	672,577	155,210	49,213
	경 북	302,315	340,104	1,360,416	194,345	54,417
	경 남	165,211	224,215	3,139,013	174,390	74,738
	제 주	39,450	50,209	184,099	552,297	29,068
	평 균	193,537	257,774	1,142,209	222,194	51,118

* 울산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구는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종합발전계획

-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의 각 시·군 현황을 수치적으로 보면 경기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을 보면 공공도서관과 문예회관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은 남부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경기도 전체에서 수도권(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군포, 안산, 의왕, 구리)의 공공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3%, 박물관은 19%, 미술관은 21%, 문예회관은 47%, 문화의 집은 44%에 달한다.
- 이것으로 보아 박물관과 미술관은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은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 경기도 각 시·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개소) (2004년 12월)

시·군·구	인구수(명)	재정 자립도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 의집
			계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경 기 (3 1)	10,628,842	76.2	70	59	8	3	68	16	43	9	19	17
수 원 시	1,042,132	64.8	6	3	1	2	2			2	1	
성 남 시	986,170	70.2	5	4	1		2		2			3
의정부시	400,018	53.3	1	1			-				1	
안 양 시	625,197	66.9	4	4			-				2	
부 천 시	864,501	64.4	5	4		1	5	4	1		1	1
광 명 시	333,053	50.3	2	2			1		1			1
동두천시	81,117	21.6	1	1			1	1				
안 산 시	686,873	62.9	3	3			1	1			1	
과 천 시	68,641	43.9	2	1	1		4	1	3		1	1
구 리 시	194,346	46.2	2	2			-					
평 택 시	378,073	44.9	3	2	1		-				3	1
오 산 시	122,784	51.9	1	1			1			1	1	1
시 흥 시	390,933	60.1	2	2			1		1			
군 포 시	278,680	56.4	3	3			-				1	
의 왕 시	146,595	51.5	1	1			1	1				1
하 남 시	131,565	47.4	1	1			1	1				1

고양시	893,965	61.2	5	5			3		3		1	
남양주시	423,073	44.5	2	2			2		2			1
양주시	159,891	35.3	1	1			1		1		1	
여주군	105,006	38.1	2	1	1		11	2	9			
연천군	49,361	22.4	1	1			-					
포천군	158,487	34.1	1		1		1	1			1	
가평군	55,252	21.9	1	1			-				1	1
양평군	85,242	17.4	1	1			-				1	1
이천시	192,725	48.4	2	2			4	1	2	1		1
용인시	649,577	63.7	2	2			13	1	10	2	1	
파주시	252,700	40.7	3	3			2		2			
안성시	156,839	34.3	1	1			2	1		1		
김포시	216,689	38.0	2	1	1		1		1			1
화성시	286,736	64.0	3	3			2			2		2
광주시	212,621	52.7	1		1		5		5		1	

자료 : 200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관광부

- 앞의 표들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가 도서관의 수 66개로 전국 1위, 박물관의 수 45개로 서울(73개)에 이어 2위, 미술관의 수 14개로 역시 서울(23개)에 이어 2위, 문예회관의 수 16개로 1위, 문화의 집 수 17개로 서울(25개)에 이어 경남과 공동 2위인데 경기도에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 살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따지면 5개 문화시설 모두 순위가 뒤로 한참 밀려나게 된다.
- 또한 <표 11> 16개 시·도 문화지수>에서는 경기도의 문학·예술지수가 0.1443을 보여주고 있는데, 광역지자체 평균이 0.1951, 대도시 평균이 0.2467, 도 지역 평균이 0.1550인 데 비해 낮은 편이다.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관이라든가 전시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서울에 갈 때 보면 되지'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 문화 공연·전시시설(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경기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 더 많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인구 대비 문화 공연·전시시설은 비슷한 수준이다.
- 경기도 시·군별 문화 공연·전시시설에 있어서는 종합공연장, 화랑의 경우 몇 개 시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미술관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균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하남시의 경우처럼 문화 공연·전시시설(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등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다.
- 수도권(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군포, 안산, 의왕, 구리)에 문화 공연·전시시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도권에 종합운동장의 경우 78%가 집중되어 있고, 일반공연장의 경우 64%, 소공연장의 경우 43%, 영화관의 경우 75%, 미술관의 경우 43%, 화랑의 경우 83%가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문화복지시설(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의 경우에 경기북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이 수치상으로는 많았으나, 인구대비 문화복지시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복지회관의 경우는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5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문화 공연·전시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화원을 제외한 문화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광주시와 구리시 2곳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원은 모든 각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군민회관의 경우 수도권(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군포, 안산, 의왕, 구리)이 39%를 차지하고, 복지회관의 경우 53%, 청소년회관의 경우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복지시설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경기도 시·군별 문화 공연·전시시설 현황

(단위:개소)

시군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	화랑
남부	36	15	216	15	9
수원시	7	3	44	1	6
성남시	4	-	46	-	-
부천시	2	4	56	-	2
안양시	2	1	36	1	1
안산시	2	1	4	1	-
용인시	3	1	3	4	-
평택시	3	-	10	1	-
광명시	1	2	3	-	-
시흥시	1	-	1	-	-
군포시	2	-	2	-	-
화성시	-	-	-	-	-
이천시	1	-	1	-	-
김포시	-	-	2	-	-
광주시	-	-	1	1	-
안성시	2	-	1	1	-
하남시	-	-	-	-	-
의왕시	-	-	1	-	-
오산시	2	1	1	-	-
여주군	2	-	2	-	-
양평군	-	1	2	1	-
과천시	2	1	-	4	-
북부	9	6	49	5	3
고양시	2	4	35	1	1
의정부시	1	1	3	-	-
남양주시	1	-	-	2	1
파주시	1	-	3	-	-

구리시	1	-	1	-	-
포천시	1	1	2	-	1
양주시	1	-	1	1	-
동두천시	-	-	3	-	-
가평군	1	-	-	1	-
연천군	-	-	1	-	-
합계	45	21	265	20	12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2006), 경기통계연보

<표 16> 경기도 시·군별 문화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시군별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시·군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남부	17	76	13	20	1	4
수원시	2	-	1	1	-	1
성남시	1	24	1	1	-	-
부천시	1	9	2	1	-	-
안양시	1	7	3	1	-	-
안산시	-	5	1	1	-	-
용인시	-	-	-	1	1	-
평택시	3	4	4	1	-	1
광명시	1	5	-	1	-	-
시흥시	1	-	-	1	-	-
군포시	1	1	-	1	-	-
화성시	-	-	-	1	-	-
이천시	1	-	-	1	-	-
김포시	1	-	-	1	-	-
광주시	-	-	-	1	-	-
안성시	1	9	1	1	-	2
하남시	-	1	-	1	-	-
의왕시	-	3	-	1	-	-

오산시	1	2	-	1	-	-
여주군	-	-	-	-	-	-
양평군	1	6	-	1	-	-
과천시	1	-	-	1	-	-
북부	6	21	5	11	-	6
고양시	1	-	-	2	-	2
의정부시	-	2	1	1	-	-
남양주시	-	3	-	1	-	-
파주시	1	4	1	1	-	-
구리시	-	1	1	1	-	-
포천시	1	5	-	1	-	1
양주시	-	-	-	1	-	3
동두천시	1	1	1	1	-	-
가평군	1	5	-	1	-	-
연천군	1	-	1	1	-	-
합계	23	97	18	31	1	10

* 주 : 시·군민회관은 문예회관 포함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2006), 경기통계연보

다. 문화향수

- 2002년 한 해 동안의 미술 전시회, 국악 발표회, 양악 발표회 실시 회수를 서울과 견주어보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문화 향수의 기회가 적은가를 알 수 있다. 서울에서 회화·디자인·조소·판화·서예·사진·건축 등 각종 미술 전시회가 3,383회 개최될 때 경기도 전역에서는 331회 개최됨으로써 1/10 수준이다.
- 국악 발표회가 서울에서 813회 개최될 때 경기도에서는 181회 개최되었다(서울의 22%). 작곡·기악·성악·오페라 등 양악 발표회가 서울에서 1,901회 개최될 때 경기도에서는 361회 개최되었다(서울의 19%). 일반연극 외에 마당극, 뮤지컬, 창극 등을 포함한 연극분야 행사는 서

울에서 682회 공연될 때 경기도에서는 281회 공연되었다(서울의 41%).
 과천의 세계마당극제 개최 덕분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것
 이다. 무용 공연은 서울에서 666회 공연될 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하여 219회 공연되었다(33%).

- 즉 경기도민은 이런저런 연주회에 가보고 전시회를 관람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연주회와 전시회가 상당수 서울에서 열리므로 직접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같은 경기도라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과천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세계마당
 극제를 보기 위해 경기도 가평이나 양평의 주민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
 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서울에서 열리면 보러 갈 수 있을지라도 경기
 도의 다른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못 가 보는 것이다. 경기도민은 예
 술행사를 관람하는 경우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44.5%이고, 서울에 가서 보는 경우가 39.2%, 거주지역 외의 경기지역에
 가서 보는 경우가 15.3%, 인천에 가서 보는 경우가 0.2%로 나타났다.

- 경기지역 주민들이 지역문화 행사에 불만족을 느낀다고 보고 가(可)/
 부(否)로 통계를 낸 적이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1위가 내용이 다양하
 지 못함, 2위가 행사시설 및 준비 부족, 3위가 주변시설 부족, 4위가
 행사 적음, 5위가 입장료 비쌌, 6위가 교통 불편, 7위가 수준 낮음이었
 다. 특히 행사시설 및 준비 부족의 전국 평균이 31.5%인 데 비해
 38.1%가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이 대단히 취약함을 말해준다.

- 경기지역 예술행사의 문제점 통계도 시사적이다. 일부지역에 편중됨이
 35.5%, 자주 열리지 않음이 17.9%, 시설이 불편함이 10.5%, 내용이 부
 실함이 9.6%, 홍보 부족이 6.1%, 교통 불편이 0.6%, 야간문화행사 부
 족이 2.2%, 관심 없음이 19.6%였다. 관계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통계
 치이고, 앞으로 경기도가 문화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
 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통계치이다.

라. 문화생활과 문화의식

- 경기도민의 공연예술 관람률은 한강 남부(17.9%)가 한강 북부(16.2%)보다 높고, 서울 인접권의 관람률(19.3%)이 비인접권의 관람률(14.2%)보다 높다. 영화 관람률이나 도서관 이용률도 한강 남부와 서울 인접권이 높게 나왔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문화생활을 할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마련이다. 주민의 의식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서 공연장에 더 가고 도서관에 덜 가는 것이 아니다. 문화를 향유할 시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잘 갖춰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이용하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여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 경기도민의 문화의식을 조사한 적도 있었다. ‘경기도민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이 42.6%, 보통이 42.4%, 부정이 15.1% 나왔다. 경기도민으로서 그런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셈이었지만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 구분되는 독창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이 33.4%, 보통이 41.4%, 부정이 25.3%가 나와서 이 점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안성에서는 바우덕이축제 같은 특색 있는 축제가 매년 행해지지만 경기도 31군데 행정 자치구를 볼 때, 안성 같은 사례는 흔치 않다.
- 경기지역 주민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의식수준은 아주 낮은 것도 아주 높은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경기지역 예술행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 일부지역 편중이 35.5%, 자주 열리지 않음이 17.9%, 시설 불편이 10.5%, 내용 부실이 9.6% 등이었음에 비해 관심 없음이 19.6%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그렇다. 문예회관과 시·군·구민회관 이용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는 시설 부족 20.4%나 문화행사 부족 20.3%보다도 관심 없음이 25.4%로 높게 나오기도 했다. 경기도민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워낙 바쁘게 살기 때문에 문화, 문학, 예술 등을 즐길 여유가 없다.

-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독창적인 문화를 개발하며,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과 민이 합심하여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민의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과천의 정부종합청사가 대전 쪽으로 이전하면 경기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 독창성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경기도를 빛낸 인물을 찾아 그 인물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발굴, 조사,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경기도의 문학인 현황 ³⁶⁾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장에서 태어난 문인,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한 문인, 지금 현재 이웃인 문인이 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생가나 집필 활동을 한 호텔과 하숙집 등이 기념관이 되고 관광명소가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경기도 전역에 문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찾아내고 또 잘 보존하여 후세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수원

수원은 세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화성(華城)을 비롯해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많은 문인을 배출하여 문학적 역량이 만만치 않은 도시이다. 하지만 수원을 대표하는 문예지는 아직 없다.

- 작고문인 : 박팔양, 나혜석, 박승극, 김소진
- 활동문인 : 홍성원, 백도기, 임병호, 권오삼, 김윤배, 박효석, 용환신, 김우영, 김남일, 전무용, 김형경

□ 성남

'광주대단지사건'이라는 철거민의 강제이주라는 아픈 역사를 지닌 도시가 성남이다. 지금도 유명한 모란장이 열리고 있으며, 봉곡사도

36) 『경기 문학지도』(경기문화재단, 2000)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성남시가 사랑하는 고찰이다. 토박이 문인은 거의 없으며, 성남을 제 2의 고향으로 삼고 글을 쓰는 문인들이 많다.

- 작고문인 : 한용운, 백철
- 활동문인 : 김장규, 홍완기, 윤홍길, 조세희, 김지수, 이원철, 권기홍, 배정웅, 임영창, 김건중

□ 의정부

미군의 한국 주둔 이래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발전해 온 도시이다. 수락산과 도봉산 자락을 끼고 있는 수려한 경관으로 말미암아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 현역문인이 많지 않아 문학 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 작고문인 : 박세당, 이서구, 천상병

□ 안양

경관이 빼어난 수리산과 안양 유원지가 음식점 등의 난립으로 훼손된 아픔을 지닌 도시이다. 구로공단을 거쳐서 오는 안양천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하지만 위성도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도시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으며, 한창 발전도상에 있다.

- 작고문인 : 박두진
- 활동문인 : 김대규

□ 부천

수도권 농산물 공급지로서, 또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로서 눈부신 발전을 해오고 있는 도시이다.

- 작고문인 : 정지용, 변영로, 이상로
- 활동문인 : 양귀자, 이상락, 문동만

□ 광명

서울 문화권인 신흥 도시이지만 문인들의 활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어 다른 도시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 작고문인 : 유태환, 민기, 최창익, 기형도
- 활동문인 : 정일남, 소재순, 김남웅, 김정환, 이인휘, 오철수, 이승철,

정공량, 이선아

□ 평택, 송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벗고 서해안 개발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정도전 사당과 조광조와 오달제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의각이 평택시의 큰 자랑이다.

- 작고문인 : 박석수
- 활동문인 : 이규황

□ 동두천

의정부와 더불어 대표적인 기지촌 도시이다.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이기에 문학의 소재로 부각되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 작고문인 : 원효
- 활동문인 : 김명인, 조해일, 이달균

□ 안산

관광명소 대부도를 갖고 있는 안산은 서해안시대의 관문이자 21세기 해양관광 도시로 변모를 꿈꾸고 있다. 포도 재배지로 유명하며, 별망 성예술제를 1987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 작고문인 : 이익, 심훈, 고정희
- 활동문인 : 윤후명, 김명수, 김동현, 조용희, 김춘배, 신상성, 박복영, 김영환

□ 고양

주변 경관도 좋고 신도시다운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이다. 문화적 유산도 많은 도시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김정희의 암각문과 지봉 이수광의 묘와 비각, 월탄 박종화의 묘와 문학비가 있다. 공기도 좋고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라 많은 문인들이 이곳으로 이사를 와 살고 있다.

- 작고문인 : 정철, 권필, 박종화, 노천명, 김소진
- 활동문인 : 김병익, 김지하, 김사인, 강형철, 윤중호, 김인숙, 김형경, 이영진, 은희경, 박상우, 윤대녕, 이순원, 심상대

□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도시. 예산 태생의 추사 김정희가 생의 후반기에 이곳에서 살아 과천을 대표하는 문인이 되었다. 해마다 세계마당극축제가 열리고 있다.

- 작고문인 : 김정희, 차천로
- 활동문인 : 신세훈, 권태문, 현길언, 임철우, 이승하

□ 구리

서울의 주요 위성도시로 구리는 목적지가 되기보다는 거쳐 가는 도시라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동구릉이 있어 목적지가 될 만한 도시이다. 동구릉은 조선왕조 아홉 왕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숲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하다. 망우리도 구리시 관내에 있다.

- 작고문인 : 문일평, 방정환, 지식영(한글학자), 김상용, 박인환
- 활동문인 : 박완서

□ 남양주

북한강을 따라 춘천 가는 국도가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를 연출하는 곳이 바로 남양주시다. 남양주군은 미곡시와 통합하여 남양주시가 되었다. 수도 서울의 허파 구실을 하는 광릉도 남양주시에 있다. 화도면 마석의 모란공원에는 전태일, 문익환, 송옥이 묻혀 있다.

- 작고문인 : 정약용, 이광수
- 활동문인 : 박영한, 송언, 김지원, 김채원, 구효서

□ 오산

오산은 화성군에서 독립, 오산시로 승격되어 서해안시대의 중요한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교통의 요충지이며 도농 복합도시로서 남부 수도권을 아우르는 전원도시로 손색이 없다.

- 활동문인 : 김국태, 조석구, 김용운, 이원규, 최병기, 이성희, 진길장

□ 시흥

경인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전원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소래산 마애보살입상이 대야동 소래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많은 불자

들이 와 참배를 하고 있다.

- 작고문인 : 강희맹, 이무영, 최승구
- 활동문인 : 김연식, 유종인

□ 군포

신도시 군포의 자랑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수리산과 산본동에 있는 조선백자 도요지이다.

- 활동문인 : 임현영, 이종학, 김동호, 김용진, 박찬일, 김명원

□ 의왕

청계산 정상에 있는 만경대는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자 고려의 충신이었던 이색, 조윤, 길재 등이 들어와 절개를 지킨 곳이다. 공업화와 함께 원예작물과 낙농업 등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다.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오봉옥, 송기원, 문익환 등의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다.

- 작고문인 : 이희승, 정인섭
- 활동문인 : 신현림, 김하기

□ 하남

하남시는 백제의 위례성이 있던 곳으로 미사리 선사유적지가 발굴되었고, 올림픽 조정경기장이 있어 유명해진 곳이다.

- 작고문인 : 유길준, 유진오, 신석초

□ 용인

용인 자연농원이라는 위락시설이 있어 문화적 낙후지역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용구문화』, 『서정 3세대』, 『용인문학』 등이 나오고 있다. 용인공원묘원에는 장만영 시비, 이범선 문학비, 이하윤 시비가 서 있다.

- 작고문인 : 정몽주, 조광조, 오달제, 민영환, 허균
- 활동문인 : 민영, 이기형, 송영, 윤정모, 박범신, 김종성

□ 파주

임진강을 끼고 있는 파주에는 판문점, 임진각, 자유의 다리가 있다.

또한 망배단, 철도중단점, 제3땅굴, 통일동산, 통일전망대 등 분단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 작고문인 : 성훈, 김장생, 김종문, 주요섭, 김동환, 최정희, 박봉우, 원희석
- 활동문인 : 김광림, 천승세, 호영송, 윤모춘

□ 이천

넓고 기름진 이천 땅은 쌀농사의 적지로 이름이 높으며, 도자기의 고장으로서 신둔면 일대는 대표적인 도예촌이다.

- 작고문인 : 이인직, 이우영
- 활동문인 : 장문평, 이건청, 이문열, 성지월, 한상윤, 장상현

□ 안성

안성은 유기로도 유명하지만 안성향교, 양성향교, 죽산향교가 있어 많은 선비를 배출한 곳이다. 그 영향인지 유독 많은 문인을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홍명희의 『임걱정』과 황석영의 『장길산』의 주요 무대인 칠장사와 청룡사도 이곳에 있다.

- 작고문인 : 안국선, 안막, 박두진, 조병화, 이봉구, 임홍재, 기형도
- 활동문인 : 고은, 정진규, 한천석, 공석하, 한광구, 김유신, 김완하, 원명희, 서정학

□ 김포

김포평야에서 나는 김포미와 북한의 하늘을 밝히는 대형 트리가 세워지는 월곶의 애기봉이 김포를 대표한다. 강화도가 가까워 산성 등의 전적지가 많다.

- 작고문인 : 한하운
- 활동문인 : 천승세, 박철

□ 양주

양주별산대의 고장 양주는 고도(古都)로서 역사적 유물이 많은데, 특히 나옹선사의 흔적이 있는 화암사터가 유명하다. 방랑시인 김병연(김삿갓)이 이곳 출신이다.

- 작고문인 : 이수광, 김병연, 홍명희

□ 여주

풍부한 수자원으로 농업이 발달한 여주에는 유명한 사찰 신륵사와 세종대왕을 모시는 영릉이 있다.

- 작고문인 : 이규보, 이색, 유주현
- 활동문인 : 원용문, 정현기, 박광숙, 이훈복, 안금식, 정길남

□ 화성

기전(畿甸) 지역의 중심 거점인 화성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했고 교역이 활발했다. 화성에는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와 사도세자와 부인 경의왕후, 세자의 아들인 정조와 효의왕후를 합장한 능인 용건릉이 있다.

- 작고문인 : 서거정, 홍사용, 박승극, 이문구
- 활동문인 : 홍신선, 정대구, 송기원, 홍일선, 홍사종, 최정례

□ 광주

실사구시의 학문 실학이 태동한 곳이 경기도 광주다. 허난설헌 이래 문향으로도 유명한 도시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 맹사성과 최항의 묘가 여기에 있다. 남한산성 교도소에 여기에 있다.

- 작고문인 : 허난설헌, 이익, 안정복, 안민영, 운양 김윤식, 최찬식,
- 활동문인 : 구중서, 김영무, 박상우

□ 연천

경기도 최북단에 있는 연천이기에 휴전선의 일부가 이곳을 가로지르고 있다. 전곡리에서 선사유적지가 발굴되었고, 목은 이색의 영당과 허목의 사우 은거당이 이곳에 있다.

- 작고문인 : 이색, 허목, 남구만, 김오남, 김상용
- 활동문인 : 임영태

□ 포천

휴전선이 가깝기 때문에 군사도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치

- 원의 사당 청성사, 구한말 의병장 최익현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한 채산사, 사육신의 한 사람인 유응부를 기리는 충목단이 여기에 있다.
- 작고문인 : 양사언, 이항복, 이덕형, 이해조, 김팔봉

□ 가평

- 북한강을 끼고 있는 가평은 경치가 더없이 아름다워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 흔적을 남긴 곳이다.
- 작고문인 : 정약용, 김상헌, 김육
 - 활동문인 : 조세희

□ 양평

- 용문산과 용문사가 있으며, 또한 양수리의 고장이 양평이다. 이덕형의 묘와 신도비가 있으며, 이항로의 생가도 여기에 있다.
- 작고문인 : 이덕형, 이항로, 채광석
 - 활동문인 : 황명걸, 김인숙, 김용만

4. 경기도의 문화부문 종합 역량 ³⁷⁾

가. 문화 환경

- 경기도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과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높은 재정자립도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경기도는 인구 1천만 명, 재정자립도 77.8%로 서울을 제외한 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전국 1,838개소 가운데 255(13.9%)를 차지하여 서울 311(16.9%)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37)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경기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의 부문별 발전계획 중 ‘문화적 삶이 있는 문화환경 조성’ 부분의 내용을 발췌하였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서 서울의 문화 환경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발전하였으나, 지역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문화환경에 있어서의 큰 편차를 보여 왔다.
 - 서울 인접지역은 서울의 지역적 발전을 공유하면서 문화적으로 발전해온 동시에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문화적으로 제한된 발전의 특징을 보여 왔으며,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문화 환경의 빈곤을 경험하여 왔다.
 - 서울 외곽의 경우, 경기 북부로부터 동부에 이르는 지역(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등)과 그 외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편차 또한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한다.

- 문화적 불균형은 문화외적 요소, 곧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지리적 특성, 인구밀도 등 문화환경의 구성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 경기도 내 각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20%대인 곳에서부터 90%를 넘어서는 지역까지 매우 다양하다.
 - 문화시설 건립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인구 밀도 또한 65.82에서부터 15,278.80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인다.
 - 이러한 환경에서 경기도가 보여주는 문화환경 현황은 상당 부분 지역간 문화적 격차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여 주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광역 차원의 대표적 문화환경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다.

-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크고 작은 문화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준은 아니다.

나. 문화 역량

-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나 문화 관광의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와 관련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의 문화적 잠재역량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
-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력의 전문성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국적으로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중 81%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32개 시·군 중 31%인 10개만이 5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경제력을 보인다.
- 특히 서울 다음으로 큰 인구 규모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부시장 형성과 관련된 기본 수요를 창출하기에 적절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 지역간 문화환경의 불균형은 한편으로 균형적인 문화 발전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 인프라 조성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문화적 소외를 동시에 극복해 나가는 지역개발을 모색하기 용이하다.

제 2절 경기지역 문학 및 문학관 지원 실태

1. 문학 지원 현황

- 먼저 경기도 차원에서의 문학 지원 실태를 경기도 홈페이지, 도 관계자와의 전화 등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진흥사업 실무자로부터 ‘경기도 문학 지원사업은 거의 없다’는 말과 함께 다시 확인된 사항이기도 하다.
- 그렇다면, 경기지역의 문학 지원 정책은 경기문화재단이 전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5년 간 재단의 정기공모사업 중 문학분야 지원예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7> 경기문화재단의 문학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정기공모사업	문학지원	비율	비 고
2002	1,849,500	162,000	8.8%	
2003	1,860,500	180,000	9.7%	
2004	1,888,500	195,000	10.3%	
2005	2,198,600	178,000	8.1%	아마추어 28,000
2006	2,132,000	194,000	9.1%	아마추어 30,000
계	9,929,100	909,000	9.2%	

- 정기공모 지원사업에서 문학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상 비중은 평균 9.2%인데, 이는 국가(중앙) 단위의 문화예술 지원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은 수치다.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공모 지원사업 중 문학 분야 예산은 18.4%(총 13,315,650천 원 중 2,447,000천 원)로서 경기문화재단의 약 2배에 이른다.
- 경기문화재단의 문학 분야 지원예산의 비율은 연도 중반 이루어지는 수시지원사업과 기획사업의 예산을 제외한 것이다. 연도 중반 사업의

경우 각 장르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공연예술 등 문학 이외 장르를 중심으로 추진되므로 이를 포함하면 문학 분야 지원예산의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2. 문학관 지원 현황

- 경기지역에 소재한 문학관은 2곳(조병화문학관, 만해기념관)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이마저도 경기도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다. 조병화문학관이 기초자치단체(안성시)로부터 1천만 원(2005년도)을 지원 받았는데, 이는 조병화문학관의 총 수입(59,240천 원)의 17%, 연간 총소요예산(107,700천 원)의 9.3%에 해당된다. 38)

<표 18> 2005년 경기지역 문학관의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문학관명	총소요 예산	수입 내역			
		재원	금액	비율	
조병화문학관 (안성)	107,700	외부	중앙정부	0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 문예진흥원)	16,100	27%
			지방자치단체	10,000	17%
			후원(개인/기업)	33,140	56%
		자체	운영수입	0	
만해기념관 (광주)	100,000	외부	중앙정부	40,000	4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 문예진흥원)	13,000	13%
			지방자치단체	0	
			후원(개인/기업)	15,000	15%
		자체	운영수입	32,000	32%

자료: 연구자의 인터뷰 조사 결과(조병화문학관 05.11.28, 만해기념관 05.12.3)

38) 연간 총수입이 총소요예산보다 48,460천 원 적게 나타났다. (2005.11.28 인터뷰 조사 결과)

- 『경기 비전 2006』(경기도, 2005)에 의하면, 경기도는 63개 역점사업 중 하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설정하고 그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및 기존 시설의 개선·활용 - 지역별·장르별 문화기반시설 설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계획으로 백남준미술관과 도립미술관의 건립, 문화산업 클러스터 확대 조성 사업 말고는 찾아볼 수 없어, 아무리 이 비전이 단기계획의 성격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장르별'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 이에 경기도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의 창작·발표·향수의 공간인 박물관·미술관(도내 68개)이나 문예회관(19개)(* <표 14> 참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학관(2개)을 <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의 엄연한 일환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고, 이를 통한 경기지역 문학 활성화의 기틀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정책 검토

가. 지역문학관 건립의 의의

-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정책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001년 문화관광부에서 펴낸 『2001 문화정책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문학관 건립과 해당 지역출신 문인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유명 예술인 삶터 조성 사업으로 문학관 건립 등에 1997년에는 경남 통영군(청마 유치환)에 5억 5,000만 원, 1998년에는 강원도 춘천시(김유정)에 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경북 칠곡군에 구상문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1년도에는 고 최명희 작품인 '혼불'의 배경 마을을 문학 체험

공간 및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혼불문학마을’ 조성에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 왜 이 무렵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문학관 지원사업을 펼치기 시작했을까. 일차적으로는 백서에 있는 대로 문학관도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지역 주민들이나 문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문학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즈음부터이므로 문학관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역문학 활성화를 바랐음직도 하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지원정책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표 19> 참조), 그 사업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문학 부문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 둘째 문학관의 소장 자료를 보존·강화하는 한편,
 - 셋째 지역 문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은 사업 취지가 반영되어 2004년 한국문학관협회가 설립되었다. 각 지역문학관이 그나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이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문학관협회에서는 각 지역문학관의 연계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합 문학행사 개최 및 정보 교류와 기획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자 하며, 지역민에게 문학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문학관협회는 발족된 지 채 2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자생력이 미흡한 편인데다가 자체 운영체제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적어도 발족 후 10년 동안(2014년까지)은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문학관협회는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국 문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자생력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이 한국문학관협회라는 어떤 한 조직을 지원하자는 게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문학관협회라는 공조직을

통해 전국의 문학관 연계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문학관을 지역에 활착 시킴과 동시에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표 19>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의 문학관 건립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2002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전라남도	채동선음악관	900	음악관
경상북도	동리.목월문학관(경주시)	1,200	
경상남도	노산이은상문학관(마산시) * 마산문학관으로 개칭	600	
강원도	이효석문학관(평창군)	600	
계	4개소	3,300	

2003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전라북도	최명희문학관(전주시)	300	
경상북도	이육사문학관(안동시)	600	
충청북도	정지용문학관(옥천군)	300	
계	3개소	1,200	

2004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충청남도	신동엽문학관(부여군)	370	
충청북도	오장환문학관(보은군)	250	
부산시	김정한문학관(금정구)	250	
강원도	이효석문학관(평창군)	23	재해복구비
계	4개소	893	

2005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강원도	김동명문학관(강릉시)	150	
	박인환문학관(인제군)	200	
충청북도	충주문학관(충주시)	150	
충청남도	만해문학체험관(홍성군)	450	
전라북도	눌인문학관(무주군)	500	
전라남도	김남주문학관(해남군)	200	사업취소
계	6개소	1,450	

2006년

지자체	문학관명	국고지원	비고
인천광역시	강화문학관(강화군)	100	
충청남도	박동진기념관(공주군)	420	음악관
	만해문학관(홍성군)	450	
전라북도	석정문학관(부안군)	400	
전라남도	정채봉문학관(순천시)	190	
경상남도	박재삼문학관(사천시)	180	
계	6개소	1,740	

나. 지역문학관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초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을 바꿔 프로덕션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배제하고 사전제작이나 기반시설 확충, 인력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부터 문학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언급한 앞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문화정책이 문화산업 분야에 지나

치게 기울어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김대중 대통령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문화관광부는 같은 해 10월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 문화공간 활성화 등이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인데, 그 일부가 바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문학인의 집 건립, 지역문학관 50개소 건립’이다.

-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지원정책의 핵심은 시설 건립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 정책이다. 중앙정부는 친일 문제와 같이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한 지자체와의 매칭펀드로 각 지역의 문학관 건립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지금처럼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국 여러 곳에 각 지역의 문학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관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 그러나 각 지역의 모든 문학관이 문학관 설립 목적에 맞게끔 관리·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하드웨어에 집중되어 지원되는 동안 이미 설립된 각 지역문학관들은 낡아가고 있다. 이제 문학관 지원정책은 하드웨어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시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문학관 건립이 필요한 곳은 계속 지원하여 세워나가고, 이미 세워진 문학관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인 전문 인력이나 문학프로그램 지원, 전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예컨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문화부는, 전국 지역문학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학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프로그램의 상호 공유를 위해 우수지역 문학관의 문학행사를 대상으로 각 2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문학관운영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29개 사업, 2004년에는 22개 사업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또한 2005년에는 전국문학관운영활성화사업을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으로 이관하여 문예진흥기금(6억원)으로 3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도 역시 문예진흥기금(6억원)으로 31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1억 원을 더 들

여 문학관을 활용한 일반 문학단체의 11개 문학 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표 6>, <표 7-1>, <표 7-2> 참조)

- 문화부와 문예진흥원의 이 같은 지원은 문학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마찬가지로이다. 문학관들은 그 나름의 문학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문학관의 존재 의의를 알릴 수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6년도 전국문학관운영활성화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 전국문학관운영활성화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그 하나가, 문학관문학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4억 원)인데 이는 전국적인 공모지원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문학관은 여기에 지원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을 주축으로 문학관 사업을 펼치게 된다.
 - 다른 하나는, 문인창작집필실지원사업(1억 5천만 원)인데 이 지원대상은 불행히도 현재까지는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다. 문인창작집필실 지원이 의의를 얻으려면 최소한 각 시·도 광역단체마다 2~3 군데쯤은 되어야 하며, 자료 찾으러 헤매 다니지 않을 정도의 도서관 시설 또한 부대시설로 구비해야 한다. 그래야 작가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또 하나는 한국문학관협회 지원사업(1억 5천만 원)으로 문학관의 전국적인 네트워킹과 문학관 관리 업무 및 연수 기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31개의 문학관 문학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표 7-1> 참조), 일견 각 문학관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문학행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침이나 문학관 프로그램 지원정책이 잘 반영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나, 실은 아쉬움이 많이 묻어난다. 열성에 비해 그 문학관만의 독자성이 그

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업들은 지역의 대표성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이유가 뭘까? 요인은 간단하다. 각 문학관들이 문학프로그램을 기획할 만한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고유 업무인 자료 보존, 전시, 문학 교육, 문학 교류 등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각 문학관을 특징 지우는 데이터베이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부분의 문학관은 그저 건물만 덩그러니 자랑삼아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역량을 투입하자는 게 아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특성화·전문화를 요구한다. 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 지금 당장 전문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인력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재교육을 통해 문학관 관련자들의 기획력과 관리업무 등을 끌어올려 주든지 해야 한다. 건물만 그럴 듯하게 지어준다고 해서 문학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는 없다.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며, 그 에너지가 바로 소프트웨어 지원이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전문 인력 또는 그 역량이며, 바탕은 예산의 지원이다.
- 그런 점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문학관 지원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학관 건립이라는 인프라 조성 정책은 당연히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와 함께 각 지역문학관이 자생적·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도 전폭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병행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문학관 건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학 분야 정책이 문학관 건립 초기 단계 때부터 충분히 전략적으로 구상되고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제 3절 경기지역 문학관 운영 실태

1. 조병화문학관

○ 운영 실태 인터뷰 조사 결과 (2005년 11월 28일)

2005년 문학(기념)관 현장방문 조사

【 조병화문학관 】 인터뷰 내용 요약

■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05년 11월 28일
- 장 소 : 조병화문학관
- 조사자 : 박상언(책임연구)

■ 인터뷰 대상자 정보 요약

- 성 명 : 조진형, 김용정
- 나 이 :
- 소 속 : 조병화문학관
- 경 력 : 대표, 관장
- 연락처 : 전화 / 031-674-0307, 메일/ -

■ 인터뷰 요약 및 특이사항

- 교통 불편(버스가 30분마다)
- 운영 인력 부족
- 기획력 보통

조병화문학관						
관 명	조병화문학관		면담자(직위)		대표, 관장	
설립년도	1993년		소재지		경기 안성 양성면 난실리	
시설구성	전시실 3, 세미나실1, 창고1					
1. 운영형태	① 공공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영			
			<input type="checkbox"/> 공공재단 등에서 위탁운영			
② 민간 운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사단 <input type="checkbox"/> 재단)			
2. 문학관 성격	① 그 지역 출신 작가를 위한 문학관		✓			
	② 그 지역 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학관					
	③ 테마별 문학관					
	④ 기타					
3. 운영특성	① 전문성 중시					
	② 대중성 중시		✓			
4. 행정현황	年 예산: (107,700,000원)					
	직원 수: (2명) (관장 제외)		전문직(명) / 일반직(명) 정규직(명) / 임시직(2명)			
5. 재정수입 현황 (05년도)	외부	① 중앙정부 : (원)		0%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16,100,000원)		27%		
		③ 지방자치단체 : (10,000,000원)		17%		
		④ 후원(기업/개인) : (33,140,000원)		56%		
	자체	⑤ 자체운영수입 : (원)		0%		
6. 사업목표 (목적)	① 지역 문학의 중심 역할		0%			
	② 지역민의 문학체험 및 문학교육의 장 제공		50%			
	③ 작가 유물·유품 보존 및 전시		50%			
	④ 기타		0%			
7. 주요사업 (프로그램)	① 상설전시		50%	② 기획전시		30%
	③ 문학체험		20%	④ 문학교육		0%
	⑤ 창작 집필실 운영		0%	⑥ 기타		0%
8. 방문객 실태	① 입장료		② 성 별		③ 방문객	
	유료() 무료(○)	남(50%)	여(50%)	지역(10%)	외래(90%)	
	④ 방문객유형		⑤ 방문객 층		⑥ 방문객 수	
	개인(35%)	단체(65%)	학생(50%)	일반(50%)	연간: 약 1,000 명	

자 유 기 재		
9. 희망하는 활성화 방안	시설 확충	2층 창고 수리 후 수장고 확보
		관리동을 수리하여 남녀화장실과 커피숍으로 개조
		본관에 냉난방 시설 확보
	상근 사무직 확보	유물 DB 및 보존, 기획, 홍보, 홈페이지 활성화
	인근 관광지, 미술관, 박물관과 네트워크 결성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10. 운영상 애로사항	홍보 인원 부족	
	시설 부족	
	기금 부족	

○ 문화관광부 주관 조사 결과 (2005년 11월)

1. 시설 개요

- 명 칭 : 조병화문학관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337
- 개관일 : 1993년 2월 6일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건물 소유주 : 안성시장
 - 대지 소유주 : 조성환
 - 기타 시설, 유물 소유주: 조진형
 - 운영 대표자 : 조진형 (011-9024-0439)
- 법적 위상 : -
- 설립 재원 : 국고 1억 원, 지방비 및 민간 및 기타 없음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조병화(1921. 5. 2 ~ 2003. 3. 8)
 - 인물 소개 : 시인, 화가, 스포츠맨(럭비인), 교육자
 - 출생지 :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 322번지
 - 묘소 : 경기도 안성군 난실리 산38의 1번지
 - 학력 : 송전공립보통학교(1년), 서울미동공립보통학교(5년), 경성사범학교를 거쳐,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 수학, 명예철학박사(중국문화대학 중화학술원), 명예문학박사(중앙대학교), 명예문학박사(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
 - 경력 : 서울고등학교 교사, 경희대학교 교수(문리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인하대학교(문과대학장, 부총장, 대학원장), 대한럭비축구협회 이사, 한국시인협회장,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세계시인대회장 등 역임, 한국문인협회 명예이사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세계시인회의 국제이사, 세계시인회의 계관시인, 편운문학상 제정, 시행
 - 수상 : 아시아자유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서울시문화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삼일문화상, 대한민국문학대상,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516민족상(학예)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31-674-0307	02-3673-0439	www.poetcho.com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현황 (총예산: 59,240천원)

- 예산규모 : 사업비 39,200천원, 인건비 9,600천원, 경상비 10,440천원
- 재원구분 : 지방비 10,000천원, 문예기금 16,100천원, 자부담 33,140천원

○ 인원현황

총인원 (3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관장 : 김용정	017-263-0434	무료
	2. 사무국장		
	3. 임시관리직: 조우형	031-674-0783(016-323-0783)	급여
	4. 임시사무직: 정아름	031-674-0307	급여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

- 대 지 : 1029.44 m²(312 평)
- 연면적 : 260.4 m²(78.9 평)지상 2층 및 관리동
- 시설현황
 - 지상1층 : 대전시실(63.36m²), 소전시실1(28.5m²), 소전시실2(21.6m²)
 - 지상2층 : 세미나실(63.36m²), 창고(18.24m²)
 - 관리동 : 25.2 m²

- 전시현황 :

- 대전시실: 기획전(현재 조병화의 시생애 사진전) 및 저서
- 소전시실1: 취미 및 상훈관련(력비, 그림, 각종 상패, 메달 등)
- 소전시실2: 문인들의 추모시화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소장자료/25종 1050여 점)

- ***문인들의 휘호** : 53점(송지영, 김소운, 이현구, 서정주, 황순원, 양주동, 김요섭, 鍾鼎文, 정비석, 이주홍, 김동리, 윤길중, 孔秋泉, 조능식, 권옥연, 안병욱, 최화국, 장육진, 김구용 등)
- ***육필시** : 4점(황순원, 양주동, 김석천, 안병욱 등)
- ***그림** : 유화 8점, 묵화 1점, 시화 46점
- ***서예** : 9점
- ***전각** : 5점
- ***기록사진** : 96점, 생애사 관련 앨범 6권(세계시인대회, 문인행사 등)
- ***조각** : 6점(윤영자 등), 소품조각 121점
- ***행사 방명자료** : 7점
- ***비디오테이프** : 57점, CD 1점(자작시낭송, 방송출연 등)
- ***녹음테이프** : 17점(자작시낭송, 방송출연 등)
- ***신문 기록자료** : 37점(스크랩 2권 포함)
- ***감사패(상패)** : 38점(트로피, 공로패, 기념패, 학위패 등 포함)
- ***훈장** : 6점(메달 포함)
- ***계관시인관** : 1점
- ***도서자료** : 376점(저작도서 초간본, 편운문학상 수상 저서 외)
- ***육필원고** : 3묶음
- ***작곡원고** : 9권(조병화 시에 곡을 붙인 것)
- ***작곡집** : 4종 13권(박민중 등, 조병화 시에 곡을 붙인 것)
- ***편지** : 127점(국내외 문인, 독자들의 편지 등)
- ***명패** : 2점
- ***포스터** : 20점(볼티모어 제3차 세계시인대회 등 국제시인대회, 전시회등)
- ***도자기** : 17점(주발, 화기, 접시, 물병 등)
- ***체육용품** : 투창용 창 1점, 럭비공 1점, 동경고사 럭비선수 유니폼 1벌, 승마용 장화 1점
- ***개인생활용품** : 가방 2점, 파이프 4점, 싹지 2점, 재떨이 2점, 베레모 3점, 문진 2점, 붓 22점, 이젤 2점, 물감 다수, 초대장 1

점, 부채 1점, 주민증 1점, 시계 1점, 장갑 1점, 안경 1점, 벼루 2점, 안락의자 1점, 성적표 4점, 향로 2점, 촛대 2점 등

***가족관련자료 : 20점**

- 기타물품
 - 의자 (세미나실 50개, 야외 50개), 책상 (실내 5개, 야외 8개)
 - 천막 3조, 파라솔 5개, 연단 1개, 진열대 25개

5. 운영 현황

- 개관일수 : 연간 62일(4~10월, 화요일, 토요일)
- 관람객수 : 2004년도 : 941명
 - 최대 관람객 방문월 : 5월
- 시설대관(2005년도 기준)
 - 대관시설 : 세미나실(19평)
 - 대관용도 : 무료
 - 임대수입 : 0

6. 사업 현황

- 주요 사업 : 유품전시, 편운문학상, 조병화 주간 시축제(기획전시, 세미나), 찾아가는 문학관, 문학투어, 시낭송회 등
-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편운문학상
 - 1) 일시 : 2004. 5. 2(월) 17:00
 - 2) 장소 : 한국현대문학관(서울시 중구 장충동)
 - 3) 주최 : 안성시, 조병화문학관
 - 4) 주관 : 편운문학상운영위원회
 - 5) 참석대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회원, 주요 언론, 편운문학상 역대 수상자, 수상자 친지 가족
 - 6) 사업내용 : 시 부문 본상 1인, 평론 부문 본상 1인, 시 부문 우수상 1인
 - 7) 소요예산 : 1,200만원

- 시생애 사진전

- 1) 기간 : 2004. 5. 4(수)~5. 10(화) 10:00~17:00
- 2)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조병화문학관
- 3) 주최 : 안성시, 조병화문학관
- 4) 후원 : 한국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예총 안성시지부, 한국문인협회 안성지부
- 5) 참석대상 : 경기도 관내 주민 및 학생
- 6) 사업내용 : 첫 시집부터 제53시집까지 서문 또는 후기, 대표 시, 시집과 창작의 배경을 이룬 생애사의 대표적 단편을 담은 사진을 전시
- 7) 소요예산 : 1,400만원

- 조병화를 말한다

- 1) 일시 : 2004. 5. 4(수) 오후 2~ 4시
- 2)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조병화문학관
- 3) 주최 : 조병화문학관
- 4) 주관 : 한국평론가협회
- 5) 후원 :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안성예총, 한국문인협회 안성지부
- 6) 참석대상 : 경기도내 문인, 지역민, 학생
- 7) 내용 : 시인으로서, 화가로서, 스포츠맨으로서 살다 간 조시인의 인간적 면모를 되짚어 보는 추억담의 자리(오세영, 허영자, 이가림, 손두옥, 이규일)
- 8) 소요예산: 240만원

- 찾아가는문학관

- 1) 일시 : 2005년 5월 7일(토) 오후 2시
- 2) 장소 : 하나원(경기도 안성시 소재 북한 이탈 주민 사회 정착지원 시설)
- 3) 주최 : 조병화문학관

- 4) 주관 : 한국 예총 안성시지부, (사)한국문인협회 안성지부
- 5) 참석대상 : 하나원 원생들 (200여 명)
- 6) 전하는 이들
 - o 성춘복 (시인) 외 11인의 유명시인 및 하나원생 3인
 - o 제1회 2회 꿈의 시낭송대회 수상자 2인
- 7) 내용 : 남과 북이 만나는 시낭송회 및 음악공연, 시생애 사진전, 다과회
- 8) 소요예산 : 450만원

- 외국인 조병화문학관 투어 및 시 낭송회

- 1) 영어명 : An Afternoon of Poetry with Camp Humpreys
- 2) 일 시 : 2005년 10월 22일(토)
- 3)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설리 조병화문학관
- 4) 주 최 : 조병화문학관
- 5) 후 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성시,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문협, 안성 예총, 안성 문협
- 6) 참석대상 : 평택지역에 사는 외국인
- 7) 내용 : 조병화의 시생애 번역 및 영문판 제작, 조병화묘소 참배, 편운 동산 및 시생애 사진전 관람, 시낭송, 경기관광 영상물 감상, 다과회
- 8) 소요예산: 630만원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o 관광지 : 안성지역 - 미리내성지, 청룡사, 포도단지, 3.1운동기념관
용인지역 - 에버랜드, 민속촌, 한화리조트, 양지리조트
- o 지역축제 : 바우덕이축제 등
- o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무

8. 현안 및 건의 사항

- o 현안사항

- 시설 확충 - 2층 창고 수리하여 수장고 확보하고, 관리동을 수리하여 남녀 화장실과 커피숍으로 개조하고, 본관에 냉난방시설 확보
- 상근사무직 확보 - 유물 DB 및 보존, 기획, 홍보, 홈페이지 활성화
- o 건의사항 : 인근 관광지, 미술관, 박물관과 네트워크 결성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o 잘된 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
 - 찾아가는 문학관(하나원) 프로그램으로 남북통일 준비에 일조
 - 외국인시낭송 및 문학투어프로그램으로 시생애 영문 번역하여 한국의 대표시인과 문학관을 외국인에게 알리고, 한미 평화공조 분위기 조성
- o 문제점 및 대책
 - 홍보 부족 : 홍보 인원 확충 및 적극적 인터넷 및 언론매체 홍보 활동
 - 프로그램 다양화 : 인근 관광지, 미술관, 박물관과 네트워크 결성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 시설 부족: 중앙정부, 경기도, 안성시에서 예산 확보
 - 기금 부족: 관람 유료화, 시설 대여 및 커피숍 등 운영비 자체 조달 수단법인 추진하고 매니아층 개발하여 기금조성

2. 만해기념관

○ 운영 실태 인터뷰 조사 결과 (2005년 12월 3일)

2005년 문학(기념)관 현장방문 조사

【 만해기념관 】 인터뷰 내용 요약

■ 인터뷰 개요

- 일 시 : 2005년 12월 3일
- 장 소 : 만해기념관
- 조사자 : 박상언(책임연구)

■ 인터뷰 대상자 정보 요약

- 성 명 : 전보삼
- 나 이 : 57세
- 소 속 : 신구대학 교수, 관장
- 경 력 : 30년
- 연락처 : 전화 / 031)744-3100, 메일 / jbs@manhae.or.kr

■ 인터뷰 요약 및 특이사항

- (사)한국박물관협회 회원관이다.
- 관장은 현직 대학 교수로서 전문성이 인정된다.
- 관장의 뜨거운 열정과 애정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만해 연구 30년)
- 사재를 털어서 기념관을 운영하는 흔치 않은 경우다.
- 2005년부터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2005년 40,000천 원)

만해기념관

관 명	만해기념관		면담자(직위)	전보삼 (관장)		
설립년도	1981년도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시설구성	대지 520평, 전시실 60평, 다목적 강의실 40평, 자료실 20평					
1. 운영형태	① 공공 운영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영				
		<input type="checkbox"/> 공공재단 등에서 위탁운영				
	② 민간 운영	<input type="checkbox"/> 개인		V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사단 <input type="checkbox"/> 재단)				
2. 문학관 성격	① 그 지역 출신 작가를 위한 문학관					
	② 그 지역 출신 여러 작가를 위한 복합문학관					
	③ 테마별 문학관		V			
	④ 기타					
3. 운영특성	① 전문성 중시		V			
	② 대중성 중시					
4. 행정현황	年 예산: (100,000,000 원)					
	직원 수: (4 명)		전문직(2 명) / 일반직(명) 정규직(1 명) / 임시직(1 명)			
5. 재정수입 현황 (05년도)	외부	① 중앙정부 : (40,000,000 원)		40 %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13,000,000원)		13 %		
		③ 지방자치단체 : (원)		0 %		
		④ 후원(기업/개인) : (15,000,000원)		15 %		
	자체	⑤ 자체운영수입 : (32,000,000원)		32 %		
6. 사업목표 (목적)	① 지역 문학의 중심 역할		20 %			
	② 지역민의 문학체험 및 문학교육의 장 제공		40 %			
	③ 작가 유물·유품 보존 및 전시		20 %			
	④ 기타		20 %			
7. 주요사업 (프로그램)	① 상설전시		35 %	② 기획전시		30 %
	③ 문학체험		15 %	④ 문학교육		10 %
	⑤ 창작 집필실 운영		0 %	⑥ 기타		10 %
8. 방문객 실태	① 입장료		② 성 별		③ 방문객	
	유료(√)	무료()	남(30%)	여(70%)	지역(60 %)	외래(40%)
	④ 방문객유형		⑤ 방문객 층		⑥ 방문객 수	
	개인(60%)	단체(40%)	학생(30%)	일반(70)	연간: 약 120,000 명	

자 유 기 재	
9. 희망하는 활성화 방안	① 사립의 경우 전문직 1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②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활성화
	③ 문학관간 상호 교류 활성화.
	④ 지방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만해기념관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연간 350만 명이 찾는 남한산성에 위치한 관계로 탐방객과 전문교육(만해에 관한)을 받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관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하나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이곳에 문학 창작 집필실도 함께 운영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제10회를 맞이한 만해학교, 각종 특별기획전, 초대전등 전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문화 일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문학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용이 구름을 날 듯 만해기념관은 현재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살아 있는 한국의 대표적 문학관이 될 것입니다.
10. 운영상 애로사항	① 인건비 부담이 큰 부담입니다.
	② 만해교육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③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토지 이용에 애로점이 많다.
	④ 규제 일변도의 자치단체, 무관심, 무지하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과 문학을 사랑하였던 그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펴고자 설립된 문학관입니다. 만해기념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문학관입니다. 전문성과 깊은 애정을 갖고 시작되었던 문학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주변의 관심과 애정을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는 절실함에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진입로 확충, 도로 안내판 설치, 남한산성 각종 안내판, 책자에 적극적인 소개 등이 미비합니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사항 : 황순원문학관(소나기마을) - 건립 추진 중

- 주관 : 경희대학교, 양평군 (공동 주관)
- 조성 기간 : 2004 ~ 2007. 12. 31
- 위치 : 양평군 서종면 수능1리 산 74번지
- 예산 : 총 100억 원 중 국비 50억 원, 도비 25억 원, 군비 2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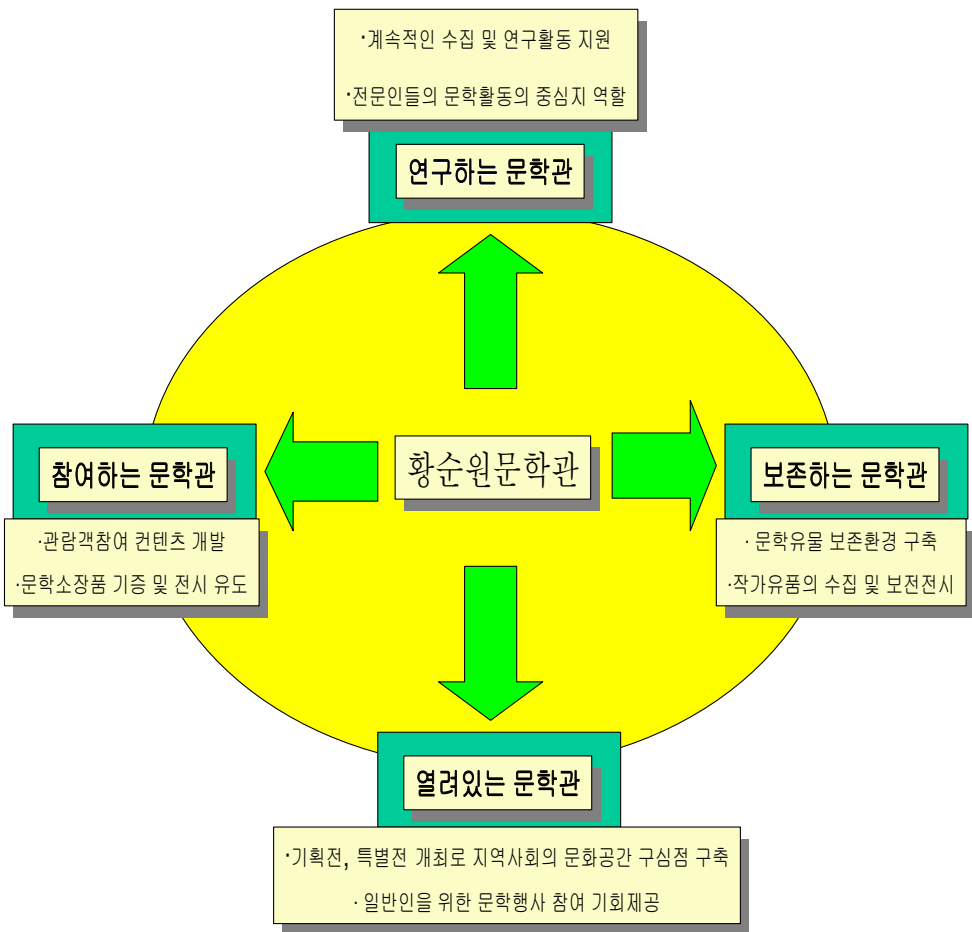


- 설립 목적 : 소설 소나기의 배경이 되는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소나기 주제 마을을 조성하고 황순원문학관을 건립하여 문학체험공간의 중심지로 활성화하고 주변지역과 함께 문학 마을로 연계함. 계획적 개발과 환경·생태를 고려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수도권 대표 문학테마마을로 조성

- 개발면적 : 33,000m²(총 부지면적 76,661m²)
- 추진 사항 (예정)
 - 2004. 4. 20 : 양평소나기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 학술용역 준공
 - 2004. 7. 6 : 투융자심사 완료 (경기도)
 - 2004. 11. 22 : 양평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득
 - 2005. 1. 31 : 기본 및 실시설계, 지구단위 계획수립 계약의뢰
 - 현재 2006년 9월까지 담당업체에서 설계도 완성 후 2007년 말까지 마을 세울 예정

- 기본 구상 : 3동 500평, 나머지는 자연환경을 살린 문학공원으로 조성
 - 소나기 소설 속의 구성단계별 전개 분석을 통한 설계요소의 추출
 - 소설 속 테마 및 공간체험 시나리오 구축 및 문학체험 공간의 메카로 조성
 - 주, 야간경관계획 및 4계절 이용프로그램 구축
 - 주변관광자원과의 상호간 기능 보완을 위한 관광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나기 마을 활성화 도모

- 황순원문학관의 개념도



<그림 4> 황순원문학관의 개념도

제 4절 지역문학관의 위상 및 역할

1. 지역문학관의 위상

가. 현재의 문학관 위상 검토

- 전시와 기념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지역문학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공히 만족시키는 문학관은 현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는 김유정문학촌만 해도 머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창작집필 공간 같은 여유가 없다. 창작집필실을 갖고 있는 백담사만해마을이나 토지문화관의 경우도 문학 순례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학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만족할 만큼 펼치지 못한다. 이처럼 문학 교류의 장, 혹은 문학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펼치지 못하니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싶다.

- 하지만 다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미당문학관을 들어보자. 미당문학관은 미당 서정주의 친일 이력 시비가 불거지는 바람에 장차 다른 문학관을 설립할 때 한 시금석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 미당문학관이 있는 고창은 문화 관광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볼거리로서는 고찰 선운사와 동백꽃,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떼무덤이 있으며, 먹을거리로서는 복분자와 풍천장어가 있다. 또 가까이에는 풍치 좋은 채석강과 곰소항 등이 있어 한번 나들이에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는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다.
 - 하지만 미당문학관은 이런 좋은 입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문화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곳을 문화 거점으로 개발하려 하지 않았다. 미당 서정주에는 한국문학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한다. 그러므로 미당문학관은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빛은 빛대로,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후세에 보여주는 게 마땅하다.

-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당문학관을 진단해 보았을 때, 상징으로 떠오른 게 바로 국화였다. 미당과 <국화 옆에서>는 거의 동시에 생각 되므로 미당과 국화를 연결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타의 문학관과 마찬가지로 미당문학관에도 문학학예사, 이를테면 미술에서의 큐레이터 같은 사람이 없었다. 다행히 문학학예사는 아니더라도 미당에 몸 바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미당문학관은 그렇게 통합되었지만, 문학관의 위상과 역할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전문 인력 상근 문제는 정말 시급하다.)
- 국화를 매개로 미당문학관과 미당의 묘소, 질마재를 연결하고 나니 홍보는 자연스레 이뤄졌다. 방송과 언론에서 앞다투어 소개해준 것이다. 이제 고창하면 국화를 떠올릴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 이렇게 하여 미당문학관은 선운사, 고인들, 복분자, 풍천장어와 함께 거창 문화의 한 거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마 고창의 가을은 미당문학관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문학관이 그저 한 공간으로 머무는 게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 강원도 평창 봉평의 이효석문학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당문학관의 국화처럼 이효석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메밀을 상징화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효석문학관이 미당문학관과 다르다면 문화라기보다는 레저와 연계시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처에 있는 야생화 농원이랄지, 허브 농원 등과 함께 레저 벨트가 형성된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탐방객은 늘어나는데 보여줄 것이 마땅찮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이 현재로서는 김유정문학촌이다. 김유정문학의 유산이라고는 터뿐인 이곳이 지금은 문학 순례자의 주요 코스로 자리잡았다. 요인은 단순하다. 이곳에는 문학학예사 역할을 하는 이가 있었던 것이다. 전상국 총장은 탁월한 문학학예사(큐레이터)였다. 유산 하나 없는 곳을 김유정 문학의 요람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그는 우선 김유정 문학을 오늘에 되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유정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 배경을 산책 코스로 개발하고 소설 속 인물 찾기를 문학축제 한마당으로 불러냈으며, 당시의 습속을 오늘과 맞물려 보여주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나 시도할 수 없는 뛰어난 기획력이었다. 이렇게 뛰어난 기획력을 문학행사를 통해 보여주자 예산 문제도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쉽게 풀렸다고 한다. 또한 2006년 5월 현재 김유정문학촌은 문학관 안팎으로 온통 우리 야생화를 심어 어린 학생들에게 야외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거듭나고자 한다.

- 여기서 여타의 문학관들이 서둘러 확보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도출된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 첫째는 문학학예사(큐레이터)라고 할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사람 없는 문학관은 없다. 문학관이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끌어들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그 문학관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역량이다. 김유정문학촌에 전상국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취가 있었을까 싶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전문 인력과 그 역량을 현실적으로 담보해 내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원천이므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 아울러 끊임없이 관심을 유발하는 탁월한 기획력이 요구된다. 전문 역량 하나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연속적인 기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계층의 탐방객들이 찾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 문학관이 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김유정문학촌처럼 문학관 자체의 전문 역량을 강화한 독창적인 정체성의 확보이다. 그 문학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맞볼 수 없는 독자적인 아이템과 상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지역 문화 벨트의 주요 축이 되는 것이다. 아무래도 문학관만 가지고는 다양한 탐방객의 요구에 다 부응하기 어렵다. 반드시 주변 문화 시설이나 유산을 문학관에 끌어들이야 한다. 입지 조건이 그렇지 못하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나. 특성화 문학관의 필요성

-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문학관들은 대부분 어느 한 문인을 기념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한 문인이 한 세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인을 기념하는 문학관이 곳곳에 세워진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공공성 차원으로 접근할 때에는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 문제를 질러가자면 이런 것이다. 특성화한 문학관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왜 근대문학관, 시조문학관, 수필문학관, 도시문학관 등과 각 지역명을 딴 문학관을 짓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한 개인 문학관 못지않게 장르문학관과 문학사적인 문학관, 도시문학관 등도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김제에는 아리랑문학관만이 아니라, 김제문학관도 지어지는 게 당연하다. 문학적 가치는 표상되는 이름에만 있는 게 아니다. 만경벌을 수놓은 문학작품들도 많다고 볼 때 소설 <아리랑>의 무대인 아리랑문학관보다는 김제문학관이 더 어울릴 수도 있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문학의 집·서울, 세계여성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한국문인인장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 농민문학기념관 등은 각기 소중한 문학적 가치와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문화 축적이 한 개인의 명예와 자산 획득의 면모를 보이는 곳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개인의 금고에서 잠들지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 예컨대 한국가사문학관의 존재는 얼마나 귀한가. 비록 문학큐레이터 한 사람 없이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마저도 없음을 가정해 보라. 오래지 않아 가사문학은 우리의 문학사에서 화석화하고 말 것이다. 문학 자산이나 문학 유산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치 않다. 특성화한 유형의 공간 속에 무형의 자산을 확보해 놓으면 되는 것이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하고 문학 전파력

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국가사문학관 같은 곳은 문학교육의 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가사문학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사나 기관에게 위탁관리를 맡기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아닐까 싶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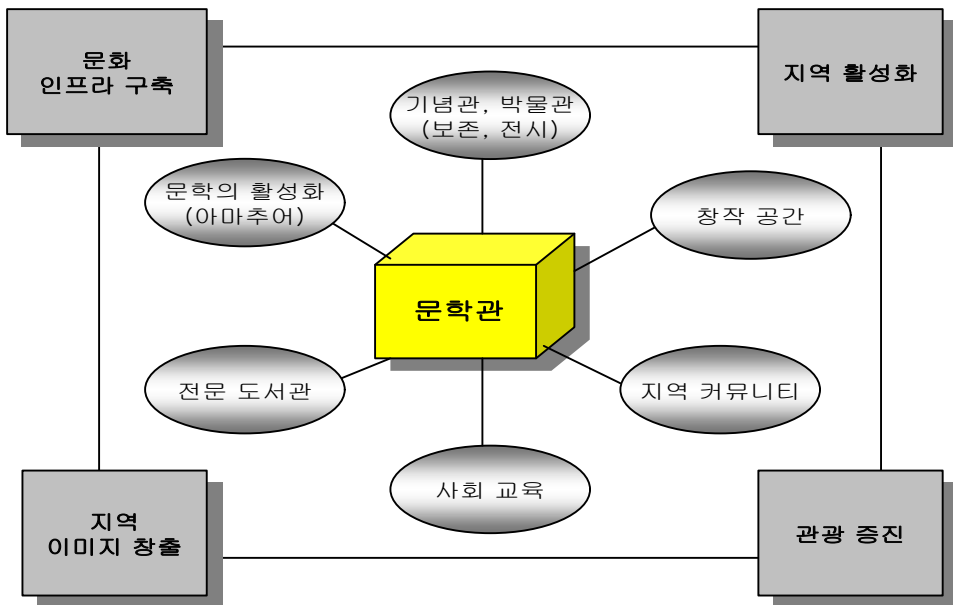
- 이와 같은 발상으로 경기지역에도 특성화한 문학관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남북통합문학관(또는 분단문학관, 통일문학관)이랄지, 우리 문학의 젖줄 구실을 한 한강문학관, 주변에 산재한 공단을 주제로 한 공단문학관(또는 노동문학관) 같은 것은 경기지역에 세워도 충분한 아이템이다.
- 문학관의 기능에는 앞서서도 말했다시피 전시 기능, 교육 기능, 교류 기능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운영되고 있거나 지어지는 문학관들 대부분은 전시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문학관 전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전시물이 주로 뭐겠는가. 책 아니면 문인의 발자취이지만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는 입체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 문학관의 전시 기능마저도 어설피다. 외국처럼 우리 문학관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입체적으로 둘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문학은 독서를 통해서 이뤄진다고 보는 일반인들을 끌어들이 수가 있다.
-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문학관을 찾고자 하는 탐방객 수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수도권과 경기지역 문학관을 찾는 발걸음이 잦고, 또 그만큼 요구도 많아질 것이다. 정리하면 둘 중 하나다. 성지처럼 문학 순례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든지 놀이처럼 즐기고 싶는데 전혀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문학관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성지가 되거나 놀이터가 되거나.

39) 현재는 김유정문학촌, 미상시문학관, 최명희문학관, 경남문학관이 그렇다.

2. 지역문학관의 역할

가. 문학관이 지역에 가지는 영향

-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새로운 경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에서 착안한 지역개발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서구 유럽을 비롯한 일본 등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자원을 관광과 결합시켜 성공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지역의 전통과 문화에 착안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⁴⁰⁾



<그림 5> 문학관이 지역에 가지는 영향

40) 예를 들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 활동 지원사업,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이상 농림부), 아름다움 가꾸기 사업(행정자치부), 어촌휴양단지·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해양수산부), 산촌종합개발사업(산림청), 생태마을(환경부),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문화관광부), 전통민속마을, 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 경북북부 유고문화권 전통마을의 관광지원화 사업 등이다.

- 경기도는 역사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많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도 천만 명을 넘어 서울인구보다 많아 자체 문화활동 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서울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서울 인구의 문화적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매개로 문학관과 연계시킨다면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기K-클러스터 전략은 경기도 파주와 고양 일대를 중심으로 출판 클러스터를 계획하는 것으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업들이 경기도의 문화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소프트웨어나 문학에 대한 콘텐츠의 철저한 분석 없이 하드웨어에 급급하거나 해외 사례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문화에 대한 안이한 태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급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문화정책 안에 지역의 정서가 담겨 있어야 하며, 향토의 역사성에 지역 고유의 문화여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특히 지역의 특색을 살린다거나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자칫하면 주민의 참여를 강요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지역 주민들 간에 문화적 전통의 유지나 활용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문학 자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기도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학관이 설립되어야만 지역의 중심적인 문화 거점으로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행정이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 즉 지역문화 총체적 삶이라는 인식 위에서 문화실천 체계의 저변확대, 문화적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문학관은 사회교육, 사회복지, 지역발전의 사회정책 등과 연관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기반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의 하나로 문학관 건립 및 활용은 지역의 문학발전은 물론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학관 건립
 -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과 인프라 공급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학관 건립
 - 지역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 안정된 운영을 위한 자치조례 제정
 - 정보화시대의 지역의 문화중심센터로 활용
 -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문화시설 등

나. 목적과 위치에 따른 역할과 기능

① 목적에 따른 문학관의 역할

- 문학관은 설립 배경과 목표, 그리고 그 구성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우선 전문도서관적 기능과 기념관·박물관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도서관적 기능은 관련 문학 자료를 폭넓게 수집·보존·정리하여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 소수의 독자를 위한 역할과 비중이 크다. 이는 전문가를 위한 공간으로 대중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박물관·기념관적 기능은 관련 문학가의 개인이나 각 장르별 소장품을 폭넓게 전시하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활용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학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전문가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려면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자치단체의 관심과 법적·재정적 뒷받침 또한 결들여져야 한다. 일반인들은 문학에 대한 평균적 관심이 낮은 편이어서 방문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문학관의 매력을 전할 것인가를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⁴¹⁾ 문학관은 전문가들에게는 흥

41) ①문학행사 ②미술전시회 ③클래식음악회/오페라 ④전통예술공연 ⑤연극(뮤

미 있는 장소이지만 일반 방문자들에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방문자가 전시를 보고나서 문학 또는 문학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학의 매력은 본질적으로는 독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시를 중시한 박물관적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면서 기초적인 도서관적 기능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⁴²⁾

- 지역에 있는 문학관은 그 지역 문학가를 위한 시설로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이 같은 동기에서 구상된다. 따라서 문학관의 건설, 유지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학관의 경우 주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므로 그 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되어야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우선 전시에 있어 지역과 관련된 것은 상설전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밖의 운영프로그램은 지역과 관련된 것만 고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타 장르와의 연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킬 포함) ⑥무용 ⑦영화 ⑧대중가요콘서트/연예의 관람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 연간 예술행사 관람 비율은 62.4%로 나타나 2000년 조사의 관람률(54.8%)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관람경험의 증가는 영화관람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분야별로 보면, 영화, 대중가요콘서트, 연극을 제외하고는 관람경험이 오히려 줄었다. 특히 문학행사는 2003년 4.0%로 무용 1.1% 다음으로 낮은 관람률로 나타났으며, 1997년 13.5%, 2000년 5.1%와 비교해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 42) 문학행사 연간 관람률은 4.0%(관람한 적 없음 96.1%), 연평균 관람횟수 0.11회였다. 특성별로 보면, 10대(7.3%), 대학재학 이상(5.9%), 전문/관리직(10.5%), 학생(6.6%)의 관람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람지역을 살펴보면, 거주하는 시·도에서의 경험이 대부분으로 타 지역의 관람경험은 낮은 편이었다. 관람방법은 관람권을 구입하여 관람한 경우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무료행사를 관람한 경우와 초대권을 가지고 관람한 경우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관람동행자로는 친구와 가족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문학행사의 보완 점으로는 ①더욱 자주 열려야(24.1%), ②가까운 곳에서 열려야(24.1%), ③작품의 질을 높여야(22.8%), ④관련정보가 많아져야(15.2%), ⑤관람비용을 낮추어야(10.1%), ⑥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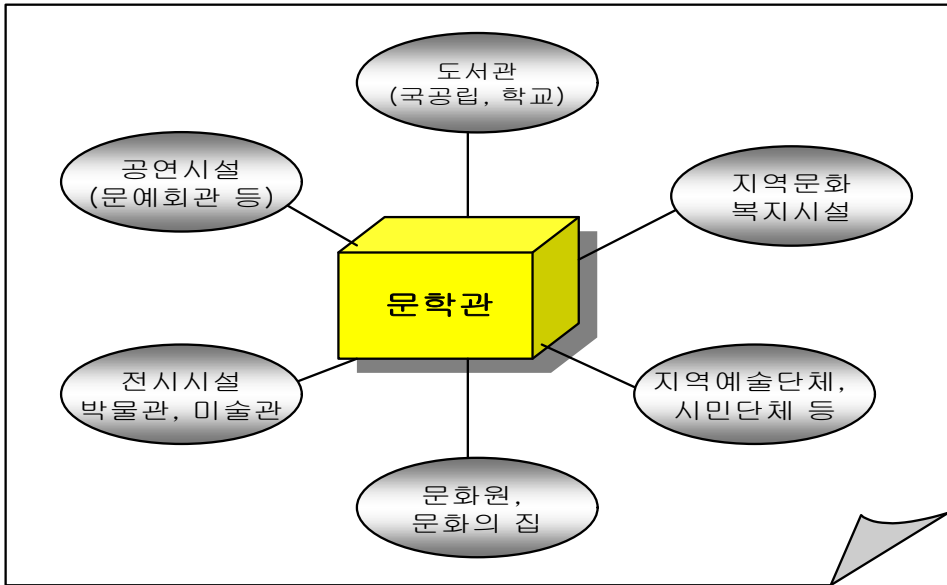
- 현재 대부분의 문학관은 전시와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가를 위한 집필실이나 창작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백담사의 만해마을과 토지문화관이다. 만해마을은 박물관 시설과 함께 문인의 집이라는 숙소가 있어 문인창작집필실로 쓰이고 있으며, 토지문화관이 세미나 시설과 함께 창작집필실이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 문학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아 운영프로그램이나 경영노하우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조례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② 위치에 따른 문학관의 기능

문학관을 어디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문학관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선 도심형과 지역에 연고가 있는 문인이나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향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도심형]

- 도심 내에 위치한 문학관의 경우는 시민참여를 중점으로 하는 일반생활자의 시점에서 기본구상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문학관을 포함하여 미술관, 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장, 전시실 등과 같은 다른 문화예술 공간과 근접한 곳에 위치시켜 문학관을 생활문화로서의 실현을 목표로 문화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 대개의 문학관이 단독으로는 대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문학관이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되어 위치할 경우 좀더 쉽고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시민문학진흥을 꾀할 수 있으며, 대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6> 문학관과 연계활동 대상

○ 이 같은 형태의 문학관의 예로서 일본 동경에 있는 세타가야문학관⁴³⁾

43) 세타가야문화재단에는 세타가야구에서 미술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 세타가야구 미술진흥재단과 커뮤니티진흥교류재단 두 개의 재단이 있다. 오늘날 생활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 장르를 넘어 예술·문화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시민과 스스로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 등 다양하고 자주적인 시민 활동도 폭넓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재단이 결합해 새로운 세타가야문화재단이 탄생되었다. 질 높은 예술·문화사업을 제공하고 시민의 주체적인 문화창조 활동과 국제교류 등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문화재단으로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세타가야 문학관의 기능 : 메이지 이후의 일본의 근대·현대문학 관련 자료와 그와 관련된 분야가 수집의 주대상이다. 자료는 도서, 잡지, 신문 이외 특별자료로서 원고, 서필, 필묵, 일기, 노트, 유품 등이다. 현재 120만 점으로 대부분은 저자 또는 유족, 출판사 등으로부터 기증(일부기탁)받은 것이다. 문학전문자료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그 정리는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료보존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미정리 또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상시, 열람실에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조회서비스, 자료복사서비스, 사진서비스도 가능하다.
- 각종 문학행사 개최 : 1963년 창립기념 근대문학사전 이래, 톨스토이전, 근대문학명작전, 현대의 작가 300인전, 근대문학전 등 수많은 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여름에 문화교실(요미우리 홀), 문학가의 자작 낭독회, 소리

을 들 수 있다. 세타가야 문화의회에서는 21세기 문화시 세타가야를 목표로 문학관 건설을 제안하고, 이후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학관 기본구상검토위원회를 만들었다. 1992년 문학관 건설사업으로 전시 기본 기획비를 예산화하여 총무부 문화과에 문학관 개설 준비 담당자를 배치하고 공사를 착공했다.

- 1994년 세타가야문화의회는 문학관조례(* 부록 3. 참조)를 의결하였다. 아울러 재단법인 세타가야구 미술진흥재단이사회, 문학관 준비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도 의결한 후 재단직원을 발령함으로써 1995년 세타가야문학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세타가야문학관의 설립 이념은 세타가야 시민이 문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창조하고 교류함으로써 교육과 문화가 풍부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오늘날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시민은 공연, 미술, 문학, 연극의 틀을 넘어서 더욱 폭넓고 질 높은 예술·문화를 향수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스스로가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한층 더 원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관의 경우 지역이 길러 왔던 풍부한 문학적 환경을 지키면서 시민의 손에 의해 새로운 문화 창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 이 같은 인식 아래 민간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와 밀접

도서관, 강좌(문학가를 육필로 읽다),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문학관연습, 수시강좌, 강연회 등이 이루어진다.

- 간행물 : 좀처럼 손에 넣기 어려운 잡지나 명작 초판본 등 주로 학교, 도서관, 연구가 대상의 연구 자료를 간행하고 있다.
- 동호회 : 동호회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타가야문학관의 경우 연간 80회 가까운 문학관 주최 행사와는 별도로 동호회의 독자적 기획에 의한 행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회원으로 문학연구가나 출판관계자도 있어 강사나 안내 역할로도 활용하고 있다. 참가형이라는 점에서는 보란티어로 커피라운지 운영에 보란티어가 협력하고 있다. 좋아하는 작가의 문학관을 지키려는 노력이 충실하다.

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전문성 높은 문학관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주민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지역문화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같은 복합적인 구조의 문학관은 없으며, 앞으로 도심 내에 문학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일본의 세타가야문학관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향토형]

- 지역에 위치한 문학관의 대부분은 문학인의 창작메모, 원고, 초판본, 장서, 유품 등을 수집·보존하고 있다. 도서관처럼 카운터에서 청구하면 열람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전시만 하는 곳도 있다. 보통 대출은 하지 않는다.⁴⁴⁾ 우리나라의 문학관은 실질적으로 전시와 행사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김유정문학촌을 들 수 있다.
-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이 고향인 김유정의 고향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김유정문학촌은 김유정의 생가와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매년 3월 29일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학술세미나, 백일장, 문학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김유정문학제가 중심 행사이다. 현재 문학관이 있는 마을 전체를 문화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학관 관계자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
- 일본의 대표적인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기념관은 시바료타로의 자택과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지역의 개인 작가를 위한 기념관이다.⁴⁵⁾ 시바료타로기념관은 시바료타로재단에서

44) 일본의 전국문학관협의회에서 2005년 8월에 출판한 일본문학관가이드에는 전국의 주요 75개 문학관을 소개하고 있다. 각 관의 특징과 전국 550여 관의 리스트와 문학자별 문학관 인덱스를 정리하고 있어 문학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5) 정문에 들어서면 작은 정원이 있으며, 시바료타로가 좋아했던 사계절의 자연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생전 그대로 보존된 서재를 창 너머로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비록 작은 기념관이지만 시바료타로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연 2~3회 기획전, 자필의 원고, 그림

운영하고 있는데 1996년 문화청(일본)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으로 발족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을 중심으로 매스컴 11개사, 오사카부 동오사카시가 이사로 참여하고, 시바 료타로의 유산 일부를 사용해서 운영되고 있다. 개인재단이지만 주로 기념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 시바료타로는 생전에 특히 유채꽃을 좋아해 생전에 텃밭에 유채꽃을 심고 봄의 개화를 낙으로 삼았다고 한다. 『유채꽃의 바다』라는 장편 소설에서 볼 수 있듯이 시바료타로는 유채꽃과 매우 인연이 많다. 이를 계기로 지금도 자원봉사자들은 유채꽃을 심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이래 매년 동경과 오사카에서 심포지엄이나 강연회를 열고 있으며, 2001년 개관한 기념관에도 유채꽃이 꾸며져 방문객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⁴⁶⁾

- 이처럼 일본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세타가야 문학관은 처음 건립단계부터 확실한 계획과 연계방안을 구상한 다음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거점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며, 특히 지치단체의 조례가 있어 재정 면에서도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바료타로기념관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학시설로는 물론 문화상품의 하나로서 외부로 꾸준히 알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등의 전시코너, 150여 석의 홀, 영상, 강연회,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46) 시바료타로기념관 건물은 2002년 제22회 오사카시가지사상·오사카부 지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도시 내의 개성 있는 건물에 주어지는 것으로 오사카 시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정된다. 또한 2003년도에는 제44회 건축업협회상도 수상했다. 주변 환경이나 거리를 배려한 작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한 작품들에 주어지는 상으로 건축주인, 설계자, 시공사 모두에게 주어진다. 또한 시바료타로상은 일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으로서 문예, 학예, 저널리즘의 등의 넓은 분야에서 창조적인 활동에서 주목을 모은 작품을 표창하는 것이다. 선정 방법은 전국 언론기관 종사자들이 작가, 학자, 문화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내어 후보작품을 추천하는 방법이다. 그 후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매스컴 11개사의 후보를 선정하고 위원회가 앙케이트를 집계·참고하여 후보작품을 선정하는 작업을 한다. 이 후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매년 2월의 유채꽃 시기에 시상이 이루어진다.

3. 지역문학관의 활용

가. 사회 교육의 장

- 문학관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문학관과 사회교육이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교육이 문학 발전에 공헌하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학관을 문화단체나 대학과 연대하여 자원봉사자나 전문가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사람들에게도 각 문화기관들이 축적된 지식을 공개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문학관과 교육기관이 연대해서 문화협동의 기반을 쌓고 문학을 통한 새로운 지역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넓힘으로써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외국의 문학관은 일반대중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소수의 관심 있는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이 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상품, 정보, 획일화가 아닌 각층의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그 활동과 공급프로그램도 많아졌다. 결국 이에 맞추어 지식정보시대의 문화예술은 단순한 전시, 교육, 사회교육의 보완 외에도 기술·물건·정보를 조합하고 창조력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기반 시설과 학교를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문화단체 사이에 문화협동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학관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학관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및 인식 개선과 지역리더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식 전환과 참여, 공감대 형성, 인재 육성 등에 초점을 두고 점차 전문가 교육,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민의 조직화도 필요하다. 주민조직은 공동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단위로서 주민조직의 효과적 구성과 운영은

문학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중요하다.

- 특히 지역 자체의 문학에 대한 문화적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의 문학적 특성과 자원을 분석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를 추진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좋아서는 실패할 위험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체의 역량이다. 지역의 총체적 삶으로서의 문화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다.
- 문학관 관람객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대상이 바로 청소년 관람객이다. 반드시 청소년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화시설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지만, 이제는 문화 변화로 인해 교육의 개념과 실천양식에서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
- 실제로 학교교육과 같은 수동적인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을 제공한다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적 기능적 요소를 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⁴⁷⁾ 놀이 개념에는 교육적 효과가 작용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 문학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 문학관은 놀이터가 될 필요도 있다.
- 특히 현재 정보화시대의 문학관은 그 역할이 예전과 다르다. 무엇보다도 사회학습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것이 소중한 목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47) 학교교육 이외의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문학 1.5%, 미술 4.5%, 서양음악 1.9%, 전통예술 2.2%, 무용 1.4%, 연극 0.7%, 영화 0.7%, 가요/연예 1.7%, 만화 0.4%, 역사문화유산 1.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대상자 40.1%는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미술, 영화, 역사문화유산, 가요/연예, 전통예술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 문학관은 고유 역할 외에도 지역문화정보를 교류하거나 사회교육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사회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학습과 참가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문학관을 사회교육장으로 활성화하려면 우선 지역의 문화리더를 육성하고 문화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문학 향수의 공간

- 우리 사회는 디지털지식사회로 급변해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많은 교육이 이제는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시절 교육이나 인적 자원 개발은 주로 학교교육을 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런 디지털지식사회 속에서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존중하고 서로 배워 나가는 지혜와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관은 지역의 문학향수 공간으로서 그 역할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문학관이 지역의 문학향수 공간으로서 그 영역을 넓혀 가려면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 즉 문학을 중심으로 영화, 음악 등 다른 예술 분야와도 연계, 문학적 자극으로 유발된 새로운 창조 활동, 찾아가는 문학관(동호회, 학교 등), 문학관 이용자의 실수요 층과 홍보 활동을 겸해서 기획전 개최 기간 중에 대학이나 협력기관으로의 출장 해설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 우선 문학관이 사회교육의 장, 평생학습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지역민의 생애학습, 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풍부한 메뉴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초·중등학교에서는 문화예술 기초 소양교육 등이 있다. 그리고 정규 교육에서는 문학에 대한 내용이나 기대효과가 대개 문학 전문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학관이 지역의 중

요한 문학향수 공간으로서 활용된다면 그 기대 수준은 다르다. 어린이들에게도 친근감 있고, 모든 연령층에게 문학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들의 감성교육을 중시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 전개 등은 지역의 문학향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특히 문학관은 아마추어 문학 활동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문학 활동은 갈수록 문학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청소년 계층에서 이러한 문학 활동 경험은 성인들과 달리 장차 문학 고급독자들을 양성하는 기대효과를 품고 있다. 여가생활 가운데 아마추어 문학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문학관의 기능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다.
- 문학관은 이 분야의 고용인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마추어 문학이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문학학습의 성과는 당연히 적게 나타난다. 물론 아마추어의 활동은 예술가가 되려 하거나 연구하려는 것과는 별개이다. 그렇지만 아마추어 활동은 그 자체가 지역 문학예술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다.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

- 생활의 질적 향상과 자유 시간의 증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물질의 풍요에서 마음의 풍요로 변화시켰다. 또 고령화, 고학력화, 정보화와 같은 시대의 흐름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근거한 라이프스타일을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예술과 문화 활동의 시야를 넓힘과 동시에 참가형 문화 활동의 영역으로 확대시켰다.⁴⁸⁾

48) 문화시설(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도서관, 박물관, 대학부설 사회문화교실, 사설문화센터)의 이용률은 38.9%, 그리고 문화행사(공연, 전시회, 문화강좌) 참여율은 32.2%로 나타났다. 문화시설 중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순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2.6%는 앞으로 문화시설의 문화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

- 문학관은 문화적인 삶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주민들이 문학관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게 되며, 나아가 상호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게 되어 지방자치의 뿌리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 문학관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중심거점으로 활용되려면 만남과 휴식이 있는 문학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커뮤니티의 첫걸음은 사람이 모이고 만남과 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문학관이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문학관이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문학관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영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문학관은 지역의 문화적인 삶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결과적으로 문학관의 이러한 활용은 지방자치의 원동력이 된다. 문화적 의식과 취향이 서로 만나는 장으로 계층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장으로서 이용되며, 향후 세대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어떠한 조직과 경영으로 주민의 문화적 의식을 공동화하고, 이를 조직화하는가에 따라 단순한 인간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정치적 중요성을 갖는다.

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수준을 문화행사 참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라. 장소마케팅의 대상

- 최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영역 기반적 발전 전략 (territory-based development strategy)이 주목을 받고 있다.⁴⁹⁾ 이 전략은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 같은 인식은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같은 전략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특성과 수요에 둔감해 지역발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전략을 구상하거나 시행하기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민감하고 적시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 최근 주5일 근무제 실시는 기본적으로 문화인구 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인구 형성은 지역마케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요 계기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말의 가족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벤트 기획, 체험 중심의 특별 프로그램 등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용자 문화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기라 할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49) 이 전략은 1975년 UN경제특별총회에 제출된 다크 합마솔트재단 보고서에서 시발되었다. 즉 지역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은 영역성(territoriality)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역성은 특정한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이성이다. 영역성의 요체가 바로 장소자산(place asset) 혹은 영역자산(territorial asset)으로 향토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그것을 상업화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자원을 독창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협력채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사업 발굴, 기획과 아이디어 창출, 사업 활성화 등을 활용한다. 즉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내외의 출향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향토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 확보뿐 아니라 지식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 장소마케팅의 대상으로서의 문학관이 활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문학관 건립의 지역발전 효과

- 경기도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지역적 분화에 따라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이 경기도가 가진 문화적 자원과 특성, 미래의 전망과 도민들의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문학관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학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분석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그 지역에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사회간접 자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적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다.
- 50) 이러한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적 측면, 주민생활 측면, 문학 측면에서의 접목을 통한 총체적인 마케팅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무형의 인프라, 즉 지역의 문학적 이미지와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자원으로써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 따라서 문학관을 통한 지역이미지와 기본구상을 처음 단계부터 명확하게 자리매김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학 자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문학관이 경기도의 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문학관 건립 및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전략

50) 경기도는 예로부터 전승된 풍부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문화예술인 및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도 높은 편이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서울과 인근 지역의 문화적인 배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좋은 성장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와 인구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대책, 주 5일근무제 시행, 지방분권화에 따른 경기도의 역량 및 역할 범위 증대 등 각종 변화요인이 등장하고 있다.

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키울 수 있는 공동체로서 정체성 만들기와 연결되어야 한다.

- 한편 문학관 건립은 문화 인프라로서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주민 스스로가 문학관의 가치를 이해하고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문학관을 통한 이미지 형성은 문화환경, 창조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즉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축적은 지역사회 자산을 형성하며, 결국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 및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 또한 문학관은 지역 활성화의 원천이 된다. 즉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을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미지가치는 사실상 무형의 이미지 이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인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지역의 매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역활성화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 문학관은 향후 세대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가 어떠한 조직과 경영으로 주민의 문화적 의식을 공동화하고 이를 조직화하는가에 따라 단순한 문화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다.
- 문학관 건립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의 이미지 통합을 통한 지역정체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최근에는 독립된 시설보다는 다른 문화시설과 연결해 이를 통합한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운영 형태가 눈에 띄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세타가야문학관을 들 수 있다.

- 또한 문학관 건립은 사회교육, 관광 등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건립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럴 경우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학관 건립을 통해 지역문학 또는 문학가의 역사를 현재의 주민들의 삶과 관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따라서 지역주민이 갖는 문화적 삶과 동떨어진 문화자원화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즉 지역의 역사와 문화전통이 현재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면 관광산업의 소재에 불과할 따름이다. 특히 현재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긍정과 자부심이 없으면 과거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가 현재의 삶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며, 문학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문화적 삶에는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문화의 자원화 노력은 이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 지역이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는 주민의 자긍심이나 자생력이 발전할 수 없다. 외부의 전문 문학인의 자문을 얻은 몇들어진 계획보다는 지역 실정과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한 문학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
- 결국 문학관을 활용해 창조적이고 지적인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면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기차고 쾌적한 문화환경과 생활문학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문학관이어야 한다. 지역민들이 문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지역 작가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 그 밖에 국제적인 문학행사, 인재육성 등을 통한 문학교류지역 만들기 등이 있다.

② 지역의 거점 구축과 활용

- 지역문학관은 우선 문학가의 작품이나 문학관계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는 공간이며, 또한 지역문학의 진흥과 지역민의 문학 활동의 거점시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예회관과 같은 복합문화시설 내에 문학관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생각이나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혀 새로운 공간에 지역이미지와 결합한 창조적인 문학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그러나 우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문학관을 기반으로 하는 장소마케팅은 지역 전체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문학이라는 단일 범주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전체 행정체계와의 연계 속에서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따라서 문학관 건립은 지역의 문학적 수준과 특색 있는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지역민이 구체적인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사람들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 내의 기업과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과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즉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휴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문학관 주변의 각종 장소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의 다른 주체들과 서로 협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이렇듯 문학관을 활용한 장소마케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그 지역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고 기대에 충족시키려는 노력으로 문화적인 시각에서 마케팅 요소를 추출하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할 만하고 방문할 만한 곳으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케팅 요소들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문학관 건립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지역의 정체성 확립

- 수도권외의 위성도시들은 물론 대부분의 지역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역들이 개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기는 어렵다. 최근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미지화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문학관 건립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또한 특성 없이 발전되어 온 지역에 문학관과 같은 특정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상징성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역의 독보적인 문화공간, 조형물, 문화의 거리, 조각공원, 광장 등을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이다. 이처럼 문화시설이 주는 상징성은 지역 홍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지역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시설물들은 그 나라는 물론 도시의 긍지로 여기고 있다.
- 지역의 정체성 만들기는 지역에 뿌리를 둔 생활 전반과 주민들이 관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콘텐츠를 철저히 수집하여 정리하여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특히 문학관은 문학에 대한 지역민의 기본적인 긍정과 자부심이 없으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즉 과거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가 현재의 삶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문학관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에는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만들기의 대표적 시설인 문화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방도시에 세운 다양한 문화시설들은 그 도시의 상징적인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장소마케팅 차원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문학관을 통한 지역을 재발견하고 활성화하려면 문학작품이나 문학

활동, 문학을 기반으로 한 연계산업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은 이러한 문학적인 분위기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이미지를 만드는 데 정책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문학관 주변의 풍경을 재발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⁵¹⁾

- 따라서 문학관은 지역 실정과 시민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주민의 자주적·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개성적인 문학관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을 단지 경제적·산업정책적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식, 정체성문제, 생활의 질 문제, 지역사회의 인간관계, 환경문제, 복지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한편 문학관은 자체가 주는 직·간접적 효용 외에도 문학공동체를 구조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학적 노력을 모으는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문학관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문학 발전에 긍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운영되는 경우 개인이나 문화기관과는 달리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는 점이다.
- 예를 들면, 문학관에 보조금을 주면 그 중 일정한 정도는 상주인력의 능력 발전에 활용된다. 즉 문학관의 적극적인 운영은 문학 인프라 구축과 문학 유통시장의 개혁, 문학콘텐츠의 효율적 활용, 민관합동의 추진주체 등을 통해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1) 강원도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의 핵심 내용은 관광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관광자원의 연계성 확보라는 목표 하에 관광과 영농, 여가 스포츠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다목적 관광 휴양단지 조성 및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향토문화축제, 회의산업유치,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쉼거리의 명소·명물화를 추진하고 있다.

④ 향토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문학관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향토자원의 형태는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 유형자원은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자원이 해당된다. 즉 역사, 문화유적, 경관이 빼어난 장소, 유명 인사의 생가, 토종 동식물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무형자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기술이나 지식, 노하우, 풍속 및 민담, 지역축제, 음악 등이 해당된다. 문학관은 유형자원이지만 무형자원과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무형의 자원은 유형의 자원을 생산,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및 모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 문학관 건립이 지역을 알리는 문화시설로서 필요조건이라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충분조건이다. 지역사회의 관광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지역민의 참여가 없으면 진정한 지역 알림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의 서비스 패턴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휴먼웨어(Humanware), 마인드웨어(Mindware)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 오늘날은 자연 환경만으로 관광이 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가 가장 적극적인 촉진 마케팅이 되었으며, 이에 그 고장의 역사·문화·자연경관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종래의 문화관광은 역사관광 위주였다면, 오늘날은 문화예술을 체험하고자 하는 고부가가치의 고급시장이란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 그러나 문학관을 관광자원화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광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다. 관광객들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만 흡족한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또한 주민들이 관광개발의 주도권을 갖지 못할 경우와 주민들이 주도권을 가질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지역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 특히 기본적 관광설비와 선전을 외부자본에 의지할 경우 현지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란 단지 입장료 수입과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에 불과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종속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⑤ 파트너십 형성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동향과 주민활동의 성과를 생각하면 문화진흥과 문화지원의 영역은 행정(지방정부)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 등 학술·교육기관, 오케스트라와 극단 등의 예술문화단체, 영상, 통신 등의 문화산업, 메세나기업, NP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섹터가 오늘날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여하고 있다.
- 물론 행정에 의한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서비스의 충실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변함 없지만, 그러한 각 섹터가 협조·연대하고 각각이 갖는 인적·물적 자원, 정보, 노력, 자금 등을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시점에서 최적 또한 최대한의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진흥과 지원에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시민문화 활동은 개인의 표현, 창작 등을 근거로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문화 창조의 책임자인 주민들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되풀이하고 자극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문화는 본래 이러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 안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다.

-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이스는 문화란 인간과 인간을 잇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문화 창조의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대중의 자발성, 능동성을 살려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활기 있는 사회를 유지해 가는 필수조건이며, 사람들은 사회나 지역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도 연결되어야 한다⁵²⁾고 말하고 있다.
- 최근에는 문화가 지닌 공공성과 사회성을 주안점으로 설치, 음악, 연극, 미술 등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또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학술·교육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과 시설 등을 개방하거나 또는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형태로 급속하게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다. 이를 문학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연계한다면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특히 최근에는 NPO에 의한 새로운 문화 지원이 시민 활동을 둘러싸고 사회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동향에 대응해서 문학관도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이 주민의 입장에서 각자 지닌 인적·물적 자원 등의 사회공헌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사회 전체에서 지역문화를 창조하고 지원해 가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⑥ 홍보 활동

- 정보화 사회 및 문화산업의 팽창이라는 현실은 그만큼 대중의 문화적 욕구의 증대와 문화 향유 기회의 확장이라는 사회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관은 현실을 감안하면서 프로그램개발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문학관 설립에 있어 성격과 내용에서 문화적 취향을 얼마나 고려할

52) 『自治体の文化政策』, かじとおろ, 2000, p.49.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문화적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 없이 막연히 문학관에 관람객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 따라서 지역의 문학관을 어떤 방법으로 외부에 알릴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이 어렵다면 지역단위로 여러 문학관이 협력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은 중요한 과제이며, 아동문학뿐만 아니라 만화, 그림을 포함해서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
- 학교와의 연대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소년 가이드북의 제작, 청소년층 대상의 강좌 등을 들 수 있다. 미술관의 경우 신문의 문화면에 정기적으로 기획전이 소개되지만 문학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학관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유인하고 전시를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방문자의 감상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문학관을 찾는 사람 중에 포스터나 홍보지를 보고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매스컴과 매스미디어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크다. 그 밖의 홍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문학관 외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또한 외부의 연구자, 애독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에는 해설요원이 있는데, 문학전은 미술전보다 더욱 해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호회에 보란티어(자원봉사) 해설요원의 양성강좌를 개설 소정의 강의가 끝나면 교육장에서 인정서를 주는 형태이다.

[리플릿 홍보 협찬]

; 문학관 시설의 홍보와 방문 촉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연간 스케줄 리플릿 제작과 배포이다. 그에 따른 방법의 하나로 광고협찬을 들 수 있다.

;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미디어란, 우선 많은 사람이 흥미를 가져야 하고, 또 손에 넣은 사람이 오랫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주요 대상으로 여성에게 적절한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오랫동안 보관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도를 지면 전체에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리플릿을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서점 등에 배치 의뢰하고, 또한 시내시설 및 관광안내소, 문학관 주변 점포에 배치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탬프 랠리(postmark rally) ⁵³⁾]

; 기획전 개최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관광명소와 연계해 스탬프랄리 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탬프랄리 목적은 지역의 홍보는 물론 문학관에 관심이 없는 방문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스탬프종이에 지역의 지도나 작품, 추천 산책코스 등 정보를 다양하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포하는 것도 시외를 중심으로 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3) 특정 지역을 돌며 도장을 받아오면 상품을 주는 것으로 유로 페스티벌 축제에서는' 기간 중에는 입장객들에게 여권 형태의 스탬프 북을 배포해, 에버랜드 내 4곳의 스탬프 부스에서 도장을 받아 온 입장객에 한해 캐릭터 머그잔을 무료로 증정하는 '유로 스탬프 랠리' 행사도 있다.

제 4장 경기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관 정책

제 1절 문학관 신규 건립 전략

1. 문학관 건립 확대의 필요

가. 경기지역 문학자원의 보존과 계승

- 경기도는 고대에는 마한이었으나 고구려·백제·신라의 정립 속에서 삼국시대 공방전의 중심을 이뤘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유적을 두루 다 갖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 500년 이상의 도읍지와 현재의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학문적·예술적 업적을 길이 보존하고 계승할 만한 숭한 인물들이 나고 스러진 지역이다.
- 문학인 지도로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나온 『경기문학지도』(경기문화재단, 2000)의 서문 형식의 글에서 공동 집필자들⁵⁴⁾은
 - ‘경기도는 서울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행정구역의 변천이 유난히 심했고, 이에 따라 해당 문인들의 정확한 출신지를 찾는 작업도 무척 어려웠다’면서도
 -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문학적 저력이 새삼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멀리는 이규보, 이율곡, 정약용으로부터 가까이는 박두진, 고은, 김지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경기도에 살면서 우리 문학사를 빛냈던 이들이 이토록 많을 줄은 미처 몰랐다. 그야말로 발 닿는 곳이 다 우리 문학의 박물관이요 살아 있는 현장이었다’고 실토하는가 싶었는데, 이내

54) 김남일(소설가), 오봉옥(시인), 용환신(시인), 이성아(소설가), 이영진(시인), 이인휘(소설가), 홍일선(시인) 등 6인이다.

- '변변한 표지판이나 안내판 하나 없이 외진 구석에 파묻혀 이제 곧 들이닥칠 포크레인의 삽날만 기다리고 서 있던 유적이 몇'이었던냐며, '그런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돌아서는 마음이 더 착잡해지던 기억도 선하다'고 고백하고 만다.
- 서울 중심의 압축적인 근대화의 뚜렷한 한 현상으로 간주되는 수도권 인구의 집중은 곧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팽창을 뜻하는 것이며, 이에 당연히 산업화의 역군들뿐만 아니라 문학인들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집중을 아울러 뜻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는 문학관이라고는 문인 당사자가 생전에 사재를 털어 세운 조병화문학관과 후세의 연구자가 역시 사재를 쏟아부어 세운 만해기념관 등 딱 2곳밖엔 없다.
-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사 100년사에 경기도 출향, 또는 연고 문인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시와 소설 분야의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간 문인들만 생각나는 대로 몇 사람 들어보더라도, 박팔양, 나혜석, 한용운, 천상병, 박두진, 조병화, 정지용, 변영로, 기형도, 심훈, 고정희, 박종화, 노천명, 방정환, 김상용, 박인환, 이광수, 이무영, 이희승, 정인섭, 유진오, 신석초, 주요섭, 김동환, 최정희, 박봉우, 한하운, 유주현, 홍사용, 이문구 등등이다.
- 한 시대를 풍미하고 그 창조적 삶의 궤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문학인들의 문학적 자산의 가장 기본적인 수집, 보존, 계승, 전시와 그 예술적 업적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 연구 등을 위해서라도 문학관이 필요하다. 2004. 12. 31 현재 경기도 내 박물관·미술관은 총 68개(국공립 16, 사립 43, 대학 9)⁵⁵⁾, 문예회관은 19개, 문화의 집은 17개인 데 비해, 문학관은 2곳(조병화문학관, 만해기념관)에 불과하지 않은가. 문학관의 수는 크게 확대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경기도에만도 최소 20개 이상의 문학관이 더 세워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55) 이 연구의 범위에 속하는 경기지역 문학관 2곳 중 하나인 '만해기념관'(광주)의 경우, 박물관(사립)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문학정책 환경 변화의 수용과 견인

- 197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해 전개되기 시작한 문학 지원 정책은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 첫째는, 문학인들의 창작 발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
 - 둘째는, 문학 작품집이 나올 수 있도록 출판 행위를 보조하는 것,
 - 셋째는, 발표된 작품(집)을 국민(독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
 - 나머지는, 문학단체에서 행하는 세미나, 시낭송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문학에 대한 정부 등 공공부문의 지원은, 생산(창작/집필) 행위든 소비(독서) 행위든 대체로 '닫힌 곳'에서 '나 홀로 하는 짓'이라는, 문학 장르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기대하거나 측정하는 데 참으로 어렵다. 전통적으로 서적이거나 구전(口傳)의 형태로 보급되고 향유되어 온 문학이라는 장르는, 대체로 '열린 곳'에서 '여럿이 함께하는 짓'인 공연예술 장르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 더욱이 최근의 세계화의 확대와 시장원리의 강조는 기초학문의 경시와 실용성 중시 풍토로 이어지고, 이에 정신적 가치의 집합체인 인문학과 문학의 침체 현상이 깊어졌다. 아울러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디지털·영상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즉흥적·감각적 문화소비 행태가 사회에 만연한 것도 문학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터넷과 디지털 영상매체의 발전 등 새로운 외부 환경에 기성 문학계가 적극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56) 57)

56) 문학은 전통적으로 독서의 형태로 향유되는데, 국민들의 여가 활용시 독서의 비중은 'TV시청'이나 '인터넷하기' 등보다 훨씬 못하다. (『2004 국민 독서실태조사』,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2004)

○ 일반인의 문학 참여 기회가 많지 않아 문학과 대중 간 괴리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문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과중한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인문학적 소양과 문학적 감수성을 함양할 기회가 적어진 것이다.

- 국민의 문학행사 참여 희망률 : 00년 5.3% → 03년 2.4%
- 청소년의 문예반, 청소년문학제 참가 등 문학활동 참여 희망률 : 00년 4.7% → 03년 0.5%

○ 그럼에도 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창출

<여가 활용시 독서의 비중>

(단위: %)

순위	성인	순위	초등학생	순위	중학생	순위	고등학생
1	TV시청 19.8	1	TV시청 18.3	1	TV시청 16.9	1	TV시청 17.3
2	인터넷하기 10.9	2	컴퓨터게임(잡) 15.4	2	인터넷하기 13.3	2	인터넷하기 16.2
3	수면/휴식 7.6	3	책읽기 9.9	3	컴퓨터게임(잡) 12.8	3	컴퓨터게임(잡) 10.1
4	신문/잡지읽기 7.0	4	인터넷하기 9.1	4	음악감상 7.3	4	음악감상 6.9
5	친구모임/대화 6.9	5	체력단련/운동 8.5	5	책읽기 7.0	5	책읽기 5.4
6	책읽기 5.9	6	친구들괴어울림 7.4	6	만화책읽기 6.4	6	만화책읽기 5.3
7	체력단련/운동 4.6	7	만화책읽기 6.8	7	수면/휴식 6.3	7	수면/휴식 5.0
8	영화관람 3.7	8	음악감상 5.0	8	체력단련/운동 5.0	8	영화관람 4.7
9	등산 3.4	9	수면/휴식 3.4	9	영화관람 2.8	9	체력단련/운동 4.3
10	컴퓨터게임(잡) 3.1	10	그림그리기 2.9	10	노래방가기 2.0	10	노래방가기 3.8

57)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가운데 1명은 지난 해(2005) 단 1권의 책(전공서적과 잡지 제외)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4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 140명(65%)은 1년에 10권 이하, 즉 한 달에 1권도 채 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1~20권을 읽었다는 응답자는 35명(16%), 21~30권 20명(9%), 31권 이상은 19명(9%)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생 독서의 질은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충청지역 대학생의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설이 전체의 52%를 차지,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문과학도서(5%), 예술 관련 도서(2%), 자연과학도서(1%)의 독서율은 극히 저조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독서 실태도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다. 이는 영화 TV관람, 인터넷 게임 등에 하루 평균 5시간 22분을 쏟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1993년부터 10년 동안 한 국민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23.7%가 한해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으며, 1인당 한해 독서량은 11권으로 월 평균 1권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도서발행 실적이 일본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특히 순수과학과 예술서적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2006. 4. 22)

해내는 창의적 인간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문화예술 및 문학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문학교육은 미래의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의 주말 여가활동은 시간의 제약성으로 인해 독서, 영상 및 공연 관람, 관광 등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이들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생활 및 문화생활의 다양화가 예상된다. 이에 전문적으로 관광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나, '남과 다른 여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 돈을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금전소비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소비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⁵⁸⁾
- 소비자의 역할 또한 단순 소비자에서 '참여형 소비자'로 변화되어, 개인의 창작활동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문학 분야에서도 문학강좌 참여, 문학기행, 문화유적지 답사 등 문학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독자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창조와 참여 중심의 입장으로 스스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이에 자기표현 매체로서의 특성이 유달리 강한 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므로 문학정책을 수립·전개하는 중앙/지방정부 등에서는 참여형 시간소비를 위한 프로그램, 복지적·창조적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견인에 새로운 정책적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1970년대부터 조성돼 온 지방문화원, 1980년대부터의 문예회관, 1990년대의 문화의 집 등 문화 분야 인프라 조성 정책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은 것(프로그램 등 운영 측면은 차치하고)으로 보이는 이 때, 중앙/지방정부의 문학관 건립 정책은 만지지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는다.
- 그 외양에 있어서 오랜 동안 변화를 모르던 문학분야 공공지원 정책의

58)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 예술의 힘』, 문화관광부, 2004, 101~103쪽 참조.

상당 부분은 이제부터 문학관 건립과 이 문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반적인 문화정책 대상을 하드웨어(Hardware, 시설), 소프트웨어(Software, 예산·제도·법령), 콘텐츠웨어(Contentware, 프로그램), 휴먼웨어(Humanware, 인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인프라(Infrastructure)란 대개 하드웨어(Hardware, 시설)를 일컫는다.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정책이 거의 필요치 않아 왔던 문학 분야 정책의 모습과 운명이 이제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크게 달라진 것이다.

- 문학도 이제는 <책 밖으로> 나와야 하며, 책 밖으로 나온 문학이 머물면서 사방으로 흘러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문학관이다. 문학관은 <문학의 저수지(貯水池)>이기 때문이다.

2. 문학관 건립 원칙과 방향

가. 계획적·체계적 건립과 운영

-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된 문학관은 부산의 추리문학관(대표 김성중)이며, 1992년의 일이다. 그 1년 뒤인 1993년 한 사람의 문학인을 기리는 박물관·기념관형 문학관으로는 최초인 조병화문학관(대표 조진형)과 한무숙문학관(대표 김호기)이 각각 경기도 안성과 서울 종로구에 세워지고, 다시 2년 뒤에는 전남 목포에 박화성문학기념관⁵⁹⁾이 문을 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개인의 남다른 뜻에 따라 사재(私財)로 지어졌다는 점이다.
- 문학관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5.5억 원)을 지급한 것은 1997년 청마문학관이 처음이다. 1998년 김유정문학촌 건립 지원(4억 원), 2000년 구상문학관 건립 지원(10억 원), 2001년 혼불마을⁶⁰⁾ 조성

59) 1991년 개관한 향토문화관 내에 있던 박화성 문학 유산들을 따로 모아서 1995년 3월 현 목포문화원 2층에 독립시킨 것이 박화성문학기념관이다.

60) 처음에는 최명희의 장편소설 『혼불』을 콘텐츠로 한 테마마을로 구상되었으

지원(10억 원) 등이 이루어지더니,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화하여 매년 3~6개의 문학관 건립을 지원해 왔거나 지원하고 있으며(<표 19> 참조), 2006년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의 매칭펀드로 추진되고 있다.

- 중앙정부의 지역문학관 건립 지원이 해당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문학관이 지어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문학관 시설은 다른 문화기반시설, 예컨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인구 수나 밀도 등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일반적인 문학관은 대개 해당 문학인의 문학 유산을 수집, 보존, 계승, 전시하는 기념관(또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여져야 한다는, 또는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면 곤란하다.
- 지금까지의 문화기반시설 건립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고, 획일적으로, 또는 실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나 전망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문화시설이 부실화하는 경우가 흔했다. 문학관 건립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가치 통합, 즉 건립 주체(지자체 등), 설계 및 시공 주체, 향후 운영 주체, 문학인, 지역민 등 제 각각일 수밖에 없는 관점과 생각의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는 하드웨어 조성 위주로 시설만 똑딱 세우고, 운영과 인력 및 소프트웨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사전 및 사후에 소홀히 함으로써, 많은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 문화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문학관 건립에 수십억 원씩 투자하고도 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나 사업 지원에 대한 수천만 원의 투자를 아낀다면, 그 문학관은 짓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영리적인 일부 시설이나 소규모의 전문시

나, 2004년 혼불문학관으로 문을 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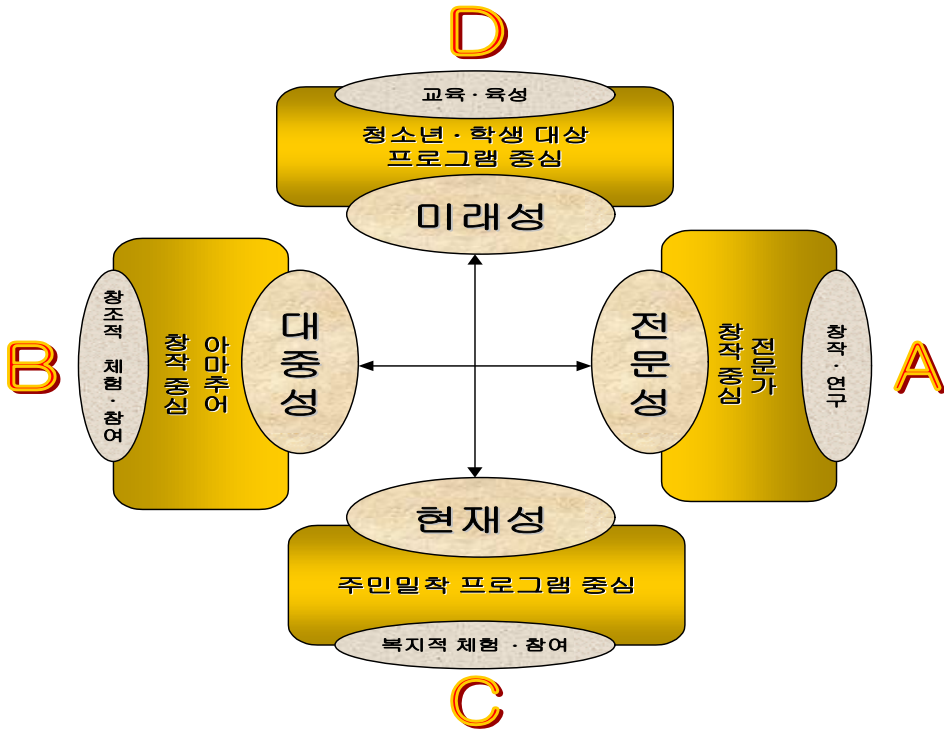
설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해당 인프라(특히 문학관)를 활용한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화 인프라의 건립과 운영은 정부의 영역이다.

- 그러나 문학관 건립은 문학인, 문학단체, 문학 또는 해당 작가 애호가들의 공동 노력이 선행되어야 바람직하다. 일종의 문화 운동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경우 문학 동호회가 문학관 설립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학관 운영에 있어서도 이들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잊혀져 있던 문학관을 찾아내고 여론을 모아 문학관을 개관하고 운영하는 등의 활동은 대부분 동호회에서 시작되며, 많은 수의 프랑스 문학관들이 동호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다. 사실 프랑스에서의 문학관 설립이나 운영은 이들 동호회의 활동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⁶¹⁾

나. 문학관별 전문화 · 특성화

-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역할은 문학 유산의 수집, 보존, 계승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문학인의 생가(터) 보존은 문학관 정책의 가나다이다. 개발 등 그 어떤 이유에서건 역사에 남을 훌륭한 문인들의 생가나 주요 흔적들을 흠과 함께 섞어 지워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전문성↔대중성’ 축과, ‘현재성↔미래성’ 축을 교차시켜 놓고 따져보면 보다 선명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학 유산의 수집, 보존, 계승은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소임이므로, <그림 7>의 A, B, C, D 모든 부분에서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개념이다.
- 문학관의 기능 배분 개념도를 각각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1) 윤학로 · 김점석,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 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2005b; 419쪽



<그림 7> 문학관의 기능 배분 개념도

- A형 : <문학 작품을 창출하는 공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학인들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위한, 즉 <문학 작품을 창출하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관은 창작집필실 기능을 갖추게 되며, 이를 위하여는 일정량 이상의 전문(문학 등)도서와 서고를 갖춘 도서관, 세미나실 등이 함께해야 바람직하다. 집필, 세미나 외에 국내 문학인들 간, 또는 해외 문학인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할 것이다.
- B형 : <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문학의 대중화를 가장 강조하게 되므로 지역 주민을 포함한 아마추어 문학 애호가들의 창조적(문학적) 체험과 참여 활동을 위한, 즉 <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문학관은 작품 낭독회, 문학 강좌(아카데미), 백일장 등의 사업을 중점 전개하게 되며, A형과 마찬가지로 일정량 이상의 전문(문학 등)도서와 서고를 갖춘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이

갖추어져야 좋다.

- C형 : <문학의 현재를 다지는 공간>

주민 친화형, 또는 밀착형 문학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즉 <문학의 현재를 다지는 공간>이 된다. 즉 지역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주민들의 복지적 체험과 참여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이러한 문학관은 예컨대 작품 속 생활 체험하기, 지역 주민 대상 문학축제 등의 사업이 중심이 된다. A나 B형과 같은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등보다는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문학관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

- D형 : <문학의 미래를 여는 공간>

문학의 가치를 미래의 주역들에게 전승하기 위한 문학관으로서, 청소년과 학생들을 타겟(target)으로 하는, 즉 <문학의 미래를 여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문학관은 청소년과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화제성 있는 자료의 기획 전시, 백일장·문학강좌 등의 행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된다. 적정 수준의 도서관,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컴퓨터실, 영화(비디오) 감상실 등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초·중·고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이 개발 및 유지되어야 한다.

○ 이 네 가지의 개념은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한 가지 개념이나 기능을 갖고자 하는 것은 문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이며, 이에 이 개념도는 기능의 배분보다는 가치의 배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문학관이 둘 이상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림인 것이다.

○ 그럼에도, 예를 들어 A형의 경우, 특히 C형과는 거의 공존하기 힘들 것이며, 반면에 B-C, B-D, C-D, 또는 B-C-D의 결합(절충)형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가치의 배분은 명확한 운영 철학에 기초해야 하지, 이도 저도 아닌 단순한 비빔밥 풀이만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 문학관 건립의 지역별 모형 제안

- 경기지역 문학관의 신규 건립을 위해 제안하는 지역별 모형이 아래 그림이다. 작고 문학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의 경우 『경기 문학지도』(경기문화재단, 2000)를 참고(이 연구서에서는 제 3장 제 1절의 3.)하여 그 문학적 업적, 영향력, 대중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의의를 감안해서 신규 건립을 제안하는 테마별 문학관도 있다. 그러나 모두 그림 속의 문학관 하나하나의 이름에 부동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연구자들의 거친 관점에 따라 일차로 간추려본 것이며, 따라서 실행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 문학관의 지역별 모형(안)

3. 문학관 건립 유형의 구분

가. 박물관·기념관형

- 앞에서 언급하였듯, 문학관의 가장 일차적인 역할인, 문학 유산의 수집, 보존, 계승을 첫째 가치로 하는 유형이다. 문학인의 생가(터)의 경우, 문학관과는 다소 다른 개념의 유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문학관의 한 유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앞에서 제안한 지역별 신규 건립 문학관 중 해당되는 것은, 만해기념관(광주, 운영 중), 조병화문학관(안성, 운영 중), 천상병문학관(의정부), 방정환문학관(구리), 기형도문학관(광명), 홍사용문학관(화성), 유주현문학관(여주) 등이다. 아래는 박물관·기념관형에서 하면 가장 적절한, 청소년과 학생에 대한 문학 교육 프로그램의 현실적 중요성과 성과에 관한 신문 기사이다.

문학영재교육원 초·중생 23명 '희망 쓰기'

'흐름 위에/보금자리 친/나의 혼...바다를 그려보다/가만히 앉아서 때를 잃고' 지난 4일 북한산 기슭 빨래골 초입에 자리한 공초(空超) 오상순(1894~1963) 시인의 묘소. 입춘을 시샘한 칼바람이 한낮에도 잦아들 줄 모르지만 시비에 적힌 공초의 대표작 '방랑의 마음(1923)'을 낭송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하다. 학생들은 생전에 선생이 즐겨 썼다는 "고맙고 기쁘고 반갑습니다."라는 말로 100년을 먼저 산 대선배와 첫 대면을 했다. 묘를 찾아 별초하고 참배한 23명은 시인·소설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문학영재교육원 초·중학생들. 매월 2차례씩 토요일마다 현역 소설가와 시인으로 부터 직접 창작지도를 받고 있다. 문학영재교육원의 탄생에는 수유중 오대석(56) 교장의 힘이 컸다. 소설가인 오 교장은 2003년 문래중 교장 시절 몇몇 학생들을 모아 직접 소설 창작을 가르쳤다. 얼마 후 자기가 가르친 제자 4명이 저명한 대산청소년 문학상에서 상을 받아 문학영재 교육의 효과를 체감했다.

지난해 9월 수유중으로 온 직후 글짓기대회·백일장 수상자 등 일대의 문학영재들을 두루 수습문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에서 23명이 모였고, 11월 시·소설 창작반이 출범했다. 관할 성북교육청은 오 교장의 노력을 높이 사 강사료·운영비 등으로 올해 2300만원을 문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기로 했다. 영어·수학 등의 영재교육은 많지만 문학영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김재천(56) 시인은 "아이들의 실력이 대학교 국문과 2학년생

수준은 된다. 초등학생이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말하기’ 기법까지도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수업 때마다 시를 써와 친구들 앞에서 낭독하며 함께 느낌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교환한다. 어색하거나 어법에 안 맞는 표현이라고 해서 강사가 작품에 손을 대는 일은 없다. 오로지 아이들이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이나 형식만을 도울 뿐이다.

소설반을 가르치는 김기순(42) 소설가는 “한 학생이 밥도 안 먹고 끙끙대며 40대 주부를 소재로 원고지 60장짜리 소설을 써왔다. 지금 당장 문단에 출품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고 극찬했다. 우이초등학교 6학년 유정애(12) 양은 “시를 쓸 때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 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좋기만 하다.”고 말했다. 하계중학교 권혁우(15)군도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 소설을 쓰는 게 즐겁다.”면서 “같은 주제로 각기 다른 소설을 써오고 그걸 함께 읽고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학은 모든 예술의 밑그림입니다. 영어나 과학 처럼 문학도 조기교육이 필요하지요. 이 아이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10년쯤 뒤에는 등단해서 이름을 날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오 교장의 말이다. 윤설영 기자 snow0@seoul.co.kr (서울신문 06.02.06) 기사일자 : 2006-02-06

나. 도서관형

- 문학 유산의 수집, 보존, 계승을 기반으로 하며, 학문적 연구의 메카를 자임할 수 있는 유형이다.
- 신규 건립을 제안한 문학관들 중 이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근현대문학관, 한국고대문학관, 한국시조문학관, 한국수필문학관, 한국청소년문학관, 한국어린이(아동)문학관 등이다.

다. 교류형

- 해외 유명 문학인들과의 교류가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 교류 전문 공간이며, 이에 맞는 국제회의실, 일급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내 문인들 간의 교류가 빠져서는 안 된다.
- 국제문학교류센터(김포)가 세워진다면 이 유형이며, 앞의 박물관·기념관형과 다음의 집필실형도 문학인들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집필실형

- 말 그대로 문학인들의 창작 집필실 제공을 위한 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토지문화관(원주), 백담사만해마을(인제) 등 2곳밖에 없지만, 인구가 밀집된 경기지역에 적어도 5곳 이상의 집필실 공간을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단 작고 문학인들의 이름을 딴 창작 집필실의 경우 그 이름만으로도 창작의 산실이 될 수 있는 문학적 권위가 인정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만해창작집필실(광주)⁶², 박두진창작집필실(안성), 이문구창작집필실(화성), 황순원창작집필실(양평), 경기문인창작촌(가평) 등을 제안한다. 앞 4곳은 박물관·기념관형의 성격을 함께 띠게 되며, 아래는 문인들에게 창작 집필실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를 담고 있는 한 시인의 글이다. ⁶³

[시인 이문구의 글마을 책동네] **'조용한 방' 있습니까**

문인들이 글 쓰는 '어떤 곳'

글을 쓸 때 '무엇'과 '어떻게'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다름 아닌 '어디서'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다. 만해의 '님의 침묵'은 백담사에서 쓰여졌고, 조정래의 '태백산맥'의 주요 산실은 나자로 마을이었다.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은 여관방에서 편집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완성되었다. 작가들에게만 애뜻한 것이겠지만,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이 쓰여진 특별한 장소가 있다.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직장을 다녔고, 그것도 시를 써왔기 때문에 글 쓰는 장소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편집국에서 시를 썼다. 한낮에, 그것도 회사에서 시를 썼으니, 시가 아니라 시를 쓰는 시간과 장소에서 은밀한 쾌감을 느

- 62) 현 만해기념관 옆에 창작 집필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작은 부지가 있으며, 만해기념관 관장은 정부의 건립 및 운영 지원이 있다면 이 부지에 창작 집필실(교육관 포함)을 신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2005. 12. 2 인터뷰 때)
- 63) 이 창작 집필실형 문학관이 오로지 문학인의 창작 집필을 위한 레지던스 시설뿐이라면 문학관의 한 유형이라 하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백담사만해마을이나 토지문화관처럼 창작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학 세미나나 문학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켰던 것 같다. 회사에서 시 쓰기는 '시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내 나름의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근무시간과 사무실 그리고 회사 집기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니, 나는 '횡령'을 일삼았던 것이다(나의 횡령을 눈감아준 선배와 동료, 후배들에게 거듭 감사드린다).

그런데 지난여름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21년 만에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나자, 글 쓸 공간이 없어졌다. 집? 집에 작은 서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책을 쌓아놓은 곳이지, 글을 쓸 만한 환경은 못 되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집에서 글을 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신경이 날카로워져 나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왔다. 집안 분위기만 썰렁해졌다. 나에게 재택 근무는 유배였다.

출판사를 하는 친구나 후배가 떠올랐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나 혼자 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말도 꺼내지 않았다. 집 근처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갔다가 곧바로 돌아 나왔다. 말이 좋아 열람실이지, 아주 넓은, 그러나 산만하기 그지없는 공부방이었다. 그러던 중 '귀인'을 만났다. 소설 쓰는 동갑대기가 광화문에 오피스텔을 쓰고 있었다. 친구는 선뜻 책상 하나만 갖고 오라는 것이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나는 다시 광화문(전 직장이 광화문에서 가까웠다)으로 '출근'하고 있다. 간혹 '철야'도 한다.

작가에게 글 쓰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발적 백수가 되고 나서야 절감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 쓴다는 것이었다. 작가들은 마음에 드는 글 쓰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었다. 광화문 오피스텔로 출근하고 난 다음부터, 작가들에게 창작실을 제공하는 토지문학관이나 만해마을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공간인지 새삼 깨달았다.

일본의 기업들은 20여 년 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가 한 눈에 들어오는 곳에 예술인 마을을 세워, 전 세계 예술가들을 초청한다고 들었다.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문학 회생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이다. 문인뿐 아니라 모든 예술가가 창작 공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문화 강국이다. (경향신문. 05.12.29) <이문재 / 시인>

마. 테마형

- 일정한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문학 유산들을 수집, 보존, 전시, 교육, 연구 등을 첫째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유형이다. 해당 문학관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발휘할 수 있으며, 박물관·기념관형이나 도서관형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 이 유형에 해당되는 신규 건립 문학관은, 남북통합문학관(파주), 한국생태문학관(연천), 한강문학관(구리/하남), 노동문학관(시흥/안산), 홍길동문학관(용인) 등을 들 수 있다.

제 2절 문학관 건립과 운영의 기본 조건

1. 문학관 건립에 필요한 조건

- 문학관의 기능 박물관·기념관으로서의 기능,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문학 창작 공간으로서의 기능, 문학인들의 국내외 교류 기능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예산, 지리적 조건, 개관 후의 유지·관리 비용도 고려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화제성이 풍부한 독창적인 건축물의 설계에도 문학관에 반드시 필요한 고유 공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 수집, 전시, 관람, 사무 공간의 배치는 이념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장공간, 전시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등의 배치에 주의해야 한다. 전시 중심의 문학관의 경우 모든 전시공간과 전시실의 2~3배의 수장 공간이 필요하다. 문학관의 자료는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 위탁에 의한 것이 많아 수장고가 완비되어야 한다.
- 문학관의 가치는 표면에 나타나는 전시보다도 숨어 있는 자산, 즉 수장 자료의 가치에 있다. 그 밖에 전시물 교체를 위한 작업 공간, 집회실, 연구실이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용효율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문학관의 기능은 정보를 수집하고 내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시물로서의 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발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문학관 자료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홈페이지 정비 및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자료관리시스템의 경우, 간행물은 일반 도서관처럼 구비하면 되며, 특수 자료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과 귀중한 자료의 영상화 노력 등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밖에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설비, 천정에서 음성해설을 들을 수 있는 장치 등도 갖추어야 할 시설이다.
- 한편 지역문화관이 다른 문화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역 정체성 확보에 뛰어난 역할을 담당한다손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만의 계획에 의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문학과 문화의 생리에 비추어볼 때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민간의 노력으로 시작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 민간의 노력은 현실적으로는 문학인들과 문학단체가 될 것이며, 이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의 연구 지원과 협력 시스템을 갖추게 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어진다.⁶⁴⁾

2. 문학관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

가. 전문 인력

- 문학관에는 학예사(큐레이터)와 같은 전문 인력이 절실하다. 즉 학예사 유자격자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당장 그러한 전문 인력의 배치가 어렵다면, 교육이나 출판 등의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의 채용으로 다양한 영역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전문서적을 발간하는 정도의 인력 수준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작가를 연구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문학관 운영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그

64) 이에 대하여는 프랑스의 엘뤼아르의 집 건립 프로젝트를 예로 든 윤학로·김점석의 논문(「문학관 설립을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005)을 참조하라.

지역이 배출한 인력이면 좋을 것이다.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고서 단지 그 작가를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문학관에 파견된다면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른다.

- 또한 학예사뿐만 아니라 전시경험자의 배치도 필요하다. 자료 관리나 이벤트로는 별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학관은 기능이 다채롭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적인 힘을 집결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다. 즉 문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시기에 있어 구상단계부터의 일지, 건물 완성 후일지 등을 생각해야 하며,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서부터 선행해서 배치해야 한다. 건축설계, 전시설계 등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 관계자도 문학관에 이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해 외부전문가와의 연대가 필요하다.
- 자료 수집의 경우 선정평가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고액자료의 구입을 자문하거나 장기적인 수집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관 전에는 자료 구입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지만 개관 후는 필요에 따라서 각 장르의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원회에서 전시 방침의 골격을 결정해 전시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방법이 있다. 직원의 이동 문제(* 지방자치단체 직영 문학관의 경우), 외부의 연구자·전문가와와의 연대(상설 상담)도 필요하다.
- 현재 전국의 각 문학관에 가 보면 안내원이나 관리자 가운데 전문 인력은 거의 없는 편이다. 김유정문학촌의 촌장 소설가 전상국처럼 관람객들에게 김유정의 문학세계에 대해 강연을 해줄 수 있는 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설사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관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근하고 있지 않다. 그 지역의 어느 문인을 기념해서 세운 문학관이라면 그 문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서 관람객들을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본인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몇 해 동안 문학관 운영에 참여했던 공무원이 문학관 파견근무를 마치고 다시 원대복귀하는 경우는 재고해야 한다. 로테이션 형식으로 문학관 관리인이 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도, 양성할 수도 없다.

나. 재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문학관은 입장 수입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문학관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자치단체의 문학관직영과 재단법인화이다. 즉 시장이나 지사 등의 교체에 행정의 방향이 변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재단의 운영이다.
 - 둘째, 자치단체 등의 보조가 있든 없든 후원회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과 홍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의의가 있다. 문학관의 예산과 사업평가, 지정관리자제도의 문제, 수입 증가, 지출 감소의 예측, 비용으로 차지하는 건물, 시설의 유지관리비의 문제, 납세자인 시민의 이해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자치단체 문학관) 등이 검토 대상이다.
- 문학관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시설 관리 및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의 문제이다. 대다수 문학관의 설립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운영 관리비를 지자체의 지방비 및 국고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설립한 문학관의 경우 기부금 등의 자체 부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 전국의 문학관이 자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내용은 현실적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학관 중 입장료를 받는 곳은 절반 가까이 되는데, 수익은 계절별로 다르고, 그다지 많지도 않다고 한다. 그래서 세미나실 대여, 문학 프로그램(백일장, 문예캠프, 문학기행 등) 참가 회비, 음료수·기념품·책자 판매, 숙박시설 대여, 토속

음식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결들여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큰 수익이 아니어서 문학관 관리나 운영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특별한 자원이 없었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 소설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의 무대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이효석문학관을 세우고 메밀꽃축제를 개최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윤을 거두고 있는 사례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효석문학관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문학선양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 이 단체가 지자체와 함께 이효석문학제를 기획하는 등 문학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기에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지역 문학관의 경우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문학관 운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이것은 지역 문학관 운영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화 산업으로서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학관을 활용한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문학관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펀드 레이징(Fund-raising)⁶⁵⁾이 중요하다. 문화 인프라의 건립과 운영은 사실 정부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다. 프로그램

- 문학관마다 청소년 대상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물론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하여 백일장을 열거나 장애 청소년, 혹은 산간오지나 섬마을의 아이들, 보육시설의 아이들을 위한 백일장을 연다면 더욱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 교도소나 양로원이 있다면 시화전을 그런 곳과 연계하여 열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노인대학이나 대안학교 같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연중 한 두 차례 방문의 기회를 주어도 좋을 것이다.⁶⁶⁾

65) 티켓, 인쇄물, 관광 상품 등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끌어들이는 재원을 말한다.

- 솔로호프의 생가가 있는 표센스카야 마을처럼 마을축제와 연결시켜 그 문인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효석 기념관은 상시 개방하지만 메밀꽃이 필 무렵에 메밀꽃 축제를 열어 타지에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이벤트를 만들면 지역주민의 호응도 커지고, 그 작가와 문학관 자체에 대해 더욱 관심을 더욱 갖게 될 것이다.
- 또한 문학관에 관한 소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 한 번 방문한 관람객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해 두어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좋다. 인근 중·고등학교와 대학과도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 두고 홍보를 하여 그 지역의 학생이라면 모두 한 번 이상 문학관을 이용함으로써 그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전시관이나 회의실 같은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게(가능하면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라도 자주 문학관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의 집·서울처럼 매주 여러 가지 행사가 행해짐으로써 문학인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문학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지역의 문학관을 그 지역에 사는 문인들이 자주 이용한다면 지역주민들도 문학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 운영 주체 ⁶⁷⁾

- 문학관의 설립과 재정적 지원은 자자체가 맡되 그 운영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문학단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지역의 형편상 지자체가 일정기간 운영을 맡아서 할 경우에도 반드시 문학에 대한 소양을 갖춘 문화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또 다른 방법은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서 하되 그 시설을 이용

66) 조병화문학관의 찾아가는 문학관 사업(하나원)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67) 「강원지역 문학관 운영 사례」 (전상국,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하는 각종 문학행사의 프로그램 등은 지역의 문학단체가 맡아서 주관하는 것이다. 이효석문학관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프트웨어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문학선양회가 맡아서 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이효석문학제를 기획하는 등 문학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음은 그런 식의 운영 형태의 전망을 밝게 한다.

- 가장 이상적인 문학관 건립과 운영은 그 지역의 문화재단이 운영하면서 사업 일부를 지방비 및 국비로 지원 받는 일일 것이다. 문학관 운영에 있어 국고 및 지방비의 재정적 지원은 사업의 규모나 그 특성에 따라 선별적이고 집중적이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에 한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 3절 문학관을 기반으로 한 문학진흥 방안

1. 새로운 문학 정책으로서의 문학관 정책

가.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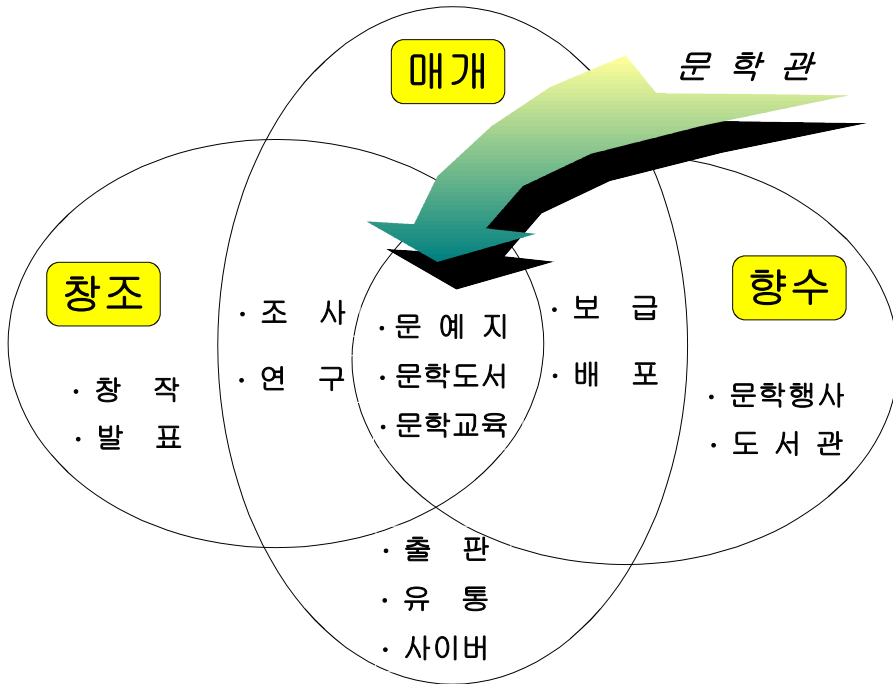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문학 정책은 한 마디로 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문학의 위기에 대한 공허한 외침만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우리 문학의 역사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일관하였다. 문학의 위기를 문학 자체, 또는 문학인의 일방향적 관점으로만 바라봄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이다.
- 또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 등 국민 여가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국민 생활 속의 문학 활동이 침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거의 없었다. 문학은 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오랜 관습과 결국 독서뿐이라는 불각(不覺)의 현실에 지나치게 머물러 있었으며, 이는 곧 문학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2005년에 이어 두 해째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우수 문학 작품의 보급과 배포 사업도 '얼마나 잘 읽었는가'보다는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라는 공급자 관점을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일반 국민들이나 문학 애호가들을 위한 각종 문학 행사들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공급자인 문학인들의 관점에서만 추진되어 문학 안으로만 함몰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문학과 유리(遊離) 또는 부상(浮上)된 채 이뤄지기 일쑤였다.
- 이제 문학 정책은 창작 발표 지원, 독서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 위주에서 탈피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각예술이나 공연 예술 장르의 경우 그 고유 성격상 의당 그러할 수밖에 없겠지만 박물

관·미술관, 공연시설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난다. 여가 생활 기회의 확대, 디지털 환경의 변화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 향수를 그리 쉽지 않게 만들어 놓았다.

- 지금까지의 문학과 문학 정책에 대한 인습적 사고에 젖어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 설정을 게을리 한다면, 문학의 위기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문학을 즐기는 방법도 이젠 단힌 방의 책상 위에서 이뤄지는 독서 이외의 수단이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열린 바깥으로도 나가야 한다. 문학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야 문학을 '만드는' 이들도 존경 받고, 또 살아갈 만하지 않겠는가.

나. 문학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중심에 문학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9>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한 모형

- 문학 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의 한 중심 수단인 문학관의 여섯 가지 정책적 이념을 '문학적인' 비유로 표현하면, ① 문학관은 <문학의 저수지(貯水池)>, ② <그 곳>에 가면 문학이 있다, ③ <성지(聖地)>가 되거나 <놀이터>가 되거나, ④ 문학도 이제 <책 밖으로>, ⑤ 문인들이 글을 쓰는 <어떤 곳>, ⑥ 문학에서 <문화로> 등이다. 물론 이들 여섯은 결코 상호 구별적이거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중첩되거나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역할이 강화된다.

① 문학관은 <문학의 저수지(貯水池)>

문학인의 유품, 창작 메모, 육필 원고, 장서, 초판 작품집, 잡지 창간호, 장서, 인장, 문방구, 사진, 자화상, 초상화, 애장품 등을 수집·보존하는 공간으로서의 문학관의 이념이다. 당시의 문학을 잉태하고 살찌운 기억과 흔적을 모아 전시·계승하는 것만으로도 후대의 문학에 여러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이념의 문학관은 문학의 장구한 역사에 공헌하고 있다.

② <그 곳>에 가면 문학이 있다

평소 일반 국민들에게 문학이란 적극적인 독서 행위를 전제로 한 작품집 구입이나 대여 말고는 손에 쥐어지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학관에 가면 가까운 듯 멀기만 했던 문학을 손으로도 쥐고, 눈으로도 볼 수 있다. 문학사적인 테마를 가진 문학관, 어떤 장르나 경향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관 등의 경우, 일반 국민들 앞에는 문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작가나 연구자 등 전문 문학인들에게는 더욱 깊은 문학을 만나게 해 준다.

③ <성지(聖地)>가 되거나 <놀이터>가 되거나

선대의 문학인들을 흠모하는 발걸음이 닿고 머무는 곳, 그곳은 성지로서의 문학관이다. 아마추어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이뤄지는 창의적 체험과 경험이나, 교과서에서나 배웠음직한 고귀한 문학 작품의 숨결을 찾기 위한 순례는 문학관이 성지일 때만이 가능하다.⁶⁸⁾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 문학을 쉽고 친근하게 여가 활동이나 관광의 차원에서 즐길 수 있는 곳, 그 곳은 놀이터로서

의 문학관이다. 성지로서의 문학관은 여러 예를 들 수 있겠으나 아마 놀이터로서의 문학관으로는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이 가장 가까운 예일 것이다. 문학관은 성지가 되거나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이념을 표방하면 아무것도 아닌 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물론 둘 다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어정쩡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④ 문학도 이젠 <책 밖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국민의 독서율만을 탓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문학 독자로 바뀌는 것이 그들이 '책 안으로' 들어갈 때뿐만은 아니다. 문학을 가장 성공적으로 책 밖으로 끌어낸 문학관은 위의 놀이터로서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일 것이다. 김유정 문학기행 열차, 김유정 작품 속 30년대 삶의 모습 체험(동백꽃의 토종닭 싸움, 떡메치기 등), 이효석 영상물 상영, 옛 봉평 장터 모형, 봉평 지역 문화유적지 답사 등의 프로그램들은 '책 밖의 문학'으로서 매우 모범적인 것들이다.

⑤ 문인들이 글을 쓰는 <어떤 곳>

당연한 말이지만 문학은 문학을 창작하는 문인들로부터 비롯된다. 어느 예술이 다 그렇듯 문인들도 창작의 산실이 필요하다. 대개의 문인들은 사위가 시끄럽고 지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서 그 창작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인들이 자신의 주거주 지나 대도시와 적당히 단절된 곳에서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문학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신성한 일이다. 경기도 전역에는 이러한 신성한 일을 도모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곳들이 그야말로 널려 있다.

68) 성지로서의 문학관은 그 기리는 인물이 과연 문학가로서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추앙 받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문학가가 문학관이라는 성지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리문학관의 관장인 소설가 김성종의 생각(「추리문학관의 어제와 오늘」,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에 동의한다.

⑥ 문학에서 <문화로>

저 앞에서 언급하였듯 프랑스 아라공문학관 관장은 한 보고서에서 문학관을 '문학과 독서, 책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촉의 욕구를 출현시키고 신장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대중들에게 열린 모든 공간'으로 규정하였다.(각주 24) 참조) 또한 쥘베른문학관 관장은 '보다 발전된 문화 공간'으로서의 '제2세대 문학관'을 주장하며,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정의하고 구분 짓던 시기는 지나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문학관을 규정해야 한다(각주 25) 참조)고 했다. 이제 문학관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그리고 그 운영 철학은 문학에서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

- 문학을 둘러싸고 급속하고도 혁명적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은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향유되는 여건과 방식이 정녕 달라진 문학의 뜰과 품 안에는 이제 '읽는' 독자뿐만 아니라 '보는' 관(람)객도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가장 공급자적 관점에서만 들어지고 보급되어 온 문학의 정책 패러다임은 크게 달라져야 한다. 그 중요한 한 자리를 분명 문학관이 차지하고 있다.

2. 경기지역 문학진흥 프로그램 : 문학관을 기반으로

가. 문학관 기반 프로그램의 방향과 목표

- 문학관을 기반으로 하는 문학진흥 프로그램은 우선 문학인들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창작 집필실이라는 공간의 제공을 뜻한다. 개개 문학인에 대한 창작 지원금의 직접 지원은 한 사람의 문학인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나 버린다. 그러나 어느 지역사회에 문학인(예술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문화적이고도 역사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또한 이는 그 지역사회의 독특한 의미를 생성하고 오랜 아우라(aura)를 갖게 하는 일이다.

- 문학관 기반 프로그램은 아마추어 창작의 활성화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추어 창작 활동은 전문 창작 활동의 모태가 된다. 가장 상위의 예술 향수자는 직접 창작을 체험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적어도 그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전문 창작 활동의 질적 수준은 유지되며, 아울러 이들은 곧 문학(예술) 작품을 체로 걸러 역사화(歷史化)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문학관이 지역민이 낯이 누리는 일상 생활 속에다 문학 심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한 문화 시설로서의 문학관은 스스로 사망한 것과 같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문학관은 지역 문화시설이어야 한다. 주민들이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이해와 박수를 받는 프로그램,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 주민들의 정서적·복지적, 또는 어느 정도의 생활경제적 이득이 주어지는 프로그램이어야만 한다. 문학관이 해당 지역사회의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문학 유산의 수집·보존·열람·전시 등을 일차 기능으로 하는 문학관은 학생·청소년의 문학 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마당이다. 학생·청소년의 문학 찾기의 대상, 그리고 문학 성지 순례의 대상이 되는 문학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들로 하여금 문학적 향내와 그늘에 젖게 한다. 문학관이 지식과 감성의 통합교육장인 것이다. 이렇게 문학관 기반 프로그램이 학생·청소년, 또는 학교와 같은 공교육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야만 하며, 특히 현실적으로는 학생 중에서도 어린 초등학교 아동들과 대학 입시 부담이 조금 덜한 중학생에 대한 문학교육이 중요하다.

나. 문학관 기반 프로그램의 예시

- 우리 나라에는 2006. 5. 1 현재 개관되어 운영 중인 문학관이 33개,

1~2년 이내에 개관 예정인 문학관이 16개에 이른다. 그러나 경기지역에는 현재 2곳만이 운영 중이며, 1~2곳(황순원문학관, 홍사용문학관 등)은 구체적으로 건립 준비 중이고 1~2곳(천상병문학관 등)은 소문으로만 간간이 들리는 정도다.

○ 그러므로 당장 실행될 만한 문학관 기반 프로그램이란 다음에서 보듯 일반적인 것 외에는 별로 없으며, 이에 경기도의 최우선적인 문학관 정책은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새로운 문학관을 어서 빨리 세우는 일이다.

○ 검토 대상 프로그램(안)

- 저명 문인의 문학관 강좌 활성화
- 학생·청소년의 문학 활동 거점화
-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이 뽑은 올해의 문학 (수상자 투어)
- 문학관 기반 문학동호인회 활동 지원
-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학 축제
- 경기문학 순례 버스 상설 운영
- 문학 프로그램 마켓 개최
- 다른 지역 문학관 교류 프로그램 상설화
- 다른 예술 장르와의 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 인접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제 4절 문학관 운영 매뉴얼 : 초록 ⁶⁹⁾

1. 공간과 조직의 관리·운영

가. 공간 운영

- 문학관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전시실, 자료실, 창작실, 세미나실, 수장고,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되지만 시설의 목표와 기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문학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고 불편함이 없이 공간정보에 익숙해지도록 접근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신경을 써야 한다.
- 문학관 운영자는 방문객들의 욕구와 취향을 파악하고, 계절별, 월별, 주제별, 시간대별 및 공간 기능별로 주 이용층 등을 분석하여 내부 시설이나 기능 활용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문학관은 정규 개방 시간 이외에도 개방 운영에 대한 열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운영자 측면에서의 문학관 운영 시간과 개방 정도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문학관 운영 시간과 운영 방법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나. 시설 관리

- 문학관의 가치는 표면에 나타나는 전시보다도 숨어 있는 자산, 즉 수장자료의 가치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자료나, 사용 기간에 따른 비품의 교체·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설비의 고장 등 문학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개방 전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69) 『문화의집관리·운영 매뉴얼 연구』(사단법인 민예총문화정책연구소, 2003)를 참고하였다.

- 문학관에 구비될 하드웨어 선정 기준은 하드웨어 구성의 첨단성과 고급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물품의 제시는 진행 과정에서 공급기업 선정 등의 여러 차례 협의가 필요하며, 중요한 기재의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 또한 보안 및 안전 점검이 중요하다. 문학관의 모든 자료는 보존가치가 높고 분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설관리자는 도난방지시설,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시설 등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사고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점검해야 한다.

다. 조직 관리

- 문학관의 조직은 지자체에서 설립했을 경우, 크게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되며,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자체가 경영과 관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경우, 경영권은 가지고 있으나 개인이나 단체에 관리와 책임을 맡기는 경우, 지자체에서 설립하더라도 경영권과 운영권 모두를 단체에 일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단체나 개인이 설립하고 경영·관리하는 경우도 많다.(<그림 2>, <그림 3> 참조)
- 문학관을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단체에 위탁하여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문학관 운영에만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주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안정된 재정확보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서 하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문학행사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학단체가 맡아서 주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설립하여 재단, 임의단체, 법인단체에게 경영권을 주어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지자체에서 경영권까지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문학관의 적합한 조직은 운영의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

회와 문학관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운영책임자 즉 관장이 필요하다. 그 아래에는 관리부문(시설, 회계, 재정 교육 등)과 운영부문(프로그램 기획, 운영, 마케팅 홍보)으로 나눌 수 있다.

라. 인력 관리

- 문학관의 인력은 크게 관리·운영, 보조근무, 지원봉사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영 인력은 주로 설립·운영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정직원인 경우가 있으나, 운영을 위탁 받은 문학관의 경우는 재정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 현재 문학관에 전문 인력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침은 없다. 적은 지원금은 프로그램 지원비로만 쓸 수 있고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중앙/지방)가 적극적으로 운영 인력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청년인턴사업제도(06년 월 66만 원 보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학관에도 청년인턴사원이 근무(05년 10명, 06년 9명)하고 있다.
-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인 인적구성과 회의가 아닌 문학관 운영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인사로 구성한다. 지역 유지, 이장, 일반 주민들에게 문학관의 운영 전반을 개방함으로써 문학관 운영의 실질적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예산 수립

- 예산(budget)이란 '회계연도 내 세입 및 세출의 재정적 계획'을 말하며, 재정(finance)은 '특정 주체가 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종합적인 경제활동'을 일컫는 개념이다. 예산에 비해 재정이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세입 및 세출의 재정적 계획을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문학관에 대한 지원 재원은 지방정부의 예산(지방고)이나 공공기금이 다. 국가에서는 지자체와의 매칭 펀드로 건립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즉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문학관 사업 운영비는 지자체와 공공기금(중앙 및 각 지역 문예진흥기금)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커야 한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약속이나 위탁운영 상의 계약 등에 의해서이다. 공공기금은 현재로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거의 유일하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학관의 경우는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바. 예산 평가

- 예산 평가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예산이 문학관의 본래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 두 번째 기준은 운영의 효율성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지, 운영인력의 인건비에 비해 운영의 효과성은 충분했는지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예산 평가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이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평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즉 주민들에게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 동기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문화의 거점화

가. 주민 참여

- 주민 참여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지역민이 가장 중요한, 문학관의 이용자이자 운영주체라는 점이다. 문학관에서의 주민 참여는 문학관과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것과 주민들이 보다 능동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문학관의 운영의 방향을 주민들의 의지로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문학관을 매개로 한 문화자치 활동들을 가능하게 한다. 즉 장기적으로는 문학관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문학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문학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문학관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주민 참여의 기본적인 한 방법이다.
- 프로그램기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면 좋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가 자원봉사나 자문의 형태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문학관 프로그램 기획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맡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문학관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나. 마케팅과 이용자 개발

① 문학관의 마케팅

- 문학관에서 마케팅이란 전문가는 물론 지역민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자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관계를 맺는 비영리 예술경영의 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문학관에서 마케팅은 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 현황을 알아보고 이

용자들이 문학관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문학관 이용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상호 소통하는 방법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문학관의 운영책임자는 전문성, 인력, 재정, 네트워크의 부족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들로 인하여 중장기계획이나 전략, 마케팅 관점을 통해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대한 책임운영자가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마케팅 지향적으로 운영을 전환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차별화 될 것이다.

② 이용자 조사

- 문학관 이용자 조사는 이용자들이 문학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어떤 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이다. 운영책임자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고객지향적, 마케팅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가겠지만 주기적으로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의 흐름을 판단하여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 결과를 축적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중장기계획이나 향후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 조사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인터뷰(심층면접) 등이 있다. 설문조사는 문학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인터뷰는 열성방문자, 연구자, 강사, 예술가, 예술단체, 문학관과 깊이 관계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학학예사(큐레이터)의 앞서가는 기획력이 가장 중요하다.

③ 이용자 개발

- 문학관에서 이용자 개발은 문학관의 본연의 임무에 다가가는 전략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문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소수문학 활동의 지향과 지역의 문학 개념이 포함된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학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중심 전략이 이용자 개발이다.

- 모든 이용자 개발 프로그램은 문학관의 능력에 맞아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개발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눈 앞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하는 조직문화 안에서는 처음의 의욕과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마케팅 전략보다 난관이 많은 이용자 개발 프로그램은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초기 기획 단계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용자 개발의 목표>

- 새로운 이용자를 개발한다.
- 다양한 문학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 기존 이용자가 좀더 깊이 있게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 문학창작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표수립 : 문제→ 활동→ 결과→ 파급효과

다. 문학관의 홍보

- 문학관의 역할과 기능, 이용 안내 등에 대해 이용자와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 지역신문, 유선방송, 지역회보 등 지역 매스컴을 통한 홍보,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지역 내 학교, 기업체, 문화예술 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한 홍보, 연간, 월간, 주간 운영계획을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전달 고지하고 학교, 관공서 등 지역 공공기관의 게시판 활용, 지역 소재 학교의 문화활동 견학 등을 협조·유지해야 한다.
- 홍보 과정으로는 문학관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료 입수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상 이용자 층의 설정 및 분석을 통해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
- 홍보 수단으로는 인쇄물, 설치물, 매체 광고, 지하철 광고, 배지, 스티커, 각 문화단체 문화예술단체 홈페이지 커뮤니티, 백화점 카드사에

DM, 문화상품 등이 있다.

라. 프로그램

-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욕구와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기반하여 전문적인 체험·참여 프로그램 등이 기획되어 운영된다면 가능성이 있다.
- 문학관이 지역문화공동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참여 프로그램, 이용자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학교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학교육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기획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 지역문화 연계 활동(네트워크)

- 문학관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지역복지시설, 문화의집,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 또한 문화예술기관 외에도 지역의 문화단체, 시민단체, 지역문화행사 추진위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기관과 단체의 특성에 따라 문학관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과는 강사풀을 공유하거나 자원봉사자의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문예회관과는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연계가 가능하다.
- 이렇게 타 기관과의 효과적인 연계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 방향,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학관이 필요로 하는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

바. 자원봉사

- 문학관에서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문화적 생산 행위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자원봉사는 중요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고되어야 한다. 참여적 문화 활동으로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문학 활동, 생활 속에서의 문학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의 질을 스스로 높여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문학관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활동이다.
- 문학관은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자원봉사 업무의 시간 및 권한, 책임, 구체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해야 적절한 봉사자의 모집이 가능하고, 자원봉사자와 문학관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일반자원봉사자와 전문가자원봉사는 약간 성격이 다르므로 모집 방법이나 관리 방법에 각각 차별성을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자원봉사는 지역주민 참여와 자발적 문화 활동의 촉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전문가자원봉사는 문학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 지속가능 발전 전략

가. 문학관의 정보화

① 문학관 정보화의 개념

- 문학관의 수많은 전문자료를 DB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작용 원리로 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안은 문학관이 가진

웹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문학관은 웹 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으며, 정보를 통해 문학관 이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문학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그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용자들의 수용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 문학관 이용자들에게 주는 정보를 통해 정보의 시너지 효과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문학관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운영에 대한 내실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

② 콘텐츠 구성 방법

- 콘텐츠 구성 때의 유의사항은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운영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웹 사이트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회원 가입을 실시하여 문학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문학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표 20> 문학관 콘텐츠의 분류와 내용

분 류	내 용
문학관의 기본 정보	문학관 소개, 문학관 정관, 연혁, 공지사항 등
문학관의 시설 안내	행사 갤러리, 전시실 안내 등
정보 자료	소장 자료(분야별) 검색
일반 정보	문학에 관한 뉴스, 이용자 네트워크 등

- 문학관은 그 운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웹 사이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문학관 회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주기적인 자체평가

- 문학관의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서, ① 문학관의 설립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② 문학관의 이용률 현황은 어떠한지, ③ 예산이나 인력 등 자원에 비해 효율성은 있는지, ④ 공간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를 향후 문학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자체평가와 마케팅적 관점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주기적인 자체평가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설문조사이다. 스스로 조사할 영역을 정해 조사 설계하고, 이 설계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하면 된다. 이때 자체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다. ① 주민 이용률, ② 만족도 조사가 있으며, ③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④ 전문가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 ⑤ 무작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이 가능하다.
-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컨설팅이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또한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외부에서 보는 문학관에 대한 시각이나 바람 등을 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위해서는 설문조사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 중장기 계획

- 문학관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 계획으로 운영하는 문학관은 많지 않다. 문학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려하고 대비하여 비전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 자원과 전략에 대한 분석과 수행 역량을 넓혀가야 한다.

<중장기 계획의 항목>

- 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조사분석
- 지역의 문화환경 분석
- 지역민의 문화관에 대한 욕구분석: 이용자 조사, 전문가조사(문화관과 네트워크할 수 있는 대상), 인지도, 서비스(시설관광 안내서비스, 행정 서비스 등), 프로그램 선호도 등
- SWOT 분석
-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 중장기계획의 목표
- 추진전략
- 중점추진분야
- 단계적 추진전략
- 연간계획
- 정기사업 / 수시사업
- 운영계획(인력확보, 교육방안, 프로그램운영방안 등)
- 예산계획(재정확보방안 포함)

제 5장 정책 제언

제 1절 문학계의 지역문학관 건립 운동 전개

- 경기도 문학인들과 문학단체는 문학관 건립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⁷⁰⁾ 먼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큰 문학인들의 생가와 그 터, 작품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곳 등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멸실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문학 작품을 창출하는 공간>, <문학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간>, <문학의 현재를 다지는 공간>, <문학의 미래를 여는 공간>이 문학관이라는 의미화(意味化) 작업과 함께, 박물관·기념관형, 도서관형, 교류형, 집필실형, 테마형 등 전문화·특성화된 문학관의 건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아울러 우리 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학관들, 예를 들면 근현대 문학관, 고대문학관, 수필문학관, 시조문학관, 청소년문학관⁷¹⁾, 어린이 문학관, 생태문학관, 남북통합문학관, 노동문학관, 한강문학관 등도 연차적으로 건립함으로써, 경기도를 우리 문학의 중심이나 순례지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내에 3~5개의 창작집필실을 건립하여 문학 창작의 메카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막중한 일이다. 경기도에 새로 세울 만한 문학관의 수는 최소 20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 제안이다.(<그림 8> 참조)

70) 경기도가 관 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민간(문학계)에서 주도하고 도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이 마땅하며, 이 과정에서 대학의 연구진들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립 추진 시스템이다.

71) 이 청소년문학관은 전통적인 본격문학뿐만 아니라 무협소설, 판타지소설, 인터넷웹소설과 같은 장르의 문학들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제 2절 국가의 지역문학관 정책 과제

1. 문학관 신규 건립 지원 확대

- 국민의 정부의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2002. 10.)에 의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문학인의 집 건립, 지역문학관 50개소 건립’이 아직도 유효한 정책이라면, 이를 수정하여 지역문학관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50개소가 아니라 전국에 최소 200개소 이상은 되어야 하며, 이는 인구 20~25만 명 당 1개소 꼴이다. 그래도 일본의 400여 개⁷²⁾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 현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1998. 10.)이 천명한 문화기반시설 건립 정책, 즉 2011년까지 공공박물관 500관(인구 9만 명 당 1관), 공공도서관 750개관(인구 6만 명 당 1관), 지방문예회관 248개관(지방자치단체별 1관)의 연차적인 건립 방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볼 때 문학관의 수 50개는 너무 적다.
-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공공박물관 30%, 공공도서관 20%, 지방문예회관 20억 원, 문화의집 2억원)은 다른 부문, 예를 들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비율 30~5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2006년 문학관 건립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 30%는 이제 막 문학관들이 본격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간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0%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⁷³⁾
- 한편 기존 문화기반시설은 지자체 신청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72) 이 400여 개라는 수치는 일부 도서관 내에 꾸며져 있는 문학가 개인의 기념 문고를 포함한 것이며, 외국 문학가 기념관 등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문학관 수는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3) 2005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다.

시설의 불균형, 유사시설의 중복 건립, 시설의 대형화 추진 등 시행상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으나⁷⁴⁾, 문학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그리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의 집이나 문예회관 등과 달리 지역문학관은 대부분 해당 지역 연고 문인들의 다양한 문학 유산들이 그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굳이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통한 통합적 시설 설립이나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강박 관념은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만 시설이 보다 내실 있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그 타당성에 대한 행정적 판단만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 문학관 관련 법규 구비 및 개정

-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문학관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조항이 없다는,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부재 또는 미비하다는 현실은 문학관 정책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이다.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일견 바람직하게 보이나, 다른 여러 문화시설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편으론 너무 이상적이거나 시기상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별도의 독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문학관을 엄연한 문화시설의 하나로 명명하여 의미 지우는 것이 선결과제다.
-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 1조의2(문화시설의 종류)에도 문학관을 분명하게 포함 및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한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중 문학관은 대체로 전시시설의 박물관에 해당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제 문학관은 단독으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

74) 『창의한국』 문화관광부, 2004., 493쪽

- 현재는 일반 공연예술과 전시예술 장르, 그리고 복합적인 일반 문화 공간들의 경우 각각 독자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유독 문학 장르의 문학관만큼은 일반 박물관들과 무차별하게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의 대표 장르인 문학의 유일한 인프라가 문학관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로써 문학관의 고유성이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나 문학인들과 문학을 찾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 그리 용이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3. 문학관 전문 인력 양성 제도 도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문예진흥법 제9조의2). 여기서 말하는 문화시설에는 당연히 문학관도 포함된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박물관미술관법 제9조). 그러나 문학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는 아직 없다.
- 이에 하루라도 빨리 문학관 전문 인력, 즉 문학 학예사(큐레이터) 양성 제도를 도입하여 수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문학관의 운영을 시급히 전문화·특성화해야 한다. 현 정부도 예술의 문화시설 전문 인력의 확충과 공공문화기관·시설의 문화 인턴십 제도에 대한 지원을 밝힌 후⁷⁵⁾ 일부 실천하기 시작했으나, 문화시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기에는 아직 멀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에 문학관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현재 한국문학관협회는 회원 문학관 실무자에 대한 2박 3일 간의 교육을 2년째(2005~2006년) 이 아르코문화예술연수원에 위탁해 오고

75)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 예술의 힘』, 문화관광부, 2004, 626~628쪽

있으나, 일회적인 단기 연수 형식에 머물고 있다.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슬기를 다함께 모아야 할 때다.

- 2005년부터 문화시설의 전문성 향상, 예술경영 전문 인력의 현장경험 습득 기회 제공, 문화 분야 고용 확대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인턴사원제도⁷⁶⁾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문학관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등 모든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06. 5. 1 현재 각 지역 문학관에 총 9명⁷⁷⁾의 인턴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학관의 전문적 운영과 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는 새로이 양성되는 전문 인력들에게 자신의 직종(문학 학예사)이 엄연한 직업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심어줌과 아울러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보수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명감에 불타는 어떤 직종도 평생직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제 3절 경기도의 지역문학관 정책 과제

1. 문학관 관련 조례 제정

-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⁷⁸⁾.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76) 인턴의 자격은 문화예술 경영 전공자나 일정 기간 이상의 유경험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문예진흥기금이다.

77) 2005년에는 10명의 인턴사원이 각 지역문학관에서 근무하였다.

78)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만 한다면, 중앙정부(문화관광부)는 물론 그 밖의 다른 지자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커질 것이며, 이에 지자체 문화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문학관의 건립과 그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실제 결정하는 문학관 관련 조례의 제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 문학의 ‘창작의 향내’와 ‘향수의 즐거움’과 ‘매개의 보람’이 한 자리에 펼쳐질 수 있는 문학관, 전통적으로 책과 독서를 중심으로 소통이 되는 문학 장르의 특성상 정말 특별한 공간일 수밖에 없는 문학관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문학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남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 운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문학관 재정 지원 대폭 확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지역 문학관 2곳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관리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문학관의 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시점까지 연차별 축소(또는 동결) 지원 제도, 또는 민간의 후원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 펀드(Matching Funds)나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학관을 활용한 수입으로 건립 비용은 물론 운영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의 가동은 정부의 업무 영역이며 책임이라 할 수 있다.
- 경기도에는 현재 지자체 소유의 문학관이 없으나 경기도가 문학관을 계속 지어 운영한다고 예상할 때는 건립 후의 운영 재원과 방안 등에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 인력과 시설의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파견 근무 제도는 단순한 순환보직이 아닌 문화행정 전문직이라는 관점만 유지할 수 있다면,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과 그 비용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부록 1> 전국 지역 문학관 세부 현황

[서울]

① 문학의 집 · 서울

- 주소 :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2-20
- 전화 : 02-778-1026~7
- 이메일 : munhakhs@korea.com
- 홈페이지 : www.imhs.co.kr
- 관람 시간 : 월~토요일 10:00~17:30 / 휴관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 개관 연도 : 2001년
- 개요 : 문학인들과 문학적 교감을 나누는 정답고 유익한 자리가 되는 것이 목표다.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이 문학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넓은 잔디밭 주변에는 야생초들이 있고 멋진 숲이 조성되어 있다. 흰 양옥 건물 1층에 세미나실과 전시장이 있고, 2층에는 문인들의 사랑방과 회의실, 집필실 등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자료실, 열람실 등이 있다. 또한 부속 건물인 산림문학관은 1층 150여 명 수용의 강당, 2층에는 문학카페, 소회의실과 다용도 세미나실이 있다. 수요문학특강,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시 낭송회, 그리고 문인들의 자화상전과 친필전 등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 행사 안내
 - 수요문학광장(월 1회),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월 1회)
 - 자연사랑문학제(숲 체험 및 독후감 쓰기), 시민 시낭송 경연대회, 가족백일장
 - 신작 가곡 음악회(우리 시 우리 노래)
 - 청소년을 위한 문학강좌와 백일장(중소 도시 중학생을 위한 문학행사, 문학청소년 축제)
 - 세계문학 교류 행사(외국 저명 작가 초청)
 - 연중 문학예술 관련 전시회, 각종 문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월간 소식지 발간

- 기타 문학과 예술의 만남의 자리
- 시설 현황
 - 본관 : 세미나실, 제1·2전시실, 문인 사랑방, 회의실, 집필실, 자료실
 - 문학 홀 : 대강당(150명 수용), 영상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문학카페
 - 부대시설 : 야외정원무대, 문학의 집 쌈지공원, 주차장
 - 기자재 : 세미나 PT에 필요한 기자재, 행사 중계 시스템
 - 세미나실
 - 전시실
 - 야외무대 문학 홀
- 특이점 : 서울 한복판 남산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이 산책을 나가서 별 부담 없이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서울타워, 애니메이션센터, 드라마센터, 한옥마을, 서울유스호스텔 등과 연계한 문학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② 세계여성문학관

- 주소 : (140-742) 서울 용산구 청과동2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 전화 : 02-710-9120~1
- 홈페이지 : wowlic.sookmyung.ac.kr
- 이메일 : wowlic@sookmyung.ac.kr
- 관람 시간
 - 평일 - 학기 중 09:00~22:00, 방학 중 09:00~17:00
 - 토요일 - 학기 중 09:00~17:00, 방학 중 09:00~13:00
 - 휴관일 - 휴일, 법정공휴일 1
- 개관 연도 : 2000년 11월 30일
- 개요 : 세계여성문학관은 세계 여성작가의 문학 작품 및 그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개발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문학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개관하였다. 그간 ‘세계대표여성문인전’을 시작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여성문인전’, ‘해외여성문인 기증전’ 및 ‘한무숙·김의정 기증전’을 비롯한 여성문학 관련 전시와 ‘박완서 초청강연회’ 등을 개최하여 문학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 여성문인의 인명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문학 연구자에

게 제공하고 있다. 2006년 5월 8일(리노베이션 완료 후)에 도서관 내 1층에 세계여성문학관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여 각종 문학행사 및 시 낭송회, 그리고 문인들의 작품 세계를 담은 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 역대 주요 행사

- 세계대표여성문인전(2000년)
- 노벨문학상 수상 여성문인전 (2001년)
- 기증전 : 한무숙 · 김의정 코너(2002년)
- 박완서 초청강연회(2002년)
- 사이버갤러리 개설(2003년)
- 해외여성문인 기증전(2003년)
- 한영희 기증 문인사진전(2003년, 2004년)
- 동문문인전(2006년 예정)

□ 자료 현황

- 여성문학 자료 : 3만여 권의 단행본 및 관련 참고도서 소장
- 여성작가 DB : 3천5백여 명의 여성문인 웹 인명정보 구축
- 2006년 5월 오픈 예정으로 도서관 내 1층에 세계여성문학관 리노베이션 완료(2006.5.8)

□ 특이점 : '여성문학'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한국 여성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③ 영인문학관

□ 주소 : (110-848)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4-27

□ 전화 : 02-379-3182

□ 홈페이지 : www.youngin.org

□ 이메일 : ashima@dreamwiz.com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10:30~17:00 / 휴관일 : 월요일

□ 개관 연도 : 2001년

□ 개요 : 문학 자료의 수집과 보관 및 전시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누군가가 모으지 않으면 유실될 우리 시대의 문학 자료들을 모아 후세에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현재 자료 보유 수는 약 2만 5천여 점이며, 이 자료들 중 대표적인 것은 문인 초상화 약 120점, 육

필원고 약 800점, 문인 서화 및 도자기 자료 150점, 문인과 화가의 선면화 180점, 문인의 편지와 엽서 200점, 문학 작품에 들어갔던 삽화의 원화 300점, 문인의 문방용구 및 애장품 300점, 《현대문학》과 《문학사상》을 비롯한 문학잡지가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 특히 《사상계》나 《문학예술》 등 희귀본 잡지의 원본이 있다. 또한 70년대부터의 문학 관련 스크랩과 문인 사진, 또한 저자 사인본이 대부분 초판본으로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문학관의 자료는 현재 전시와 더불어 친철히 정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집도 병행되고 있다.

□ 행사 안내

문인의 초상화 및 육필원고, 문방도구와 문인의 글과 그림, 문인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책의 삽화 등 전시, 매년 2회 기획전시회 개최, 테마코스를 통한 문학 탐방, 동호회 운영, 문학작품 낭독회(연 2회), 문학강연(연 2회)

□ 시설 현황 : 전시실, 서고, 차고, 사무실, 관장실, 수장고, 야외 정원

□ 특이점 :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으며, 아주 많은 문학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있음에도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나아트센터미술관 순회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관람객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④ 한국현대문학관

□ 주소 : (100-855)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10

□ 전화 : 02-2267-4857

□ 홈페이지 : www.kmlm.or.kr

□ 이메일 : kmlm@unitel.co.kr

□ 관람 시간 : 월~금요일 10:00~17:00, 토요일 10:00~12:00

□ 개관년도 : 1997년

□ 개요 : 개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소식지>를 발간해 문단과 독자들에게 보내왔으며, 문학관 소장도서와 작가연보, 주요 문학작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매년 4회 정도의 세미나와 낭송회를 개최하여 문화 애호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역대 주요 행사

- 일제하 한국시 100인전(1998)
- 작고문인 105인의 친필/유묵전(2002)
- 한국전쟁 전후 북한문학서 전시회(2003)
- 문학가가 꾸민 연극식 작품 발표회(2004)
- 이태준·이육사 100주기 문학세미나 개최(2004)
- 동서문화원 문예대학(시·소설·수필·동화) 총 3학기
- 자료 현황
 - 소설·수필·시 등 작고 문인 문학도서 초판본 2천여 권
 - 문인 육필원고 1천여 점
 - 사진자료 1천 5백여 점
 - 영상자료 4백여 점
 - 기타 문학잡지와 연구논문집
 - 그 외 한국현대문학지도 등 시각화된 볼거리를 전시
- 시설 현황 : 종합전시관, 중앙도서관, 주요시민전시관, 컴퓨터 제비
- 특이점 : 전시회를 자주 갖고 있으며,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발간한다.

⑤ 한무숙문학관

- 주소 : (110-521)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33-100
- 전화 : 02-762-3093
- 홈페이지 : 없음
- 이메일 : kimhoagy@yahoo.com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10:00~17:30 휴관일 : 월요일
- 개관 연도 : 1993년 7월 10일
- 개요 : 소설가 한무숙이 40년 간 작품 활동을 했던 고택을 보전함으로써 작가의 체취를 간직하며 그의 높은 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문학의 장을 활발히 열어주며, 아울러 한국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20세기 초 장안의 대목 심목수가 지은 한옥으로서 비록 개조는 되었으나 전통한옥 보존의 가치가 크다.
- 행사 안내
 - 한무숙문학상 시상

- 한무숙 콜로세움 개최(미국 조지워싱턴대학)
- 문학기행
- 한무숙 연구서 및 문학서적 출판
- 자료 현황
 - 서화 30여 점, 유고 수천 매, 도서 만 권 정도, 유품 일체
- 시설 현황
 - 건물 98평, 대지 104평, 전시실, 창작실
- 특이점 : 한 명의 소설가를 기념하는 문학관이라 작가에 관련된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부산]

① 추리문학관

- 주소 : (612-8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483-6
- 전화 : 051-743-0480, 742-2346
- 홈페이지 : www.007spyhouse.com
- 이메일 : spy1984@yahoo.co.kr
- 관람 시간 : 1층 9:00~20:00, 2~4층 9:00~18:00 / 휴관일 : 연중 무휴
- 개관 연도 : 1992년
- 개요 : 추리문학관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추리문학 전문 도서관이다. 따라서 그 희소성과 상징성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추리문학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추리문학 관계 전문 도서관으로 추리문학서와 함께 일반도서를 다수 비치함으로써 지역의 도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문학관에 들어서면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위대한 작가들의 대형 사진들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헤밍웨이에 이르는 문호들의 걸작 사진들은 현재 100여 점이 넘게 전시되어 있다.
- 행사 안내
 - 21세기 문화강좌, 추리 창작교실, 지식 강좌, 독서 교실, 철학의 오솔길

- 시설 현황
 - 대지 180평, 연건평 500평(지상 5층, 지하 1층), 총 좌석 수 322석
 - 1층 : 각종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국내외 추리소설, 일반문학서 및 시집 비치
 - 2층 : 열람실, 국내외 추리소설과 일반 문학서 비치
 - 장서 목록 : 추리소설 1만 3천여 권, 일반문학서 1만 3천여 권, 아동 도서 및 참고도서 3천여 권, 외국 원서 3,000여 권, 기타도서 3,000여 권
- 특이점 : 대중문학이라고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추리문학의 의의를 제고했고 추리소설가의 위상을 드높였다.

② 이주홍문학관

- 주소 : (607-834)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435-24
- 전화 : 051-552-1020, 552-0801
- 이메일 : yiilove@naver.com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10:00~17:00 / 휴관일 : 월요일, 국가 공휴일
- 개관 연도 : 2002년
- 개요 : 이주홍문학관은 향파(向波) 이주홍(1906~1987)이 1971년부터 1987년 별세할 때까지 기거했던 동래구 온천1동 177-18번지 가옥을 부산광역시의 지원금으로 구입하여 개축한 것인데, 이 지역의 개발공사로 인해 2004년 5월 현재의 위치에 문학관을 신축 이전하였다. 문학관 운영을 위해 1980년에 이주홍의 제자들이 결성했던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2002년 1월 '사단법인 이주홍문학재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으며, 2002년 10월 5일에 개관하였다.
- 행사 안내
문학관은 이주홍 선생이 소장했던 도서 및 서화를 비롯한 유품을 전시하고, 문학 세미나, 문학 강연회, 동화·동시 창작교실 등 창작 수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시설 현황 : 1층 60평과 2층 50평의 건물과 90평의 정원으로 구성
1층 : 시민 도서관 기능과 문학 세미나, 토론회 장소로 사용

2층 : 이주홍 선생이 평소에 창작 활동을 했던 서재를 그대로 보존, 문화유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층 서재에는 선생이 사용했던 1만여 권의 도서가 그대로 있으며, 유품 등과 선생이 교류했던 전국의 문인들이 보낸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희귀본으로는 1930년대 이주홍 선생이 직접 제호를 쓰고 표지화와 삽화를 그렸으며 작품을 발표했던 《신소년》(1934년 폐간) 잡지철과 1936년 선생이 창간했던 카프 계열 순수문예지 《풍림》 묶음이 있고, 카프 계열의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했던 《별나라》(1935년 폐간) 잡지철이 있다.

- 특이점 : 아동문학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주홍의 업적을 기려 세운 문학관으로, 아동문학 쪽 문인의 문학관으로는 유일하다.

[경기도]

① 만해기념관

- 주소 : (464-810)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912-1
- 전화 : 031-744-3100
- 홈페이지 : www.manhae.or.kr
- 이메일 : jbs@manhae.or.kr
- 관람 시간 : 화~일요일(3월~10월) 10:00~18:00, 11월~2월 10:00~17:00 / 휴관일 : 월요일
- 개관 연도 : 1998년
- 개요 : 민족 자존의 역사가 숨쉬고 호국정신의 성지인 남한산성 내에 만해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만해(萬海) 한용운(1879~1944) 시인의 시집 『님의 침묵』 중 「나룻배와 행인」을 새긴 시비가 있고, 그 옆에는 원로 조각가 민복진의 작품인 만해 흉상이 있다. 기념관 내부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금서였던 『음빙실문집』, 『영환지략』, 『월남망국사』, 『조선상고사』 등의 수택본, 『님의 침묵』 초간본을 위시하여 130여 종의 판본과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정선강의 채근담』 등 만해의 저술과 3·1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 전시 안내

- 상설 전시 : 만해 관련 자료를 일대기를 따라가며 살펴볼 수 있는 전시
- 기획 전시 : 연중 1~2회의 특별기획 전시(『님의 침묵』 판본 기획전 등)
- 초대 전시 : 만해기념관에서 기획, 초청하는 전시(남한산성 고문서전, 미협 초대전 등)
- 행사 안내
 - 만해학교 : 제8기 만해학교를 마쳤으며, 연 2회 만해학교 실시
 - 만해 청소년 백일장 : 만해 문학 특강과 시 낭송회, 청소년 백일장 연 1회
 - 만해 유묵 탁본 실기 : 만해 어록, 유묵을 탁본으로 실습하여 만해 정신 계승
- 시설 현황 : 부지 520평, 연건평 120평(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교육관, 자료실)
- 특이점 : 남한산성은 관광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대개의 경우 길 가다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오는데, 만해의 문학세계와 사상을 접하고 가면서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조병화(편운)문학관

- 주소 : (456-932) 경기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산337
- 전화 : 031-674-0307 / 02-741-2051
- 홈페이지 : www.poetcho.com
- 이메일 : yongchungk@hotmail.com
- 관람 시간 : 4월~10월, 화·토 10:00~17:00
- 개관 연도 : 1993년
- 개요 : 편운(片雲) 조병화(1921~2003)의 유품 및 창작성품을 비롯하여 한국 문인들의 유물들을 상설 전시하는 문학기념관으로서, 시인이 전생애의 창작활동을 통해 추구해온 꿈과 사랑의 시 정신이 담겨 있는 한국 현대문학의 한 발자취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문학관에서는 해마다 문학 행사(꿈과 사랑의 시 축제, 시낭송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학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학적 역량을 지닌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문학의 길로 안내하고자 한다. 조병화문학관은 1993년에 문화관광부에 의해 난실리마을이 문화마을로 지정되어 국고의 지원을 받아 지은 건물로 대지 315평에 연건평 85평 규모의 2층 건물이며 8평 규모의 부속 건물(관리동)이 있고, 전시실 4실, 20평

규모의 전시 겸용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다.

- 행사 안내
 - 편운 조병화 선생의 유품 및 친필 전시
 - 꿈과 사랑의 시 축제
 - 꿈의 시 낭송대회
- 전시 안내
 - 휘호, 서예품, 육필원고, 조각작품, 테이프·CD 자료, 조병화 저서, 그림, 신문 자료, 상장, 작곡 원고, 서간 자료 등 많은 작품들.
- 특이점 : 해마다 문학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법인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

① 김유정문학촌

- 주소 : (200-812) 강원 춘천시 신동면 증3리 868-1
- 전화 : 033-261-4650
- 홈페이지 : www.kimyoujeong.org
- 이메일 : rlehkks11@hanmail.net
- 관람 시간 : 화~일요일·하절기 9:00~18:00, 동절기 9:00~17:00 / 휴관일 : 월요일
- 개관 연도 : 2002년
- 개요 : 춘천시 신동면 실레마을은 김유정(1908~1937)의 고향 마을이다. 김유정의 소설 대부분이 이곳에서 구상되고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지명 등도 대부분 이곳의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 마을 전체가 작품의 산실이며 그 현장이다. 방문객은 김유정의 예술적 열정, 가난과 병마와 싸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세월이 흐를수록 돋보이는 작품 세계를 새로이 만날 수 있다. 생가와 전시관 관람에 이어 소설 『봄봄』, 『동백꽃』, 『솔』의 무대와 야학을 열었던 금병의숙 등 문학 현장도 둘러볼 수 있다.
- 행사 안내
 - 매년 3월 29일 추모행사가 열린다.

- 동백꽃 피는 4월의 김유정문학제는 김유정문학촌의 중심 행사이다.
 - 김유정 학술세미나, 김유정 문학 현장 답사 기행 열차 운행(청량리역~김유정역)
 - 소설 속의 인물 찾기, 김유정 산문 백일장, 민속놀이, 풍물장터 개장
 - 김유정 문학캠프(7월말)
 - 향토 작가 알리기 학교별 순회 문학 강연(매년 3개 시·군)
 - 김유정 소설 속 삶의 체험
 - 금병의숙 문학교실(매주 화요일 저녁)
- 특이점 : 문학촌이 만들어져 있어 마을 전체를 문화관광지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 또한 문학현장을 두루 답사해볼 수 있다.

② 백담사 만해마을

- 주소 : (252-821)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36-5
- 전화 : 033-462-2303~4
- 홈페이지 : www.manhae.net
- 이메일 : manhae21@hanmail.net
- 관람 시간 : 하절기 9:30~18:00, 동절기 9:30~17:00 / 휴관일 : 연중무휴
- 개관 연도 : 2003년
- 개요 : 독립운동가이며 불교의 대선사인 한용운의 자유사상·민족사상·진보사상·생명사상을 높이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설립되었다. 백담사 만해마을은 복합적 문학예술 공간으로서, 한용운의 유품 및 문학 자료 전시, 문인창작 집필실 운영, 문예지의 발간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등의 문학사업과, 미술·사진·공예·시화 등의 문예물의 기획 및 초대전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예술 공간이다.
- 행사 안내
 - 청소년문화사업 : 문학꿈나무창작캠프, 청소년심성수련교실, 푸른나무 생태체험교실, 장학사업
 - 학술·연구사업 : 만해학회 및 만해·의상연구원 연구사업, 『만해학술총서』, 계간 《유심》, 《만해·의상 연구》, 《불교평론》, 《만해학보》 발간, 남북한 만해학 학술대회
- 시설 현황

- 만해문학박물관(1층) : 만해의 저서, 유품, 주제·연대별로 본 만해의 일대기
 - 만해문학박물관(2층) : 전시관(시·서·화 기획 및 초대전)
 - 만해문학박물관(3층) : 도서실, 자료실, 세미나실
 - 문인의 집 : 숙소(문인창작집필실 휴식공간), 대강당(문인창작집필실 및 휴식공간)
 - 만해학교 : 청소년 단체숙소, 모듬 학습실, 레크리에이션 등
 - 심우장 : 시인, 묵객의 토론·명상의 자리
 - 서원보전 : 시민선방, 참선, 발우공양 등 사찰 체험
 - 님의 침묵 광장 : 노천극장, 시 낭송회, 공연 등
 - 님의 침묵 산책로 : 생태체험학습장, 산책로, 야외공원
- 특이점 : 문인의 집 운영과 함께, 문인에게 창작집필실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이효석문학관

- 주소 : (232-925)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544-3
- 전화 : 033-330-2700, 330-2541
- 홈페이지 : www.hyoseok.org
- 이메일 : www.bongpyong.co.kr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9:00~18:00(동절기 17:00) / 휴관일 : 월요일, 1월 1일
- 개관 연도 : 2002년
- 개요 : 가산(可山) 이효석(1907~1942)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전시실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학교실, 학예연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효석 문학전시실은 그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창작실 재현, 옛 봉평 장터 모형, 문학과 생애를 다룬 영상물, 어린이용 영상물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특히 이 전시실에는 유품과 초간본 책, 이효석의 작품이 발표된 잡지와 신문 등을 전시하여 이효석의 문학과 생애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문학교실에서는 다양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고 문예행사도 볼 수 있으며, 학예연구실에는 이효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의 문학

세계를 깊이 연구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 행사 안내

- 효석문화제
- 문학심포지엄, 문학교실 운영, 이효석 문학관 소식지 발간
- 전시품(육필원고 등), 보존가치 자료의 사본 제작 보관
- 테마별 문화유적 답사지
- 봉평 지역의 모든 문화유적지 답사
- 가산 이효석 선생 관련 유적지 답사
- 가산 이효석 선생의 작품 배경지 답사(작품 : 「메밀꽃 필 무렵」 「산협」 「개살구」)

- 특이점 : 메밀꽃 필 무렵에는 봉평 일대가 인산인해가 될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 있다. 앞으로 시설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④ 토지문화관

- 주소 : (220-842)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570
- 전화 : 033-762-7382, 766-5544
- 홈페이지 : www.tojicul.or.kr
- 이메일 : tojicul@chol.com
- 관람 시간 : 월~토요일 9:00~18:00 / 휴관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 개관 연도: 1999년
- 개요 : 재능 있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학술회의 개최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우리 문화의 발굴·보존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학문적·예술적 풍토 조성, 그리고 한국 문화예술 사상의 중흥을 통해 세계 인류에 공헌하고자 하는 취지로 건립하였다.
- 행사 안내
 - 학술·문화 행사의 기획
 - 연구 및 창작 활동 지원
 - 국제 학술·문화교류 활동
 - 문화 운동 및 교육 활동
 - 문화계 네트워크 형성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문화 예술 활동

- 문학 강연 ‘우리 시대 작가와의 대화’(월 1회)
- 시설 현황
 - 대지 규모 : 1,547평, 건축 면적 : 311.80평, 규모 : 지상 4층(본관, 숙소 및 집필실)
 - 대회의실 : 수용 인원 50~100명
 - 세미나실 : 수용 인원 10~15명(3실)
 - 숙소시설 : 창작집필실
 - 부대시설 : 야외무대, 식당, 휴게실, 전망대, 도서관
 - 토지문학공원(www.tojiliterarypark.com)(033-741-2908) : 박경리 선생의 생가
- 특이점 : 백담사 만해마을과 마찬가지로 문인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집필실을 제공하고 있다.

⑤ 난고김삿갓문학관

- 주소 : 강원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김삿갓 유적지
- 전화 : 033-375-7900,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033-370-2544, 2227
- 개관 연도 : 2003년 10월
- 홈페이지 : -
- 개요 : 김삿갓 유적지 내에 위치한 난고 김삿갓 문학관은 그의 문학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백일장에서 조부를 욕되게 하는 시를 썼다는 자책감으로 평생 방랑을 하며 시를 썼던 김삿갓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문학적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시비와 문학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김삿갓의 묘와 생가가 있다. 김삿갓 유적지는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에 위치하고 있다.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준령의 북단과 남단에 자리잡은 이곳은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는 3도 접경지역으로 산맥의 형상이 노루가 엮드려 있는 듯한 모습이라 하여 노루목이라 불려오고 있다. 난고 김삿갓은 원래 전라도 동북(지금의 전라도 화순군)에서 작고했지만 아버지를 찾아 전국을 떠돌던 둘째 아들 익균이 주거지인 바로 이곳 골짜기에 묻었으며, 그의 묘소는 1982년 영월의 향토사학자 박영국의 노력으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 행사 안내

1998년부터 매년 10월 초에는 '난고 김삿갓 문화 큰잔치'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시책사업인 '강원의 열 선양사업'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되어 유적지 내 조경 및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쾌적한 관광지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2003년 10월 난고 김삿갓 문학관의 개관으로 시인의 문학 세계를 한 곳에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시설 현황 : 문학관 기획전시실, 영상실, 난고문학실, 자료실(210평)

□ 특이점 : 조선조 때의 문인을 기념하여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특이하다. 주변의 자연경관이 좋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격적 관광지화가 가능하다.

[충청도]

① 농민문학관

□ 주소 : (370-872)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622-3

□ 전화 : 043-743-5186

□ 홈페이지 : -

□ 이메일 : leedh@dankook.ac.kr

□ 관람 시간 : 월~목요일 09:00~18:00 / 휴관일 : 연중 무휴

□ 개관 연도 : 2005년 2월 10일

□ 개요 : 농민문학관은 이 땅의 농촌 현실과 농민의 애환을 형상화한 농민문학의 비전 제시와 자료 수집, 정리, 보관, 전시, 그리고 농민문학 작가들의 만남과 나눔의 공간이다. 흙의 문학상·농촌문화상·이무영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이동희의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상리 생가를 복원한 흙벽과 너와지붕의 소박한 건물이다. 1층에는 창작실과 전시실 사랑이 텃밭을 면하여 있고, 2층 귀경재에는 자료실·장서실·세미나실이 있다. 자료와 공간은 이무영·유승규·오유권·박경수를 비롯한 농민소설가와 김용호·구상·권웅·엄한정 등 향토적 시인의 생애와 작품 자료를 비롯한 농민문학 작가 작품 자료, 충북 영동 지역 작가 작품 자료, 작자 이동희의 문학과 삶을 일람할 수 있는 자료, 저

서·원고·교정쇄·창작 노트·취재답사 노트·제재 자료·장서·사진·테이프·서간·기타 전기자료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 외에 강의 노트·교재·지도논문·작품, 그리고 남북한의 문학지와 동인지, 북한 작가 작품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민문학관은 미래·자연·생명·환경 주제의 저서 정기간행물 사화집 발간, 워크숍 세미나 개최, 작품 낭송 및 전시회 개최, 신인 발굴 등을 하고 있다.

- 전시 안내

- 상설전시 : 농민문학 작가 작품 자료, 영동문학 작가 작품 자료, 북한 작가 작품 자료
- 기획 전시 : 이무영·유승규·이동희 등 농민소설, 밀랍인형 연출 전시, 그림, 시와 사진, 소설 및 수필 전시회(봄, 가을 2회 전시)

- 행사 안내

- 작품 낭송회 : 소설과 시, 수필 기획 낭송(봄, 가을 2회 개최)
- 농민문학 워크숍 : 자연, 생명, 환경 주제 워크숍(여름, 겨울 2회 개최)
- 창작교실 운영 : 소설, 시(연 4분기 실기 강좌 개설)
- 농민작가전 : 소설가 이무영·유승규·오유권·박경수, 시인 김용호·구상·원영동·엄한정·박희선의 저작물 전시
- 북의 작가전 : 북한작가 및 연변작가 저작물 전시
- 이동희의 발표물전 : 이동희 저서 발표지 원고, 교정쇄, 필름, 지형 등 전시
- 시·사진전
- 기타 행사 및 사업 : 농민문학 세미나(8월 중 개최), 농민문학 사화집 및 저서 출판, 계간 《농민문학》 발간, 문학신인 발굴, 기타 문학관 예술의 만남과 나눔의 시간 등

□ 시설 현황

- 대지 면적 : 925㎡(629㎡+304㎡)
- 연건평 : 139.6㎡(99.6㎡+20㎡+15㎡+5㎡)
- 1층 전시실 : 22㎡(10㎡+7㎡+5㎡), 창작실 8.5㎡, 사랑 8.5㎡, 부속공간 10㎡
- 2층 자료실 : 10㎡, 장서실 31.6㎡, 세미나실(노천) 15㎡
- 야외 전시장 및 무대 공간 500㎡

□ 특이점 : 어느 한 작가에 국한시키지 않고 농민문학 작품을 쓴 작가들을 두루 널리 알리고 농민문학의 의의를 고양시키고자 한다.

② 원서문학관

- 주소 : (390-883)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198
- 전화 : 043-653-0978
- 이메일 : sianws@hanmail.net
- 관람 시간 : 매주 목·금·토·일 / 휴관일 매주 월·화
- 개관 연도 : 2003년 9월 1일
- 개요 : 천등산과 박달재 사이, 맑은 백운천 옆에 자리잡은 원서문학관은 시인이자 소설가인 오택번 교수가 자신의 모교인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백운초등학교의 폐교된 애련분교를 매입해 문학의 터를 잡았다. 2004년 3월 문예창작교실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문을 열어, 서울과 지방 문인들의 교류의 장과 시인, 작가를 꿈꾸는 이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인과 작가의 사진과 육필원고를 수집·보관·전시하여 독자들에게 문학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매해 여름, 백운초등학교 어린이 20~30명을 대상으로 1주일 간 무료로 어린이 시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화 정원과 시비정원을 조성하여 현대인들의 휴식과 영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내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 전시 안내
 - 정지용의 『지용시선』, 『백록담』, 김기림의 『시론』, 이기영의 서화 등과 195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 등
 - 구상·조병화·김춘수 등 시인 50명의 얼굴 사진과 육필원고 100여 점
 - 삼국시대 토기 20점과 민속자료(다식판, 촛대 등) 50여 점 등 총 4,500점
- 행사 안내
 - 매년 여름방학 때 어린이 시인학교와 문예창작교실 개최
 - 시 낭송회, 시인과의 대화 등의 문학 행사 개최
- 특이점 :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시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③ 한국문인인장박물관

- 주소 : (340-853) 충남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256-2
- 전화 : 041-322-0592
- 홈페이지 : www.writerstamp.pe.kr
- 이메일 : jaein45@hanmail.net
- 관람 시간 : 매주 금·토요일 9:00~18:00
- 개관 연도 : 2000년
- 개요 : 충남 예산의 예당저수지 인근인 광시면 운산리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인장(印章) 테마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문인들이 자신이 낸 책 뒤에 낙관처럼 사용하던 인장을 모아 전시한 이색 전시공간이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인장은 600여 점으로, 청록파 시인인 박목월·박두진·조지훈 등의 인장을 비롯하여 김동리·서정주·오영수 등 국내의 대표적인 문인들의 인장이 망라되어 있다. 흔히 막도장이라 불리는 것에서부터 원형인장과 사각인장, 주먹만한 초대형 인장, 조형미와 회화성을 갖춘 인장 등 천차만별로 모두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기품과 멋이 담긴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 전시 안내
 - 한국 문인들의 인장 및 육필, 조선시대 어인(御印), 국새 등을 합쳐 1,000여 점
- 행사 안내
 - 숲 속의 시인학교 여름캠프, 문학강연, 문학교실, 인장만들기 체험 행사, 마을축제 매년 1회씩
- 시설 현황
 - 주변 1,700여 평에 야생 및 귀화 식물 식재
 - 문학사에 드러난 유명 문인 시비 및 문학비 10여 기
 - 소규모의 세미나실, 공연장, 도서실
- 특이점 : 문인의 인장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야생 및 귀화식물을 재배하여 식물원의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④ 정지용문학관

- 주소 : (373-803)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39번지
- 전화 : 043-730-3588
- 홈페이지 : www.oc.go.kr
- 이메일 : jdy84735@hanmail.net
- 관람 시간 :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1월 1일
- 개관 연도 : 2005년
- 개요 : 옥천군에 의해 1996년에 생가가 복원되고 2005년에 그 곁에 정지용문학관이 건립되었다. 정지용문학관은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문학전시실에서는 '지용 연보'나 '지용 문학지도' 등을 통해 시인의 삶의 자취와 함께 한국 현대시의 흐름 속에서 정지용 시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손으로 느끼는 시, 영상시화, 시낭송실 등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정지용의 시 세계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밖에 영상실, 문학교실 등도 정지용문학관의 중요한 공간들이다.
- 행사 안내
 - 지용제 :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고 지용의 시 문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최하는 문학축제로 1988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5월에 개최
 - 문학 체험 : 손으로 느끼는 영상시, 영상시화, 향수 영상, 시어 검색
- 시설 현황
 - 문학전시실 : 문학전시, 문학체험
 - 영상실 : 정지용 시인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상영
 - 문학교실 : 문학강좌, 시 토론, 세미나, 문학동아리 활동 공간
- 전시 자료
 - 정지용 시인 친필 및 정종여 선생 시화 1점
 - 정지용 시인 작품 5종 각 1점
 - 정지용 관련 작품 및 도서 구입 예정(하반기)
 - 전시그래픽 디자인 전시 : 정지용 밀랍인형, 지용연보, 지용의 삶과

문학, 정지용 문학지도(한국현대시의 흐름), 문학과 예술의 고장 옥천, 한국전쟁과 비극적 행각

- 특이점 : 생가 가까운 곳에 죽향초등학교(구 옥천공립보통학교) 교사건물이 남아 있고, 실개천도 복원되어 있다. 초등학교에는 정지용의 동상도 있다.

[전라도]

① 미당시문학관

- 주소 : (585-944)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231
- 전화 : 063-560-2760, 564-1321 재단법인 미당시문학관
- 홈페이지 : www.gochang.jeonbuk.kr
- 관람 시간 : 9:00~18:00 / 휴관일 : 연중무휴
- 개관 연도 : 2001년
- 개요 : 미당시문학관은 고창이 낳은 한국 시단의 거목 미당(未堂) 서정주(1915~2000)의 작품과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문학관이다. 선운리에 위치한 폐교인 선운초등학교 봉암분교를 개조하여 부지 9,461㎡에 4동의 건축물을 만들고, 2001년 11월에 개관하였다. 영상실·세미나실·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시실에는 미당의 육필원고를 비롯해 각종 사진 자료와 운보 김기창 화백의 미당 초상화, 선생이 쓰던 사소한 물품 등을 비롯하여 만년에 쓰던 유품과 각종 서적 등 1만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 미당시문학관은 재단법인 미당시문학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 행사 안내
 - 미당대상제 행사(시상 매년 5월 18일, 미당 탄생일)
 - 학생 백일장(관내 초중고 대상)
 - 문학 강연회, 문학 심포지엄, 시화 전시회, 문학 수련회, 시 낭송회
- 전시 안내
 - 미당 서정주의 유품과 소장서적 1만여 점
 - 운보 김기창의 미당 초상화를 비롯한 그림
 - 화사집 원본을 비롯하여 시집 초판부 원본, 육필원고, 유품 등

- 시설 현황
 - 전시동 건물은 재물치장 콘크리트 공법의 건축물로 작품 및 유품관, 작품전시관 및 전망대, 세미나실, 관리실 및 식당 등을 갖추었다.
 - 전시실 174m², 세미나실 174m², 전망대 및 서재 재현실 261m², 다용도실 191m²
- 특이점 : 유족이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당 서정주에 관련된 모든 유품이 다 전시되어 있다.

② 박화성문학기념관

- 주소 : (530-060)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목포문화원 내
- 전화 : 061-245-2953
- 홈페이지 : mokpoculture.or.kr/intro_6.htm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9:00~18:00 / 휴관일 : 월요일
- 개관 연도 : 1991년
- 개요 : 소설가 소영(素影) 박화성(1904~1988)을 기리고자 목포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노적봉 아래 박화성문학기념관을 세웠다. 국가 사적 제289호이기도 한 목포문화원 안에 아담하게 자리한 기념관에는 고인의 육필원고, 저서, 희귀 초간본과 생활 유품 등을 전시해 문학의 산실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국문단 최초의 여류작가인 박화성의 문학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시설 현황 : 전시 면적 70평, 문학유품실, 추모실, 생활 유품실
- 전시 자료 (기증일 : 1991년 12월, 기증자 : 박화성의 가족) : 서적 1,385점, 가구류 26점, 서화류 14점, 풍물류 67점, 친필 23점, 문우 친필 : 36점, 시화 35점, 기타 244점 등
- 특이점 : 문화원 내에 자리잡고 있어 관리하기가 편하다. 문화원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③ 아리랑문학관

- 주소 : (576-822)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3
- 전화 : 063-547-9472, 540-3225

- 홈페이지 : www.rice.egimje.net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9:00~18:00 / 휴관일 : 월요일
- 개관 연도 : 2003년
- 개요 : 김제는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문학적 배경이 되는 곳이다. 이 소설에 담긴 문헌정신과 역사의식을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김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문학관을 건립하였다. 2000년 9월 김제 부량면 벽골제에 아리랑 문학비가 제막된 데 이어, 아리랑문학관은 2003년 부량면 용성리에 2층 규모로 세워졌다. 문학관에는 김제의 전경과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소설 진행의 시간대에 맞추어 시각적으로 정리한 영상 자료들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특히 1전시실 중앙에는 작가의 육필 원고 2만 매가 직립 전시되어 있어 『아리랑』의 시작과 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전시 안내
 - 문학관 1층 : 김제의 전경과 영상 자료가 입체적으로 배치, 소설의 시작과 끝의 육필원고 2만 매 전시
 - 문학관 2층 : 취재 수첩, 작품 구성 노트, 각종 취재도구, 필기구, 취재 사진 등 350여 점
- 행사 안내 : 테마 코스를 통한 문학 탐방, 동호회 운영
- 시설 현황
 - 대지 면적 : 11,689㎡
 - 1층 : 전시실, 숙직실, 기계실, 창고
 - 2층 : 홀, 전시실, 영상실, 화장실
- 특이점 : 어느 작가의 한 작품을 기념하여 세운 문학관이다. 아리랑문학관은 소설 『아리랑』이 이 문학관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④ 조태일시문학기념관

- 주소 : (516-832)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799 산18-24
- 전화 : 061-362-5868
- 홈페이지 : www.gokseong.go.kr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3~10월 9:00~18:00, 11~2월 9:00~17:00 1 / 휴관일 : 월요일

- 개관 연도 : 2003년
- 개요 : 시인 조태일(1941~1999)은 곡성 태안사에서 태어났으며,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아침 선박」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1969년 시전문지 《시인》을 창간하였고, 『식칼론』을 비롯하여 8권의 시집을 간행하였다. 시문학기념관과 시집전시관은 조태일의 문학 세계를 기리고 예비 문학도들의 창작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에 건립되었다.
- 전시 내용
 - 조태일시문학기념관 : 시인 유품, 시인을 기리는 문학작품 2천여 점
 - 시집전시관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집인 최남선의 『백팔번뇌』, 최초의 번역 시집 『오뇌의 무도』 등 희귀본에서 최근 작품까지 3천여 점의 시집
- 시설 현황
 - 규 모 : 부지면적 5,859㎡(1,772평)
 - 건축면적 : 419.49㎡, 연면적 : 558.83㎡
 - 조태일시문학기념관 : 245.76㎡(지상 1층, 지하 1층)
 - 시집전시관 : 313.07㎡ 지상 1층, 지하 1층)
 - 부대시설 : 세미나실(1실), 창작실(4실), 전통찻집(운영 준비)
- 특이점 : 시인이 작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⑤ 채만식문학관

- 주소 : (573-340) 전북 군산시 내흥동 285
- 전화 : 063-450-4467
- 홈페이지 : chaemansik.gunsan.go.kr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하절기 9:00~18:00, 동절기 9:00~17:00 / 휴관일 : 월요일, 양력설
- 개관 연도 : 2001년
- 개요 : 백릉(白菱) 채만식(1902~1950)의 작가 정신을 기리고 지역 문학인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군산시에서 건립하였다. 채만식의 인물 사진과 작품 속의 이미지, 군산시 모습을 담고 있는 전시실은 선생의 치열한 삶의 여정을 시대에 맞춰 파노라마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콩나물 고개를 상징하는 둔뱀이 오솔길, 호남평야에서 건너들인 쌀을 실어오는 기찻길 등 시대를 형상하며 선생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미두·백룡·청류·문학 광장으로 조경하여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문학관에서 각종 세미나와 문학강연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 행사 안내

- 백룡 채만식 세미나(연2회)
- 지역 문학 단체 강연회(3회)

□ 전시 안내

· 1층

로비 : 채만식의 인물사진, 작품 속의 이미지와 군산 모습 사진 등

전시실 : 중편소설 「배비장」의 유품원고, 사진자료, 편지, 졸업증명서 등. 6m의 원형 공간에 채만식의 치열한 삶의 여정을 시대에 맞춰 파노라마식으로 소개하고, 작가의 목소리를 재현하여 사실감 있게 전시관을 설치

자료실 : 채만식에 관한 각종 자료와 논문, 작가의 발간 도서, 군산시 향토작가 도서 등

· 2층

로비 : 채만식의 인물사진 및 임종시 익산 초옥 사진, 월영공원에 있는 채만식의 문학비 사진 등

영상세미나실 : 좌석 50석으로 오페라 「탁류」와 채만식 일대기(한국문학기행)를 관람, 각종 문학강좌 및 세미나 개최

- 문학관 주변 : 콩나물고개를 상징하는 둔뱀이 오솔길, 호남평야에서 건너들인 쌀을 실어오는 기찻길 등 시대를 형상하며 작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미두·백룡·청류·문학 광장으로 조경하여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 특이점 : 채만식뿐 아니라 근대화의 과정에서 역사·지리·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군산이라는 도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학관이다.

⑥ 최명희문학관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풍남동3가 67-5번지

- 전화 : 063-284-0570
- 홈페이지 : www.honbul.net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10:00~18:00(관람료 무료) / 휴관일 : 월요일, 신정, 설, 추석 날
- 개관 연도 : 2006년 4월 25일
- 개요 : 대하소설 『혼불』의 작가 홍명희의 작가 정신을 기리는 문학관
- 행사 안내 : 혼불 읽기 세미나(연 2회), 혼불문학기행, 초청 강연(‘내가 아는 작가 회명희’ 연 4회), 소설 교실(3개월 과정) (이상 2006년도 사업 추진 예정)
- 전시 안내 : 유품(자필 원고 30점, 책상 1점, 소설 16권, 기타 도서 30점)
- 시설 현황 : 대지 1,544㎡(509평), 연면적 : 481㎡(160평), 지하 1층, 지상 1층
 - 지하 1층 : 강당, 수장고, 다용도실, 화장실, 보일러실
 - 지상 1층 : 전시실,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⑦ 한국가사문학관

- 주소 : (517-872)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319
- 전화 : 061-383-3253
- 홈페이지 : www.damyang.go.kr
- 이메일 : gasa240@hanmail.net
- 관람 시간 : 3월~10월 10:00~18:30, 11월~2월 10:00~17:30 / 휴관일 : 연중무휴
- 개관 연도 : 2000년
- 개요 : 가사문학관은 가사문학(歌辭文學)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보전과 현대적 계승·발전을 위해 개관하였다. 조선시대 한문이 주류를 이루던 때에 국문으로 시를 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사문학이 크게 발전하여 꽃을 피웠다. 이서의 「낙지가»,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정식의 「축산별곡», 남극엽의 「향음주례가», 「충효가», 유도관의 「경술가», 「사미인곡», 남석하의 「백발가», 「초당춘수곡», 「사친곡», 「원유

가」, 정해정의 「석촌별곡」, 「민농가」 및 작자 미상의 「효자가」 등 18편의 가사가 전승되고 있어 담양을 가사문학의 산실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가사문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보전과 현대적 계승·발전을 위해 1995년부터 가사문학관 건립을 추진, 2000년 10월에 완공하였다. 본관과 부속 건물인 자미정·세심정·산방·토산품점·전통찻집 등이 있으며, 전시품으로는 가사문학 자료를 비롯하여 송순의 『면앙집』과 정철의 『송강집』 및 친필 유묵 등 귀중한 유물이 있다.

- 행사 안내
 - 가사 낭송 대회
 - 가사 백일장 등
- 전시 현황
 - 가사문학 관련 서화 및 유물 200여 점
 - 담양권 가사 18편과 관계 문헌
 - 가사 관련 도서 4,500여권
 - 『송강집』 및 『기암집』 목판 535점
- 시설 현황
 - 본관 : 613평(지하 1층 203평, 지상 2층 410평)
 - 지하 1층(203평) : 전시실, 수장고
 - 지상 1층(280평) : 세미나실, 전시실, 장서실, 자료실, 문화사랑방, 제3전시실 등
 - 지상 2층(130평) : 제1, 2 전시실
 - 부대시설 : 109평(기획 전시실, 토산품 전시장 외)
- 특이점 : 중요한 고전 장르였던 가사의 의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문학관이다.

⑧ 혼불문학관

- 주소 : (590-850)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노봉리 522번지
- 전화 : 063-620-6788
- 홈페이지 : www.honbul.go.kr
- 이메일 : honbool@honbool.or.kr
- 관람 시간 :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개관 연도 : 2004년
- 개요 : 혼불문학관은 작가 최명희가 17년 동안 혼신을 바쳐 이룬 소설 『혼불』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남원시는 각계 각층의 학술적 조명과 평가에 힘입어 작가의 고향이며 소설의 중심지인 이곳에 혼불문학관을 건립하였다. 전시실의 성격은 작고한 작가 최명희 선생이 아끼며 사용했던 만년필, 커피 잔, 혼불 원고 등을 비롯한 소장품류를 복제하여 전시하고 매안 이씨 가문 종부 3대의 삶을 통해 나타난 당시의 사회적 기풍과 평민, 천민들의 민족혼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디오라마로 전시하는 디오라마 전시실이다. 이를 통해 순결한 모국어와 세시 풍속, 관혼상제 등 전통 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했으며 주요 장면을 작가가 작품 속에서 섬세하게 표현했던 것처럼 혼불 문학 주제를 각각의 디오라마로 전시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갈수록 소멸되어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정신인 혼불문학을 느껴보고, 근원에 대한 그리움과 이해를 구하는 데 본 전시의 목적이 있다.
- 전시 안내
 - 디오라마(10점) : 혼례식 장면, 강모 강실 소꿉놀이, 효원의 흡월, 청암부인 장례식 장면 등
 - 매직 비전 : 캐릭터에 의한 소설 ‘혼불’ 소개
 - 작가 최명희의 집필실 재현
 - 체험 시설 : 인월댁 베짜기
- 시설 현황
 - 부지 : 17,650㎡(5,340평 문학관 터 16,653㎡ / 주차장999㎡)
 - 혼불문학관(321.84㎡), 관리 및 교육 지원관(154.8㎡)
 - 관리 및 교육지원관 : 교육관, 관리실, 로비, 정자, 회랑
 - 혼불문학관 : 문학관, 창고, 기계실

[경상도]

① 경남문학관

- 주소 : (645-260) 경남 진해시 태백동 산98-1
- 전화 : 055-547-8277, 8279

- 홈페이지 : www.gnmunhak.com
- 이메일 : kumunhak@hanmail.net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 하절기 10:00~17:00, 동절기 10:00~16:00, 토요일 10:00~12:00 / 휴관일 : 법정 공휴일, 월요일
- 개관 연도 : 2001년
- 개요 : 경남 출신 문인들의 문학 활동 지원과 자료 수집·정리와 보관, 도내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위한 문예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곳이다. 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문학행사를 마련하여 문학인들에게는 문학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지게 하는 다양한 기획전시와 지역문학을 조명하는 문학 강연과 심포지엄, 지역 문인과 문학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문학관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전시실에는 희귀 도서뿐만 아니라 경남도 출신 문인의 저서와 사진자료, 육필원고와 지역 안에서 발간된 문예지·동인지를 전시하고 있다. 시민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향수와 교육 목적과 문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기획전시회 3회와 기획문학 행사 3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학행사를 갖고 있다. 그 동안 문인 육필 원고전, 시화 엽서전, 문인 애장품전 등의 전시와 함께 작고문인의 문학세계 심포지엄, 경남 시낭송 잔치, 문학의 밤, 문학기행, 환경백일장, 경남문예대학, 어머니 문학교실, 매월 화요일의 문학 이야기 등 각종 문학교육과 문학행사를 갖고 있으며, 개관 이후 계간 《경남문학관 소식지》를 발간하고 학교의 문학교육 자료로 『경남문학연구』를 발간, 문학교육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행사 안내
 - 경남환경백일장 개최(연 1회)
 - 경남 시낭송 잔치 개최(연 1회)
 - 경남 문인으로 최근 별세한 분을 대상으로 한 추모 문학의 밤 개최(연 1회)
 - 경남 작고문인의 문학세계 심포지엄 개최(연 1회)
 - 문학기행(연 2회)
 - 경남문예대학(문학지망생 연수 과정), 어머니 문학교실(일반주부 문학강좌) 강의(연중)
 - 화요일의 문학 이야기(매월 1회)

- 전시 안내
 - 상설 전시 : 경남 출신 문인의 저서, 사진, 프로필 자료 2,500여 점, 경남도 내 문학단체의 문학지와 자료 900여 점, 희귀 도서(시집·소설·수필집·문학지 등) 600여 점
 - 기획전시 : 문인의 소장도서 자료전, 경남문학의 오늘전 등 연 3회
 - 일반 열람용 도서 : 약 2만여 권
 - 문인의 사진, 육필원고, 편지, 문학행사 자료 등 2,000여 점 보관
 - 홈페이지 운영 : 경남문인 1천여 명 프로필 소개, 보관도서 목록, 경남문단 소식
 - 문인의 작품과 신간 소개란 등 운영 중
- 시설 현황
 - 대지면적 : 621평
 - 연건평 : 170.5평
 - 1층 전시실 : 100평, 2층 자료실 및 세미나실 : 70.5평
- 특이점 : 역사는 짧지만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다.

② 구상문학관

- 주소 : (718-805)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5-84
- 전화 : 054-979-6447
- 홈페이지 : www.chilgok.go.kr
- 관람 시간 : 화~금요일 9:00~18:00, 토요일 9:00~17:00, 일요일 10:00~18:00 / 휴관일 : 월요일, 둘째·넷째 토요일, 법정공휴일
- 개관 연도 : 2002년
- 개요 : 세계 200대 문인 반열에 오른 시인 구상의 선양과 한국 시문학에 끼친 업적을 보존하고 20년 간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한 관수재(觀水齋)를 복원하여 시인의 삶과 문학과 구도자적 정신 세계를 영원히 이어가고자 건립되었다. 구상문학관은 200여 평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문단 활동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와 문우와 주고받았던 편지, 서화 등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구상 시인이 기증한 2만 2천여 권의 소장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집필실이자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들렀던 관수재는 관람객들에게 시인의 문학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사 안내
 - 문학단체 주관의 문학 행사 개최
 - 각종 문화강좌 개설
 - 시 창작 교실 운영
- 주요 업무
 - 구상 시인에 관한 자료 수집, 보존, 전시, 열람
 - 문학의 조사, 연구, 문학강좌
 -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문학관 및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특이점 : 시인의 고향은 아니지만 연고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왜관과 시인과의 관계를 상기시킨다.

③ 청마문학관

- 주소 : (650-806) 경남 통영시 정량동 863-1
- 전화 : 055-650-5358
- 홈페이지 : www.gnty.net/literature
- 이메일 : pj8821@gnty.net
- 관람 시간 : 3~10월 9시~18시, 11~2월 9시~17시 / 휴관일 : 법정 공휴일의 다음날
- 개관 연도 : 2000년
- 개요 : 청마문학관은 청마(靑馬) 유치환(1908~1967)의 문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2월 1,220평의 부지에 문학관(전시관)과 생가(본채, 아래채)를 복원, 망일봉 기슭에 개관하였다. 51평 전시관에는 청마의 삶을 조명하는 '청마의 생애' 편과 생명 추구의 시작을 감상하고 작품의 변천과 평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마의 작품 세계' 편, 청마가 사용하던 유품들과 청마 관련 평론, 서적과 논문을 정리한 '청마의 발자취' 편, '시 감상 코너'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청마의 유품 100여 점과 각종 문헌 자료 3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원래 청마의 생가는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지만 생가 부지에

복원의 어려움이 있어 지금의 위치에 생가 및 문학관을 개관하였다.

- 행사 안내
 - 청마의 삶과 문학특강 개최
 - 청마문학상 시상
- 주요 시설 : 문학관 : 169.02㎡
 - 생가 : 57.6㎡ (본채- 약방, 안방, 부엌, 마루, 아래채 - 사랑방, 광, 측간)
 - 휴게관리실 53.46㎡
- 전시 안내 : 문학관 : 169.02㎡
 - 전시구성 : 청마의 생애, 작품세계, 청마의 발자취, 시 감상
 - 전시품 : 유품 100여 점, 각종 문헌자료 350여 점
- 특이점 : 코너별로 전시되어 있어 생애와 문학적 궤적을 따로 볼 수 있다.

④ 이육사문학관

- 주소 :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900번지(불미골)
- 전화 : 054-852-7337 054-851-6391(안동시 문화예술계)
- 홈페이지 : www.264.or.kr
- 관람 시간 : 9~18시(3~10월) 9시~17시(11월~2월) / 휴관 : 월요일, 설날, 추석
- 개관 연도 : 2004년
- 개요 : 2004년은 육사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해 고향 마을인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에 이육사문학관이 문을 열었다. 육사는 일생을 일제에 대항하는 일에 바쳤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옥 속에서 살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광복을 바라는 마음을 시로 나타내었다. 그가 쓴 시들에는 빼앗긴 조국에서 고통을 받았던 우리 민족의 설움과 독립 의지를 느끼게 한다. 도산서원을 지나 퇴계 종택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이육사문학관은 2층의 아담한 건물과 생가인 육우당(六友堂)을 복원해 놓았다. 이육사문학관 내부에 마련된 '육사의 문학세계'는 민족시인 이육사의 시 세계와 문학 정신을 알알이 살펴볼 수 있다. 육사 문학의 의의, 대표작 해설, 시·수필·평문 등이 시기별로 어느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는지는 속속들이 알 수 있다. 육사의 독

립운동 코너에서는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오롯한 정신을 느낄 수 있다. 다섯 개 사건으로 정리된 육사의 독립운동 발자취와 지도로 보는 독립운동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암흑 속에서 빛나던 지사정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뒤쪽으로 자리한 생가 육우당은 육사의 6형제가 살던 집을 의미한다. 육사는 수필에서 집을 회상하며 '은축대도 있고 훌륭한 헌액도 있기는 하나 너무도 고가라 빈대가 많기로 유명하다'고 표현했다. 문학관 뒤편으로 올라가면 낙동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육사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 시설 현황 : 부지 2,324평, 연건평 196평
 - 문학관 176평, 생가 모형 20평, 3개 마당 70평
 - 연못, 잔디 광장, 오솔길, 청포도 밭, 샘터 등
- 행사 안내
 - 육사 문학 강연회
 - 광복 50주년 기념 시인의 육필전, 작고시인 한용운 외 34점, 현역 시인 71점
 - 육사 백일장은 한국문인협회 안동지부와 안동문화방송에서 주관하고 있다.
- 특이점 : 문학관과 생가 모형이 같은 곳에 있어 방문객으로서는 편하게 구경하고 그의 문학관과 독립정신을 느낄 수 있다.

⑤ 동리·박목월문학관

- 주소 : 경주시 진현동 550-1
- 전화 : 054-772-3002, 054-741-1750
- 홈페이지 : www.dmgyeongju.com
- 관람 시간 : 09:00~18:00 / 휴관 : 월요일
- 개관 연도 : 2006년 3월 24일
- 개요 : 한국문학의 거봉으로 소설과 시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김동리와 박목월은 경주가 고향이다. 김동리는 샤머니즘과 토속성을 주조로 민족의 정체성을 탐구하여 우리의 전통적 소재를 인류의 보편적 차원으로 승화하였고, 박목월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민족의 얼과 혼을 향토적 서정을 표현하였으며, 시 공간을 초월하는 상징적인 자연을 노래

한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리·목월문학관은 두 문인의 문학과 예술 세계를 널리 알려 지역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 전시 안내
 - 생전 집필 서재 복원
 - 유품 100여 점 각각 전시
 - 소설을 영상화 한 애니메이션 상영, 고인의 육성으로 된 시 낭송
 - 유족 기증한 1만 5천여 권의 장서 수장
- 시설 현황 : 부지 2,429평, 연건평 467평
 - (상층) 동리전시실, 목월전시실
 - (하층) 영상실, 창작교실, 자료실, 기계실, 관리사무실
- 행사 안내
 - 추모음악회
 - 동리·목월 백일장
 - 모화굿제
 - 추모 시화전
- 특이점 : 김동리 소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곳이므로 소설 「무녀도」의 곳을 재현하여 우리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⑥ 마산 문학관

- 주소 : (631-050) 경상남도 마산시 상남동 58-8번지 마산문학관
- 전화 : 055-240-2415, 2417
- 관람 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휴관일 : 월요일
- 개관 연도 : 2005년
- 개요 : 근대 마산문학의 흐름을 조망하고, 소중한 문학 전통과 자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산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독특한 문학 향기를 음미하는 장으로서, 나아가 지역민들로 하여금 지역 사랑과 문학 실천을 나누는 문화 향유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마산문학관은 이은상·김춘수·김성배·서민우 등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한 문향(文鄉) 마산시의 근대문학 세계를 한 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2005년 개관하였다. 11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건평 462㎡ 규모로 건축되었고, 마산문학관을 감싸고 있는 노비산 근린공원 1만 1천㎡에는 1만 5천 그루의 나무와 어우러진 파고라, 잔디광장,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진입도로, 주차장 등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 시설 현황

- 연건평 : 462㎡
- 1층 : 근대 마산문학의 역사를 담은 전시실
- 2층 : 특별 기획 전시실을 겸한 세미나실, 영상실 등
- 입구 : 마산문학사 연표, 근대 마산문학 전반 소개, 근대 마산문학 흐름 소개

- 전시 자료 : 총 300여 점(마산 문학인들의 저서, 결핵문학 관련 자료, 민주문학 관련 자료, 각종 문예지와 동인지, 희귀 도서, 유품 또는 육필원고 등등

⑦ 김달진문학관

- 주소 : (645-470) 경상남도 진해시 용동1동 소사리

- 전화 : 055-547-2623

- 개관 연도 : 2005년 11월

<부록 2> 지역문학관 건립 및 운영 현황 조사표

(문화관광부 주관, 2005년 11월)

A. 이효석문학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이효석문학관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4리
- 개관일 : 2002년 9월 7일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평창군청
 - 운영 대표자 : 평창군수 권혁승 (033-330-2700)
- 법적 위상 : 지방자치단체
- 설립 재원
 - 국 고 : 20억 원
 - 지방비 : 25억 원
 - 민간 및 기타 : 4억 원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이효석
 - 인물 소개 : 한국현대문학사 주요 소설가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33-335-9669	033-335-9669	http://hyoseok.org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사업비 150,000천원, 인건비 70,000천원, 경상비 80,000천원
 - 재원 구분 : 국고 0천원, 지방비 130,000천원, 문예기금 20,000천원, 자부담 0천원, 기타(기타기금, 기부금 등)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지방행정주사보 장민숙	033-330-2700	지급
	2. 지방기능8급 김재하	“	지급
	3. 일용직	“	지급

3. 시설 현황

○ 시설 규모(예시)

- 대 지 : 25,829 m²(7827평)
- 연면적 : 893.56 m²(270평), 지하 1층, 지상 1층
- 시설 현황
 - 지하1층 : 창고 148m²
 - 지상1층 : 전시실 266.12m², 문학교실 103.90m², 학예연구실 35.28m², 중앙홀 168.83m², 관리실 29.16m², 휴게실 65.64m², 화장실 76.60m²
 - 주차장 : 대형 소형주차장 3,770m²
- 전시 현황 : 이효석 문학 전시실 172.80m², 메밀자료실 93.32m²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자필 원고 120점, 책 3권
- 도서 : 시 20권, 소설 300권, 수필 100권, 잡지 300권, 연구논문집 150권, 신문 자료 200여점, 영인본 자료 200권
- 기타물품
 - 축음기 1, 피아노 1, 책상 등 물품 20점
 - 빔프로젝트 1, 야외음향장비 1세트, 방문객용 컴퓨터 3

5. 운영 현황

- 개관일수 : 연간 312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 관람객수
 - 2004년도 : 53,432명
 - 2005. 10월말 : 63,127명
 - 최대 관람객 방문월 : 9월(메밀꽃 필 무렵 계기)

- 시설대관(2004년 또는 2005년도 기준)
 - 대관시설 : 세미나실(31.5평)
 - 대관용도 : 문예 행사 및 학술행사
 - 임대수입 : 없음

6. 사업 현황

- 주요사업 : 이효석 창작교실, 이효석 문학교실, 기획전시회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 제3회 이효석 창작교실
 - 기간 : 2005년 7월 1일 - 3일
 - 장소 : 이효석 문학관과 주변 문화유적지
 - 사업내용 : 문예창작 전공 대학생 대상 문예 창작 캠프
 - 참가 대상 및 인원 : 전국 문예 창작 전공 대학생 60명
 - 소요예산 : 강사비, 숙박비 등 1천만원
 - 기획전시 '문학과 삶의 공간' 전
 - 기간 : 2005년 8월 29일 - 9월 25일
 - 장소 : 이효석 문학관
 - 사업내용 : 현대문학 주요 작가의 사진 및 주요 유품 전시
 - 참가 대상 및 인원: 일반 관람, 3천여 명
 - 소요예산 : 7백만 원
 - '흙으로 빛는 소설 속 인물'
 - 기간 : 2005년 9월 2일 ~ 9월 11일
 - 장소 : 이효석 문학관 앞 흥정천변
 - 사업내용 : "메밀꽃 필 무렵"의 등장 인물을 찰흙으로 만들기
 - 참가대상 : 일반인 및 학생 자유 참가, 350명
 - 소요예산 : 500만 원
 - 제3회 이효석 문학교실
 - 기간 : 2005년 12월 예정
 - 장소 : 이효석문학관
 - 사업내용 : 희망자 대상 문학교육(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 문학기행)
 - 참가대상 : 지역 주민 및 학생, 300명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광지 : 효석문화마을, 무이예술관, 유시어터 연극인촌, 허브나라, 휘닉 스파크, 오대산국립공원
- 지역축제 : 효석문화제
-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 지방 자치 단체가 운영함으로 전문성 부족
 - 문학 연구 및 문화 사업 예산의 절대 부족
- 건의사항
 -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필요
 - 문화 사업 예산의 정부 지원 필요
 - 인력의 확보 및 인건비 지원 필요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주변 문화유적지와 관련한 관람객 확보 용이
 - 주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문학관 운영
 - 지역 문화 행사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살린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겨울철 관람객 극소수 :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일시적 폐관 검토
 - 전문 인력의 부족 : 다양한 위원회 제도 활용하여 확보

B. 한국가사문학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한국가사문학관
-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319
- 개 관 일 : 2000. 11. 11
- 소유주 및 대표
 - 시설 소유주 : 담양군수
 - 운영 대표자 : 관장 정태수(011-628-1075)
- 법적 위상 : 비영리 국가기관
- 설립 재원
 - 국 고 : 2,000백만원
 - 지방비 : 6,780백만원
- 성격
 - 상징인물 : 면앙 송순, 송강 정철
 - 인물소개 : 면앙 송순(조선중기 문인 가사문학 선구자), 송강 정철(조선중기 문인 가사문학 대가)
- 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비 고
(061)380-3240	(061)380-3239	gasa240 @hanmail.net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8,680백만 원(사업비4,390,인건비2,400,경상비1,890)
 - 재원구분 : 지방비
- 인원

총인원(명)	근 무 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여부
상 근	관장 정 태 수	011-628-1075	○
	직원 김 지 석	016-9850-3439	○
	김 광 애	016-680-9108	○

	박 명 선	011-9602-2725	○
	최 명	011-9222-9130	○
	이 정 옥	011-9605-1147	○
	이 희 석	010-9980-2920	○
	임시직 국 현 중	010-6606-4774	○
	임시직 이 은 정	010-3078-7780	○
	자원봉사 정종훈 (인턴사원) 김미선		○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

- 대 지 : 16,585㎡(5,017평)
- 연면적 : 2,386㎡(722평) 지하1층 지상2층(한옥형 건물)
- 시설현황
 - 지하1층 : 수장고, 기계 전기실, 창고, 기타
 - 지상1층 : 영상실, 제3전시실, 장서실, 사무실, 문화사랑방 자료실 등
 - 지상2층 : 제1,2전시실
 - 부대시설 : 안내실, 정자 2동, 갤러리, 전통찻집, 토산품판매점, 화장실 2동
- 전시현황 : 유목, 서예, 서각, 전적(책자), 두루마리 등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유품 : 유목, 서예, 서각, 전적(책자), 두루마리 등
- 유물 : 옥배, 은배

○ 도 서 : 가사 15,000점

○ 기타물품

- 빔프로젝트, 방문객용 컴퓨터, 시청각기기, 동시통역기 4개 국어(20개), 시청각영상물(7개 국어) 등

5. 운영 현황

- 개관일수 : 연중무휴
- 관람객수
 - 2004년도 : 137,000명
 - 2005.10월말 : 120,000명
 - 최대관람객 방문월 : 5월(5,000명)
- 시설대관(2005.10월말기준)
 - 대관시설 : 갤러리(32평)
 - 대관용도 : 사진 및 미술 전시
 - 임대수입현황 : 7,500천원

6. 사업 현황

- 주요사업 : 가사·시조 낭송대회, 가사·시조·시 창작 공모전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 가사·시조 낭송대회 가사·시조·시 창작 공모전
 - 일시/장소 : 2005. 9.22 ~ 23 영상실
 - 사업내용 : 가사·시조·시창작 공모전(응모자 : 386명 1,504편)
가사·시조 낭송대회 (참가자 : 46명)
 - 참가계층 및 인원 : 청소년, 어린이, 일반인(432명)
 - 소요예산 : 42백만 원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광지 : 소쇄원, 식영정, 면앙정, 송강정, 환벽당, 독수정, 취가정, 죽녹원, 금성산성,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등
- 지역축제 : 가사문학학술대회, 대나무축제, 창평음식축제 등
-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죽녹원,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관방제림으로 연결되는 펜더열차 운행관광
 - 한국가사문학관, 소쇄원, 식영정, 면앙정, 송강정 등으로 연결되는 관광

8. 현안 및 건의사항

- 현안사항 : 가사자료D/B 구축사업과 2D영상물 제작
- 건의사항 : 재정자립이 현저히 낮은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문학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일반 운영비를 국고지원 요망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조선 중기 꽃피웠던 가사문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 한국 유일의 문학관으로 자리 매김
- 문제점 및 대책 : 일반운영비 및 사업 예산들의 미흡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문학관 활성화 어려움 있음

C. 구상문학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구상문학관
- 주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5-84
- 개관일 : 2002.10.4
- 소유주 및 대표
 - 시설 소유주 : 칠곡군수
 - 운영 대표자 : 칠곡군수
- 법적 위상 : 공공기관
- 설립 재원
 - 국 고 : 1,000백만 원
 - 지방비 : 1,260백만 원
- 성격
 - 상징 인물 : 구상
 - 인물 소개 : 프랑스문인협회 선정 세계 200대 문인 중 한 분으로 우리 시단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으로 학계와 언론계에도 왕성한 활동을 했으며, 화가 이중섭, 중광스님, 운보 김기창 화백 등 이 시대를 풍미했던 지인들과 우정을 나누며 구도자적 문학세계를 구축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54-979-6447	054-973-0039	kusang.chilgok.go.kr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천원) : 사업비 40,820 인건비 11,106 경상비 48,092
 - 재원 구분 : 지방비 100,018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관장 ○○○		
	2. 사무국장		
	3. 직원	3명(011-821-1510)	0
	4. 임시직, 자원봉사 등	1명	0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
 - 대 지 : 1,611 m²(487.33평)
 - 연면적 : 699.87 m²(211.7평), 지상 2 층
 - 시설현황
 - 지상1층 : 관수재 22.03m², 전시실 234.9m², 사무실 29.1m², 로비 58.32m², 기타 77.69m²
 - 지상2층 : 도서관 102.06m², 열람실 77.76m², 사랑방 43.74m², 기타 54.27m²
 - 전시현황 : 작품집 - 시집구상 등 51권, 유품 - 314점, - 소장도서 - 27,571점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자필원고 3점, 의복 1 점
- 도서 : 27,571권
- 기타물품

5. 운영 현황

- 개관일수 : 305일(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공

휴일, 추석 및 설 연휴)

- 관람객수
 - 2004년도 : 4,945 명
 - 2005. 10월말 : 9,853 명
 - 최대 관람객 방문 월 : 5월(구상1주기 추모식 및 부대행사 계기)
- 시설대관
 - 대관시설 : 사랑방(43.74평)
 - 대관용도 : 관람객 및 지역주민의 문학토론장으로 이용
 - 임대수입현황 : 무료

6. 사업 현황(예시)

- 주요사업 : 소장품 상설전시, 구상시암송대회, 구상시인 서거1주기 추모식, 구상시 서예공모전, 구상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문학창작교실
-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구상시 암송대회
 - 일시/장소 : 4.30 / 구상문학관 관수재
 - 사업내용 : 서거1주기 추모식 부대행사로 '구상시 암송대회'를 개최함
 - 참가계층 및 인원 : 학생부(초·중·고) 및 일반부
 - 소요예산 : -
 - 구상시인 서거1주기 추모식
 - 일시/장소 : 5.12 / 구상문학관 관수재
 - 사업내용 : 구상시인 서거1주기를 맞이하여 추모행사를 가짐
 - 참가계층 및 인원 : 기관단체장, 각급 학교장, 문학동호인, 유족, 주민 등
 - 소요예산
 - 구상시 서예공모전
 - 일시/장소 : 9.5 ~ 9.23 / 구상문학관
 - 사업내용 : 구상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구상시 서예공모전'을 개최함
 - 참가계층 및 인원 : 관내 초·중·고등 학생
 - 소요예산 : -
 - 구상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 일시/장소 : 10.7 / 구상문학관 마당
- 사업내용 : 구상문학관 개관3주년을 기념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함
- 참가계층 및 인원 : 기관단체장, 문학동호인, 지역문인, 유족, 주민 등
- 소요예산 : 12,000천원
- 문학창작교실
 - 일시/장소 : 6.28 ~ 11.11 / 구상문학관
 - 사업내용 : 수필창작반, 시창작반, 시낭송반
 - 참가계층 및 인원 : 일반인
 - 소요예산 : 8,000천원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광지

- 문화재 : 가산산성, 기성동3층석탑, 노석동 마애불상군, 목헌종택, 사양서당, 선봉사대각국사비, 송림사5층전탑, 신동입석, 신유장군유적지, 왜관금무봉의 나무 고사리화석포함지, 해은고택, 화산서당, 낙산성당 등
- 문화유적 : 국조전, 한티순교성지, 신나무골 성지, 성베네딕트 왜관수도원
- 전통사찰 : 금곡사, 대둔사, 도덕사(암), 선봉사, 송림사, 영명사,
- 레저명소 : 파미힐스 C.C., 매원지 수상골프연습장, 가산산성 야영장, 호국정
- 전적기념물 : 다부동전적기념관, 다부동전승비, 백선엽장군 전적비, 백선엽장군호국구민비,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왜관지구 전적비, 왜관지구 전승비, 충훈탑, 순국경찰 위령비, 낙동강 구철교, 구국경찰충훈비, 구국용사충훈비

○ 지역축제 : 아카시아벌꿀축제

8. 현안 및 건의 사항 : 없음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문학창작교실을 운영하여 55명 수강생 중 34명 수료함으로써 구상문학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학창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D. 농민문화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농민문화관
- 주 소 : 충북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622-3
- 개관일 : 2005년 2월 10일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이동희 (019-296-1680)
 - 운영 대표자 : 박희선 (010-8801-2017)
- 법적 위상 : 임의 단체
- 설립 재원 : 개인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한국현대 농민문학 작가(이무영 유승규 오유권 박경수 외)
 - 인물 소개 : 대표적인 한국현대 농민문학 작가-이무영(1908-1960) / 소설가 / 대표작- 『농민』, 『흙의 노래』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고(e메일주소)
043-743-5186	02-567-9628	www.edonghee.com	leedh5186@yahoo.co.kr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사업비-3억원, 인건비 3천만원, 경상비 1천만원
 - 재원 구분 :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문예기금 천원, 자부담 7천만원, 기타(기타기금, 기부금등)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관장 박희선	043-743-2017	
	2. 사무국장	010-8292-5186	지급
	3. 직원	043-743-5186	지급
	4. 임시직, 자원봉사 등		지급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예시)
 - 대 지 : 925m²(280평)
 - 연면적 : 139.6m²(42.2 평), 지하 1층, 지상 2층
 - 시설현황
 - 지하1층 : 주차장 100m²(승용차 10대), 수장고 m²...
 - 지상1층 : 전시실 22m², 세미나실 8.5m², 강의실 8.5m² ...
 - 전시현황 :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자필원고 50점, 책상 5점, 의복 10점
- 도서 : 시 700권, 소설 1,500권, 수필 300권
- 기타물품 도서 100점 / 2,000권
 - 빔프로젝트(기종), 방문객용 컴퓨터, 시청각 기기 등

5. 운영 현황(예시)

- 개관일수 : 연간 300 일(매주 일요일, 1월 1일 휴관 등)
- 관람객수
 - 2004년도 :
 - 2005. 10월말 : 100
 - 최대 관람객 방문월 : 10월(계기)
- 시설대관(2004년 또는 2005년도 기준)
 - 대관시설 : 세미나실(10평), 전시실(10평)
 - 대관용도 : - - 임대수입현황 :

6. 사업 현황(예시)

- 주요사업 : (문학강연, 시낭송회, 유품전시 등)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예시)
 - 개관기념 전시회
 - 일시/장소 : 2005년 5월 16일-29일(2주간) / 농민문학관
 - 사업내용 :

- ① 농민작가전 - 소설가 이무영 유승규 오유권 박경수, 시인 김용호 구상 원영동 엄한정 박희선의 저작물 전시
- ② 북의 작가전 - 북한작가 및 연변 작가 저작물 전시
- ③ 이동희의 발표물전-이동희 저서 발표지 원고 교정쇄 필림 지형 등 전시
- ④ 시·사진전-참가 시인 김연식 김우열 김윤완 김인자 김정기 문효치 박숙희 박운식 박화배 박희선 엄한정 우명환 장윤우 장지성, 사진작가 조성목
- 참가계층 및 인원 : 중앙문단 작가 10, 영동지역 작가 30, 주민 40, 청소년 학생 30, 기관장 10
- 소요예산 : 2천만원
- 추계 작품 낭송회
- 일시/장소 : 2005년 10월 15 / 농민문화관
- 사업내용 : 시 시조 소설 수필 낭송
- 참여 작가 : 김인자 박명용 박천호 장윤우 정주일(시인) 이은방 최정란(시조작가) 유재용 이명건 이미경(소설가) 김병권 박경희 안성호(수필가)
- 소요예산 : 1천만원
- 참가 : 영동 지역 문인 문학지망생 문학 애호가 동호인 주민 기관장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 광 지 : 직지사, 물한계곡, 민주지산 휴양림
- 지역축제 : 영동 국악축제, 유승규 문학제(인근), 지용제(인근)
-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 인력에 대한 예산이 없으므로 곤란을 겪고 있음
- 건의사항 : 위의 인력문제와 관련하여, 자료 정리 행사 기획 등을 위한 인턴 직원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이 절실히 요청됨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① 해외 문학관 견학의 확대
 - ② 러시아 문학관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음
- 문제점 및 대책 : -

E. 한국문인인장박물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한국문인인장박물관(예산문학관)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운산리 256-2번지
- 개관일 : 2000년 7월 17일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이 재 인
 - 운영 대표자 : 이 재 인
- 법적 위상 : 비영리 법인
- 설립 재원
 - 국 고 : 0원
 - 지방비 : 0원
 - 민간 및 기타 : 설립자 개인의 출연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 인물 소개 : 춘원 이광수로부터 현재 활동 중인 문인들의 인장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41-332-0592	031-302-0591	www.writerstamps.pe.kr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사업비 20,000천원, 인건비 5,000천원, 경상비 5,000천원
- 재원 구분 : 국고 4,200천원, 지방비 0천원, 문예기금 9,000 천원,
자부담 10,000 천원, 기타(기부금 등) 5,8000천원,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관장: 이재인	011-9049-0591	없음
	2. 사무국장: 이 호	010-3108-1732	없음
	3. 직원: 없음	.	.
	4. 임시직:인턴사원	011-442-7549	수당지급(월60)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예시)

- 대 지 : _____ m²(700평)
- 연면적 : _____ m²(80평), 지하 0층, 지상 2 층
- 시설현황

- 지하1층 : 주차장 m²(승용차 20대), 수장고 m²...
- 지상1층 : 전시실1개, 세미나실1, 강의실 등 총 25평.
- 지상2층 : 숙직실1개, 자료보관실1, 등 총 18평.

- 전시현황 : 추사 김정희 낙관 포함 총 690 여점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문인자필원고 100점, 문인인장: 작고문인100점, 생존문인 590점

○ 도서 : 시 500권, 소설 500권, 수필 100권, 기타 도서 100점

○ 기타물품: 없음

5. 운영 현황(예시)

○ 개관일수 : 연간 150여일(매주 금, 토, 일 주 3일 개관 등)

○ 관람객수

- 2004년도 : 500명, 2005. 10월말 : 600명
- 최대 관람객 방문월 : 8월(방학과 휴가기간 계기)

○ 시설대관(2004년 또는 2005년도 기준)

- 대관시설 : 세미나실 및 전시실
- 대관용도 : 세미나 및 MT
- 임대수입현황 : 없음

6. 사업 현황(예시)

- 주요사업 : 문학강연, 유품전시 등
-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예산문학 강연회 3회
 - 일시/장소: 2005년 4.15일, 8월12-13일, 11월 11-12일
 - 사업내용:예산지역문인축제, 인장특별전시회, 한일인장교류전시회
 - 참가계층 및 인원 : 지역문인포함 문인, 가족동반 관광객, 지역학교 연계 청소년과 어린이 등
 - 소요예산: 20,000천원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 광 지 : 예산 수덕사, 대천 해수욕장, 추사 김정희 고택, 예당저수지
- 지역축제 : 추사문화제 10월 개최
-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현재 없음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국도변 출입구에 안내표지판 교체
- 건의사항 상주할 수 있는 직원고용을 위한 지원금 필요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지속적으로 문인들의 인장 수집 요, 기관지 및 소식지의 지속적 발간, 공공기관 및 인근 학교행사연계

F. 문학의집 · 서울

1. 시설 개요

- 명 칭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 주 소 : 서울 중구 예장동 2-20
- 개관일 : 2001년 10월 26일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 운영 대표자 : 김후란(본명 : 김형덕)
- 법적 위상 :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임의 단체 등)
- 설립 재원
 - 국고 : 없음, - 지방비 : 없음
 - 민간 및 기타 : 4억(기업후원 및 회원 회비 등으로 리모델링 비용 충당함)
- 성격 : 복합 문화 시설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2,778-1026~7	02,778-1028	www.imhs.co.kr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사업비___천원, 인건비___천원, 경상비___천원
 - 재원 구분 : 국고___천원, 지방비___천원, 문예기금___천원,
자부담___천원, 기타(기타기금, 기부금등)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총 6명)	1. 이사장 김후란	02,778-1026	지급
	2. 사무처장 전옥주	02,778-1026	지급
	3. 이광섭 외 2인	02,778-1026	지급
	4. 인턴사원	02,778-1026	지급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예시)

- 대 지 : 2,368.4m²(714.평)

- 연면적 : 986m²(298평),

- 시설현황

· 본관 :

지하 1층 - 자료실 및 정리실 253.7m²

1층 - 전시실 73.59m², 세미나실 39m², 전산·자료실 9.9m²,

2층 : 창작실 11.55m², 사랑방 35.64m², 소회의실 12.87m²

· 부설 건물 산림문화관 :

: 1층 강당 223.44m², 회의실 39.150m², 세미나실 39.100m²,

북카페(휴게실) 87.330 m²

· 주차장 : 894.2m²(자동차 25대 주차)

· 야외무대 : 500m²(무대 및 제반시설 완비)

· 씬지공원 : 500m²(무대, 휴식처)

- 전시현황 : 문인들의 자화상·친필전 등 년 4~5회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자필원고 100점, 자화상 100점, 장적 100점 문학행사 비디오 테이프 70점, 오디오 테이프 70점

○ 도서 : 도서 4,000점

○ 기타물품

- 고정식 빔프로젝트(2대), 이동식 빔프로젝트(2대), 무선MIC 4대, 유선MIC 8대, 방문자용 컴퓨터 2대, 녹화, 녹음 장비, 방송장치, 편조명 등 각종 조명. PDP 1대, 프로젝션 TV 1대, 그랜드피아노 1대, 업라이트 피아노 1대

5. 운영 현황(예시)

○ 개관일수 : 연간 300일(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관람객수

- 2004년도 :

- 2005. 10월말 :
- 최대 관람객 방문월 : 10월(계기)
- 시설대관(2004년 또는 2005년도 기준)
 - 대관시설 : 세미나실, 전시실
 - 대관용도 : 문학행사, 세미나 등
 - 임대수입현황 : 현재 무료임.

6. 사업 현황(예시)

- 주요사업 : 시와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월 1회), 우리시 우리노래 신작 가곡음악회(연 1회), 수요문학광장(월 1회), 문인 전시회(년 4~5회), 시 낭송 경연대회(연 1회), 청소년 문학 축제(연 1회), 자연사랑문학제(년 2회), 문학 세미나(연 2~3회), 국제 문학세미나(연 1회), 맹학교 방문 문학행사(연 1회), 가족백일장(연 1회) 등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 광 지 : 한옥마을, 애니메이션센터, 서울타워
- 지역축제 : 명동축제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 건의사항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①시도의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 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입 창출 및 방문객 증가 → 벤치마킹 대상기관으로 추천
- 문제점 및 대책 : -

G. 박화성문학기념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박화성문학기념관
- 주 소 :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5
- 개관일 : 1995. 3.
- 소유주 및 대표 (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목포시장 정 종 득
 - 운영 대표자 : 목포자연사박물관장 김평규 011-9603-3151
- 법적 위상 : 국가사적 제289호 (목포시 관리)
- 설립 재원
 - 국고 : - 지방비 : - 민간 및 기타 :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소영 박화성 (1903~1988)
 - 인물 소개 : 소영 박화성선생은 목포에서 출생하여 한국현대문학사의 본격적인 여성작가이자, 장편소설을 집필한 최초의 여성작가로 60여년간 장편 18편, 중편 3편, 단편 63편, 콩트 5편, 희곡 1편, 수필 2권 등 방대한 작품을 남긴 한국문학사에 빛나는 선각자이다.
- 연락처 <http://museum.mokpo.go.kr>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 규모 : 사업비 35,000천원, 인건비 104,000천원, 경상비 10,000천원
 - 재원 구분 : 국고 천원, 지방비134,000천원, 문예기금15,000천원, 자부담 천원, 기타
- 인원

총인원 (4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관장 (김평규)	011-9603-3151	유
	2. 학예연구사 (이우진)	011-642-5772	유
	3. 일용직 (박지연)	011-9665-3023	유
	4. 인턴사원 (곽권희)	016-617-6006	유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
 - 대 지 : 6,575,2m² (1,989평)
 - 연면적 : 543,75m² (165평), 지상 2층
 - 시설현황
 - 지상1층 : (현 목포문화원 사용) · 지상2층 : 전시실 (약 70평)
 - 전시현황 : 총 1,837점 中 1,600점 전시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서적류1,385점 -가구류26점 -서화류14점 -풍물류67점 -친필류23점
 - 문우친필류36점 -시화류35점 -기타251점
- 기타물품

5. 운영 현황(예시)

- 개관일수 : 연간 313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등)
- 관람객수
 - 2004년도 : 6,028명
 - 2005. 10월말 : 5,221명
 - 최대 관람객 방문 월 : 9월 (목포시 씨티투어 관광 계기)
- 시설대관
 - 대관시설 : 없음

6. 사업 현황(예시)

- 주요사업 : 제14회 소영박화성 전국백일장, 소영추모문학제 등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 제 14회 소영박화성 전국백일장
 - 일시/장소 : 2005. 6. 25 목포자연사박물관
 - 사업내용 : 전국백일장
 - 참가계층 및 인원 : 청소년, 어린이 등 370명 참가
 - 소요예산 : 3,000천원
-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소영박화성추모문학제
 - 일시/장소 2005. 9. 9 ~13 (5일간) 박화성문학기념관 등
 - 사업내용 : 사진전, 콘서트, 워크샵, 영화상영, 문학기행
 - 참가계층 및 인원 : 문인, 청소년 등 4,900여명 참가
 - 소요예산 : 20,000천원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 광 지 : (유달산, 목포자연사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
- 지역축제 : (함평 나비엑스포, 무안 연꽃축제, 목포 개나리축제 진도 영등제 등)
-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목포시 씨티투어 운영)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
- 건의사항 :
 - 문학관 인턴제도를 계속사업으로 지속했으면 함.
 - D/B구축사업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전시품 관리가 되었으면 함.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2005. 8. 박화성문학기념관 보수공사 실시로 관람객 편의제공
 - 소영박화성추모문학제 개최로 박화성문학기념관 위상 제고
- 문제점 및 대책

H. 세계여성문학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세계여성문학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 개관일 : 2000년 11월 30일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학교법인
 - 운영 대표자 : 이춘실
- 법적 위상 : 비영리 재단법인
- 설립 재원
 - 민간 : 학교법인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세계여성문인
 - 인물 소개 : 한국여성문인을 포함한 전 세계 여성문인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710-9120~1	704-6914	wowlic.sookmyung.ac.kr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사업비 6,200만원, 인건비 694만원, 경상비 1,6120만원
 - 재원 구분 : 자부담 8,506만원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관장 : 이춘실	02-710-9111	보직 수당
	2. 사무국장 : 무		
	3. 직원 : 백귀량, 김수연, 최은주	016-9710-9112, 017-321-6441, 016-9710-8133	급여 지급
	4. 근로학생(6명)		장학금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

- 대 지 : 760.334m² (230평)
- 연면적 : 1,008m² (305평), 지상1층, 복층

- 시설현황

- 지하2층 : 주차장 5,680.47m² (승용차 156대)
- 지하3층 : 주차장 5,398.25m² (승용차 268대)
- 지상1층 : 자료전시실 760.334m²,
- 복층 : 전시실 247.935m²
- 세미나실 · 그룹스터디룸 143.8m², 자유열람실 1,775.21m²

- 전시현황

- 2000년
세계대표여성문인전
동문문인전
고서전
- 2001년
노벨문학상 수상 여성문인전
- 2002년
기증전 갤러리 (김의정 기증전, 한무숙 기증전)
- 2003년
해외여성문인 기증전
한영희 기증 여성문인사진전
- 2004년
한영희 기증 문인사진전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한무숙, 김의정, 이석봉 문인의 유품, 자필원고 20점, 스크랩 20점, 전자제품 6대, 일상용품 34점, 가방 · 주머니 · 식탁보 14점, 의류 4점, 장식품류 7점, 강연 Tape 1점, 그림 · 삽화 2점, 각종 사진 약150장

- 도서 : 문학류 및 연구서 33,610권, 비도서 248점, 학술지 9종 62권, 고서 5종

- 기타물품
 - 빔프로젝트 2대, 방문객용 컴퓨터 58대
 - 사진촬영대 , 스캐너 4대, DVD 5대, 오디오 5대, TV 5대

5. 운영 현황

- 개관일수 : 연간 302일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관람객수
 - 2004년도 : 619,121명
 - 2005. 5월말 : 221,546명
 - 세계여성문학관이 2005년 6월부터 리모델링 중임

6. 사업 현황

- 주요사업 : 기획전, 기증전 등의 전시회 및 문인강연회 개최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
 - '한국시와 감성리더' 코너 신설
 문학적 감성과 리더십 개발을 위한 '시낭송'을 동영상으로 웹사이트에
 서 제공하고, 문인에 관한 약력 및 작품을 소개함
 - 세계여성문학관이 2005년 6월부터 리모델링 중으로 전시장 설계 및 기
 획에 힘씀
 - 2006년 숙명여대 창학 백주년에 맞추어 백년을 빛낸 여성문인의 자료
 수집 및 전시를 기획함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 광 지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한강시민공원
- 지역축제 : 남이장군사당제, 숙명여대 박물관과 문신미술관, 각종 기획,
 특별전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
 - 2006년 3월 말 예정으로 리모델링 중이며 전시실 및 자료실 공간의
 설계와 기획 작업 중
 - 2006년 5월 예정으로 전시회('백년의 숙명: 여성문인의 빛') 기획 중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세계여성문학관이 도서관 내에 있는 특성을 살려 여성문인에 관련한 문학도서와 연구 자료를 구비하고 자원과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자료 전시실과 전시장을 구별하여 별도의 전시장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06년 3월 말 예정으로 리모델링을 시도함.

I. 아리랑문학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아리랑문학관
- 주 소 :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3
- 개관일 : 2003. 5. 16
- 소유주 및 대표
 - 시설 소유주 : 김제시
 - 운영 대표자 : 임기천(김제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 학예업무담당 : 학예연구사 정윤숙(016-9782-4083)
- 법적 위상 : 김제시 사업소
- 설립 재원 : 지방비 : 1,470,000만원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상징 인물 : 조정래(현대 소설가)
 - 인물 소개 : 아리랑·태백산맥·한강을 통해 일제강점기, 분단, 독재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근현대사를 소설로 재구성하였다.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63-540-3225	063-540-3593	www.gimje.go.kr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사업비 85,063천원(인건비 72,000천원, 경상비 13,063천원)
- 재원 구분 : 지방비 85,063천원,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1.나상수(청원경찰)	011-658-3163	지급
	2.전경렬(청원경찰)	011-611-9987	지급
	3.유미경(임시직)	011-9454-7308	지급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예시)

- 대 지 : 11,689㎡(3,536평)
- 연면적 : 422.49㎡(128평)
- 시설현황

- 지상1층 : 192.62㎡(58평) - 전시실, 숙직실, 기계실, 창고
- 지상2층 : 189.85㎡(58평) - 전시실, 영상실
- 지상3층 : 40.02㎡(12평) - 창고
- 옥외 : 주차장 (승용차 50대)

- 전시현황 : 1전시실 - 소설 아리랑 영상자료, 작가의 인사말
2전시실 - 소설아리랑 집필 시 창작 직간접자료 등 전시
3전시실 - 작가 조정래에 초점

4. 소장품 현황 (총 324점)

○ 유물 및 유품

- 자필원고 3건(아리랑원고 20,000매 포함), 책상과 의자(셋트), 의복 5벌

○ 도서 : 소설 79권, 문학지 3권,

○ 기타 물품

- 빔프로젝트(기종), 시청각 기기(아리랑 전시 영상자료) 등

5. 운영 현황(예시)

- 개관일수 : 연간 약312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 관람객수
 - 2004년도 : 4만
 - 2005. 10월말 : 5만
 - 최대 관람객 방문월 : 10월(계기: 김제시 지평선축제, 문학기행)

6. 사업 현황

- 주요사업 : 소설 아리랑 문학기행
 - 일시/장소 : 수시 / 김제시 일원 소설 아리랑 관련지 방문
 - 사업내용 : (김제내촌외리, 하시모토농장, 망해사 지평선조망 등)
 - 참가계층 및 인원 : 독서회 중심(조정래선생 팬 및 학부모독서회)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 광 지 : 벽골제박물관단지
- 지역축제 : 김제시 지평선축제(매년 10월)
-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아리랑문학기행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 문학관프로그램 전개를 위한 인력(전문/보조) 충원
- 건의사항 :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아리랑 문학기행’ 운영으로 소설 아리랑과 농경문화전통의 김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점
- 문제점 및 대책

J. 원서문학관

1. 시설 개요

- 명 칭 : 원서문학관
- 주 소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198(옛 애련분교)
- 개관일 : 2003. 3
- 소유주 및 대표(성명 및 휴대전화)
 - 시설 소유주 : 오락번(011-473-1305)
 - 운영 대표자 : 오락번(011-473-1305)
- 법적 위상 :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임의 단체 등)
- 설립 재원
 - 국 고 : - 지방비 :
 - 민간 및 기타 : 5억 7천만원 / 폐교되어 개인에게 불하되었던 것을 현 소유주(오락번)가 2002년 인수, 리모델링.
- 성격(상징인물 및 소개) : -
-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 고
043-653-0978	043-653-0979	sianws@hanmail.net.	

2. 예산 및 인원 현황

- 2005년도 예산
 - 예산규모 : 사업비27,000천원, 인건비5,000천원, 경상비12,000천원
 - 재원구분 :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문예진흥기금 12,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기타 5,000천원(기타 기금, 기부금등)
- 인원

총인원 (명)	근무자	연락처(휴대전화)	급여 또는 수당 지급 여부
상근	1. 관장 : 오락번	011-473-1305	무
	2. 사무국장 : 김은자	011-9167-0978	무
	3. 직원: 윤관영, 신희교	011-721-5720/019-370-9474	수당 지급
	4. 임시직, 자원봉사 등		

3. 시설 현황

- 시설규모(예시)
 - 대 지 : 5610m²(1,700평)
 - 연면적 : 297m²(90평), 지하 1층, 지상 1층
 - 시설현황
 - 지하1층 : 주차장 660m²(승용차 20대),
 - 지상1층 : 전시실 66m², 세미나실 66m², 강의실 66m² ...
숙직실 33m², 편찬실 66m²
 - 전시현황 : 구상, 조병화, 김춘수, 김상옥, 김남조, 김종길, 홍윤숙, 고은 등 시인 50여 명의 프로필과 육필 원고

4. 소장품 현황

- 유물 및 유품
 - 자필원고 100점, 책상 30점.
- 도서 : 시 1,000권, 소설 500권, 기타 도서 1,000권
- 기타물품
 - 방문객용 컴퓨터 1대, 시청각 기기(프로젝션 티브) 1대 등

5. 운영 현황(예시)

- 개관일수 : 연간 300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등)
- 관람객수
 - 2004년도 : 1,000명, - 2005. 10월말 : 8,00명
 - 최대 관람객 방문월 : 10월(계기: 원서문학관 시의 축제 방문 200명)
- 시설대관(2004년 또는 2005년도 기준)
 - 대관시설 : 세미나실(20평), 전시실(20평), 숙직실(10평)
 - 대관용도 : 세미나, 워크숍, 요가.명상, 야생화 탐사
 - 임대수입현황 :

6. 사업 현황(예시)

- 주요사업 : 문학강연, 시낭송회, 유품전시, 시창작 워크숍, 어린이 백일장, 어린이 시인학교 등
-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예시)

- 원서문학관 시의 축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 일시/장소 : 2005.10.8-9.
 - 사업내용 : 시낭송, 문학특강, 시인의 프로필·육필원고전시, 한글날 기념 어린이 백일장
 - 참가계층 및 인원 : 지역주민, 문학예술인, 어린이 등
 - 소요예산 : 19,500,000원

7. 주변지역 관광자원 현황

- 관광지 : 박하사탕 촬영지, 충주 중앙탑, 고구려비, 제천 박달재, 의림지, 단양팔경
- 지역축제 : 매년 10월 제천 의병제, 충주 우륵문화제
- 관광자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현황 : 박하사탕 촬영지와 충주의 유적 및 제천의 의병 전적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계획중.

8. 현안 및 건의 사항

- 현안사항 :
 - ① 영화 <박하사탕> 촬영지와 인접한 지리적 조건(1.6km)에 힘입어 영화촬영지 현장 체험을 통한 <시와 영화> 예술제를 기획하고 있음.
 - ② 시비 정원, 야생화 정원을 조성하고자 함.
- 건의사항 :
 - ① <시와 영화> 예술제 프로그램에 영화계의 지대한 협조를 기대함.
 - ② 시청각적으로 고안된 시비 정원 조성에 드는 비용 조달 어려움.

9. 평가 또는 기타 의견

- 잘된 점
 - ① 2005.10에 개최한 한글날 기념 어린이 백일장에서 충북 도지사(으뜸상), 충주시장(버금상), 제천시장(버금상)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음.
 - ② 시의 축제 및 시창작 워크숍, 어린이 백일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입 창출 및 방문객 증가
- 문제점 및 대책

살아 숨쉬는 문학공간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요망됨.

<부록 3> 일본 세타가야문학관 조례

세타가야 구립 세타가야문학관 조례

1994년 9월 21일

조례 제 32호

개정 1997년 3월 12일 조례 제 11호

2003년 3월 13일 조례 제 11호

2004년 3월 12일 조례 제 10호

2005년 9월 29일 조례 제 49호

(목적 및 설치)

제 1조 구민이 문학에 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함과 동시에 스스로 배우고 창조하고 교류함으로써 교육·문화의 진흥과 풍부한 지역사회의 형성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 동경도 세타가야구 미나미카라스야마 1가 10-10호에 세타가야구립 세타가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함.)을 설치한다.

제 1조의 2 문학관의 휴관일 및 개관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추가 [2005년 조례 49호]

(사업)

제 2조 문학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문학에 관한 자료 및 문학작품(이하 「문학 자료 등」이라 함.)을 수집하는 것
- (2) 문학자료 등을 보관·전시 및 이용에 제공하는 것
- (3) 문학자료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하는 것
- (4) 문학자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5) 문학에 관한 강좌, 강연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는 것
- (6) 구민 등이 행하는 문학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해 문학관 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

(7) 전 각호에 게재되어 있는 것 외, 문학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관람)

제 3조 문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학자료 등을 관람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제1에 정한 금액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관람)

제 4조 문학관에 보관되어 있거나 전시되어 있는 문학 자료 등에 관해서 학술연구 등을 위해 촬영(이하 「특별관람」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새롭게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학관의 관리를 하는 자(이하 「지정관리자」라고 함)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제2에 정한 금액의 특별관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개정 [2005년 조례 49호]

(시설의 이용)

제 5조 별표 제3 좌측 난에 게재된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새롭게 지정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별표 제3 좌측 난에 게재된 것으로 한다.

3. 제1항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일부개정 [2005년 조례 49호]

(이용 조건)

제 6조 지정관리자는 제4조에 규정하는 특별관리 및 전조에 규정하는 시설의 이용(이하 「이용」이라고 함)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일부개정 [2005년 조례 49호]

(이용의 불승인)

제 7조 지정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이용의 승인을

하지 않는다.

- (1)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때
- (2)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 (3) 문학관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을 때
- (4)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제 5조에 규정하는 이용의 경우에 한함.)
- (5) 전 각호에 게재되어 있는 것 외 지정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부개정 [2005년 조례 49호]

(승인의 취소 등)

제 8조 지정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의 승인을 취소, 이용조건을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1)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함)가 이용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했을 때
- (2) 이용자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근거한 규칙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3) 전 2호에 게재되어 있는 것 외, 지정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일부개정 [2005년 조례 49호]

(관람료 등의 감면)

제 9조 구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해당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해 관람료 및 특별관람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함)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구내의 초등학교의 아동 및 중학교의 학생, 이에 준하는 자 및 인솔자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 활동으로 관람할 때, 관람료의 전액
- (2) 구내의 고등학교의 학생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인솔자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 활동으로 관람을 할 때, 관람료의 반액
전부개정 [1997년 조례 11호]

(관람료 등의 환불 불가)

제 10조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구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이용권의 양도 등의 금지)

제 11조 이용자는 이용의 권리를 양도 또는 빌려줘서는 안 된다.

(원상회복의 의무)

제 12조 제 5조에 규정하는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이 종료되었을 때는 즉시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8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의 승인을 취소, 또는 이용을 정지시켰을 때도 같다.

(손해배상)

제 13조 문학자료 등, 문학관 시설 또는 설비에 손해를 입힌 자는 구의 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구의 장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배상액의 전부 및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입장의 금지 등)

제 14조 지정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금지 또는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 (1)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문학자료 등 문학관의 시설 및 설비를 손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전호에 게재되어 있는 것 외,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일부개정 [2005년 조례 49호]

(시설사용의 특례)

제 15조 구의 장은 구가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법인 세타가야문화재단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세타가야문화재단에게 문학관시설 가운데, 구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의 구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시설구역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추가 [2003년 조례 11호]

(지정관리자에 대한 관리)

제 16조 구의 장은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 67호) 제 244조의2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구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게 문학관의 관

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5년 조례 49호]

(지정관자의 지정절차)

제 17조 구의 장은 지정관리자를 지정하려고 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 공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2. 지정관리자의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구의 장에게 제출해 지정관리자의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구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동항의 사업계획서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다음 게재한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문학관의 설치목적에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지정관리자의 후보자로 선정해야 한다.
 - (1) 문학관에 관한 사업을 충분히 행할 능력 및 실적을 가지고 있을 것.
 - (2) 문학관의 효용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
 - (3) 문학관의 관리를 효율적 또는 안정적으로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4. 구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관리자의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관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5. 구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그 취지를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가 [2005년 조례 49호]

(지정관리자의 사업 등)

제 18조 지정관리자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업을 행해야 한다.

- (1) 제2조 제2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 가운데, 구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 (2) 문학관의 이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 (3) 문학관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4) 전 3호에 게재되어 있는 것 외, 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지정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문학관의 적정한 관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가 [2005년 조례 49호]

(위임)

제 19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03년 조례 11호 · 2005년 49호]

부칙

이 조례는 공시 날로부터 계산해 7월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년 3월 규칙 제 19호를,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문학관의 공용개시 날은 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995년 7월 9일=1995년 5월 1일부 세타가야구고시 제 145호)

부칙(1997년 3월 12일 조례 제 11호)

1. 이 조례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에 의해 개정 후, 세타가야구립 세타가야문학관조례규정은 1997년 10월 1일 이후의 관람 및 특별 관람에 관한 관람료 등에 의해서 적용하고 동일전의 관람 및 특별 관람에 관한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로 한다.

부칙(2003년 3월 13일 조례 제 11호)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년 3월 12일 조례 제 10호)

이 조례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년 9월 29일 조례 제 49호)

(시행 기일)

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이 조례의 시행에 즈음해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한 개정 전 제16조의 규

정에 의해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세타가야구립 세타가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함)에 관해서는 2006년 9월 1일(동일 전에 이 조례에 의한 개정 후의 세타가야구립 세타가야문학관조례(이하 「신조례」라 함) 제 1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구의 장이 문학관에 관한 지정관리자(신조례 제 4조 제 11항에 규정하는 지정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의 지정을 할 때는 당해 지정 일까지의 사이 즉 종전의 예로 한다.

3. 구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즉 종전의 예에 의한 것으로 문학관에 대한 지정관리자를 지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학관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자로부터 신조례 제 17조 제 2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동항의 사업계획서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동조 제31항에 규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또한 문학관의 관리에 관한 실적을 고려해 해당위탁하고 있는 자가 문학관의 설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동조 제 11항에 규정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 해당 위탁자를 지정관리자의 후보자로서 성정할 수 있다.

별표 제1 (제 3조 관계)

구분	상설 전시		특별기획 전시
	개인	단체(1인)	
일반	200엔	160엔	1,500엔의 범위 내에 있어서의 구의 장이 그 때마다 정하는 금액
고등학생·대학생	150엔	120엔	
초등학생·중학생	100엔	80엔	
고령자	100엔	80엔	
장애자	100엔	80엔	

비고

1. 단체란 20인 이상을 말함.
2. 고등학생·대학생이란 고등학교의 학생, 고등전문학교, 대학의 학생,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
3. 초등학생·중학생이란 초등학교의 아동 및 중학교의 학생,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
4. 고령자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함.

5. 장애인란 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 법률 제 283호) 제 15조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자 및 동경도 사랑의 수첩 교부요강(1967년 3월 20일 42 民兒精發第 제 58호) 제 1조에 규정하는 사랑의 수첩교부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6. 학령에 도달하지 않는 자, 장애자로 고등학생·대학생 또는 초등학교·중학생 또는 장애자의 보호자(해당 장애자 1인당 1인에 한함.)는 무료로 한다.
7. 특별한 기획전시 그 밖의 구의 장이 지정한 전시 및 사업에 대해 관람료를 납부한 자는 상설전시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부개정 [1988년 조례 11호], 일부개정[2003년 조례 11호·2004년 10호]

별표 제2 (제 4조 관계)

구 분		특별 관람료(1점 1일)	
사진 촬영	모노크롬 (monochrome)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200엔
		출판 등의 수입이 따른 경우	2,000엔
	칼라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400엔
		출판 등의 수입이 따른 경우	4,000엔
비디오 등의 촬영			4,000엔

비고

1. 원고 및 서간은 1장을 1점으로 한다.
2. 서간은 좌우양면을 한 점으로 한다.
3. 그 밖의 문학자료 등은 각개를 한 점으로 한다.

별표 제3 (제 5조 관계)

강의실	구내의 주소, 근무지 또는 통학지로 삼고 있는 자를 주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그 밖의 타 구의 장이 인정한 것
-----	--

참고 문헌 / 웹 사이트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관광 기초연구”, 2004.
_____, “주5일수업제 대비 사회적 교육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2005.
- 경기도,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04.
_____, “경기비전 2006”, 2006.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지도 1』, 2000.
_____, 『경기문화지도 2』, 2000.
_____, “展望2010”, 2005.
_____, “경기문화재단 연감”, 2004.
- 고명철, 『갈날 위에 서다』, 실천문학사, 2005.
-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비평선1, 2005.
- 구인환, 「문예운동 제1과 제1장(문학관의 건립과 창작 지원을 위하여)」,
『문예운동』, 1999.
- 김숙진, “장소 마케팅이 지역이미지와 경제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
구”, 1999.
- 김용웅 외, 『지역발전론』, 도서출판 한울, 2003.
- 김준태, 『20세기 말과 지역문화』, 나남출판, 1997.
- 김형욱, 『고장의 무화판촉: 세계화시대에 지방이 살길』, 학교재신서34.
- 나카무라 미노루, 『문학관의 감상기행』, 신조사
문화관광부, “국민의 정부 새문화관광정책”, 1998.
_____,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 예술의 힘”, 2004.
_____,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4.
_____, “지역가꾸기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_____, “창의 한국”, 2004.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통계”, 2004.
_____, “문화향수실태조사”, 2003.
- 문화관광부·한국출판연구소, “2004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04.
-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박상언, 「한국 지역예술정책의 문제점과 광주문화중심도시의 역할」, 『지역의 비전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 부천문화재단, 『지역문화정책과 도시마케팅』, 디프넷, 2005.
- 서울행정학회,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논문집, 2003.
- 송은옥, “문화시설을 활용한 도시마케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05.
- 윤학로·김점석, 「아라공 문학관의 운영 사례 연구」, 『프랑스학연구』 제30권 별쇄본, 2004
- _____, 「문학관 설립을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2집, 2004
- _____, 「프랑스 문학관의 설립 배경과 발전 과정」,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4집, 2005
- _____, 「프랑스 문학관의 운영 현황과 전망」, 『한국프랑스학논집』 제51집 별쇄본, 2005
- 이현식, 『문화도시로 가는 길 - 지역문학과 문화에 대한 성찰』, 다인아트, 2004.
-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2.
- 전남대학교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 / 광주전남문화연대, “지역의 비전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 전상국, 「문학관 운영의 실태와 과제」, <2004년 한국문학관협회 실무자 워크숍> 자료.
- 정광렬, 「지역문화 정책과 국가 문화발전과의 관계」, 『지역의 비전과 광주문화중심도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5.
- 최수웅, 「지역문화 운영 실태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4권 제1호, 2005.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복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5.
- _____, “생활권 여가 인프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주민 참여 방안 연구”, 2004.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예술경영연수 IV - 문화예술시설운영과정”, 2004.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200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개발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2004.
- _____, 『향토자산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연구보고

서, 2003.

(사)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 『문화의 집 관리·운영 매뉴얼 연구』, 2003.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6개 광역시/도 문화예술진흥정책 현황조사 연구”, 2004.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기지회, “경기도 문화정책의 전망과 경기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역할”, 2004.

각 지역 문학관 홈페이지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ggcf.or.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 www.mct.go.kr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kctpi.re.kr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 www.munhakwan.com

(사)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 : <http://www.museum.or.kr>

かじとおろ, 『自治体の文化政策』, 風響社, 2000.

全國文學館協議, 『會全國文學館ガイド』, 小學館, 2005.

全國文學館協議會會報, 1999.6 ~ 2005.10

日本近代文學館: www.bungakukan.or.jp

世田谷文學館: www.setabun.or.jp

俳句文學館: www2.famille.ne.jp

司馬遼太郎記念館: www.shibazaidan.or.jp

宮澤賢治學科イーハトーブセンター: www.kenji.gr.jp